



마을기록·해녀문화(2025)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사계리 해녀와 마을 이야기

송정희
김완병
양인실
장재희
권미선
강수경

마을기록·해녀문화(2025)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사계리 해녀와 마을 이야기



사계리 해녀와 마을 이야기



ISBN 979-11-994020-8-9
사계리 해녀와 마을 이야기
비매품

사계리 해녀와 마을 이야기

일러두기

- 이 책은 제주학연구센터가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해녀의 삶과 문화를 기록하기 위해 '마을기록-해녀문화조사 사업'을 기획하고 연구 수행한 결과물이다.
- 사계어촌계의 해녀 생업 현장을 파악하고, 해녀 공동체가 함께 일구었던 사계리 마을의 역사, 산업, 유적, 물질 작업과 해녀문화 보전 현황 등을 조사 정리하였다.
- 마을 통계는 조사 시점(2024년, 2025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 구술 자료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구술 내용을 제주어로 제시하고 다음의 괄호() 안에 표준어 대역을 해 놓았고, 표준어로 바꿀 수 없는 어휘는 작은따옴표(' ')를 해서 방언형을 그대로 실었다. 녹취 전사인 경우에 청취가 불가능한 부분을 ***처리를 했다.
- 사진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은 소장처가 제주학연구센터이다.

송정희
김완병
양인실
장재희
권미선
강수경

사계리 해녀와 마을 이야기

발간사	6
-----	---

I. 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10
2. 연구진	11
3. 조사 범위 및 방법	11
4. 현장 조사 현황	12
5. 제보자	15
6. 정리 방법	16
7. 현장 조사 사진	17

II. 사계리와 해녀

1. 마을 소개	26
2. 어촌계와 잠수회	29

III. 사계리 해녀문화

1. 바다밭(바당밭)	44
2. 수확물	69
3. 물때	103
4. 물웃과 물질 도구	108
5. 바깥물질(원정물질)	143
6. 어장관리	161

IV. 사계리 일과 생활

1. 농업	174
2. 수산업	191
3. 공동체 활동	198

V. 사계리 문화유산

1. 역사 문화	222
2. 생활 문화	236
3. 신앙 문화	247
4. 사계리 자연과 해양 문화	268

VI. 마치는 글

마치는 글	296
참고문헌	298
찾아보기	301

사계리 해녀들은 부지런함을 설콧바당에서 배운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의 가치와 제주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고 연구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을 비롯하여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실은 성과는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제주의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해녀의 근면과 지혜 그리고 배려와 희생은 인류의 보편적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탁월합니다.

그동안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마을 기록 사업으로 ‘해녀와 마을 이야기’라는 주제로 제주해녀문화를 다양한 각도의 시선으로 바라보고자, 지역을 순회하면서 해녀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남원읍 위미 2리를 시작으로 2021년 한림읍 귀덕1·2리, 2022년 성산읍 신천리, 2023년 대정읍 일과1·2리, 2024년 조천읍 신흥리에 이어 올해는 안덕면 사계리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여섯 번째 보고서 《사계리 해녀와 마을 이야기》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주해녀들은 물질의 기량에 따라 상군, 중군, 하군으로 구분하며, 사계리에선 해녀를 ‘해녀’, ‘잠녀’, ‘줍녀’, ‘줍수’라 부릅니다. 상군은 ‘대상군’ 또는 ‘큰줍녀’라 하며, 하군은 ‘애기줍녀’ 또는 ‘족은줍녀’라 합니다. 보통 사계리 해녀들은 열여덟 살쯤 되어야 ‘족은줍녀’에서 ‘큰줍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물질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물질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우며, 윗사람들로부터 배움을 이어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 덕목이 바로 부지런함입니다.

‘줍년 애기 낱 사을이민 물에 든다’는 ‘잠녀(潛女)는 아기를 낳은 후 다음 사흘(3일)이면 바다에 가 물질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해녀라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제주에서 살아남으려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갓 낳은 아기마저 집에 놓아두고, 바다나 밭으로 가야만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어린 나이에 물질을 하는 게 힘든 고역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조건에도 굴하지 않고 강인함을 보여주는 제주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제주에는 어딜 가도 한라산이 보이듯, 늘 곁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사계리 해녀들은 산방산 아래의 설콧바당에서 물질하면서 삶의 애환을 나누면서 마을의 정체성과 공동체, 역사문화 자원의 아름다움과 소중함 그리고 협동심과 민주주의를 지켜왔습니다. 사계리 해녀들의 삶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일은 곧 제주의 발전사를 남기는 일이며, 미래 세대의 행복을 위한 발걸음입니다.

이번 조사에 성심성의껏 도움을 주신 이경옥 이장님, 김기범 어촌계장님, 정성수 어부회장님, 강복순 전 잠수회장님, 이복수 잠수회장님 등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구 책임을 맡은 송정희 전문연구원을 비롯하여 공동연구를 함께 한 강수경 전문연구위원, 양인실·장재희 선생님, 권미선 학예사님께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리고 책을 정성껏 만들어준 한그루 출판사 관계자분들께도 늘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제주학연구센터는 해녀문화와 마을 조사를 더욱 부지런하게 진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 보고서가 해녀문화 연구의 기초자료로 잘 활용되길 희망합니다.

2025.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안병**

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2. 연구진
3. 조사 범위 및 방법
4. 현장 조사 현황
5. 제보자
6. 정리 방법
7. 현장 조사 사진

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제주도는 곧 한라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라산이 지닌 자연환경과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이 조화를 이루며 제주만의 독특한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제주의 마을은 크게 한라산에 인접한 중산간 마을과 해안 마을로 구분할 수 있다.

‘마을기록-해녀문화 조사’는 해안 마을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해녀문화에 중점을 둔 연구이다. 현재 제주 는 자연적·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고유한 전통과 공동체 문화가 점차 소멸되고 있다. 특히 해안 마을의 유무형 자원과 인문지리적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해녀 수의 감소로 인해 해녀 역시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 제주 해안 마을의 현직 해녀 수는 2023년 2,839명에서 2024년 2,623명, 2025년 2,371명으로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70 대 이상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해녀 공동체의 고령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해녀문화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전승을 위한 기초 연구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해녀문화는 마을 공동체와 분리하여 존재하기 어렵다. 해녀문화의 기반이 되는 바다밭이 마을의 소유이며, 해녀 공동체 역시 마을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고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녀문화 연구는 마을 공동체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사업명: 마을기록-해녀문화 조사-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 조사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 조사 기간: 2025년 1월~2025년 12월
 - 예비 조사: 2025년 1월~2025년 2월 (1회 진행)
 - 현지 조사: 2025년 3월~2025년 11월 (42회 진행)
- 조사 내용: 사계리 마을 현황, 어촌계와 잠수회, 사계리 바다밭, 해녀 수확물, 물때, 물웃과 물질도구, 바깥물질, 사계리 농업·수산업·공동체 활동, 사계리 문화유산 등
- 조사 방법: 선행 연구 검토, 현장 조사 등

2. 연구진

- 김원병(제주학연구센터장·공동연구)
- 송정희(제주학연구센터·책임연구)
- 양인실(제주대학교 초등도덕교육전공 박사과정·공동연구)
- 장재희(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석사·공동연구)
- 권미선(해녀박물관 학예연구사·공동연구)
- 강수경(제주학연구센터·공동연구)
- 사진: 송동호(사진작가)

3. 조사 범위 및 방법

사계리 조사는 마을 현황, 어촌계, 해녀공동체와 마을 역사, 유무형유산을 대상으로 문헌 조사와 현지 조사를 하였다. 사계리 해녀의 삶, 역사, 환경, 문화 등을 좀 더 사실적으로 담아내기 위하여 현장 답사와 구술 조사 자료를 함께 실었다.

4. 현장 조사 현황

표 1 현장 조사 현황

순번	일시	내용	제보자			자료
			이름	성별	출생년도	
1	2025. 2.17.	- 사업 설명 및 사전 답사 및 문헌 조사	이경옥	남	1957년생	- 사계리지(수집) - 사진 26장
2	2025. 3. 7.	- 소리 물질 현장 조사, 드론 촬영	-			- 사진 35장 - 동영상 42분
3	2025. 3.10.	- 소리 물질 현장 조사 및 어촌계장 면담(어촌계 현황 조사)	김기범	남	1972년생	- 사진 13장 - 동영상 38분
4	2025. 3.12.	- 메역무래 현장 조사 및 드론 촬영 - 이장 면담(마을 유적 현황 조사)	이경옥	남	1957년생	- 사진 64장 - 동영상 31분
5	2025. 4. 8.	- 마을 유적지 현장 조사	-			- 사진 25장 - 동영상 9분
6	2025. 4.22.	- 잠수회장, 사무장, 해녀 면담 (잠수회 운영, 생애담, 물질, 물질도구, 채취물, 출가물질, 어촌계 1년 행사 등)	강복순	여	1957년생	- 사진 29장 - 동영상 2시간17분 - 음원 2시간17분
			이안숙	여	1978년생	
			임성자	여	1943년생	
			고선옥	여	1948년생	
7	2025. 4.26.	- 갯둑이 현장 조사 드론 촬영 및 물질도구 조사	강복순	여	1957년생	- 사진 266장 - 동영상 6분 - 음원 7분
8	2025. 5. 5.	- 부처님오신날 산방골사 봉사활동 조사	이경옥	남	1957년생	- 사진 32장
			장행관	남	1962년생	
9	2025. 5.12.	- 지질트레일 현장 조사	-			- 사진 13장
10	2025. 5.12.	- 마을 유적지 현장 조사	-			- 사진 18장
11	2025. 5.14.	- 마을 유적지 현장 조사 및 이장 면담	이경옥	남	1957년생	- 사진 149장 - 동영상 1시간11분 - 음원 1시간37분
			장행관	남	1962년생	
			고현정	여	-	
12	2025. 5.15.	- 마을 유적지 현장 조사 및 해녀의집 현장 조사	-			- 사진 87장
13	2025. 5.20.	- 해녀 면담(물질, 물질도구, 바깥물질, 채취물 등)	김이선	여	1945년생	- 사진 8장 - 동영상 2시간1분 - 음원 1시간5분
14	2025. 5.27.	- 마을 유적 관련 면담 및 해녀의집 현장 조사	이영택	남	1946년생	- 사진 73장 - 동영상 22분 - 음원 34분
15	2025. 6. 1.	- 마을 유적 관련 면담 및 해녀 면담	이영택	남	1946년생	- 사진 19장 - 동영상 2시간49분 - 음원 5시간44분
			허월자	여	1949년생	
			강경하	남	1938년생	
			김기화	남	1941년생	

순번	일시	내용	제보자			자료
			이름	성별	출생년도	
16	2025. 6. 8.	- 마을 유적지와 농업 현장 조사	-			- 사진 364장
17	2025. 6. 9.	- 어촌계장, 잠수회장, 신입 해녀 면담	김기범	남	1972년생	- 사진 19장 - 동영상 1시간1분 - 음원 1시간
			강복순	여	1957년생	
			정하늘	여	1983년생	
18	2025. 6.23.	- 어부회 현황 및 바깥물질 조사 - 지질트레일 현황과 마을 지형 조사 및 드론 촬영	이경옥	남	1957년생	- 사진 78장 - 동영상 1시간31분 - 음원 1시간30분
			정성수	남	1966년생	
			강미화	여	1960년생	
19	2025. 6.29.	- 성계물질, 해녀 면담	고옥연	여	1945년생	- 사진 42장 - 동영상 1시간7분 - 음원 1시간6분
20	2025. 6.30.	- 성계물질, 마을 당 조사, 해녀 면담, 농업 조사	임성자	여	1943년생	- 사진 79장
21	2025. 7. 3.	- 어촌계 물질체험 조사	이안숙	여	1978년생	- 사진 32장
22	2025. 7.13.	- 농업 조사, 마을 유적 조사	-			- 사진 80장
23	2025. 7.19.	- 바다발 관련, 지질트레일 조사	천영자	여	1954년생	- 사진 52장 - 음원 1시간15분
			김기범	남	1972년생	
24	2025. 7.20.	- 마을 역사 유적 조사(대정향교 선비체험)	고희봉	남	1966년생	- 사진 84장 - 음원 1시간19분
			고미영	여	1966년생	
25	2025. 7.26.	- 지질트레일 참가	신용하	남	-	- 사진 20장
26	2025. 8. 3.	- 바다발, 물질도구, 해녀의집 등 - 대정향교 체험	천영자	여	1954년생	- 사진 57장
			허순옥	여	-	
27	2025. 8. 5.	- 물때, 어장관리, 바다발, 어촌계 시설현황 등	강복순	여	1957년생	- 사진 29장 - 동영상 2시간31분 - 음원 2시간34분
			김기범	남	1972년생	
			이훈탁	남	1978년생	
			김이선	여	1945년생	
			양금순	여	-	
유명자	여	-				
28	2025. 8. 15.	- 농업 조사 등	-			- 사진 66장
29	2025. 8.16.	- 생활유적, 물질도구, 바다발, 신앙유적, 지질트레일 등	신용하	남	-	- 사진 66장
30	2025. 8.25.	- 농업, 생활유적, 신앙유적, 물질도구(공덕상사) 등	-			- 사진 127장
31	2025. 8.31.	- 형제섬 정화 작업 및 드론 촬영	송재규	남	1989년생	- 사진 105장
32	2025. 9. 3.	- 해녀체험, 부녀회 활동 등	김란	여	1971년생	- 사진 17장 - 음원 3시간2분
			이안숙	여	1978년생	
			성민규	남	-	

순번	일시	내용	제보자			자료
			이름	성별	출생년도	
33	2025. 9. 4.	- 돌돔치어방류, 계, 청년회 활동 등	김란	여	1971년생	- 사진 72장 - 동영상 9분 - 음원 54분
			송재규	남	1989년생	
			고현정	여	-	
			강영민	남	-	
34	2025. 9.17.	- 신앙유적, 농업 등	이경옥	남	1957년생	- 사진 37장 - 동영상 37분 - 음원 1시간14분
			문순화	여	1936년생	
35	2025. 9.20.	- 생활유적, 바다발, 농업, 잠수회장 선출 등	김기범	남	1972년생	- 사진 163장
36	2025. 9.28.	- 바깥물질	강미화	여	1960년생	- 사진 10장 - 동영상 1시간23분 - 음원 1시간 24분
37	2025.10. 3.	- 어장관리 등	김기범	남	1972년생	- 사진 8장 - 동영상 1시간 - 음원 1시간6분
38	2025.10.12.	- 생활유적, 역사유적 등 - 드론 촬영	-			- 사진 47장
39	2025.10.17.	- 원정물질, 물질 도구 등	강미화	여	1960년생	- 사진 23장 - 동영상 2분
40	2025.10.26.	- 형제섬 정화작업	송재규	남	1989년생	- 사진 91장
41	2025.10.27.	- 절장개, 어업 관련	이동섭	남	1991년생	- 사진 66장 - 동영상 23분
42	2025.12.7.	- 바다발, 생활유적 추가 드론 촬영	김기범	남	1972년생	- 사진 12장
43	2025.12.15.	- 마을 옛사진 수집 설명	이경옥	남	1957년생	- 동영상 1시간9분
			장행관	남	1962년생	

- 사진은 모바일(Galaxy S23 Ultra, Galaxy Z Flip5, Galaxy S23, Galaxy Z Flip6)과 카메라(SONY A7M4, SONY A6700, DJI Osmo Pocket3), 드론 카메라(DJI Osmo Ari3, DJI Osmo Ari3s), 영상은 카메라 DJI Osmo Pocket3, 음원은 모바일 (Galaxy S23 Ultra, Galaxy S23 Ultra, Galaxy Z Flip5, Galaxy S23, Galaxy Z Flip6)과 녹음기 ROME Wireless PRO를 사용하였다.

5. 제보자

제보자는 사계리 주민과 사계리 출신이거나 인근 지역에서 사계리로 시집와서 오랫동안 살며 해녀 작업을 해온 주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2 제보자 현황

번호	제보자	출생년도	조사 내용
1	이경옥	1957	마을 개관, 마을 유적지, 농업 현황 등
2	김기범	1972	어촌계 현황, 어촌계 시설 현황, 어선 관리, 어장관리, 바다발 등
3	강복순	1957	잠수회 관련, 어장, 바다발, 물질 도구, 물웃 등
4	이안숙	1978	어촌계 1년 행사, 어촌계 해녀 체험, 어촌계 시설 현황, 채취물 판매 관련 등
5	임성자	1943	물질, 물질 도구, 채취물 등
6	고선옥	1948	물질, 물질 도구, 채취물 등
7	장행관	1962	산방굴사 봉사활동, 농업, 옛사진 설명 등
8	고현정	-	마을회 1년 행사, 마을 행정, 마을 유적지 등
9	김이선	1945	해녀 생애담, 물질, 바깥물질, 채취물, 바다발, 물때 등
10	이영택	1946	마을 유적지, 농업 현황 등
11	허월자	1949	마을 유적지, 농업 현황, 물질, 공동체 활동 등
12	강경하	1938	마을 유적지 등
13	김기화	1941	마을 유적지 등
14	정하늘	1983	신규 해녀 관련, 물질, 물질도구, 물웃 등
15	정성수	1966	어부회 현황, 머구리, 어업 관련 등
16	강미화	1960	바깥물질, 물질, 물질도구 등
17	고옥연	1945	해녀 생애담, 물질, 물때, 물질도구 등
18	천영자	1954	바다발, 물질도구, 물질, 물웃, 해녀 생애담 등
19	허순옥	-	바다발, 물질 등
20	고희봉	1966	마을 역사 유적, 대정향교 선비체험 등
21	고미영	1966	마을 역사 유적, 대정향교 선비체험 등
22	이훈탁	1978	신규 해녀 관련, 물질, 물웃 등
23	양금순	-	물때, 어장관리, 바다발 등
24	유명자	-	물때, 어장관리, 바다발 등
25	신용하	-	지질트레일
26	송재규	1989	청년회 관련
27	김란	1971	부녀회 관련
28	강영민	-	계모임 관련
29	문순화	1936	신앙유적, 마을 신앙 관련
30	이동섭	1991	어업 관련

6. 정리 방법

조사한 내용은 사계리와 해녀, 사계리 해녀문화, 사계리 일과 생활, 사계리 문화유산으로 나눠 정리하였다. 보고서는 구술 채록한 조사 내용을 전사하여 분야별로 분류한 후에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원고와 사진 정리를 하였다.

사계리 관련 사진은 연구진이 직접 촬영한 사진과 제주학연구센터 아카이브 사진을 활용하였고 물질, 바다밭, 마을 유적 등 근접촬영·드론촬영(송동호 사진작가)도 병행하였다.

사계리 해녀와 마을에 대하여 생생한 현장감을 표현하고자 관련 구술 자료를 전사하여 제시하고, 제주어로 구술된 내용은 표준어 대역을 함께 수록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구술 내용은 색을 달리하였고 표준어 대역은 괄호 안에 넣어 구분하였다.

7. 현장 조사 사진



사진 1 이경옥 사계리장(2025.2.17.)



사진 2 소라물질 나가는 공영호(2025.3.7.)



사진 3 소라물질(2025.3.10.)



사진 4 메역무레(2025.3.12.)



사진 5 사계리 전복(2025.4.8.)



사진 6 해녀의집(2025.4.22.)



사진 7 강복순 잠수회장(2025.4.22.)



사진 8 갯닦이 현장(2025.4.26.)



사진 13 용머리 해안(2025.5.15.)



사진 14 김이선삼촌 면담(2025.5.20.)



사진 9 산방굴사 봉사활동(2025.5.5.)



사진 10 지질트레일 조사(2025.5.12.)



사진 15 이영택삼촌 면담(2025.5.27.)



사진 16 강경하삼촌 면담(2025.6.1.)



사진 11 단산에서 바라본 사계리(2025.5.13.)



사진 12 이장님과 노인회(2025.5.14.)



사진 17 대정향교(2025.6.8.)



사진 18 이안숙 사무장님 면담(2025.6.9.)



사진 19 김기범 어촌계장님 면담(2025.6.9.)



사진 20 정하늘 신입해녀 면담(2025.6.9.)



사진 25 해녀체험 설명(2025.7.3.)



사진 26 농업 조사(2025.7.13.)



사진 21 정성수 어부회장님 면담(2025.6.23.)



사진 22 성계 손질하는 모습(2025.6.23.)



사진 27 바다밭 현장 조사(2025.7.19.)



사진 28 대정향교 선비체험(2025.7.20.)



사진 23 성계물질(2025.6.29.)



사진 24 사계리 할망당(2025.6.30.)



사진 29 지질트레일걷기 참가(2025.7.26.)



사진 30 바다밭 및 물질도구 조사(2025.8.3.)



사진 31 물때, 어장관리 등 조사(2025.8.5.)



사진 32 농업 조사(2025.8.15.)



사진 37 김란 부녀회장 면담(2025.9.3.)



사진 38 강영민, 고현정 면담(2025.9.4.)



사진 33 지질트레일 조사(2025.8.16.)



사진 34 공덕상사 방문(2025.8.25.)



사진 39 문순화삼촌 면담(2025.9.17.)



사진 40 성계 작업장(2025.9.20.)



사진 35 큰물(2025.8.25.)



사진 36 형제섬 정화활동(2025.8.31.)



사진 41 강미화삼촌 면담(2025.9.28.)



사진 42 김기범 어촌계장 면담(2025.10.3.)

II



사진 43 용천수 조사(2025.10.12.)



사진 44 강미화삼촌 면담(2025.10.17.)



사진 45 형제섬 정화활동(2025.10.26.)



사진 46 이동섭 면담(2025.10.27.)



사진 47 바다밭(2025.12.7.)



사진 48 사계리 옛사진 설명(2025.12.15.)

사계리와 해녀

1. 마을 소개
2. 어촌계와 잠수회

사계리는 서귀포시 안덕면 행정구역에 속하는 마을이다. 서쪽으로 상모리, 북서쪽에 인성리, 북쪽에 안성리, 덕수리, 동쪽에 화순리와 접해 있다. 1132년 지방도에서 남쪽에 형성된 마을이다. 지형의 굴곡이 없이 누룩바위를 자랑하는 사계해안, 사계항(토끼포구), 지질층이 아름다운 용머리 해안, 검은모래 황우치 해안, 형제섬 등 바다밭이 넓게 형성되어 있다. 사계리에는 산방산, 단산, 금산으로 오름이 세 개가 있다. 산과 바다가 함께 공존하는 곳이다.

사계리는 1840년 이전에는 ‘금물로리(今勿路里)’로 표기되었다. 금물로(今勿路)는 ‘今勿[검은-거린]’의 음을 따서 이두 표기를 하고, ‘路[길-궤]’의 훈을 따서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금물로리’는 검은질 마을이라는 뜻이다.

검은질, 검은질. 모슬포 가면 ‘검은질 아이가?’, 화순도 가면 ‘검은질 아이가?’ 하고 경 헤넛었지. 우리 어린 때. 땅이 거머허주게. 우리 금방 난 댕 검은질이렌 헛 말을 많이 듣고, 커갈 때 사계리렌 헛 말 들어서.

(‘검은질’, ‘검은질. 모슬포 가면 ‘검은질 아이냐?’, 화순도 가면 ‘검은질 아이냐?’고 그렇게 했었지. 우리 어릴 때. 땅이 검었었지. 우리 금방 태어났을 때는 ‘검은질’이라고 한 말을 많이 듣고, 커가면서 사계리라고 한 말을 들었어.)

- 허월자 구술

‘금물로리’로 표기된 기록이 처음 기록된 것은 인조 17년(1639년)에 전훈도 강응선이 절제사의 처분을 바라면서 관에 제출한 소지에서이다. 이 기록을 보면 ‘금물로리’ 마을이 최소 1639년 전에 형성된 것을 알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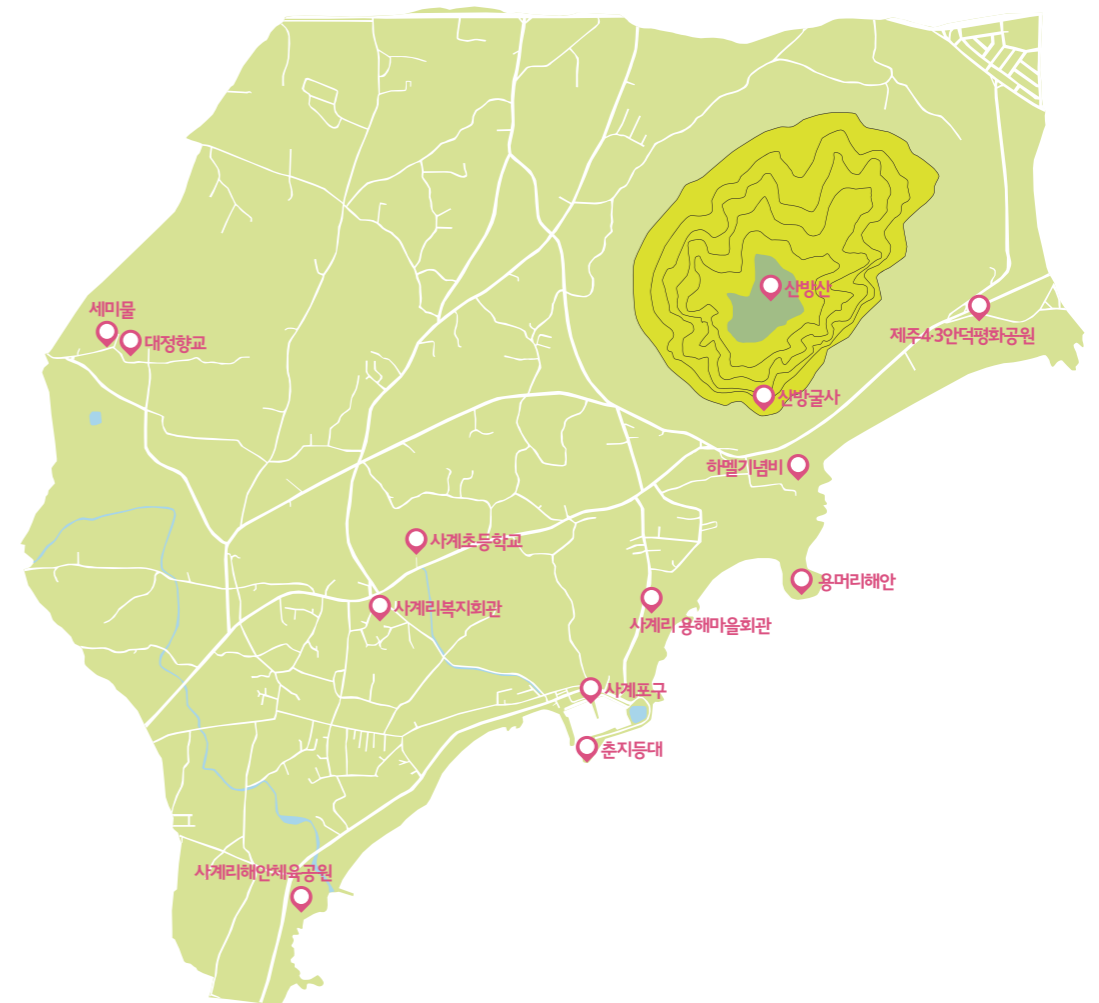


그림 1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행정 구역

어촌계와 잠수회

있다. 1709년 『탐라지도』, 18세기 중반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흑로촌(黑路村)’으로 표기되어 있다. ‘금물로리’의 기록은 『증보탐라지(增補耽羅志)』(1765년) 대정현 면촌 항목에 상금물로(上今勿路), 하금물로(下今勿路)로 표기되어 두 마을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훗날 ‘상금물로’는 신당(새당)이 되고, ‘하금물로’는 사계가 된다. 조선 현종 6년(1840년) ‘금물로리’에서 관청에 첩정을 올릴 때 함께 보낸 ‘금물로리 존위·경민장 서목(今勿路里尊位警民長書目)’에 금물로리는 정조 8년(1784년)경부터 아래쪽에 사계와 위쪽 신당(새당)으로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지금 금물로리라는 마을 이름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하동의 경우 사람들이 사계 혹은 사계 사람이라 부르니, 지금(현종 6년)부터 호적 작성 시 지금까지 사용하던 금물로리 대신 사계리로 마을 이름을 바꾸어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올려 정식으로 관청에 공증을 받아 사용하게 되었다.¹⁾

사계리는 전체 면적이 약 8.08km²이고 사계항을 중심으로 어업과 농업 고루 발달한 지역으로 대전동(大田洞), 송죽동(松竹洞), 용해동(龍海洞), 신항동으로 네 개의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2024년 기준 1,295세대에 총 인구 2,567명(남 1,297명, 여 1,270명, 외국인 제외)이다.²⁾ 4개 동에 28개 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1반부터 11반까지는 대전동, 12반부터 20반까지는 송죽동, 21반부터 27반까지는 용해동, 28반은 신항동이다.

1970년 무렵까지 사계리는 3개의 동네로 구성되었는데 큰밭동네, 솔대왓동네, 설콧동네, 토끼동네이다. 마을은 행정, 신앙공동체이고 동네는 노동공동체로 사계리 동네는 장례공동체로 묶였다고 한다.³⁾ 큰밭동네는 대전동, 솔대왓동네는 송죽동, 설콧동네와 토끼동네는 용해동이다.

1) 사계리 마을회, 『사계리誌-明沙碧溪의 고장』, 대영인쇄사, 2015. 66쪽~80쪽.

2)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구통계 결과보고서 참조.

3) 제주특별자치도·(사)제주섬문화연구소, 『제주도해녀문화총서IV-옛 중문면 안덕면』, 도서출판 각, 2023, 337쪽~338쪽.

2-1. 어촌계 개요

어촌계는 1953년에 수산업법이 제정되었으나 수산업협동조합에 관한 법규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로 설립 운영 중인 어업조합 등 수산단체는 종전의 법규에 따라 그대로 존속되다가 1962년에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제정하며 어촌계 설립 근거가 생기면서 탄생하게 되었다. 어촌계는 지구별 조합의 조합원 20인이상이 발기하여 어촌의 자연부락을 단위로 조직할 수 있다. 어촌계 역할은 어촌자연부락으로 연안공동어장을 중심으로 지선어장관리 등 어민의 자율적 조직으로 연안공동어장을 개발토록 함으로 수협 기능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⁴⁾

제주도 지역 어촌계는 1962년부터 수협법 시행됨에 따라 어촌계가 조직되고 자연부락 단위로 만들어졌



사진 49 리민복지회관(사계리사무소)

4) 강경민 외 3인, 『제주학연구 22 제주도 마을어장관리 변천사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015, 118쪽~119쪽.

다. 제주도 어촌계 계원은 2024년 기준으로 총 4,393명(남 1,151명, 여 3,242명)이고 준계원은 총 131명(남 77명, 여 54명)이다.⁵⁾

사계어촌계는 1979년 9월 22일에 설립되었다. 사계어촌계는 어가수는 100가구이며, 계원 159명(남 56명, 여 108명), 어장관리선(공영호) 1척, 주요 생산품종은 소라, 전복, 해삼, 문어, 성게이다.⁶⁾ 사계어촌계 조직은 계장 1인, 감사 1인, 사무장 1인, 대의원 14명, 수협 이사 1인, 수협 대의원 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촌계 가입 조건은 가입금액 100만원, 거주기간 2년이다.

어촌계는 어촌계복지회관 임대료, 수확물 일부 분배, 사계어촌체험 등의 수입으로 유지된다. 사계어촌계는 해녀체험, 바룻잡기, 테왁무드등 만들기 등으로 사전에 예약을 받고 진행하고 있다.

2-2. 잠수회

해녀공동체의 규약과 관습은 공동체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장관리, 입어권, 채취규정, 금채기, 해금(해채), 벌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⁷⁾ 사계리 잠수회 정관은 다음과 같다.

사계리 잠수회 정관⁸⁾

1. 상호간의 이해와 우의 증진, 수자원 보호와 정화사업
2.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수자원 보호, 불법 어업방지, 수산물 판매, 잠수부의 목적 달성
3. 회원의 자격은 사계 어촌계원으로 60일 이상 작업
4. 선거권, 피선거권, 운영에 참여할 권리, 정관 및 제 규정의 의무 준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 회비 납부 의무

사계어촌계 잠수회 조직은 회장 1인, 부회장 3인, 회원 4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직 해녀는 35명이다. 회원은 조를 6개로 나눠 운영하는데 '사계해녀의집'과 용머리 해안 수산물 판매를 조별로 관리한다. 하루도 빠짐없이 조별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짜여 있다. 수산물 판매 수익은 당일 참석한 해녀들로 공동분배를 한다. 건강상 문제로 물질을 하지 않는 해녀도 어촌계 잠수회 회원으로 남아 있는 한 조에 소속되어 수산물 판매에

5) 해양수산부·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024 어촌계현황조사』, 2024, 참조.

6) 모슬포수협 내부 자료(2024년 기준).

7) 강경민 외 3인, 『제주학연구 22 제주도 마을어장관리 변천사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015, 126쪽.

8) 좌혜경·강정식, 『제주학연구 12 제주해녀문화 실태조사 및 지속 가능한 보전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014, 73쪽.

참여할 수 있다. 회장 선출은 각 조에서 한 명을 회장으로 추천을 하면 추천된 6인과 회장이 회의를 통해 회장을 선출한다. 투표는 하지 않는다고 한다. 신입회원은 잠수회 전원 찬성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현재 신입회원은 3명(남 1명, 여 2명)이다. 신입회원은 공동어장에서 물질을 할 수 없다. 즉 공동어장의 수입은 분배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물질은 일년에 60일 이상, 수입은 120만 원 이상을 해야 해녀를 계속할 수 있는 규칙이 있다. 보름에 3~4일씩 총 6회 정도가 권고사항이다. 매일 해도 상관은 없지만 사건 사고, 건강 등을 고려하여 한달에 8일을 권장하고 있다. 보통 물질하는 시간은 3~4시간이다.

사계리는 넓은 어장 덕분에 다른 지역에 비해 소라 채취량이 많은 편이다. 각 어촌계마다 배정받은 물량보다 더 많이 잡아서 걱정일 정도로 사계리는 어장관리가 잘 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수확한 소라는 어촌계를 통해 배정받은 물량만큼 수협을 통해 유통하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용머리 해안에 있는 '사계해녀의집'을 통해 직접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유통하기도 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소라 어획량이 감소해 고민인데, 이곳 사계리에서는 총허용어획량(TAC)보다 많이 잡을까 걱정할 정도라 하니 어장이 풍요로운 곳임에 틀림이 없다.

사계리에서 해녀를 부를 때는 '해녀', '잠녀', '잠수' 등으로 불린다. 또 물질의 기량이 좋은 해녀는 상군, 또는 대상군 등으로 불리며, 나머지는 중군, 하군으로 불린다. 하군은 쫄병 해녀라는 뜻으로 '족은잠녀' 또는 '애기잠녀'라고 불리기는 해도 '똥군'이나 '톨파리'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쫄병 해녀주게. 톨파리엔도 안 들어 보고, 하군, 그건 우리 족은잠녀, 큰잠녀. 하군이엔도 안 곱아. 족은잠녀. 큰잠녀는 잘 허는 사람. 배우는 아이덜은 열여섯 솔까지 배우는 거. 우리가 부모들안티 돈 버슬어 주건디 열여덟 솔 뉘 난 돈 버슬명, 부모덜 받도 사는디 보테 주곡, 열오답 솔이나 뉘야. 열오답 솔까지는 족은잠녀, 족은잠녀가 큰잠녀 뉘젠 허민, 그때 뉘 가민 큰잠녀가 뉘 가주기. 촛촛촛 배우명 뉘 가는 거난, 솜씨가 좋양 물건 하영 잡으면 큰잠녀, 족영 잡으면 족은잠녀.

(쫄병 해녀지. '톨파리'라고도 들어 보지 않고, 하군, 그거 우리 '족은잠녀', '큰잠녀'. '하군'이라고도 말 안 하지. '족은잠녀'. '큰잠녀'는 잘 하는 사람. 배우는 아이들은 열여섯 살까지 배우는 거. 우리가 부모님께 돈 벌어서 드린 건 열여덟 살 되니까, 돈 벌면서, 부모님 받도 사는 데 보테 주고, 열여덟 살이나 되어야. 열여덟 살까지는 '족은잠녀', '족은잠녀'가 '큰잠녀' 되려고 하면, 그때 되면 '큰잠녀'가 되지. 차차차 배우면서 되 가는 거니까, 솜씨가 좋아서 물건 많이 잡으면 '큰잠녀', 적게 잡으면 '족은잠녀'.)

-김이선 구술

보통 해녀는 그 물질 기량에 따라 상중하 세 부류로 분류한다. ‘상군’은 물질 기량이 뛰어난 해녀, ‘중군’은 물질 기량이 중간쯤 되는 해녀, ‘하군’은 기량이 떨어지는 해녀를 말한다. ‘상군’은 ‘상군바당’에서 물질하는데, 달리 ‘상줍네, 상줍수, 왕줍네, 큰줍네’ 등으로 나타난다. ‘중군’은 ‘중군바당’에서 물질하고, 달리 ‘중줍네, 중줍수’라 한다. ‘하군’은 물질 기량이 떨어지는 해녀를 말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하군을 ‘각줍네’, ‘똥군’, ‘볼락줍네’, ‘족은줍네’, ‘톨파리’, ‘하줍네’, ‘하줍수’ 등 다양하게 부른다.⁹⁾ 사계리에서는 하군을 ‘족은줍네’라고 부르고, 상군은 ‘큰줍네’라고 부른다. ‘족은줍네’에서 ‘큰줍네’가 되는 과정이 차차 배우다 보면 되어간다는 말에서 점점 익어가는 연륜을 느낄 수 있다.

추우면 보통 세 시간 하고, 상군들은 네 시간, 상군들은 저희보다 한 시간 더 해요. 배가 한 번 실으러 와요. 우리 내려주고 다시 상군 데리러 가요. 한 시간 차이가 나요.

-정하늘 구술

상군의 기량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어장관리선이 해녀들을 실으러 갈 때에도 상군들은 네 시간 정도 작업을 하고, 보통의 해녀들은 세 시간을 작업하기 때문에 어장관리선이 두 번에 걸쳐 해녀들을 데리러 바다에 나간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사계리에는 ‘할망바당’이 따로 있지 않다. 나이가 많은 해녀는 얇은 바다에서 물질을 하고 상군, 중군은 수심이 깊은 바다에서 물질을 한다. 할망이 하군인 셈이다.

할망바당, 할망바당 하는데 나이 드신 더 막 나이 드신 분들은 기픈 데 못 들어가니깐 수심 아픈 데 들어가고, 할망바당은 따르는 없고, 우리 상군, 중군, 하군이 있는데 상군들도 수심 기픈 데 들어가갈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깐, 젊으니깐 하는데 하군들은, 할망이지. 할망들은 수심 기픈 데 못 들어가 이제는 나이 연세가 있다 보니깐, 그러니깐 수심 아픈 데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지금 분쟁이 생기는 부분이야. 젊은 애들이 수심 아픈 데부터 싹 잡아가지고 수심 기픈 데 들어가볼면은 할망들은 잡을 게 없거든. 근데 지금 상군들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기픈 데 들어가면은 아맹해도 수심이 있기 때문에 힘들거든. 물량이 많은데 아픈 데서도 많이 잡을 수 있고 하는 여건이 있다 보니

9)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도서출판 각, 2024, 35쪽.

칸. 그런 게 요즘 좀 그걸 할망바당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예.

-김기범 구술

기량이 뛰어난 상군, 중군 해녀들이 수심이 낮은 곳부터 수심이 깊은 곳까지 물질을 하면 사실 하군인 할망들은 잡을 것이 없게 된다. 이런 부분에 김기범 어촌계장은 고령의 해녀들을 위한 ‘할망바당’ 기획을 잡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잠수회에서 현재 활동하는 해녀 35명 중 최고령은 해남 임동옥으로 88세이고 가장 어린 해녀는 신입 해녀 정하늘으로 40 대이다. 현재 신입 인턴 해녀가 세 명 있다. 그중 해남도 한 명 포함된다. 가입 조건은 그냥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사계리에 거주해야 하며, 2~3년 정도의 인턴 기간을 거쳐야 한다. 또 어촌계 가입비 100만 원은 도청 서귀포시 행정(해양수산과)에서 보조금으로 지원받았다. 예전에 마지막으로 가입했던 신규 해녀는 가입비 1,000만 원 정도를 내고 공동어장 작업은 5년 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신규 해녀들은 일인 백만 원씩 어촌계 회비를 받았는데 그해 해녀회에 들어가잖아예. 근데 옛날 해녀 삼촌들은 초기에 들어갈 때 거의 돈 천만 원정도 냈고 해녀회에 들어왔다더라고요. 그리고 한 오 년 동안은 양식장(공동어장) 작업을 못하고.

-이안숙 구술

신입 해녀를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어촌계장이 혼자 결정할 수도 없고 사계어촌계로 들어오겠다는 신입 해녀가 종종 있지만 잠수회에서 승낙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어촌계장이 무리하게 신입 해녀를 받아도 사실 잠수회에서 모든 일에 배제하면 견딜 수가 없게 된다. 김기범 어촌계장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어 무리하게 신입 해녀를 받지 않고 있다.

왜냐면 해녀회에서 해줘야지. 잘못하면 왕따시켜볼면, 왕따해가지고 해녀 잘 못쳐. 딱 못쳐볼면 헤어 나오질 못해. 신규 해녀 할려고 했는데 해녀들이, 이번 들일라고 했는데 반대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냥 내가 받을 순 있어. 어촌계장 재량 것. 하지만은 적응하는 건 당사잔데 배척을 해버릴 건데 살아나질 못할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받아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해녀들이 아직까진 완강하니깐. 눈치보고 안 해주려고 하는데, 또 지금은 아닌 거 같다 해가지고, 대포로 갔거든 한 오십 된 여자분 있었는데.

-김기범 구술

신입 해녀 세 명 중에 해녀 정하늘은 해남 이훈탁의 소개로 들어왔다고 한다. 서핑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라고 한다. 해남 이훈탁도 서핑을 했는데 물질은 서핑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한다. 신입 해녀 정하늘은 아직도 물질을 가게 되면, 전날 밤부터 잠을 설치거나 긴장된다고 한다. 물속에 들어가기 전, 차가운 바닷물을 생각하면 가기 싫은 마음이 한가득이었다가도 바다에 갔다 오면 마음이 시원해진다고 말한다.

잠 설치요. 하루 전에, 다음날 '물질이다' 이려면, 전날 잠 설치요. 몇 번 깨요. 자다가. 아직까지 싫거든요. 이게, 물질 끝나고 나오면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는 추우니까, 아, 가기 싫어하는데. 나오고 나면 시원해.

- 정하늘 구술

2-3. 어촌계 시설

사계어촌계 시설은 어촌복지회관, 해녀탈의장 2곳, 수산물직판시설, 선주처사무실, 어장관리선, 사계해녀의집이다. 탈의장은 사계 어촌계 사무실 바로 앞에 있는 잠수탈의장과 사계 해안 체육공원 안에 있는 '절장개탈의장'¹⁰⁾이다.

표 3 사계어촌계 시설 현황(2025년 기준)

연번	시설명	위치	면적(단위: m ²)
1	어촌복지회관	형제해안로 13-1	678.51
2	잠수탈의장	형제해안로 16	82.64
3	절장포탈의장	형제해안로 127(3530-6)	455
4	수산물직판시설	형제해안로 13-1	120.67
5	선주처사무실	형제해안로 13(3032-46)	100(대지), 24.2(건평)
6	어장관리선	선명: 공영호	톤수: 6.67t
7	사계해녀의집	안덕면 사계남로 216번길 24-32번지	-

10) 절장개를 사계리 주민들은 절장포, 절장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른다.

2-3-1. 어촌계 사무실

어촌계 사무실은 어촌계 복지회관 맞은편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다. 건물은 사계어촌체험관으로 명칭되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소유이며 관리는 서귀포시에서 하고 있는 건물이다. 무상 임대로 사용하고 있다. 1층은 사계어촌계사무실이고, 2층 영어조합 법인 바당사람들 사무실이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사계해양자율방재단도 같이 있다. 1층 사무실은 해녀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작은 회의실이 있고, 샤워장, 화장실, 창고 그리고 어촌계 사무실이 있다. 풍어제(잡수굿)를 할 때도 여기 회의실을 정리해서 제장으로 삼아 의례를 한다.



2-3-2. 잠수탈의장

사계리 잠수탈의장은 사계항과 인접해 있는 사계해안로 건너편에 1970년대 중반에 지어졌다. 지번은 사계리 2147-41번지로 되어있으나 도로와 인접해 있고 주차장에 포함된 주소지이다. 서귀포시는 이 주소지를 도로라고 하며 잠수탈의장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계항어촌뉴딜300 사업으로 어항기반시설 개선, 복합 어항으로 기능 확장 등으로 복합 공간을 조성하여 잠수탈의장을 이전하기로 하였다. 현재 잠수탈의장 공간은 크게 어울림 공간과 목욕탕 공간으로 나뉘고 건물 뒷편에 물질도구 보관하는 공간이 덧붙여져 있다.

사진 50 사계어촌체험관

사계리 해녀탈의장은 두 군데, 절장포, 절장개에 절장포탈의장이 지금. 거기가 체육공원 안에 있는, 여기 지금 탈의장은 권한이 없어. 옛날에 도로로 뚫나가지고, 옛날 칠십 년대에, 칠십오 년도인가 칠십사 년도인가, 그때는 막 그런 게 없어가지고 탈의장을 그냥 지어버렸어. 그때 당시는 경 철 추세다 보니까, 지금은 나라에서 땅을 찾기 위해서, 경 안 해도 지금 서귀포에서 강제 집행한다고 해서 하는 중인데, 우리 일 년 동안 여유 좀 줘라, 지금 당장

갈 데도 없고, 어쨌든 건물 지으면 글로 갈 거니까, 그때까지 좀 봐줘라 해가지고 지금 연기시킨 상태. (사계리 해녀탈의장은 두 군데, '절장포', '절장개'에 '절장포탈의장'이 지금. 거기가 체육공원 안에 있는, 여기 지금 (잠수)탈의장은 권한이 없어. 옛날에 도로로 되어있어서, 옛날 칠십 년대에, 칠십오 년도인가 칠십사 년도인가, 그때는 막 그런 게 없어서 탈의장을 그냥 지어버렸어. 그때 당시는 그렇게 하는 추세다 보니까, 지금은 나라에서 땅을 찾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서귀포에서 강제 집행한다고 해서 하는 중인데, 우리 일 년 동안 여유 좀 줘라, 지금 당장 갈 데도 없고, 어쨌든 건물 지으면 거기로 갈 거니까, 그때까지 좀 봐줘라 해서 지금 연기시킨 상태.)

-김기범 구술



사진 51 잠수탈의장(갯댕이 준비하는 해녀들)

잠수탈의장은 해녀들에게는 접근성이 좋지만, 관광객을 실은 버스와 렌트카가 끊임없이 다니고 교통량이 많아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

2-3-3. 절장포탈의장(절장개탈의장)

절장포탈의장은 안덕면 형제해안로 127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사계리해안체육공원 내에 자리하고 있다. 1993년에 건립되어 사용되었으나, 2000년 이후 현재까지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는 사계어촌계에서 어장관리선 공영호를 활용하여 물질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절장포탈의장은 사계포구와 거리가 있고 체육공원 내에 위치해 있어, 선박을 이용한 물질 환경에서는 탈의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여건이다.



사진 52 절장포탈의장

공영호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해녀들이 걸어서 '바다뱃'으로 이동하였고, 채취한 수확물을 직접 짚어진 채 다시 탈의장으로 돌아왔다. 바다에서 수확물을 건져 올리는 일 자체는 고된 노동이지만, 이를 육지까지 운반하는 과정 또한 큰 부담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공영호가 운항되면서 해녀들은 원하는 '바다뱃'으로 직접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수확물을 힘들게 육상으로 옮길 필요가 줄어들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절장개탈의장은 점차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2-3-4. 수산물직판시설과 선주처사무실

수산물직판시설과 선주처사무실은 사계항 사계어촌계체험관 옆에 있다. 지금은 비어있는 상태로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사계항 정비를 하게 되면 다시 사무실이 생길 상황이다.

2-3-5. 어장관리선 공영호

공영호는 6.6t 배이다. 2000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공영호 선박 옆부분에 계단이 있어 해녀들이 물에 들거나 나올 때 사용한다. 또한 크레인이 있어 수확물이 담겨져 있는 '테왁망사리와 망사리'를 들어 올려 배에 싣는 작업을 한다. 이는 사계항에 도착하면 배에서 수확물을 항구에 내리는 작업에도 사용된다.



사진 53 어장관리선 공영호

우리 전전 계장은, 예. 그냥 어촌계장 하고 사공 한 사람 뉘가지고 품삯을 줘가지고 따로 했었어요. 사공 따로 계장 따로 했는데 이 사공비가 작아. 솔직히 말해가지고 사공비가 돈이 얼마 안 돼. 그니깐 전에 그냥 나 이 드신 분 배 타고 했던 분이 투잡으로 뱃일하다가 시간 되면 해녀 테왁 오고 그렇게는 됐었는데, 지금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어촌계장이 다 할 수 있는 여건, 또 차후에 무슨 일이라도 하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있고.

-김기범 구술



사진 54 1990년대 공영호(어촌계 제공)



사진 55 2000년대 공영호(어촌계 제공)



사진 56 사계어촌계복지회관



사진 57 사계해녀의 집

초창기에는 공영호에 사공을 한 사람 뒤서 품삯을 주며 운영을 했었는데 품삯이 많지 않아 일하려는 사람이 없다 보니 지금은 어촌계장이 직접 운항을 하고 있다. 혹시 차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문제도 있어서 가급적 어촌계장이 직접 운항하는 것을 원하는 실정이다. 지금 현 어촌계장은 이십여 년 어부로 생활해 왔고 배도 있는데 자신의 배는 임대해 주고 지금 공영호를 운항하고 있다.

2-3-6. 사계어촌계복지회관

사계어촌계복지회관은 안덕면 형제해안로 20번지에 위치해 있다. 사계어촌계 사무실이 있던 자리에 1995년에 3층으로 새로 건물을 지은 것이다. 사계어촌계복지회관 2층에 어촌계사무실을 두고 사용하다가 사계

어촌체험관을 지으면서 어촌계사무실은 사계어촌체험관으로 이전을 하고 사계어촌복지회관은 식당으로 임대해준 상태이다. 임대비는 어촌계 발전기금으로 쓰여지고 있다.

2-3-7. 사계해녀의 집

사계해녀의 집은 안덕면 사계남로 216번길 24-32번지에 위치해 있다. 사계해녀의 집과 인접한 커피숍 건물 모두 사계리 마을 소유이다. 현재는 어촌계에서 마을회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 계약은 5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다. 임대료는 5년 치를 일시불로 납부한다. 과거에는 사계해녀의 집 맞은편에 하멜 선박이 전시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 철거된 상태이다.

사계해녀의 집은 잠수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다. 잠수회는 6개 조로 편성되어 있으며, 조별로 순환 방식으로 운영을 맡고 있다. 또한 조원 순번에 따라 용머리 해안 현장 판매도 병행하고 있다.

용머리 해안에서 해산물 판매를 하는 곳은 총 2곳으로 한 곳은 마을 부녀회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한 곳에서 잠수회 담당으로 해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날씨 문제만 아니면 하루도 빠짐없이 용머리 해안 해산물 판매를 한다. 요즘은 해수면 상승으로 판매를 못하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경우



사진 58 용머리 해안 해산물 판매



사진 59 1991년 용머리 해안 해산물 판매 모습(어촌계 제공)

는 사계해녀의집에서 판매를 한다. 판매 수익은 출석한 조원들이 균등 분배를 한다. 은퇴한 해녀인 경우에도 사계해녀의집 운영에는 참여하고 있다. 이는 마을 공동체·어촌계·해녀 조직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운영 체계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2-4. 어촌계 활동

어촌계 활동으로 해녀체험, 바룻잡기, 테왁무드등 만들기, 스노쿨링 등이 있다.

해녀체험과 바룻잡기는 6월~9월까지 진행한다. 1일 체험으로 초등학생 3만 원, 성인 5만 원으로 3명 이상 신청하면 가능하다. 해녀체험은 해녀 영상과 물질체험 주의 사항, 도구 설명 등 PPT를 활용하여 사전 설



사진 60 해녀체험 사전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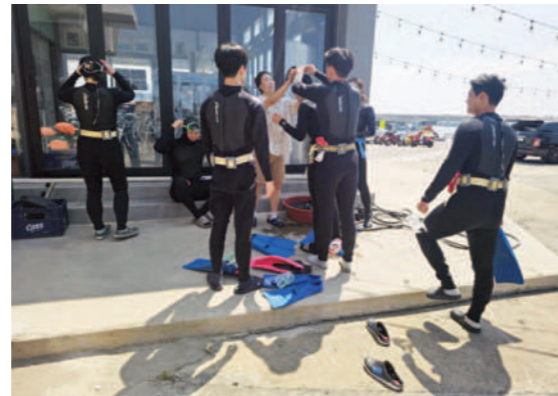


사진 61 해녀체험 잠수복 착용



사진 62 해녀체험 물에 들기



사진 63 해녀체험 바다로 나가기



사진 64 사계항 (사계포구, 토끼항)

명을 하고 물웃은 해녀들이 입는 고무옷이 아니고 잠수부들이 입는 웨트슈트를 입는다. 해녀가 입는 고무옷은 생고무로 만들어진 것으로 입고 벗을 때 잘 찢어진다고 한다. 체험 시 복장은 웨트슈트, 물안경, 양말, 오리발, 장갑, 모자, 연철을 착용하고 테왁을 가지고 체험한다. 해녀 2명과 함께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많은 분들이 예약을 하고 있다.

체험이 끝나고 채취한 수확물로 라면을 끓여 먹는 것으로 마무리를 한다. 체험하는 사람들이 조금 쉽게 채취물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해녀들이 미리 해산물을 체험 공간에 뿌려 놓는다고 한다.

바룻잡이, 테왁무드등 만들기 등은 해녀체험만큼 큰 호응이 있는 것은 아니다. 바룻잡이는 초등학교에서 단체로 신청해서 체험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물이 빠지는 시기를 맞춰야 하고 해서 낱짜를 쉽게 맞추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테왁무드등만들기는 물때와 상관없이 체험활동을 할 수 있지만 예약률이 높은 편은 아니다.

사계리 해녀문화

1. 바다밭(바당밭)
2. 수확물
3. 물때
4. 물웃과 물질 도구
5. 바깥물질(원정물질)
6. 어장관리

사계리 바다는 동쪽으로는 화순리가 인접해 있고 서쪽으로 상모리가 인접해 있다. 해안선은 들고남이 없이 대각선으로 길게 뻗어 있다. 용머리 해안 정도가 볼썽 튀어나온 모양새다. 그리고 형제섬까지 사계리 바다이다. 사계리와 화순리의 경계인 ‘소금막’에서부터 상모리와와의 경계인 ‘똥물내리는디’까지 사계리의 바다밭이다.

사계리 바다는 크게 ‘황우치-설콤바당-앞바당-납데기-군여코지-절장개-형제섬’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4 사계리 바다밭 현황

구분	지경	주변 작은 여	주요 수확물
1-1	소금막	-	-
1-2	황우치	-	-
1-3	설콤바당	설콤바당, 날콤바당, 설콤원, 빌레원	소라, 오분자기, 멸치, 전복, 해삼
1-4	앞바당	원등어리, 노릿여, 거리릿여, 시여, 동신여, 작은동신여, 진여, 벌러진여지미, 고도리왓지미, 곱은개, 앞원, 불락통, 불락여, 개창여, 올코지, 벌러진여, 지미여, 연덕물은걸	미역, 소라, 성게, 전복
1-5	납데기(넙데기)	안여, 밧여, 납데기, 선제코지, 선짓여	미역, 소라, 성게
1-6	군여코지	군여코지, 주넛밭	미역, 소라, 성게
1-7	절장개(절잔개)	절장개, 절장개원, 방파제, 몽생이여, 신동여, 여배파흔여, 절장개원코지, 웅다리창, 외튼덕, 똥물내리는디	미역, 소라, 성게, 오분자기, 해삼
1-8	감태여	동순여, 감태여, 볏양지미, 물레통, 안동순여, 작지곳, 방에여	소라, 성게, 해삼
1-9	안여	안여, 밧여(홍합여), 너벅여, 노픈여, 숨은여, 가마리왓, 장이여, 막여	소라, 전복
1-10	형제섬	개맛디, 막살이불턱, 섯정지, 웃선목, 문섬	소라, 전복

바당이 널러. 형제섬도 저기 한 바퀴 저거고. 용머르. 그 옆에 황우치고 삼밭이 신 디도 우리가 갔다 와. 저기 가면은 또 절잔개. 거기까지 너무 널러. 바당이

(바다도 넓어. 형제섬도 저기 한 바퀴 저거고. 용머리. 그 옆에 ‘황우치’고 삼밭이 있는 데도 우리가 갔다 와. 저기 가면은 또 ‘절잔개’. 거기까지 너무 넓어. 바다가.)

-강복순 구술

사계리의 바다 어장은 형제섬까지 이어지는 해역을 확보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어장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마을 공동어장으로는 ‘납데기’와 ‘군여’, ‘설콤’ 등이 있다.

1-1. 소금막

‘소금막’은 ‘황우치’ 해변 동쪽 끝부분에 위치한다. 소금을 만들고 채취하기 위해 막을 지어 생활했다고 하여 그 지경을 ‘소금막’이라 불렀다고 하고 ‘쫄물빌레’라고도 하였다.¹¹⁾ 지금은 물질을 하지 않는다.



사진 65 소금막

11) 사계리 마을회, 『사계리誌-明沙碧溪의 고장』, 대영인쇄사, 2015, 202쪽.

사계리 '바다밭'



- | | |
|-----------|------------|
| 1 소금막 | 35 군여코지 |
| 2 황우치 | 36 주넷밭 |
| 3 삼밭이 | 37 절장개 |
| 4 용머리 | 38 절장개원 |
| 5 날콤바당 | 39 방파제 |
| 6 설콤바당 | 40 몽생이여 |
| 7 설콤동네 | 41 신동여 |
| 8 토끼동네 | 42 여배파혼여 |
| 9 설콤원 | 43 절장개원코지 |
| 10 빌레원 | 44 용다리창 |
| 11 원등어리 | 45 외툰덕 |
| 12 노릿여 | 46 툽물내리는디 |
| 13 거리릿여 | 47 동순여 |
| 14 시여 | 48 감태여 |
| 15 동신여 | 49 북양지미 |
| 16 죽은동신여 | 50 물레통 |
| 17 진여 | 51 안동순여 |
| 18 벌러진여지미 | 52 작지곳 |
| 19 고도리왓지미 | 53 방에여 |
| 20 개당할망당 | 54 개맛디 |
| 21 굽은개 | 55 막살이불턱 |
| 22 앞원 | 56 섯정지 |
| 23 불락통 | 57 웃선목 |
| 24 불락여 | 58 문섬 |
| 25 개참여 | 59 물앞의 |
| 26 울코지 | 60 안여 |
| 27 벌러진여 | 61 밧여(홍함여) |
| 28 지미여 | 62 너벅여 |
| 29 연티물은걸 | 63 노픈여 |
| 30 안여 | 64 숨은여 |
| 31 밧여 | 65 가마리왓 |
| 32 납대기 | 66 장이여 |
| 33 선제코지 | 67 막여 |
| 34 선짓여 | 68 안여 |



산방산, 사계포구, 남데기 해변



형제섬



빌레원



절장개에서 성게물질하는 해녀들(2025.6.23.)



소리물질을 위해 원하는 바다밭에 들어가고 있는 사계리 해녀들(2025.3.7.)



남데기에서 메역무레하는 해녀(2025.3.12.)

1-2. 황우치

‘황우치’는 사계리와 화순리 바다의 경계인 ‘소금막’과 용머리 사이의 바다로 사계리 바다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해 있다. 사계리 3635번지 동쪽 끝에서 산방연대 가기 전까지이다. 지금은 해안사구보전 지역으로 선정되는 과정에 있어 해녀 물질을 금하고 있다. 과거에는 사계리와 화순리 해녀들의 공동 어장이기도 하였다.

1994년 화순항 방파제 설치 후 조류가 갯곳을 끼고 돌아나가는 후내기 현상 때문에 모래밭인 ‘황우치’의 모래가 쓸려 화순항을 메우게 되었다. ‘황우치’ 모래 유실과 화순항 모래 적체 현상을 막고자 2014년 ‘황우치’ 앞바다 속에 대량의 삼발이를 투하하였다.¹²⁾

‘황우치’ 바다에 삼발이를 투하하니 오히려 바다 환경이 개선되어 미역, 소라 등이 많아졌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물질을 할 수 없는 바다이다.



사진 66 황우치 해변과 삼발이

12) 제주특별자치도·(사)제주섬문화연구소, 『제주도해녀문화총서IV-옛 중문면 안덕면』, 도서출판 각, 2023, 350쪽.

황우치에서 소금막까지 우리 사계 바당. 우리가 강은에 잔소라를 잡아다가 여기 투하하여. 소라 새끼를 비와가지고 크면은 우리가, 그냥 자연산인 거. 삼발이를 놓으면은 그 물 먹젠 물건들이 완전 달려드는 거. 거기 삼발이 놓젠 하난 돌 이만큼 찢다니까. 세 군데 이렇게 길게 놔어.

(‘황우치’에서 ‘소금막’까지 우리 사계리 바다. 우리가 가서 새끼 소라를 잡아 여기에 투하하지. 새끼 소라를 부어서 크면 우리가, 그냥 자연산인 거. 삼발이를 놓으면 그 물 먹으려고 물건들이 완전 달려드는 거야. 거기 삼발이를 놓으려고 하니깐 돌 이만큼 만들었다니깐. 세 군데 이렇게 길게 놔어.)

- 천영자 구술

1950년대 초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황우치’ 해변(당시 화순 항만대)에는 미군 상륙함(LST)이 하루 2척 이상 접안 했던 곳이기도 하다. 현재 ‘황우치’ 해변 백사장에는 모래 및 토사가 침식돼 2m 이상의 급경사가 생겼고, 여기저기 커다란 돌들이 나뒹굴고 있다. 해수부는 ‘2018년 연안침식 실태 조사’에서 1990년대부터 시작된 ‘황우치’ 해변 동쪽의 화순항 개발로 인해 ‘황우치’로 모래 공급과 이동이 차단됐다고 밝혔다. 백사장 모래가 사라지자 암반 지대까지 침식됐고 이후 백사장 주변 토사가 쓸려나가고 배후사구의 숲 지대도 점차 붕괴했다.¹³⁾

옛날에 군인들 정박하던 디는 황우치. 모살밭에.

(옛날에 군인들이 정박하던 곳은 ‘황우치’. 모래밭에.)

- 고옥연 구술

1-3. 설콧바당

‘설콧바당’은 동쪽에는 용머리가 있고 서쪽에 ‘울코지’가 있는 해안가이다. 갯바위가 있는 ‘설콧’, 모래사장인 ‘날콧’으로 구분된다. ‘설콧바당’은 용머리와 ‘울코지’ 사이 안쪽 바다이다보니 조류가 잔잔한 편이다. ‘설콧바당’ 위에 자리 잡은 마을을 ‘설콧동네’라 부른다. ‘설콧바당’은 ‘설콧’, ‘날콧’, ‘설콧원’, ‘빌레원’을 모두 통틀어 부른다.

13) 고성석, 「[해안사구의 재발견]③제주 황우치 해변에 33만t 모래 붓고도 침식 막지 못해」, 『연합뉴스』, 2025. 6. 29. (<https://v.daum.net/v/20250629080205480>(검색일 2025. 11. 30.))



사진 67 설콧바당(날콧과 설콧)

황우치 바당 삼밭이에 새끼소라 물질행 오민 여기 설콧, 날콧에 방은에 키왕. 여기 거는 수협으로 보내는 용이 아니. 용머리 장사용으로 쓰는 거지.

(‘황우치’ 바다 삼밭이에 새끼소라 물질해서 오면 여기 ‘설콧’, ‘날콧’에 넣어 키워. 여기 거는 소리는 수협으로 보내는 용도가 아니라. 용머리 장사용으로 쓰는 거지.)

-천영자 구술

1-3-1. 설콧원

‘설콧원’은 검은 빛의 돌들이 널찍하게 깔려 있는 누룩빌레¹⁴⁾로 형성된 원¹⁵⁾이다. ‘토끼동네’ 앞바다인데 지번으로는 사계리 2032-51번지 앞 바다이다. ‘설콧원’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졌고 예전에는 전복과 멸치가 많았다고 한다. 특히 해삼은 일반 해삼의 크기보다 세 배나 크다고 한다.



사진 68 설콧원과 빌레원

여기 설콧바당은 누룩빌레라. 원은 자연으로 만들어진 거. 옛날에 전복 하영 낚주. 멸도 많아 나고. 해삼은이. 용머리 해삼은 크기가 보통에 세 배라.

14) 누룩빌레는 검은 빛의 푸석푸석하고 넘죽하게 깔린 돌을 말한다.

15) 원은 석방림의 제주 방언으로 해변 조간대에 만을 이루는 듯한 곳에 돌담을 축조해 놓고 밀물을 따라 몰려든 고기떼를 썰물이 나면 그 안에 가둬 놓아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장치해 둔 곳을 말한다.

(여기 '설콧바당'은 '누룩빌레'야. 원은 자연으로 만들어진 거. 옛날에 전복 많이 낚지. 멸치도 많았고. 해삼은. 용머리 해삼은 크기가 보통의 세 배야.)

-천영자 구술

1-3-2. 빌레원

'빌레원'은 '설콧원'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빌레원' 서쪽으로는 사계 방파제가 자리하고 있다. 오분자기와 멸치가 잡혔다고 한다.

빌레원은 오분제기영 멸.

('빌레원'은 오분자기하고 멸치.)

-천영자 구술

1-4. 앞바당

'앞바당'은 사계항에서 남쪽으로 있는 바다를 말한다. 물살이 거세고 수심이 깊은 바다인 '앞바당'은 '올코지'를 중심으로 '원등어리', '노릿여', '거리릿여', '시여', '동신여', '족은동신여', '진여', '벌러진여지미', '고도리왓지미', '곱은개', '앞원', '볼락통', '볼락여', '개창여', '벌러진여', '지미여', '연디묻은길'과 같이 많은 여를 거느리고 있다. '앞바당'의 주요 수확물은 소라이고 이 외 미역과 성계, 전복이 있다. 예전에는 돌 사이사 이 고기들이 많았다는데 사람을 잡아먹는 고기가 나왔다는 여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을 수 있었다. 수심이 깊은 여 주변으로 조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물질할 때는 물때를 잘 맞춰야 한다.

1-4-1. 노릿여

'노릿여'는 '빌레원' 옆에 위치한 여¹⁶⁾이고, 미역이 난다고 한다.

16) 여는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않는 바위를 말한다.



사진 69 앞바당

노릿여는 미역. 미역 나주.

('노릿여'는 미역. 미역 나지.)

-천영자 구술

1-4-2. 시여

'시여'는 '노릿여'와 '거리릿여'에서 동쪽으로 자리하고 있다. 사계 방파제 등대를 기준으로 주변에 여들이 많다.

등대 조금 동쪽에 와야 시어. 다 등대 앞에 여들이 많아. 시어는 저 등대 앞이 등 뒤에서 조금 동편이난 시어.
(등대 조금 동쪽에 오면 '시어'. 다 등대 앞에 여들이 많아. '시어'는 저 등대 앞의 등 뒤에서 조금 동쪽이 '시어'.)
-천영자 구술

1-4-3. 동신여

'동신여'는 '시어'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다.

동신여. 여기 안더레 밧더레.
('동신여'. 여기 안으로 밖으로.)
-천영자 구술

1-4-4. 진여

'진여'는 '동신여' 옆에 위치한 여이고 소라와 성계가 주로 잡힌다.

진여는이. 소라영 성계.
('진여'는. 소라하고 성계.)
-천영자 구술

1-4-5. 벌어진여지미¹⁷⁾

'올코지' 뒤에 위치한 '벌어진여지미'는 '벌러진여'라고 한다. 이곳에서는 소라가 주로 잡힌다.

벌어진여지미는 벌러진여렌 허주게. 거기선 소라.
('벌어진여지미'는 '벌러진여'라고 하지. 거기서는 소라.)
-천영자 구술

17) 지미는 바닷속 바위의 구렁진 곳을 일컫는 제주 방언이다.

1-4-6. 고도리왓지미

'고도리왓지미'는 '벌어진여지미' 뒤에 위치하고 있다. 예전에 사람 잡아먹는 고기가 나왔다고 '가다리왓지미'라고도 불렀다.

고도리왓지미는 가다리왓지미렌 허주게. 사람 잡아먹는 궤기가 나오난 가다리.¹⁸⁾
('고도리왓지미'는 '가다리왓지미'라고 하지. 사람 잡아먹는 고기가 나와서 재방어.)
-천영자 구술

1-4-7. 불락여

'불락여'는 사계항 방파제 김춘지등대 근방에 위치하고 있는 여다. 검은 돌들이 많이 있고 돌 근처에는 고기들이 숨어 있어 고기가 잘 잡히던 곳이라고 한다.

불락여. 그냥 검은 돌덜. 여기다 그냥 이렇게 하면 옛날에는 가에 고기들이 막 숨엉 이런 디로만 고기도 나끄고.
('불락여'. 그냥 검은 돌들. 여기에 그냥 이렇게 하면. 옛날에는 가에 고기들이 숨어서 이런 곳으로만 고기도 낚고.)
-천영자 구술

1-4-8. 개창여

'개창여'는 사계항 방파제 김춘지등대 앞에 위치하고 전복이 잘 나는 곳이다.

개창여는 전복 잘 나. 개창여는 전복.
('개창여'는 전복이 잘 나. '개창여'는 전복.)
-천영자 구술

18) 가다리는 재방어의 제주 방언으로 고등엇과의 바닷물고기를 말한다. 몸의 길이는 2미터 정도이며, 체중 약 80kg의 대형어류이다. 뚜렷한 무늬가 없고 혀에도 이가 있다. 한국, 일본, 남중국해, 대만 연해 등지에 분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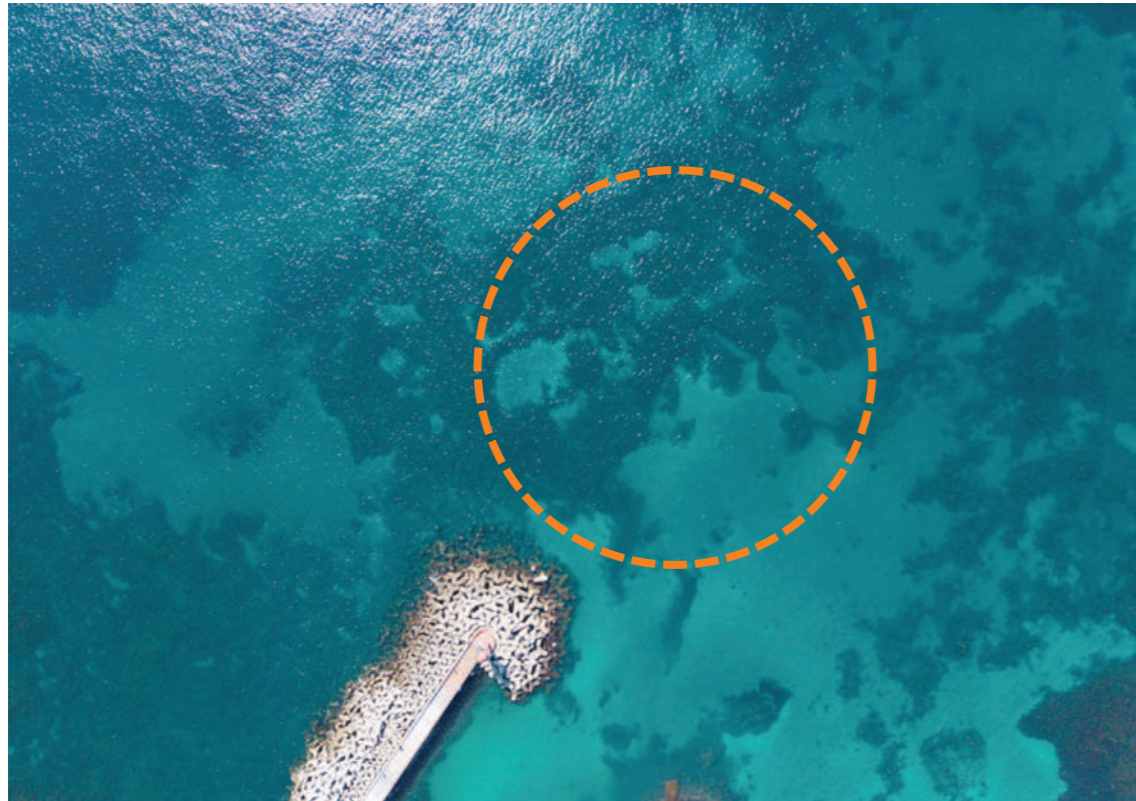


사진 70 춘지등대와 개창여

1-4-9. 올코지

‘올코지’는 ‘죽은동신여’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물살이 거세기 때문에 물때를 맞춰야 물질할 수 있고 수심이 깊어 상군 해녀들이 주로 물질을 한다.

올코지는 물살이 세난 아무나 못 가지. 썰물에 가야주. 밀물에 가면 오래 못해. 여기 물빨 세영 앞바당 그 나라비가. 물때 맞춰 가야지. 물때가 늦으면 계속 가면 저 군여코지 저 송악산 끄트머리 저쪽으로 떠내려갈 물질 못해. (‘올코지’는 물살이 세니까 아무나 못 가지. 썰물에 가야지. 밀물에 가면 오래 못해. 여기 물살이 세서 앞바다 그 주변이. 물때 맞춰서 가야지. 물때가 늦으면 계속 가면 저 ‘군여코지’ 저 송악산 끝으로 떠내려가서 물질 못해.)

-천영자 구술

1-5. 납데기(넙데기)

‘납데기’는 사계항 서쪽 방파제에서 사계리 2294-42번지 앞 사계해안 앞바다를 말한다. 물살이 잔잔하고 수심이 낮은 바다이다. ‘납데기’는 동쪽으로는 방파제가 있고 서쪽으로는 ‘선제코지’와 ‘선짓여’가 물길을 막아주기 때문에 나이 든 해녀들이나 애기 해녀들이 쉬이 물질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사계리에선 공동체험장이기도 한 ‘납데기’는 어장으로 되어 있지 않아 적잖이 시끄러운 실정이다.

납데기엔 현 디가 지금 공동어장. 이거 이거 체험장인디 여기가 지금은. 건디 우리 어장으로 안 돼어불언에 이제 좀 시끄러웁수다게. 해루질덜 왕 막 잡아가불어. 구역. 거난에 우리 구역 아니렌 허멍 그축 곱아. 마을어장 뒤편



사진 71 납데기(넙데기)

안 돼부난. 거난 우리 어장으로 아직 안 돼어불언. 이제 저겅로 우리 어장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는 중이주게. 우리가.

(‘납데기’라고 하는 데가 지금 공동어장. 이곳이 체험장인데 여기가 지금은. 그런데 우리 어장으로 안 되어서 이제 좀 시끄러워요. 해루질¹⁹⁾들 와서 잡아가 버려. 구역. 그래서 우리 구역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해. 마을어장으로 안 되어서. 그래서 우리 어장으로 아직 안 되었어. 이제 저겅로 우리 어장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는 중이지. 우리가.)

- 강복순 구술

1-6. 군여코지

‘군여코지’는 사계해안 중간쯤 있는 여이다. 형제해안로 72번지 앞바다에 바위로 길게 남쪽으로 뻗어 있다.

과거에는 사계 해녀들이 썰물에 물질을 시작하는 곳인데 썰물에는 ‘군여코지’에서 ‘을코지’로, 밀물에는 ‘을코지’에서 ‘군여코지’로 오른다.²⁰⁾ 주요 수확물은 성게, 소라, 미역이 있다.

군여코지, 주넷밭 여기는 성게영 소라. 미역 나지.

(‘군여코지’, ‘주넷밭’ 여기는 성게하고 소라. 미역 나지.)

- 천영자 구술

1-7. 절장개(절잔개)

‘절장개’는 사계리해안체육공원(사계리 3530-7번지) 앞바다이다. ‘절장개(절잔개)’의 ‘절’은 제주 방언으로 파도를 의미하고, ‘잔’은 자다 즉 잠잠해지다를 의미하여 파도가 잠잠한 바다라는 뜻이다.²¹⁾ ‘절장개’ 앞에 ‘신

19) 해루질은 얇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일을 말한다.

20) 제주특별자치도·(사)제주섬문화연구소, 『제주도해녀문화총서IV-옛 중문면 안덕면』, 도서출판 각, 2023, 355쪽.

21) 사계리 마을회, 『사계리誌-明沙碧溪의 고장』, 대영인쇄사, 2015, 204쪽.



사진 72 군여코지

동여’와 ‘여배파흔여’가 가로막고 있어 썰물의 힘을 분산시켜 물결이 잠잠하지만 밀물 때는 조류가 강하다. 강한 조류로 인해 물질을 하기 위험한 곳이기도 하다. 이에 ‘절장개’에서의 물질은 기후변동에 맞춰 시간을 가늠한다. 주요 수확물은 성게, 오분자기, 소라, 미역이 있다.

밤에는 물이 어두워도 거기 가면 물이 깨끗한덴. 물이 막 치다가도 절장개선 절이 잔잔하니까. 거기는 성게영 오분제기. 소라영 미역. 미역은 제일 먼저 나는 곳이라.

(밤에는 물이 어두워도 거기 가면 물이 깨끗하다고. 물이 막 치다가도 ‘절장개’에서는 파도가 잔잔하니까. 그곳은 성게하고 오분자기. 소라하고 미역. 미역은 제일 먼저 나는 곳이라.)

- 천영자 구술



사진 73 절장개에서 물질하는 해녀들

1-7-1. 절장개원(절장개원)

‘절장개원’은 사계리해안체육공원 주차장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절장개’ 옆으로 자연스럽게 원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원은 절장개에서 물 밑으로 막아져가지고 원이 되어 있어. 요렇게 자연스럽게.

(원은 ‘절장개’에서 물 밑으로 막아져서 원이 되어 있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천영자 구술

1-7-2. 용다리창

‘용다리창’은 사람발자국화석지(상모리626-1) 앞쪽에 위치하고 고기가 잘 낚이지만, 조류가 강한 곳이라 위험하다고 한다.

용다리창 여기는 막 고기도 잘 나고 위험한 데. 용다리창은 막 위험한 데.

(‘용다리창’ 여기는 고기도 잘 낚고 위험한 데. ‘용다리창’은 막 위험한 데.)

-천영자 구술



사진 74 용다리창과 똥물내리는디

1-7-3. 똥물내리는디(똥물각)

‘똥물내리는디’는 사계리와 상모리 바다밭 경계이다. 사람발자국화석지 앞 도로 위쪽에 상모리 관할의 저류지(상모리 15-1, 상모리 15-5)가 있고, 그 옆을 끼고 관개수로(상모리 15-6)가 있는데 바다쪽으로 그 마지막 부분이 ‘똥물내리는디’다. 이곳은 밭에서 흘러 내려오는 흙탕물 외 불순물들이 섞여 마치 똥물이 내려오는 것처럼 물 색깔이 검고 근처에 가면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한다.



사진 75 똥물내리는디



사진 76 똥물내리는디 상류

똥물각, 저 똥물내리는디는 밭에 물이, 잡신 물이 막 내려오주게. 거난 물이 흙탕물이란 똥물이엔 허주게. 저 각자 내령 오는 물에서 글로 이레 영 내려오민. 똥물내리는각이 있어.

(‘똥물각’, 저 ‘똥물내리는디’는 밭에 물이, 잡다한 물이 막 내려오거든. 그래서 물이 흙탕물이라서 똥물이라고 하는거. 저 각자 내려서 오는 물에서 여기로 이렇게 내려오면 ‘똥물내리는각’이 있어.)

- 천영자 구술



사진 77 똥물내리는디 하류

똥물내리는각에 영장 하영 올르난 대정데레 줘볼언게.

(‘똥물내리는각’에 시체가 많이 올라오니깐 대정에 줘버렸지.)

- 허순옥 구술

거기 가문에 막 냄새나. 똥물내리는데렌 힘니다게. 거기가 상모와 경계선이우다.

(거기 가면 막 냄새나. ‘똥물내리는디’라고 합니다. 거기가 상모와 경계선이예요.)

- 김기범 구술

1-8. 감태여

형제섬을 기준으로 앞바다에는 ‘동순여’, ‘감태여’, ‘뽕양지미’, ‘몰레통’, ‘안동순여’, ‘작지꿏’, ‘방에여’가 자리하고 있다. 주요 수확물은 소라, 성게, 해삼이다.



사진 78 감태여

1-8-1. 붉양지미

‘붉양지미’는 ‘절장개’에서 형제섬 방향으로 1km 정도 떨어진 바다이다. ‘절장개’ 앞바다라고 할 수 있다. ‘붉양지미’는 유독 물이 맑고 깨끗하여 바닷속이 잘 보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붉양지미는 물이 어두웠다가도 무슨 거기만 가면 물이 깨끗하니 붉양지미. 물이 맑으니까 붉양지미. 남자 어른 신티 다 들었 배웠주게. 붉양지미는 이쪽으로 저기 산이수동 가는 길에 커피숍 있는 상계원에서 그 앞이 붉양지미.

(‘붉양지미’는 물이 어두웠다가도 무슨 거기만 가면 물이 깨끗하니 ‘붉양지미’. 물이 맑으니까 ‘붉양지미’. 남자 어른신한테 다 들어서 배웠지. ‘붉양지미’는 이쪽으로 저기 산이수동 가는 길에 커피숍 있는 산계원 그 앞이 ‘붉양지미’.)

-천영자 구술

1-9. 안여

형제섬을 기준으로 남쪽 바다에는 ‘안여’, ‘밧여(홍합여)’, ‘너벅여’, ‘높은여’, ‘숨은여’, ‘가다리왓’, ‘장이여’, ‘막여’가 자리하고 있다. 물살이 센 곳이라 상군해녀들이 물질을 하는 곳이라고 한다. 주요 수확물은 소라, 전복이다.

돌기는 도는데 물살이 여기는 엄청 세. 애기 해녀들은 요기서 영 강 이래 돌아오고 우리는 일로 영 일로 영 저레. 여기는 소라영 전복.

(돌기는 도는데 물살이 여기는 엄청 세. 애기 해녀들은 여기서 여기로 가서 이쪽으로 돌아오고 우리는 여기로 이렇게 여기로 이렇게 저기로. 여기는 소라하고 전복.)

-천영자 구술

1-10. 형제섬

사계리 어촌계 공동어장과 작업장은 크게 두 군데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사계리 연안 지선인 화순리 경계와 대정읍 경계 해안까지이며 또 하나는 형제섬 연안이다. 그중 형제섬은 사계리 어촌계에서 해녀들의 어업 전진기지로 활용 중이다. 마을의 바다 어장은 국가로부터 어촌계를 임대하는 데, 1종 공동어장, 2종 공동어장이었던 것을 마을 어장으로 명칭을 변경했다.²²⁾



사진 79 형제섬

22)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제주해녀의 생업과 문화』, 하나CNC, 2008, 41쪽.

형제섬에 집 닭은 거, 불턱도 식곡, 염소도 키와나곡 헌디, 토끼도 강 키와나곡 헌디, 빗물 반양 거렁 먹곡 해났인 디, 이젠 짚레 가서 잇곡 허난, 장화 신곡 워카 신지 안 허민 못 가. 옛날에 이녁만씩 자리가 있어, 오 년 전이만 해도 물 냄새난 못 먹크란게. 거기서 자명 거기서 미역 허멍 해났주, 우리 어머니네 헐 때는 일주일씩 어선 탕 강, 형제섬이 넓고 물건도 많고 형제섬, 어머니가 안 탕 잇이민 배가 출발 안 허는디, 어머니가 타곡 멧 사름만 타민 벌써 배 띄와불어.

(형제섬에 집 닭은 것, 불턱도 있고, 염소도 키우고 했는데, 토끼도 가서 키우고 했는데, 빗물 받아서 떠먹고 했는데, 이젠 짚레 가서 있고 하니까, 장화 신고 워커 신지 안 하면 못 가. 옛날에는 자기만씩 자리가 있어, 오 년 전만 해도 물 냄새 나서 못 먹겠더라. 거기서 자면서 거기서 미역 하면서 했었지. 우리 어머니네 할 때는 일주일씩 어선 타고 가서, 형제섬이 넓고 물건도 많고 형제섬, 어머니가 안 타면 배가 출발 안 하는데, 어머니가 타고 멧 사람만 타면 벌써 배 띄워버려.)

-천영자 구술

형제섬은 사계리 해안에서 1.5km 떨어진 섬으로, 제주어로는 ‘굴애기²³⁾섬’, 또는 ‘굴레기섬’이라고도 불린다. 이유는 크고 작은 2개의 섬이 마치 쌍둥이 형제와 같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이원진 탐라지 등에는 관도(貫島)로 표기되어 있는데 관도란 ‘고망난 섬’ 정도의 차자 표기라고 전한다. 큰 섬과 작은 섬이 서로 마주 보고 있고 큰 바위로 서로 연결되어 구멍이 뚫려 있다. 또 형제섬은 새들의 낙원이기도 하다. 특히 형제섬 중 작은 섬을 ‘옷섬’이라고도 부르는데, ‘옷’은 바다새의 일종인 ‘가마우지’의 제주 방언이기도 하다. 가마우지가 많이 날아와 돌 위에 앉는 섬이라는 뜻인 것이다.²⁴⁾ 형제섬의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이 바로 가마우지 배설물로, 가마우지들이 많이 서식하는 바위 표면에 배설물이 쌓여 하얗게 보이는 것이다. 사계리에서는 ‘옷섬’을 ‘문섬’이라고도 한다.

형제섬은 이렇게 다채로운 풍경뿐 아니라 소라, 전복, 다양한 해조류 등 사계리 마을 주민들의 해산물 보고로서 마을 주민과 해녀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고마운 섬이기도 하다.

여기는 이제 또 낚시업을 하는 분들이 있고, 나이 드신 분들, 한 두어 척은 이제 형제섬 낚시꾼을 실러 나르는 그

23) ‘굴레기’는 제주어로 쌍둥이를 뜻하는 말로, 지역에 따라 ‘굴로기’, ‘굴루기’, ‘굴애기’, ‘굴오기’ 등으로 발음한다.

24) 사계리 마을회, 『사계리誌-明沙碧溪의 고장』, 대영인쇄사, 2015, 208쪽.

배가 두 척이 있고, 그리고 큰 어선, 주낙, 갈치잡이, 옥돔잡이 그렇게 하는 배가 다섯 척 정도.

-정성수 구술

그 외에 낚시꾼과 관광객, 최근에 스노클링을 원하는 손님들에게도 좋은 경험을 선사한다. 특히 형제섬의 일출은 장관이라고 소문이 나, 사진작가들이 출사를 많이 오는 곳이기도 하다. 현재 사계리에는 사계어촌계 어장관리선을 포함해서 총 27척의 배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이 낚시꾼을 실어 나르는 낚시업을 주로 한다.

큰 섬이지, 이것이 모레니까, 그러니까 요디 가면, 요쪽으로 요렇게 납작납작한 돌들, 이렇게 해서 몰란 짐 전 간 부리난, ‘야, 이거 누게고? 치우렌, 어드레 여기 웃어른덜 임제가 다 잇언.’ 우리 쫄자들은 어디, 요추록 선평기추록 밑에 요른 디 쫄쫄 앉앙은에, 멧 번이사 가사, 그 트멍에도 허곡 허주, 아무 디나 갓당 큰일 나. 우린 어머니가 큰해녀난 우리 어머니 조름에 아홉 사름 쫓아뎡겨주. 어머니가 먼저 배를 타버리면 어머니 짐을 시끄면, 배를 싹 띄와불어, 우리 다 테워팅, 어머니가 배레 발을 놓으면 배가 출발해불어. 어머니가 안 탕 잇이민 배가 출발 안 허는디, 어머니가 타곡 멧 사름만 타민, 벌써 배 띄와불어. 그 할망들 우리 무슨 데령 가봤자. 무슨 네도 못 젓곡, 필요다가리가 엇인디. 경 험 한 아인 못 탄. 게난 가인 막 울언. 흥 열여덟이나 스무 살이나 나신가?

(큰 섬이지, 이것이 모래니까, 그러니까 요디 가면, 요쪽으로 납작납작한 돌들, 이렇게 해서 몰라서 짐을 지고 가서 내리니까, ‘야, 이거 누구나? 치우라고, 어디 여기 웃어른들 임자가 다 있어.’ 우리 ‘쫄자’들은 어디, 요렇게 선평기처럼 밑에 요른 데 쫄게 앉아서, 멧 번이나 가야 그 틈에도 앉고 하는 거지, 아무 데나 갔다가 큰일 나. 우리 어머니가 ‘큰해녀’니까 우리 어머니 뒤에 아홉 사람이 쫓아다녔어. 어머니가 먼저 배를 타버리면 어머니 짐을 싹이면, 배를 싹 띄워버려. 우리 다 태워두고, 어머니가 배에 발을 놓으면 배가 출발해 버려. 어머니가 안 타 있으면 배가 출발 안 하는데, 어머니가 타고 멧 사람만 타면, 벌써 배 띄워버려. 그 할머니들 우리 데리고 가봤자. 무슨 노도 못 젓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한 아이는 못 땀어. 그래서 그 아이는 막 울었지. 한 열여덟이나 스무 살이나 났나?)

-천영자 구술

해녀들에게도 계급이 있다. 그 계급은 오로지 잠수 능력으로 결정되는 ‘상군’, ‘중군’, 그리고 ‘하군’이라는 해녀 사회의 계급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공동체 규약 등이 해녀를 잘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규약은 실전에서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어머니가 해

녀이기 때문에 습득할 수 있는 자본도 있지만 오히려 그 자본을 물려주기 위해 고전분투하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사회 선배로서 역할을 느낄 수 있다.

형제섬도 그리서 영 보면은 딱 그게 두 개로 보여, 용머리에서 잘, 그처럼 할 때 형제섬이엔 해낫인다.

(형제섬도 거기서 이렇게 보면 딱 그것이 두 개로 보여, 용머리에서 자주, 그렇게 할 때 형제섬이라고 했었는데.)

- 허월자 구술

형제섬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두 개로도 보이고 하나로 겹쳐 보이기도 한다. 용머리 해안에서 보면 섬의 형태가 딱 두 개로 보이기 때문에 형제섬은 사계리의 상징적 경관이며 풍요로운 사계리의 어장을 품은 바다로 인식하고 있다.

형제섬은 바다 한가운데 있기에 전반적으로 조류가 강한 곳이다. 과거 사계리 해녀들이 뱃물질 나가는 곳이었다. 지금은 사계리에서 모든 물질을 뱃물질로 하기 때문에 여기만 뱃물질 나간다고 할 수는 없다. 조류가 강한 곳이기에 상근들이 자주 가지만 형제섬 갯가의 물이 잔잔한 곳은 하군 해녀들과 나이 많은 해녀들이 주로 물질하는 곳이다. 물살이 세지만 물건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다. 주요 수확물은 소라와 전복이다.

물건이 제일 많은 곳 형제섬. 거기가 제일 많아. 물발이 썰어서 아무 때나 못 간. 형제섬 바당이 물건이 제일 많아, 형제섬 우리, 영, 보이는 이 앞쪽에, 미역이, 엄청, 근데 미역이 경 많이 나, 건디, 것도 사계 바당만. 가파도도 하나도 없고. 마라도도 안 나고. 화순도 없다고. 모슬포도 없다고 헛인다, 요즘 들어야 조금 낫덴. 늦언.

(물건이 제일 많은 곳 형제섬. 거기가 제일 많아. 물살이 세서 아무 때나 못 갔어. 형제섬 바다가 물건이 제일 많아, 형제섬 우리, 이렇게 보이는 이 앞쪽에 미역이, 엄청, 그런데 미역이 그렇게 많이 나, 그런데, 그것도 사계 바다만. 가파도도 하나도 없고. 마라도도 안 나오고. 화순도 없다고. 모슬포도 없다고 했는데, 요즘 들어야 조금 낫다고. 늦었어.)

- 강복순 구술

하지만 해녀들의 물건도 많이 나고 고마운 존재인 형제섬을 사계리가 가져오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한다.

저거 돈 섬이라. 자리회도 뜨곡이, 저디 해녀들 강은에 물건 족족 잡아 왔이나게? 저거 모슬포서영 화순서영 싸운 섬이라. 우리 사계에서 보난, 제일 곱게 잘 나오곡 거리로 봐도 또 가깝다 허연에, 우리 사계에서 차지한 거, 아주 차지하젠덜 화순이영 모슬포영 사계영 막 싸와난 섬 아니가게.

(저거 돈 섬이야, 자리회도 뜨고, 저기 해녀들 가서 물건 족족 잡아 왔겠니? 저거 모슬포하고 화순하고 싸운 섬이야. 우리 사계에서 보니까, 제일 곱게 잘 나오고 거리로 봐도 또 가깝다 해서, 우리 사계에서 차지한 거, 아주 차지하려고들 화순하고 모슬포하고 사계하고 막 싸왔던 섬 아니냐.)

- 허월자 구술

그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소라나, 전복 같은 물건이 많이 나는 곳이다 보니, 해녀들끼리도 화순, 모슬포와도 싸움을 하면서도 어렵게 사계 마을 어장이 되었다는 이야기에서 해녀들의 강인한 생활력과 끈질김을 느끼게 된다.

옛날 퀴즈 나오곡 해낫인다. 형제섬이 제일 가깝게, 제일 바르게 보이는 데가 사계. 형제도가 사계리 형제도다. 서귀포 형제도다. 헨에 막 싸워나서. 그때, 이제 모슬포 형제도 다 한 사람이 맞았어. 맞은 걸로 헨은에 허난, 군에 근무하는 사람들, 사계 사람들, 그거 바로 잡안. 사계리 거.

(옛날 퀴즈 나오고 했었는데. 형제섬이 제일 가깝게, 제일 바르게 보이는 데가 사계. 형제도가 사계리 형제도다. 서귀포 형제도다. 해서 막 싸웠었지. 그때, 이제 모슬포 형제도다 한 사람이 맞았어. 맞은 거로 해서 하니까, 군에 근무하는 사람들, 사계 사람들, 그거 바로 잡았어. 사계리 거.)

- 이영택 구술

옛날 한 TV프로에서 형제섬은 어디에 속한 형제섬인지를 물어보는 질문에 모슬포 형제섬이 맞는 답으로 나오자, 지역 주민들이 북제주군에 항의 전화를 해서 결국 사계리 형제섬으로 했다는 에피소드도 전해 들을 수 있었다.

형제섬은 낚시 외에도 스노쿨링 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계속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형제섬을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하고 낚시를 할지 스노쿨링을 할지를 미리 신청을 하면 스노쿨링인 경우 현직 해녀 중 한 명이 배에 함께 타서 형제섬으로 간다. 스노쿨링을 할 때 해녀가 물질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스노쿨링 하면서 해산물을 함부로 채취하는 것을 감시하기도 한다.

형제섬 가는 거는 해녀 한 명씩. 자기가 물질행 버는 것도 있지만 그거 외에 스노쿨링 이런 거. 인건비 한 번 가민 십만 원. 당번으로 가는 거야. 현직만 스노쿨링 당번은 현직만.

(형제섬 가는 것은 해녀 한 명씩, 본인이 물질해서 버는 것도 있지만 그것 외에 스노쿨링 이런 거. 인건비 한 번 가면 십만 원. 당번으로 가는 거야. 현직 해녀만 스노쿨링 당번은 현직만.)

-천영자 구술

1-10-1. 셋정지

‘셋정지’는 ‘개맞디’ 서쪽, ‘문섬’ 동쪽에 위치한 곳이다. 전복밭으로 불릴 만큼 전복이 많은 곳이라고 한다.

셋정지 여기는 전복밭이라. 전복이 많아.

(‘셋정지’ 여기는 전복밭이야. 전복이 많아.)

-천영자 구술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사계리는 반농반어(半農半漁)의 전형적인 마을이다. 사계리 잠수회 현황을 보면 회원은 총 41명이고, 여러 사정으로 휴직 중인 해녀들을 제외하면 현재 활동하는 해녀는 35명이다. 은퇴 해녀는 물질에서는 은퇴했어도, 잠수회를 탈퇴하지 않고 용머리 해안에 있는 ‘사계해녀의집’에서 해산물을 판매하는 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 사계리 해녀들의 주된 바다 채취물로는 소라이며, 그 외에 미역, 성게, 전복, 해삼, 문어 등이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해산물의 전반적인 수확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해녀들은 체감하고 있다.

나이 드난 이젠 치와불언. 은퇴했주. 은퇴. 그거는 팔십오 세까지, 나이가 제한됐지. 장사. 저 거세기, 물건은 젊은 사람들 잡아 오곡, 파는 거는 같이 하고. 칠십오 세면 도에서가 은퇴허렌 허는 거주기. 위험하니까. 제일 많이 죽엄서. 칠십에서 칠십오 세가 제일 많이 죽어서. 칠십오 세 되난이, 감기 걸리곡. 몸이 약한 거라.

(나이 드니까 이제 치위 버렸어. 은퇴했지. 은퇴. 그거는 팔십오 세까지, 나이가 제한됐지. 장사. 저 그거, 물건은 젊은 사람들이 잡아 오고, 파는 거는 같이 하고. 칠십오 세면 도에서가 은퇴하라고 하는 거지. 위험하니까. 제일 많이 죽고 있어. 칠십에서 칠십오 세가 제일 많이 죽어. 칠십오 세 되니까, 감기 걸리고. 몸이 약한 거야.)

-허월자 구술

우리보단 더 빨리 늙엄신게, 바다가. 우리보다 더 빨리 늙엄서. 해녀보다 더 빨리 늙어.

(우리보다 더 빨리 늙네, 바다가. 우리보다 더 빨리 늙어. 해녀보다 더 빨리 늙어.)

- 강복순 구술

바다가 해녀들보다 더 빨리 늙는다는 말처럼, 이곳 사계리 해녀들은 누구보다도 바다와 수확물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기후 변화가 지목된다. 해수온의 상승과 바다표의 소멸 현상으로 미역을 포함한 해조류가 줄어들고 미역을 주된 먹이로 삼는 소라, 성게 등의 개체 수도 함께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해수 온도 상승만의 결과가 아니라 지하수의 오염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료나 가축분뇨의 주요 성분인 질소 유입으로, 적조나 조류 번성, 부영양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²⁵⁾

또한 사계리는 1980년대 이후 관광객의 방문이 활발해지면서, 관광어업, 펜션, 관광식당 등 다양한 관광 산업이 발달해 왔다. 이에 따라 해산물과 미역과 같은 해조류의 소비 및 유통 경로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이는 다른 해녀 마을에 비해 유리한 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판로 확대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한다. 예컨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대형 백화점으로 성게 납품을 시도했으나, 까다로운 위생 및 품질 기준으로 인해 납품이 무산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어촌계는 판매 유통 구조 개선과 판매 다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제도적 장벽과 현실적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전에 작년, 재작년에는 백화점을 뚫었는데, 그 성게도 색깔 이렇게 새카만 애들이 있어요. 근데 백화점에서 그 검수 과정이 되게 꼼꼼하거든요. 그래서 손님도 노랗게 예쁜 걸 사지, 이렇게 짙은 뭐 색깔 있고, 또 뭐가 하나씩 들어가 있고, 그러면 바로 납품 중지가 되가지고, 그때 중지됐거든요.

- 이안숙 구술

사계리 어촌계의 공동 작업으로는 미역과 성게, 툇 등이 있다. 이러한 공동 작업, 공동판매의 관건은 역시 물건의 물량 확보와 안정적 판로에 달려 있다. 물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어촌계 차원에서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기 어렵고, 매번 수요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촌계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판로를 모색해야 한다. 한

25) 김동은, 「연안 질산염 어디서 왔나... 기원 첫 추적」, 『JIBS 제주방송』, 2025. 5. 5. (<https://v.daum.net/v/20250505210837456>(검색일 2025. 8. 16.))

때 백화점 납품으로 성게 판매를 시도했지만, 엄격한 품질 기준과 검수 절차로 인해 계약이 중단된 사례는 어촌계의 유통 구조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잘 보여준다.

2-1. 바다동물

2-1-1. 소라

사계리에서 소라는 ‘구제기’ 또는 ‘구쟁기’라고 부른다. 뿔이 많이 달리지 않은 소라는 ‘민둥구제기’라고 부른다. 소라의 채취 시기는 일 년 연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라 자원 보호를 위해 산란기인 6월부터 8월까지를 소라 금채기로 정해 채취를 제한하고 있다.

가끔 영 허면은 요만큼 헌 건 받고, 허끔 작은 건 안 받고. 건 바다에 들어줬다가 또 커. 뭐 잡아 오면은 영 선별해 가지고. 그것도 또 바다에 강 들어줬다가 크면은 잡아, 먹진 못하게, 다 키워가지고 또 잡게, 물속에서 보면은 막 커 보여, 막 커 잡아 오르면은 조금 작고 영 방은에 아니면은 던져붙어. 던져붙곡, 허끔 뿔직 허민 3져와서 여기 와서 또 영 봐가지고 뿔면은 놓고, 안 뿔면 또 추려가지고 낚다가 강 받아.

(가끔 이렇게 하면 요만큼 한 것은 받고, 조금 작은 것은 안 받고. 그건 바다에 들어줬다가 또 커. 뭐 잡아 오면은 이렇게 선별해서. 그것도 또 바다에 가서 들어줬다가 크면 잡아, 먹지는 못하게, 다 키워서 또 잡게, 물속에서 보면 막 커 보여, 막 커서 잡아서 올라오면 조금 작고, 이렇게 봐서 아닌 것은 던져버리지. 던져버



사진 80 소라



사진 81 2025년 3월7일 소라물질

리고, 조금 될 것 같으면 가져와서 여기 와서 또 이렇게 봐서 되면 놓고, 안 되면 또 추러왔다가 가서 받아.)

- 고옥연 구술

칠점오 센치 이하로는 금채, 그래서 그냥 바로 빼야 돼. 한두 개씩 타닥타닥 빼면서 그냥 그리고 또 삼촌들도 워낙 맨날 보던 거라, 작은 건 거의 안 잡던데요.

- 이안숙 구술

제주도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에 따라 어촌계별로 매년 소라 채취 물량을 배정하고 있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어종별로 자원량을 조사·평가하여 자원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자원관리제도이다. 이는 수산 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 지역에서는 소라 어종에 적용된다. 사계리 소라 금채기는 6월부터 8월까지이며, 금채기가 해제된 이후에도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7cm 미만의 어린 소라는 채취할 수 없다.

각 어촌계마다 이제 배정받는 물량이 있어서 그래서 너무 많이 잡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좀 작년에 오만 키로 꼬끔 넘게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작년에는 또 수온이 너무 높아가지고 올해 시월 중순부터 들어가는데 십일월 달부터 했어요. 수온이 높으면 또 소라가 그 저장을 못 하니까 물이 너무 뜨거워서 주변에서.

- 이안숙 구술

그러나 2024년 가을은 이상기온 영향으로 9월과 10월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면서, 소라 채취가 예년보다 늦은 11월 이후에야 시작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후 변화가 지속될 경우, 앞으로 해녀들의 물질과 어장 운영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의 목소리도 있다.

보말이 엄청 나났인디,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데. 보말이. 그때가 언제지? 한 이십 년 넘었을 거야. 보말 잡을 때가. 엄청 많아났인디, 갑자기 사라진, 경 허난 소라도 언젠가는 사라질 거 아닌가?

(고동이 엄청 낚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더라. 고동이. 그때가 언제지? 한 이십 년 넘었을 거야. 고동 잡을 때가. 엄청 많았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 그래서 소라도 언젠가는 사라지는 거 아닌가?)

- 강복순 구술

사계리의 대표적인 수확물은 단연 소라다. 소라는 해녀들의 주된 생계 수단이자, 일본으로 수출되어 외화를 벌어들이는 효자 품목으로 꼽힌다. 그러나 일부 해녀들은 예전 고동이 많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던 기억을 떠올리며, 소라도 이렇게 계속 채취하다 보면 언젠가는 사라질 거라는 우려를 표한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바다 자원이 점차 줄어드는 현실에 대한 체감과 불안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더욱이 소라 가격이 1kg당 6~7천 원은 되어야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으나, 현재는 5천 원 선에 머물러 있어 생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걱정의 소리도 들려온다.

노력해야 먹으니까. 물건값이 안 올라가니까. 소라값만 안 올라부니까. 육천 원, 칠천 원 가야 수입이 될 건디. 수입이 올라갈 건디, 지금 오천 원이 안 가. 수수료 떼부는 때문.

(노력해야 먹으니까. 물건값이 안 오르니까. 소라값만 안 올라 버리니까. 육천 원, 칠천 원 가야 수입이 될 건디. 수입이 올라갈 건디, 지금 오천 원이 안 가. 수수료 떼는 때문에)

- 임성자 구술

제일 돈이 되는 건 소라주게, 전복은 많이 나지도 안 허곡, 성게도 스무나문 정도벧기 못해, 산란기 뉘불민.

(제일 돈이 되는 거는 소라지. 전복은 많이 나지도 않고, 성게도 스무날 정도밖에 못해. 산란기 되어 버리면.)

- 이한옥 구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소라도 많이 나니까, 소라는 겁나 많이 잡히는 어장이 넓으니까. 저 형제섬이나 이런 데 가면 자주 나가는 게,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주먹보다 더 큰 애들도 많아.

- 이안숙 구술

사계리는 어장이 꽤 넓은 편인데, 가장 큰 이유는 소라가 풍부하게 잡히는 형제섬이 사계리 관할 어장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형제섬은 특히 소라 어장으로 유명하여, 소라 작업이 있는 날에는 해녀들이 어장관리선을 타고 물질을 나간다.

예전에는 바닷가 연안의 ‘설콧’, ‘납데기(넙데기)’, ‘군여’ 등에서 물때를 보며 물질을 했지만, 현재는 대부분 어장관리선을 통해 원거리 어장으로 나가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특히 물에서 가까운 공동어장에서 소라를 채취할 때 어장관리선이 크레인을 이용해 해녀들이 작업한 소라를 포구로 내려준다.

이렇게 해녀들이 물질을 마치고 바다에서 나올 때, 가족들이 해산물을 받아 물으로 옮겨주는 일을 ‘마중’ 또는 ‘수중(隨從)’이라 한다. 지역에 따라 ‘마중’을 ‘마줍’ 혹은 ‘풍중’, ‘수중’을 ‘수중’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²⁶⁾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는 남자들이나 남편이 ‘마중’을 나와 해산물을 운반하지만, 사계리에서는 마중에 나서는 남자를 보기 어렵다. 이는 어장관리선에 설치된 크레인이 소라나 미역 같은 해산물을 직접 들어 옮겨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2-1-2. 전복·오분자기

전복은 긴 타원형이며 전복갑에는 호흡공(呼吸孔)이라고 하는 숨구멍이 3~5개 뚫려 있다. 전복의 숨구멍은 그 주위가 위로 도드라지게 솟아올라 밋밋한 오분자기와는 차이를 보인다. 야행성이 강하며, 암수딴몸이라 암전복과 숫전복을 구분하여 부르는 이름도 다르다. 전복갑과 몸체 사이인 외투강(外套腔)을 통하여 암수를 구분할 수 있는데, 생식소가 암녹색이면 암컷, 유백색이면 수컷이라고 전한다. 또 전복갑의 깊이가 깊으면 수컷, 얇으면 암컷이다. 정부의 <수산자원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복류의 산란기는 10~12월이며, 이 시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기에 채취가 가능하다. 하지만 물질을 나가도 전복은 많이 나지 않는다. 소라 물질을 가거나 미역 물질을 나갔다가 전복을 따면 개인적으로 판매하기도 하지만 매번 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주문 판매는 있을 수 없다.



사진 82 전복

전복은 시월부터 십이월까지 못 잡는 거. 전복 산란기, 금채기

(전복은 시월부터 십이월까지 못 잡는 거지. 전복 산란기, 금채기)

- 강복순 구술

26)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도서출판 각, 2024, 164쪽.

전복은 그냥 개인으로만 해야지. 그러니까 소라하고 성계는 사무장이 키로 딱딱 재고 하는데 전복은 아예 그냥. 물량이 많이 나면 뭐 수매를 해가거나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서 정말 한 번 나갈 때 몇 분만 잡아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딱히 뭐 수요나 이런 건 없어, 개인적으로 판로를 만들어야 되고, 또 그러니까 많이 없어요.

- 이안숙 구술

조선시대 진상품의 하나였던 전복은 예나 지금이나 수요는 많지만, 항상 채취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당연히 가격도 부르는 것이 값이다. 해녀들은 전복을 보기만 해도 암전복인지 숫전복인지를 알아낼 수 있다고 한다. 전복은 암전복과 숫전복이 있는데, 암전복은 납작하고 숫전복은 크고 살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서툰 사람이 볼 때에는 다 똑같이 보일 뿐이다.

전복은 많이 나지도 안 흥곡, 수통인 남자곡, 빼죽한 건 여자.

(전복은 많이 나지도 않고, 수통이는 남자이고, 빼죽한 것은 여자)

- 이한옥 구술

요건 암전복은 넓작한 거고, 요건 영 스롱 ㄱ랑허여. 물착 허주기. 숫전복은.

(이건 암전복은 넓작한 것이고, 이건 이렇게 ‘스롱 ㄱ랑’ 해, 토실토실 크지. 숫전복은)

- 김이선 구술

해녀들은 보통 숫전복은 도톰하고, 암전복은 배작하다는 표현을 쓴다. 또 다른 말로는 숫전복은 ‘수핏’, ‘암핏’은 암전복을 말한다. 제주의 방언 가운데 ‘암핏’은 ‘암ㅎ+핏’ 구성으로 ‘핏’은 전복을 뜻하는 어휘이다. ‘수핏’은 숫전복을 말하는데, 다른 말로는 ‘수천복, 수침복, 수통이’라고도 한다. 특징으로는 전복갑 깊이가 깊고 생식소가 유백색이다.²⁷⁾

관광과 연계된 산업이 발달한 사계리는 지리적으로 송악산, 산방산, 용머리 해안 등의 관광명소와도 가

27)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도서출판 각, 2024, 202쪽.

깍기에, 사계리 해녀들은 물질에서 잡은 전복을 관광객이나 사계리 근방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주민들에게 팔기도 한다.

나 이디 장사허건 디 이십 년 넘었저게. 저 소라허곡 전복 받곡. 굴맹이도 받곡, 그런 거 허건 디. 하르방 죽기 전 이부터 나가 그걸 해서. 올히도 굴맹이 나민 받으렌 허고테, 게메 나 전복은 안 받으켜, 전복 나 하영 손해 가난, 전복은 안 받곡 굴맹이나 받으카 헨디. 굴맹이 일본데레 전화해서 7져가난 디 전화허난, 굴맹이 보넵센 허멍. 여기서 물건 받아가지고 일본으로 보냄주게.

(나 여기 장사한 지가 이십 년이 넘었지. 저 소라하고 전복 받고. 군소도 받고, 그런 거 한 지. 남편 죽기 전 부터 내가 그것을 했어. 올해도 군소 나면 받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나는 전복은 안 받겠다. 전복은 내가 많이 손해 가니까, 전복은 안 받고 군소나 받을까 했어. 군소는 일본으로 전화해서 가져갔던 데 전화하니깐, 군소 보내라고 해서. 여기서 물건 받아서 일본으로 보내고 있지.)

-김이선 구술

전복은 많이 나지는 않는데 올해는 조금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삼촌들 잡아오는 거 보니까. 십センチ 이상 잡아야 되 는 그 규정이 있는데 보통 작으면, 보통 십センチ 이하는 금체, 잡으면 안 되고 그 이상, 작년보다 많이 잡는 것 같아요.

-이안숙 구술

아, 전복, 전복을, 전복이 안 떼지는 거예요. 아, 근데 또 배는 왔어요. 태우러. 아, 전복 있어요. 이랬더니 안 떼어 진다고 내가 이랬더니 '야, 돌로 찍어라, 찍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전복을 돌로 찍었어요. 전복이 깨져가지고, 암튼 잡긴 잡았어요. 삼촌들이 그 말이 아니고 전복 아래 이제 빗창을 넣잖아요. 빗창을 돌로 텅텅팅팅 하라는 말 이었는데, 전복을 돌로 찍어가지고, 그게 기억나요.

-정하늘 구술

전복은 이년 재수나 좋으면은 하나 티곡, 좀수덜 많아도 이거 저 틴 사름, 오늘 두 명 뿐 아니야. 게난 이년이다 막 재수가 통해야 티곡, 못해. 아이고, 느네 소망 일뤼타게. 재수 좋았저. 오날 전복 티언.

(전복은 자기 재수나 좋으면은 하나 떼고, 잠수들이 많아도 이거 떼 사람, 오늘 두 명 뿐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다 막 재수가 통해야 떼고, 아이고, 너네 소망 이루었네. 재수 좋았다. 오늘 전복 떼서.)

-고옥연 구술

전복은 예로부터 쫄깃한 식감과 풍부한 영양으로 인해 고급 식재료이자 보양식으로 여겨왔다. 이러한 특징으로 전복은 부와 행운을 상징하는 존재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러한 터부는 해녀들에게도 통하는 말이기도 하다. 자기 재수나 좋으면은 하나 떼다는 말처럼 그날 하루의 운이 있어야 전복을 잡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해녀들은 전복을 떼면 '소망 이뤘네.'라는 표현을 쓴다. 채취한 물건이 자신의 능력과 실력이 아닌 우연한 횡재로 이루어졌다는 겸손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83 오분자기 등



사진 84 오분자기 배

사계리에서는 전복과 비슷하나 크기가 작은 오분자기를 '바르', 또는 '바룻'이라고 부른다. 오분자기의 방 언형은 '오분제기' 계열과 '조개' 계열 그리고 '바르' 계열로 나뉘는데, 오분제기 계열은 제주도 북부인 제주 시 지역에 분포하며, 조개 계열은 남동부지역인 성산, 표선, 남원, 서귀에 나타난다. 바르는 서남부 지역인 대 정·안덕에 분포한다.²⁸⁾ 특히 사계리 어촌계에서는 여름철 소라 금채기에 해녀들의 수익 창출을 위해 해녀 물질체험과 더불어 '바룻 잡기' 등을 했었는데 이때의 '바룻'은 조개를 의미한다. 따라서 해녀가 말하는 말이 조개류인지 오분자기인지를 잘 이해해서 들어야 오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전복도 잡고 구쟁이도 잡곡, 가는 사람도 잇긴 헨디, 올히는 몰르곡. 난 일본 서너 번 갔다 왔주. 일본 갔을 때는 바르, 성계, 소라, 마찬가지란게. 바르는 오분제기, 거기도 여나 마찬가지란게 물건은.

28)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도서출판 각, 2024, 204쪽.

(전복도 잡고, 소라도 잡고, 가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올해는 모르고 나는 일본 서너 번 갔다 왔지. 일본 갔을 때는 '바르', 성게, 소라, 마찬가지로더라. '바르'는 오분자기, 거기도 여기나 마찬가지로더라 물건은.)

-임성자 구술

바르는 오븐제기, 사투리는 바르고, 오분자기게, 바르엔 허메. 절장개는 성게, 오분자기, 그딘 안 나는 게 엇이다 나는 디. 성게, 소라, 미역. 미역도 그디가 젤로 우선 먼저 나는 디. 젤로 빨리 나는 디. 절장개 바당은 좋은 디게. 밖으로는 모래곡, 저 차 다니는 디는 전부 모래곡, 요 돌로, 여기는 누룩돌 있고, 여도 있어부난 조금씩게, 많이 가 민 허지도 못허여.

('바르'는 오분자기, 사투리는 '바르'고, 오분자기야. '바르'라고 해. '절장개'는 성게, 오분자기, 거기는 안 나는 게 없이 다니는 곳. 성게, 소라, 미역. 미역도 거기가 젤로 우선 먼저 나는 곳. 젤로 빨리 나오는 곳. '절장개' 바당은 좋은 곳이야. 밖으로는 모래고, 저 차 다니는 데는 전부 모래고, 요 돌로, 여기는 누룩돌 있고, 여도 있어서 조금씩, 많이 가면 허지도 못해.)

-천영자 구술

오분자기는 전복보다 작고 밋밋한데 '눈'이라는 불리는 호흡공 개수가 전복보다 약간 많아서 호흡공이 3~5개면 전복, 6~9개면 오분자기라고 한다지만, 호흡공이 4개인 오분자기도 있다. 오분자기의 식용방법으로는 전복과 마찬가지로 젓갈을 담거나 죽, 찜, 또는 뚝배기에 넣어서 먹는다.

2-1-3. 성게

성게는 마치 가시 돋친 밤송이처럼 건들면 푹푹 찌를 것처럼 생겼지만, 맛있는 제주 음식 중 하나인 성게 미역국의 주재료이다. 사계리의 성게 채취 시기는 6월에서 7월 중순 사이로, 바닷가 근처에서 채취하는 성게는 '갯땀이'²⁹⁾를 하는 동안에도 자주 볼 수 있을 만큼 다른 지역보다 성게가 많이 보였다. 그러나 장마가 끝나는 시기에 맞추어서 산란이 되면 성게알이 모아지지 않아서 '알을 싸다', 또는 '고름이 피다'는 표현을 하

29) 마을어장 내 암반이나 돌에 툫 등 해조류가 부착하여 잘 자랄 수 있도록, 바위에 붙어 자라는 지충이 등 해충 부착 생물을 제거하는 일을 말한다.

면 성게 시기가 이미 늦었다는 뜻이다. 성게의 내부는 다섯 칸으로 되어있고, 암수딴몸으로 암컷은 노란색 알을 품으며 수컷은 담황색 정소를 갖는다. 낮에는 대부분 바위틈에 숨어 지내다가 밤에 나와 먹이 활동을 한다.³⁰⁾ 성게를 채취할 때는 '호멍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채취한다. 성게 채취 시기가 늦으면 금방 산란기가 되어서 알이 흩어지기 때문에 짧은 시기 집중해서 작업에 참여한다.



사진 85 돌 틈에 숨어 있는 성게

성게, 귀살이엔 해. 성게도 스무날 정도벤틀기 못 해, 산란기 뉘볼민.

(성게는 '귀살'이라고도 해. 성게도 스무날 정도밖에 못해. 산란기 되어버리면)

-이한옥 구술

성게, 스무날까지 못허여, 잘 허민 보름, 올히 금지로 키로에 십육만 원, 가격은 성게가 비싸주만, 소라영 성게영 허민 소라가 낫주지. 소라는 몇 개월 허는디, 성게는 잠깐. 잠깐.

(성게, 스무날까지 못하지. 잘 하면 보름, 올해 가격으로 킬로그램에 십육만 원, 가격은 성게가 비싸지만, 소라하고 성게하고 하면 소라가 낫지, 소라는 몇 개월 허는데, 성게는 잠깐. 잠깐.)

-김이선 구술

성게는 일 키로에 판매하는, 그러니까 일 키로에 십육만 원. 이거 금값이지요. 그때만 나오는 거니까. 원래 공동 판매하고, 남으면 가져가서 얼려서 판매를 하든, 그건 자기네가 알아서 하는 거고. 작년에도 다 나갔어요. 이백 키로. 이백 키로 곱하기 십육만 원 하면 삼천이백만 원. 하루가 아니고, 한 달 반 작업해요.

-이안숙 구술

30)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도서출판 각, 2024, 215쪽.

성게 산란기가 되면 성게 채취가 시작된다. 어장은 형제섬 근처가 되기도 하고, ‘넙데기’나 ‘절장개’가 되기도 한다. 올해 성게 채취는 형제섬에 미리 가서 둘러본 후 결국 ‘넙데기’와 ‘절장개’ 공동어장에서 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형제섬 근처 성게가 잘 여물지도 않고 굵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성게의 채취 시기는 짧아도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가격도 비싼 편이다. 하지만 해녀들의 수고로움을 보면, 비싸다는 말이 무색하리만큼 품이 많이 든다. 성게는 알만 꺼내면 양이 많지 않아 귀하고 비싼 해산물이기도 하지만, 소라 금채기에 해녀들의 주요 소득원이다.

유월부터 칠월 중순까지는 성게 잡아요. 판로는 주민들에게, 사실 뭐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조리시설이나 뭔가 그런 시설이 되어있지 않잖아요? 원래 생산하는 데가 아니라서, 그냥 개인적으로 알음알음 동네 사람들이 나 어디 아는 식당으로 이렇게.

- 이안숙 구술

성게 아이덜 잘도 정확한 아이덜이라, 사람보다 더 똑똑하여. 성게 올힌 흠지도 안 허곡, 흘근 게 엇인게. (성게 애네들 아주 정확한 아이들이야, 사람보다 더 똑똑해. 성게 올히는 굵지도 않고, 굵은 게 없네.)

- 이한옥 구술

불안에 성게만 헛인디, 이제 알 쌀 시기가 돼부난, 못허카부덴, 우린 경 험 장사 왓주게. 알 싸불카부덴 허탕 허카부덴 왓인디, 물에 들언 보난, 알 안 싸서렌. 윤달이 두 개라부난 경 허민 밑에 물이 차가와. 그런 거 있어. 바다에는 음력으로만 허니까. (잔잔해져서 성게만 헛는데, 이제 알 쌀 시기가 되어 버리니까, 못할까봐, 우리는 그렇게 해서 장사 왔지. 알 싸버릴까봐, 허탕 칠까봐 왔는데, 물에 들어 보니까, 알 안 찼더라고. 윤달이 두 개라서 그래서 밑에 물이 차가워. 그런 거 있어. 바다에는 음력으로만 허니까.)

- 천영자 구술



사진 86 성게알

성게 작업을 할 때, 반으로 가르면 노란 성게알에 바다 내음이 가득하게 올라온다. 성게 작업 철이 되면 토끼포구 작업장으로 삼삼오오 모여 성게를 까는 작업을 하는데, 사실 바다에서 성게를 잡는 시간보다 성게 손질하는 시간이 더 많이 든다. 성게물질 시간이 3~4시간이면 손질하는 시간은 5~6시간이 소요된다. 오전부터 성게물질이 시작되면 오후 늦게야 작업이 끝나는데 점심식사도 못하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성게를 그날 손질 작업을 하지 않으면 보관 방법도 없고 빨리 상하는 문제가 있어서다. 성게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는 성게 칼 이외에 가위, 체 등 다양한 도구가 필요하다.

성게 손질 순서



사진 87 작업 도구와 바닷물 준비



사진 88 성게를 칼로 반 자르기



사진 89 성게분할기로 나누기



사진 90 두 사람이 같이 하는 경우에 한 사람은 성게를 자르고 한 사람은 성게알을 꺼내는 작업을 한다.



사진 91 성게알 확인



사진 92 성게알 꺼내기



사진 93 성게알 모아두기



사진 94 성게알 씻기(세 번 이상 씻음)



사진 95 집게 등으로 이물질 제거



사진 96 통에 담기

2-1-4. 군소

바닷가 조간대를 달팽이처럼 아주 천천히 기어다니면서 주로 미역을 뜯어 먹고 사는 군소는 사계리에서 ‘군수’ 또는 ‘굴멍이’, ‘물토세기’라고 칭한다. 군소는 바닷물이 들고 나면 조간대에 많이 보이는 물렁한 동물로 머리에 더듬이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매우 느리게 이동하기 때문에 초보자도 맨손으로 손쉽게 잡을 수 있다. 바위틈이나 해초 위에 사는데 바다풀 가운데 특히 파래나 미역을 좋아한다고 한다.

물토세기, 군수는 미역 먹는 군수라. 미역 먹어. 미역 옆이 잇인 거.

(‘물토세기’, 군소는 미역 먹는 군수야, 미역 먹어, 미역 옆에 있는 거.)

-김이선 구술

굴멍이게 굴멍이, 군수라 굴멍이엔 해. 그거는 아무 때나 나타나는 거. 이때에 이제 저 성게 할 때도 있는데, 가끔가다가 해녀들 한 마리에서 두 마리 잡주. 없어. 없어. 것도.

(‘굴멍이’, ‘굴멍이’. 군소보고 ‘굴멍이’라고 해. 그건 아무 때나 나타나는 거. 이때에 이제 저 성게 할 때도 있는데, 가끔가다가 해녀들 한 마리에서 두 마리 잡지. 없어. 없어. 그것도.)

-고옥연 구술

군소를 이곳 사계리에서는 ‘군수’라고도 부르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굴멍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특히 군



사진 97 군소·굴멍이(먹는 군소)



사진 98 개군소(못 먹는 군소)

소는 외부 자극을 받으면 보라색 점액을 분비한다. 군소에도 두 종류가 있다. 노란색을 띠는 ‘개군소’는 식용이 아니기 때문에 역겨운 냄새가 나지만, 식용 군소는 검은색을 띠고 ‘호멍이’나 호미로 찍으면 보라색 물이 나온다.

노란 군수, 거만 군수가 잇인다, 노란 군수는 안 먹어. 먹어도 냄새 나. 보라색 물 나오는 것이 진짜, 먹는 거. 노란 군수 7라 ‘개군수’렌 허여. 지금 아이 막 비싼다.

(노란 군소, 검은 군소가 있는데, 노란 군소는 안 먹어. 먹어도 냄새가 나. 보라색 물 나오는 것이 진짜, 먹는 거. 노란 군소는 ‘개군소’라고 해. 지금 애 막 비싸.)

-김이선 구술

군소의 요리 방법으로는 내장을 제거한 후 삶아서 초장에 찍어 먹거나, 양념을 해서 볶아먹는다. 식감은 쫄깃하고 향이 독특하다. 사계리 용해동 ‘설콧’ 바다 근처에서 20년 넘게 해산물 요리 식당을 운영하는 해녀 김이선이 전하는 군소 요리를 전수하자면 이렇다.

나 군수 장사 험시네, 군수는 그냥 삶아, 물 쪄꼬만 넣영 삶아야, 이것이 물로 다 나와. 게민 쪄락쪄락 헝 맛 이서. 경 헝은에 깨끗하게 밀어 텅으네 양념헝 보까. 막 좋아, 초장에 찍영 먹어도 좋고.

(내가 군소 장사 하고 있네, 군소는 그냥 삶아, 물 조금만 넣고 삶아야, 이것이 물로 다 나와. 그러면 쫄깃쫄깃 해서 맛이 있어.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밀어 두고 양념해서 볶아. 막 좋아. 초장에 찍어 먹어도 좋고.)

-김이선 구술

군수 영 오물락 한 거, 그 물 빼불민 요메니 헝, 이만이 헝당근에 물 빼불민 요메니, 막 손질해가지고, 삶아서, 막 삶양. 시쳐가지고, 시쳐가지고, 경 허영 뉘 초장에 찍영 먹어.

(군소 이렇게 오물락 한 거, 그 물 빼버리면 요만큼 해서, 이만큼 했다가 물 빼면 요만큼, 막 손질해서, 삶아서, 막 삶아서. 씻어 가지고, 씻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뉘 초장에 찍어서 먹어.)

-고옥연 구술

군소는 처음 보기에 그리 친숙한 형태는 아니다. 하지만 예전에 일식 식당에서 친숙하게 만났던 식재료라는 것을 알면 그 낯설음이 곧 친숙함으로 바뀐다. 잘 삶은 군소를 초장에 찍어서 먹거나, 양념을 해서 볶거

나 조려 먹어도 그 맛이 일품이다. 소주 안주에도 그럴듯한 군소 요리는 건강에도 좋아 식당에서는 꽤 비싸게 팔리는 식재료라고 한다. 그러나 바다 환경의 영향인지 요즘은 그마저도 자주 볼 수 없게 되어 가고 있다.

2-1-5. 굴

사계리에서는 바닷가 조간대에서 따개비(통굴)과 큰뿔고둥(몰아진굴)을 자주 볼 수 있다. ‘몰아진굴’의 모양은 대체로 둥글게 말린 타원형이거나 일자형 등이 있고, ‘통굴’은 위로 숙 하고 올라간 모양을 하고 바위에 붙어서 산다. 껍데기가 아주 단단해서 돌에서 쉽게 떼어지지 않는다. ‘갯댤이’를 하는 중간에도 지인이 오면 ‘호멍이’나 ‘굴쟁이’로 바로 굴을 깨서 먹으라고 주는 인정을 느낄 수 있었다.

개파래가 신디 통굴이 잇인다게.

(개파래가 있는 데 통굴이 있다니까.)

-김이선 구술

통굴이 많아. 옛날에는 찍어근에 그걸 먹었지. 잘도 쪄꿀락, 크질 못헤부난 상품이 안 되는 거.

(통굴이 많아. 옛날에는 찍어서 그걸 먹었지. 잘도 작아. 크지를 못하니까 상품이 안 되는 거.)

-허월자 구술



사진 99 검은큰따개비(통굴)



사진 100 큰뿔고둥(몰아진굴)



사진 101 큰뿔고둥 속살

사계리에서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식용 파래는 볼 수 없었다. 대신 얇고 넓적하며, 짙은 녹색을 띠는 개파래를 자주 볼 수 있었는데, 이 개파래 근처에 ‘물아진굴’이나 ‘통굴’과 같은 굴 종류를 자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굴과는 형태적으로 달라, 굴이라고 인식하기는 어려웠으나 맛을 보면 굴과 비슷한 맛으로 해녀들은 오래전부터 먹거리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2-1-6. 해삼

제주 해삼은 붉은빛을 띠어 홍해삼이라고 불리며, 그 영양가와 효능 덕분에 바다의 삼이라고도 불린다. 육지에서 서식하는 검푸른 색의 ‘펼해삼’과는 달리 제주의 홍해삼은 대체로 붉은색이며 검은 반점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몸통은 길쭉하며, 3~4월이 제철이라 회로 먹으면 더 꼬들꼬들한 식감과 함께 깊은 풍미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사계리 어촌계는 자율관리협회 활동으로, 바다에 홍해삼과 전복의 씨를 뿌리는 종패사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아울러 수산자원관리공단의 해중립 조성 사업 등도 어촌계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지역 해양 생태계 복원과 자원 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일월 달 해삼, 홍해삼, 해녀들이 씨를 넣어. 도에서 종패를 줍니다. 이걸 홍해삼 새끼 담는 거. 홍해삼 종표, 이월 에도, 십이월부터 삼월까지는 홍해삼이 나와.

(일월 달 해삼, 홍해삼, 해녀들이 씨를 넣어. 도에서 종패를 줍니다. 이것을 홍해삼 새끼 담는 거. 홍해삼 종표, 이월에도, 십이월부터 삼월까지는 홍해삼이 나와.)

-강복순 구술



사진 102 해삼(등)



사진 103 해삼(배)



사진 104 1990년대 해삼무래(어촌계 제공)



사진 105 1990년대 해삼무래(어촌계 제공)

똥물내리는디는 아니 해삼 잘 나. 해삼. 똥물내리는각은 해삼, 몰레통허곡, 몰레통엔 해삼, 붉앙지미도 해삼, (‘똥물내리는디’는 아니 해삼 잘 나. 해삼. ‘똥물내리는각’은 해삼, ‘몰레통’하고, ‘몰레통’에는 해삼, ‘붉앙지미’도 해삼.)

-천영자 구술

사계리 홍해삼의 채취 시기는 12월에서 3월까지이다. 사계리에서 해삼이 많이 나는 곳은 안덕면 사계리와 대정읍 상모리 사이의 ‘똥물내리는디’와 ‘몰레통’, ‘붉앙지미’ 등에서 해삼을 채취한다고 한다. 1990년대 쯤은 해삼이 많이 났었다.

홍해삼의 판로는 용머리 해안에서 판매하는 해녀들의 장사이다. 사계리 해녀는 용머리 해안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해녀들이 직영하는 관광지 판매 식당은 용머리 해안 매표소 입구에 있는데, 해녀들이 조를 짜서 판매하고 있으며 주로 전복회, 소라회, 성게, 문어 등을 판매한다. 판매용으로 채취한 물건이 떨어졌을 때는 어촌계에서 수시로 작업을 허락한다.

홍해삼은 그러면은. 판로, 저디 강, 장사하는 거. 용머루.

(홍해삼은 그러면. 판로, 저기 가서 장사하는 거. 용머리.)

-강복순 구술

전복이나 해삼이나 이런 건 개인적으로 판매를 하시고, 해녀 회장님이 받아서, 이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 이렇게 용머리 가서 장사할 때, 판매하시는 걸로.

- 이안숙 구술

실질적으로 해녀 활동을 중단하고 은퇴하더라도, 용머리 해안에 위치한 '사계해녀의집'에서 장사를 하는 일은 별도의 생업으로 이어진다. 전복이나 해삼, 문어 같은 '헛무레³¹⁾'로 잡힌 해산물들은 사계리 잠수회를 통해 용머리 해안 '사계해녀의집' 관광식당에서 소비되어, 잠수회의 주요 수익원으로 이어진다. '사계해녀의집' 운영은 조별로 이루어지며, 수익은 조별 참가자에게 균등하게 배분된다.

2-1-7. 거복손

거복손은 삼각형의 머리와 자루 부분은 석회판으로 덮여 있으며, 썰물 때 몸이 마르지 않게 바닷가 바위틈에 무리 지어 산다. 바위틈에 단단하게 붙어서 살기 때문에 '호멍이'나 '굴갱이' 같은 도구로 떼어내야 하는데, 먹는 방법으로는 펄펄 끓는 물에 삶아 초고추장에 찍어 먹거나, 무쳐서 먹는다. 쫄깃한 식감이 있어서 간식으로도 먹는다.



사진 106 거복손

거복손은 뽀족뽀족 튀어난 건디, 이쪽저쪽 튀어난 건디, 돌에 부딪, 올라와 잇는 거, 먹긴 먹나. 위에 건 말고 덩테기에서. 삶아서, 보말같이 삶아서, 한번 쪽 빨아 먹어. 위엔 엇고, 저 덩테기에 거. 그 밑에 이렇게 뽀족뽀족한 거 가까이, 여물 없어, 반찬, 에에, 여물 없어.

(거복손은 뽀족뽀족 튀어나온 건디, 이쪽저쪽 튀어나온 건디, 돌에 붙어서, 올라와 잇는 거, 먹기는 먹지.

31) '헛무레'는 해녀들이 전복, 소라 따위를 캐는 물질을 말한다. 우뚝가사리나 툯 따위의 특정 바다풀은 일정 기간에 때맞추어 작업을 하면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는 반면, 전복이나 소라 등을 따는 일은 소득이 반드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헛물질'이라고도 한다.

위의 것은 아니고 '덩테기'에서. 삶아서, 고등같이 삶아서, 한번 쪽 빨아 먹어. 위에는 없고, 저 '덩테기'에 거. 그 밑에 이렇게 뽀족뽀족한 것을 까서, 알맹이 없어, 반찬, 에에, 알맹이 없어.)

- 고옥연 구술

옛날에는 아래에 놓으면 껍데기 벗겨져. 요거는 영 찢으면은 싹 껍데기 베껴진다. 딱 찢어 놓민, 이제는 숲아근에 영 벨라지만, 먹어놔져만은 이제는 안 먹어.

(옛날에는 아래에 놓으면 껍데기 벗겨져. 이것은 이렇게 찢으면 싹 껍데기 벗겨진다. 딱 찢어 놓으면, 이제는 삶아서 이렇게 벌어진면, 먹었었는데 이제는 안 먹어.)

- 허월자 구술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는 딱딱하기만 하고 알맹이가 적은 거복손마저도 간식으로 먹었지만, 먹을 것이 많아진 지금은 번거로워서 먹지 않게 되었다는 말에 세월의 무상함을 느낄 수 있었다. 단지 지난 시간을 추억하는 먹거리로, 간식으로 찾는 이가 가끔 있을 뿐이다.

2-1-8. 붉은줄격판담치(홍합)

홍합(붉은줄격판담치)의 몸은 삼각형에 가까운 타원형이다. 바위틈에 단단하게 들러붙어 살다가, 떠다니는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자란다. 산란기는 4-6월이지만 사계리에서 서식하는 홍합은 상품성이 낮아 상업적으로 채취되지는 않는다. 맛이 좋아서 찌개 따위를 끓일 때 재료로 쓰이는데, 사계리에서는 용머리 해안이나 형제섬에 가면 홍합을 많이 볼 수 있다.



사진 107 붉은줄격판담치(홍합)

에고, 요만씩 현 거, 그거 다 큰 거. 그거. 너무 작아 부난, 홍합도 많은데, 저 형제섬 가면은 이만큼씩 현 홍합 있어. 탄 섬 중에, 형제도 가도 요만씩 현디, 히어 가가지고, 홍합 이만큼씩 현 거 있어. 먹을 사람들이 가서 조금씩 헤다가.

(에고, 이만큼씩 현 거, 그거 다 큰 거. 그거. 너무

작아서, 홍합도 많은데, 저 형제섬 가면은 이만큼씩 한 홍합 있어. 다른 섬 중에, 형제도 가도 요만큼씩 한 데, 헤엄쳐 가서, 홍합 이만큼씩 한 것 있어. 먹을 사람들이 가서 조금씩 해다가.)

- 고옥연 구술

홍합, 여기선 홍합, 담치렌 안 해. 형제섬 많이 낚어. 옛날엔 우리 저거 해당근에 숲양근에 영영 국 끓이민 막 맛좋 아 낚져. 이젠 막 줄언. 요번에 갓단에 해왔인디, 으물이 었어라.

(홍합, 여기선 홍합, 담치라고는 안 해. 형제섬 많이 낚어. 옛날에는 우리 저거 해다가 삶아서 이렇게 이렇게 국 끓이면 막 맛있었지. 이제는 막 줄어들었어. 요번에 갔다가 해왔는데, 으물이 없더라.)

- 허월자 구술

용머리 해안이나 사계리 조간대를 걷다 보면 자그마한 홍합이 무리를 이루어 자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기에는 크기가 작다. 물론 형제섬에 가면 크기가 아주 큰 홍합을 자주 볼 수 있다고 하지만 공동판매나 납품을 목적으로 채취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개인이 필요한 만큼만 채취해 소비하는 정도이다.

2-1-9. 군부

군부는 마치 바위에 박힌 솔방울이나 벌레처럼 보일 때가 있다. 타원형의 몸체에 단단한 여덟 개의 패각판³²⁾이 살 속에 묻혀 있는데, 바위 표면에 붙어 있는 작은 해조류를 갇아 먹는다. 군부는 빛을 싫어해서 바위틈이나 갯바위 밑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주로 밤이나 만조 때 활동한다. 돌이나 암반에 붙어 있는데 부착력이 아주 강해 물리적 자극을 받은 상태에서는 도구 없이 떼어내기가 어렵다. 식용할 때는 패각판과



사진 108 군부

32) 패각판은 연체동물의 외투막에서 분비된 석회질이 단단하게 굳어서 된 겹겹데기로 칼슘이 주성분이며 태워서 석회를 만들기도 한다.

털, 내장을 제거한 뒤 삶거나 무침, 젓갈, 찻국 등으로 만들어 먹는다.³³⁾

이곳 사계리에서는 군부를 ‘군벗’이라고 부르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로는 제주 무가 <문전본풀이>에 따르면 군부는 ‘남선비’의 첩인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손콧 밭콧 그찬 데껴 부난 쇠곰벗 돌곰벗(손톱과 밭톱을 끊어 던져 버리니 ‘쇠곰벗’, ‘돌곰벗’)”이 되었다고 전하여³⁴⁾ 예부터 사람과 친숙한 식재료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군벗, 막 핫져게, 여름에 나. 이제 군벗, 이제 막 티엄세.

(군부, 막 많아, 여름에 나. 이제 군부, 이제 막 떼고 있네.)

- 고옥연 구술

2-1-10. 고동류

다른 지역에 비해 이곳 사계리에서는 고동류를 자주 볼 수 없다. 어르신께 물었더니 옛날에는 ‘수두리 보말’과 같은 고동이 많이 낚지만, 지금은 큰 고동을 거의 볼 수 없어 개인이 채취하고 판매한다. 그런데 사계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고동에는 ‘메옹이’라고도 불리는 두드럭고동이 있다.

무사 보말 었어게, 예에, 보말 안 해. 이만씩 큰 거 없어. 육지 가면 이만씩 큰 거 잡주만은 이젠 없어.

(왜 고동 없어, 예에, 고동 안 해. 이만씩 큰 것이 없어. 육지 가면 이만큼씩 큰 거 잡지만 이제는 없어.)

- 고옥연 구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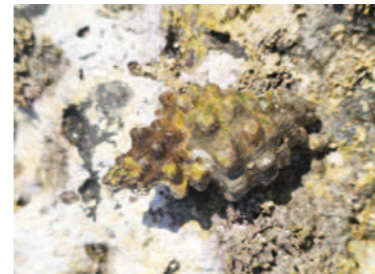


사진 109 두드럭고동(메옹이)



사진 110 눈알고동(문테기보말)



사진 111 팽이고동(수두리보말)

33)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도서출판 각, 2024, 213쪽.

34)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도서출판 각, 2024, 213쪽.

두드러고등인 ‘메옹이’는 보통 장마철에 자주 볼 수 있다. 그리고 바위틈에 웅기종기 모여 살기 때문에 썰 물 때 바닷물 속에 있는 돌을 뒤집으면 자연이 주는 풍성한 해산물을 한가득 구할 수 있다.

메옹이는 이제 막 마 돼가니까, 막 모여와가지고, 마타살 모양으로 막 모여다가 이만씩 시민 쓸어오잖아. 메옹이가 장마지전 허민 막 모여들영, 경 행 모영. 이만이 시면은 가서 보민 막 쓸어와. 모다정 있어. 마에, 마 아니면 없어. 게난, 흥사리 따로 가져가서 그거 실어 오잖아. 경해서 그것도 팔고.

(‘메옹이’는 이제 막 장마 되가니까, 막 모여와서, ‘마타살’ 모양으로, 막 모여다가 이만큼씩 있으면 쓸어오잖아. ‘메옹이’가 장마지려고 하면 막 모여들어. 그래서 모여서. 이만큼 있으면은 가서 보면 막 쓸어와. 모여져 있어. 장마에, 장마 아니면 없어. 그래서, 흥사리 따로 가져가서 그거 실어 오잖아. 그렇게 해서 그것도 팔고.)

- 고옥연 구술

얇은 바위 수심에 딱딱따닥 붙어 사는 ‘메옹이’는 쫄깃한 육질과 함께 약간 매콤한 맛이 특징이다. 이 매운맛 때문에 제주의 <시집살이노래>에서는 시누이에 비유되기도 한다. “우럭 7튼 씨아지방에 메옹이 7튼 씨누이에(우럭볼락 같은 시아주버니에 두드러고등 같은 시누이에)”에서 확인할 수 있다.³⁵⁾

이렇게 장마철이 되면 여기저기에서 모여들어서 쓸어 담을 만큼 많아, 한때는 배고픈 이들의 소박한 반찬거리였던 제주 바다의 해산물, 요즘에는 자연식과 웰빙 바람을 타고 죽·뚝배기·국 등의 귀한 식재료로 인기를 얻고 있는 모습을 보면 세월의 흐름과 함께 식문화의 변화를 실감하게 된다.

2-2-11. 배말

둥그랗고 납작한 삿갓 모양의 배말은 이곳 사계리에서도 ‘배말’이라고 부른다. 바위에 붙어서 사는데 파도가 거센 곳에 사는 것은 크기도 작으며, 껍데기가 두껍고 약간 높은 반면, 물살이 약한 곳에 사는 것은 크기가 크고 껍데기는 얇고 높기도 낮다.³⁶⁾ 배말은 따개비의 일종으로 물에 데치면 자연스럽게 속살과 껍데기가 분리된다. 이때 미역을 넣어 국을 끓이면 배말과 미역의 궁합이 잘 맞아 식감도 좋고, 맛도 일품이다.

35)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도서출판 각, 2024, 209쪽.

36)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도서출판 각, 2024, 204쪽.



사진 112 흑색배말

사진 113 갯뚱이도구호맹이로배말을 채취하는모습 사진 114 흑색배말과 두드러고등(메옹이)

이제, 물써민 가면 있지. 아무 때나, 겨울에도 싯곡 여름에도 싯곡, 거 삶으면 다 겹데기 따로, 알맹이 따로 다 나 오잖아. 경 행 영 일어가지고, 죽도 썩 먹고, 국도 끼령 먹고, 무청도 먹고.

(이제, 물써면 가면 있지. 아무 때나, 겨울에도 있고 여름에도 있고, 그거 삶으면 다 겹데기 따로, 알맹이 따로 다 나 오잖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일어서, 죽도 썩서 먹고, 국도 끓여 먹고, 무쳐서도 먹고.)

- 고옥연 구술

2-2. 바다식물

2-2-1. 미역

제주에서는 해안 마을마다 기간을 정해 미역 채취를 금하다가 대개 음력 3월 초가 되면 채취를 허가하는데 이를 ‘해경(解警)³⁷⁾’이라고 한다. 미역 수확시기는 미역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하나 보통 1월부터 4월까지이다. 1970년대 육지의 양식 미역이 시장에 보급되기 전까지, 제주 미역은 최고의 환금작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양식 산업의 확산과 시장 변화로 인해 그 경제적 위상이 과거와는 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역 채취는 여전히 마을 공동체의 중요한 계절 행위로 남아, 지금은 어촌계가 주도적으로 마을 어장의 운영과 여건에 따라 미역 채취와 분배 방식을 결정하곤 한다. 이러한 미역 채취와 판매 방식 등은 아직도 공동체적 채취 관행과 양상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³⁸⁾

37) ‘해경(解警)’이란 마을마다 기간을 정해 미역 채취를 금하다가 대개 음력 3월 초 이를 해제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다른 말로는 ‘허채’, 또는 ‘즈문’이라고도 한다.

38) 강수경, 『제주도 바다밭 지식과 어로 민속 연구- 제주시 조천읍 사례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6쪽.

사계리의 경우 예전에는 미역 이외에도 툇과 모자반도 마을 어촌계에서 공동 작업을 했으나 지금은 공동으로 작업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직도 미역만큼은 어촌계의 마을 어장에서 공동으로 작업한다.

미역의 성숙 시기는 서식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4~6월에 포자를 방출한 후 차츰 녹기 시작해 8월부터 11월까지 보이는 않다가 12월부터는 다시 어린 미역을 관찰할 수 있다. 2025년 사계리는 미역이 풍년이다. 다른 지역에는 미역이 안 난다고 올상인데 사계리 미역은 특별히 맛있고 넘쳐난다. 사계리는 수심이 깊고 마을 어장 앞에 형제섬과 여가 많이 있어서 미역이 많이 나는 편이라고 한다.



사진 115 미역

미역도 작년에는 삼천 키로였는데, 올해는 만 키로, 십톤 하고도 넘었죠. 예, 그러니까 그 저쪽 뭐 강정이나 법환에서 이젠 아예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 삼 년 전부터 미역이 아예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에게 사러 오기도 하고, 미역도 올해 좀 많았고.

- 이안숙 구술

다른 딴, 소라도 미역도 아예 안 남덴. 올해는 우리 미역 미리 난에, 저기 시커멓게 한 거 다 미역이라. 바당속 구역이 달라부난, 미역도 나는 디 있고, 안 나는 디 있곡.

(다른 데는 소라도 미역도 아예 안 난대. 올해는 우리 미역 미리 나서, 저기 시커멓게 한 거 다 미역이야. 바다속 구역이 다르니까, 미역이 나는 데 있고, 안 나는 데 있고.)

- 강복순 구술

미역은 어촌계를 통해서 공동으로 판매한다. 보통은 어촌계에 미역 작업을 하기 전에 사전 주문을 받고 미역물질 하는 날 해녀들이 들어오는 시간에 미리 포구로 미역을 가지러 주문한 사람들이 직접 와서 가져갔다. 사무장과 어촌계 관계자는 한 마대에 30kg씩 무게를 달아 현장에서 다 소비하고 주문이 끝나면 미역 물질도 끝을 낸다.

사계리 미역은 공동어장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어촌계의 정회원이 아니면 작업에 참여할 수 없다. 그리고

사계리의 미역 소비는 미리 어촌계를 통해 매년 소비자를 알아보고 판로를 어느 정도 결정한 후에, 미역 채취를 한다. 따라서 미역을 채취한 이후 어장관리선이 직접 해녀들의 마중을 나가고, 돌아온 후에는 포구에서 어촌계 사무장과 해녀 회장이 채취한 미역의 무게를 측정할 이후 전표를 발행한다. 예전에는 이러한 공동 작업의 범위가 다양해, 툇과 모자반 등도 공동 작업을 했으나, 현재 사계리에서는 다른 해조류의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해조류의 채취는 결국 생산성과 해녀의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지 않은 해조류는 점점 공동 분배나 공동 작업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된다.

옛날, 물질을 해도 구쟁기도 못 잡고, 그냥 바당궂이도 강 미역 한 망덜 좇어당 물리왕 풀곡, 우리 어머니는 미역을 허민 멧 칭을 아버지가 손 잘 밧, 쥌물로 푸~ 허여근에, 촉촉하게 허여근에 미역도 너무 곳아도 안 사메, 게민 돌아가명 늘 누듯이 크칭하게 허영, 옛날 7렛돌 그축 행, 다리미 이만 한 거, 그걸로 딱 눌러근에, 비니루, 이제 쫘은 갑빠고 돈만 주민 착착 사 오주만은이, 아버지가 약속허난 헛단, 어머니 한 해 한 거 다섯 칭 멧근 오곶, 주켄 행 7져강 돈 못 받안. 우리 어머니 막 앓앙 울어나서. 그거 미역 풀아사게 돈을 사나 밧을 사나, 쫘 상 먹을 거 아냐.

(옛날, 물질을 해도 소라도 못 잡고, 그냥 바닷가에도 가서 미역 한 망사리들 주어다가 말려서 팔고, 우리 어머니는 미역을 하면 멧 칭을 아버지가 손을 잘 밧서 쥌물로 푸~ 해서, 촉촉하게 해서 미역도 너무 딱딱해도 안 사, 그러면 돌아가면서 더미 만들듯이 반듯하게 해서, 옛날 멧돌 그렇게 해서, 다리미 이만큼 한 거, 그걸로 딱 눌러서, 비닐, 이제는 천막이고 돈만 주면 착착 사 오지만, 아버지가 약속했다고 해서, 어머니가 한 해 한 거 다섯 칭 멧근 한 거 그만, 주겠다고 해서 가져가서 돈 못 받았어. 우리 어머니 막 앓아서 울었



사진 116 공영호에서 미역 내리는 모습



사진 117 미역 수매하는 모습

있어. 그거 미역 팔아야 돈을 사든지(벌든지), 밭을 사든지, 쌀 사서 먹을 거 아냐.)

- 천영자 구술

미역은 바다에서 수확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손을 보느냐에 따라 상품성과 가격이 달라진다. 말리기만 하면 미역이 너무 딱딱해서 팔아도 사람들이 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성스레 손을 보고 열심히 일을 해서 약속한 돈을 받아야 하지만, 결국 그 미역 대금을 떼이고 말았다는 과거 이야기에서 당시 해녀의 어려움과 가족의 한이 또렷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2-2-2. 우뭇가사리

우뭇가사리는 홍조류의 해초로, 검은색에 가까운 붉은색을 띠고 있으며, 가는 줄기가 여럿 붙어서 흡사 머리카락 뭉치를 연상하게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보통 우무, 또는 천초(天草)라고 불린다. 우무는 냉채, 무침 등 차갑게 해서 먹는 요리에 사용할 수 있으며, 열량이 거의 없고 섬유질이 많아 다이어트 식품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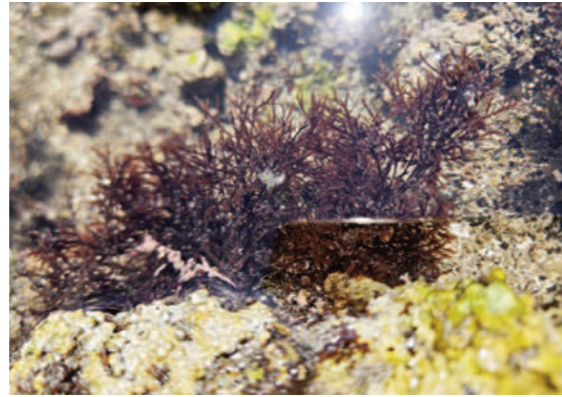


사진 118 우뭇가사리

제주도 연안에서 상업성이 가장 뛰어난 해조류이다 보니, 제주의 다른 어촌마을에서는 5월~6월 경, 햇볕 좋은 아스팔트 도로 위에 우뭇가사리를 널어놓은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사계리도 예전에는 우뭇가사리가 많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현재는 거의 볼 수 없다. 우뭇가사리가 보이더라도, 그 양이 미미해 상업성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채취해서 먹을 뿐이다.

동더레 가면은 우미, 우뭇가사리가 엄청 난덴, 여기는 없어. 아예 안 나. 나도 조금 나민 해녀 안 허는 사람도 해당 먹으면 끝, 없어 구역이 틀려.

(동쪽으로 가면은 우무, 우뭇가사리가 엄청 난다고, 여기는 없어. 아예 안 나. 나도 조금 나민 해녀 안 하는 사람도 해다가 먹으면 끝, 구역이 달라.)

- 강복순 구술

천초, 그거이 먹는 거라. 거, 먹는 풀이랴. 이거 우미.

(‘천초’, 그것이 먹는 거야. 거, 먹는 풀이야. 이거 우무.)

- 김이선 구술

근데 여기에는 우뭇가사리는 아예 없어요. 아니 조금, 조금 있는데 뭐. 팔 정도의 양은 아닌 거 같아요. 그것도 많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 이안숙 구술

저기 뭐냐 우뭇가사리는 우미가 없어. 우민 저 송악산 허고 저디 조금 있는데, 사름덜 그자, 마른 밭디 물싸면은 가서 메다가, 먹는 사름덜 먹고, 안 난. 옛날도 안 난. 없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저기 뭐냐, 우뭇가사리는 우무가 없어. 우무는 저 송악산 하고 저기 조금 있는데, 사람들 그자, 마른 밭에 물싸면은 가서 매어다가, 먹는 사람들 먹고, 안 났어. 옛날에도 안 났어. 없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 고옥연 구술

제주의 마을마다 어촌계마다 바다 환경도,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의 종류도 다양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을마다 물때 시간이 다르고 조류의 흐름이 달라지듯이 다른 지역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해조류는 오히려 사계리에서는 상품성이 없거나, 양이 풍부하지 않아 공동작업을 하지 않았다.

2-2-3. 툇

툇은 갈색의 대형 해조류로 조간대 암반 위에 붙어서 자란다. 수확시기는 3월~5월이며, 더운 여름을 나고 수온이 내려가는 10월부터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 예전에 제주도에서 툇은 다른 해초들과 함께 대부분 거름으로 쓰였고 일부는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한 구황식품으로 이용되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1960년대에 일본으로 수출길이 열리면서 본격적으로 소득작물이 되었다.³⁹⁾ 제주에서 툇의 방언형은 ‘툇’과 ‘툇’이 나타난다. 제주 동부 지역에서는 ‘툇’, 서부 지역에서는 ‘툇’형이 나타나는데, 사계리에서는 ‘툇’이라고 말한다.

39)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도서출판 각, 2024, 245쪽~246쪽.

툇을 먹는 방법으로는 생물로 먹을 때는 살짝 데쳐서 양념한 후에 먹기도 하고, 말려서 저장해 두었다가 무침, 나물, 또는 냉국의 재료로 사용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싼 가격에 유통되었으나 근래에 들어 건강 식품으로 이름을 날리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 예전에는 사계 어촌계에서도 판매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따로 채취하지는 않는다.



툇 이젠 나민 까룻까룻 헤영 영 한다. 툇, 어린 거구 나, 이거. 사진 119 툇

(툇 이젠은 나민 까룻까룻 해서 이렇게 한다. 툇, 어린 것이구나, 이거.)

-김이선 구술

툇은 오월, 아, 오월에 시작. 그것도 잠깐 해요. 잠깐. 툇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 앞에서 이제 '납데기'에서 잠깐, 하루 정도. 한 이틀 정도 하시는데. 작년에는 오월 달에 했거든요.

-이안숙 구술

툇은 말려근에 팔안. 말령. 툇은 이제 삼월 들부터 허여근에, 벌써 끝났어. 지금은 툇이 없을 때. 삼월부터 헤가지고 미역부터 헤가지고, 겨울 나가면 조금씩 조금씩 한 거 커가도, 한 삼월 나면은 비어가지고, 지켜여서. 헤다 먹지 못하게. 딴 사름 못하게 지키다가 그렇게 했는디, 이제는 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안 허고, 막지도 안 허고, 우리도 이제 바다에 가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나이 들어부니까. 젊었을 땐 다 경 헛어.

(툇은 말려서 팔았어. 말려서. 툇은 이제 삼월 달부터 해서, 벌써 끝났어. 지금은 툇이 없을 때. 삼월부터 해서 미역부터 해서, 겨울 나가면 조금씩 조금씩 한 것이 커가도, 한 삼월 나면은 비어서, 지켰었지. 헤다 먹지 못하게. 다른 사람 못하게 지키다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막지도 않고, 우리도 이제 바다에 가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나이 들어버리니까. 젊었을 땐 다 그렇게 했어.)

-고옥연 구술

작년 2024년 같은 경우에는 툇 작업을 5월에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툇은 예전에는 공동 작업과 공동

판매를 했으나 현재는 작업 참여자도 저조하고 수익도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납데기 공동어장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작업을 진행한다고 한다. 물론 미역과 같이 어촌계장이 직접 어장관리선인 공영호를 타고 마중을 나가야 한다.

2-2-4. 구멍갈파래

구멍갈파래(개파래)는 조간대의 편평한 암반에서 자라며 1-5월에 흔히 관찰되는 해초로 외형은 얇고 편평한 막 모양으로 밝은 연녹색이다. 잎의 가장자리가 물결 모양으로 심하게 구불거리며, 만지면 조금 미끈거리다. 암반 위에 많은 개체가 모여 군락을 이루는데, 연안의 부영양화 현상에 대한 반응으로 대량 증식해 녹조를 유발함으로써 환경 및 산업적 피해를 주고 있다. 그중에서도 개파래는 사계절 내내 관찰되지만, 주로 봄에서 초여름에 번창한다. 구멍갈파래는 먹지 못한다.



사진 120 구멍갈파래(개파래)



사진 121 청각

2-2-5. 청각

청각은 녹색의 원통 모양의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암반이나 자갈 위에 한 개체씩 또는 여러 개체가 같이 붙어서 부채꼴로 자란다. 제주에서는 3~6월에 주로 관찰되며, 주로 청각채로 식용한다.

청각, 다른 이름 엇어, 엇어, 푸리지 안허서? 자이, 그 풀이 푸려. 그러니깐 청각이엔 허는 거 닳아 베어. 갯댤이 허는 때 찍은 거 같오다.

(청각, 다른 이름 엇어, 엇어. 푸르지 않아? 재네, 그 풀이 푸르러. 그러니까는 청각이라고 하는 거 닳아 보여. 갯댤이 할 때 찍은 것 같네.)

-김이선 구술

2-2-6. 모자반

모자반은 제주도의 대표적인 식자재이다. 예로부터 제주 사람들이 즐겨 먹었던 ‘뭍국’⁴⁰⁾의 주재료로서, 돼지고기를 삶아낸 국물에 불린 모자반을 넣고 끓인다. 모자반의 아랫부분이 질겨서 장아찌로 만들어 먹기도 한다. 과거에는 제주도 모든 연안에서 자주 볼 수 있었으나, 근래에는 생육지가 점점 축소되어 상업적으로 수확하는 어장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제주에서는 식용 모자반을 ‘뭍’이라고 하였다. ‘뭍’ 채취 시기는 정월부터 음력 2월 초순이다.

경허곡 감저 메 놓젠 허민 난 잘 허곡, 는 못허민 느영, 나영, 야이영, 서이가 가부시키 허민 테왁에 줄 이만이 넓게, 여기서 이제 낭만이 딱 허영 메어근에, 문 비영 이것에 한 번 탁 감곡, 문 안양 왕 이것에 탁 허민 가에서 이전 어머니네 거 손 들르민 이레 꼬서오곡, 두령박에 거 이제 밀러오곡 허영, 이디서 좁아 덩기명 탁 허영, 다 허영, 가부시키난게 세 개 갈라근에, 훈 무더기씩 허영, 미강밭이곡 밋이고 밭이 농사고 감저메 더꿀 때 그걸 더꺼야. 또 모살 시꺼다근에 그디 감저 문으민 그 우티, 감저 우티, 이제 생각허민, 따뜻하게 빨리 순 올라오게. 모살이 뜨겁잖아. 게민 땅속에 잇인 감저가 따뜻하잖아. 거민 순 빨리 올라오고.

(그리고 고구마 순을 놓으려고 하면, 나는 잘 하고, 너는 못하면, 너하고 나하고, 이 사람하고, 셋이서 ‘가부시키’ 하면, ‘테왁’에 줄 이만큼 넓게, 여기서 이제 나무만큼 딱 해서 매어서, 모두 비어서 이것을 한 번 탁 감고, 모자반을 안아 와서 이것에 탁 하면, 가에서 이제는 어머니네 거 손 들으면, 이쪽으로 끌어오고, ‘테왁’의 거 이제 밀러오고 해서, 여기서 잡아당기면서 탁해서, 다 하고서, ‘가부시키’니까 세 개로 갈라서, 한 무더기씩 해서, 굴밭이고 뒹고, 밭의 농사고 고구마 순 덮을 때 그걸 덮어야. 또 모래 길어다가 거기 고구마 묻으면 그 위에, 고구마 위에, 이제 생각하면, 따뜻하게 빨리 순 올라오게. 모래가 뜨겁잖아. 그러면 땅속에 있는 고구마가 따뜻하잖아. 그러면 순도 빨리 올라오고.)

-천영자 구술

화산회토로 만들어진 제주의 토양은 척박해서 조와 보리 등의 경작을 위해 해조류를 비료로 활용하였다고 전한다. 당시의 구술을 들어 보면 비료가 일반화되기 전까지 모자반이나 듬북, 감태 등의 해조류가 밭의

40) ‘뭍’은 해조류인 모자반의 제주 방언이다. ‘뭍국’은 옛날 제주에서 결혼식이나 잔칫날에 먹던 음식으로, 돼지고기 삶은 육수에 피, 내장, 메밀가루, 모자반을 추가해서 먹는다.

거름으로 많이 사용했다.

2-2-7. 감태

짙은 갈색의 다년생 대형 해조류인 감태는 전복과 소라의 주요 먹이원이며, 보통은 식용하지 않고 대부분 상업적으로 판매된다. 알긴산, 요오드, 칼륨 등을 추출하는 주요 원료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해녀들이 낚을 이용하여 채취하였다. 최근에는 남획과 서식 면적 감소 등의 이유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보호종으로 지정하여 채취를 금하고 있다. 가끔 파도에 떠밀려 해변에 올라온 감태를 수확하고 있는데 이를 ‘풍태’라고 하며 이 감태를 비료로 사용하기도 한다.⁴¹⁾



사진 122 감태를 비료로 사용하는 모습

과거에는 바다에서 감태나 모자반이 파도에 밀려 올라오면 이를 걷어 말려 판매하거나, 과수원과 밭에 거름으로 사용하였다. 화학비료가 보급되기 이전에는 감태와 모자반이 중요한 유기질 비료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과수 재배와 밭농사에 널리 활용되었다. 태풍이 지나간 뒤에는 ‘뭍(모자반)’과 감태가 해안으로 대량 유입되었는데, 이때 감태를 수거하기 위해서는 감태를 안고 파도를 타듯 헤엄쳐 해변으로 밀려 나와야 했다고 한다.

감태 수거는 매우 고된 작업이었으며, 한 칭의 무게는 약 60kg 정도였다. 많을 때에는 하루에 7-8칭까지 수거하기도 했으며, 이렇게 모은 감태는 해변에서 말린 뒤 활용하거나 판매하였다. 이러한 해조류 비료는 서귀포 지역의 굴밭이 조성될 당시에도 모자반과 감태가 비료로 대량 사용되었다고 한다.

감태는 태평양전쟁 당시에는 일본이 의약품인 요오드뿐만 아니라 군수품인 화약의 원료로 활용되면서 수요가 폭증해 제주에 감태를 이용한 요오드 공장(감태공장)이 여럿 생겨나기도 하였다.⁴²⁾ 그러나 오히려 전복의 먹이이기 때문에 감태 채취를 못하게 하기도 했다고 전한다.

41)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도서출판 각, 2024, 240쪽.

42)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도서출판 각, 2024, 75쪽.

이제 그 못하는 해녀들을 요만씩, 배꼽 물 적서근에, 감태를 강 비어 오는 거라. 경 못허게 허여. 구쟁기 먹이. 몸은 해도 감태는 절대 못허게. 단체로 감태는 막자 허연에. 각 반장 통허영, 감태 비민 일절 바당에 얼르지도 못허게. 감태 장사가 셔난. 놀로 놀르민, 요건 멧 칭 허영 무데기로 사곡, 멜씩 허영 뜨켄 허민 뜨곡, 점점 헤가난에 모살 부 뜯 건 안 사켄 허연, 그거 다 털젠 허민 밧 허난이, 저 아스팔트 혼 착데레 막 널곡, 납데기 누룩빌레레 저당 널곡 허 영 다 말련, 경 헨 이건 어디 감신고 허단 보난, 화약품으로 썸젠 허단 보난, 이젠 따시 화장품 원료로 썸지.

(이제 그 못하는 해녀들을 요만큼씩, 배꼽 물 젓게 해서, 감태를 가서 비어 오는 거야, 그렇게 못하게 해. 소라 먹이. 모자반은 해도 감태는 절대 못허게. 단체로 감태는 막자 해서. 각 반장 통해서, 감태 비면 일절 바다에 가까이도 못허게. 감태 장사가 있었어. 더미로 쌓으면, 이거는 멧 칭, 해서 무더기로 사고, 놀러서 재 쟈다고 하면 재고, 점점 헤가니까 모래 붙은 거는 안 사쟈다 해서, 그거 다 털려면 뭐 하니까, 저 아스팔트 한 편으로 널고, '납데기' 누룩빌레에 저가서 널고 다 말렸어, 그래서 이거는 어디 가는고 하다 보니, 화약품으로 쓴다고 하다 보니, 이제는 다시 화장품 원료로 쓰고 있지.)

- 천영자 구술

대표적인 갈조류의 하나인 감태는 거대한 바다숲을 형성하여 다양한 바다동물들의 번식 및 생육 장소를 제공한다. 특히 소라나 전복의 먹이가 되기도 하는 감태는 예전부터 식량, 비료, 사료 등으로 이용되었다. 그리고 현재는 화장품의 원료가 되거나 음료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감태는 밭에 갈아주면, 물 여러 번 주면 조금씩이라도게. 이제야 처음, 작년에 막 여기 감태 올라시난 그냥 가져 단 깬 거. 아무래도 게, 이거 짠 거잖아예. 미네랄도 있겠고,

(감태는 밭에 갈아주면, 물 여러 번 주면 조금씩이라도. 이제야 처음, 작년에 막 여기 감태가 올라왔길래 그냥 가져다가 깬 것. 아무래도, 이거 짠 거잖아요. 미네랄도 있겠고.)

- 이순선 구술

전복이나 소라 등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화학약품의 원료가 되는 고마운 감태는 화산섬으로 만들어져 토질이 척박한 제주의 토양에 조와 보리 경작을 위한 비료로도 활용이 되었다. 비료로 활용한 해조류는 감태 외에도 모자반이나 '듬북'과 같은 해조류가 있다. 비록 화학비료가 사용되면서 해조류를 비료로 활용하는 농가는 많이 줄어들었으나, 이곳 사계리에서 화학비료와 함께 감태나 성게 껍질 등을 밭에 뿌리는 농가를 볼 수 있었다.

‘물질’은 해녀의 반복적인 경험에서 축적된 지혜와 공동체의 지식을 토대로 해산물을 채취하는 생업활동이다. 해녀는 마을의 어장과 분포 특성, 각 해산물의 생태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바람의 방향과 물때 지식을 활용한다. 이 가운데 물때 지식은 ‘물질’에서 엄격하게 적용되는 핵심 요소로, 최근에는 무형유산에서 전통지식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해녀가 성공적인 물질을 도모하기 위해서 습득하는 물때 지식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하루에 두 번 조수가 들고나는 때에 따라 바뀌는 밀물과 썰물이며, 다른 하나는 15일을 주기로 순환하는 보름물때이다. 보름물때는 조류의 만조와 간조 시수위 차이에 따라 형성되는 물때이다.

물때에 관한 지식은 해녀의 생업적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물질 작업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 뿐만 아니라, 채취 대상에 따라 전략적으로 활용된다. 해녀는 해산물의 종류와 서식 환경 등을 고려하여 채취 효율이 높고 안전한 물때를 선택한다. 또한 물때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 삶의 지혜이며 필수 지식이다. ‘칠성판을 등에 지고 물에 든다’는 비유처럼 해녀에게 바다는 늘 위험이 도사리는 생업 공간이기 때문이다.

표 5 안덕면 사계리 물때

물때(제주어)	표준어	날짜
훈물	한무날	10일, 25일
두물	두무날	11일, 26일
서물	서무날	12일, 27일
너물	너무날	13일, 28일
다섯물	다섯무날	14일, 29일
으섯물	여섯무날	15일, 30일
일곱물	일곱무날	1일, 16일
으답물	여덟무날	2일, 17일
아홉물	아홉무날	3일, 18일
열물	열무날	4일, 19일
열흔물	열한무날	5일, 20일
열두물	열두무날	6일, 21일
아끈조기	아츠조금	7일, 22일
한조기	한조금	8일, 23일
부날	무쉬	9일, 24일

이러한 물때 지식은 해녀의 개별적 차원이라기보다는 동일한 어장 내에서 생업활동을 하는 해녀공동체가 공통적으로 보유한 집단적 지식의 성격이 강하다. 해녀 김이선의 구술을 바탕으로 안덕면 사계리의 보름물때를 정리하면 <표 5>과 같다.

사계리의 보름물때는 제주 서부지역 전반의 인식과 마찬가지로, 보름과 그믐을 여섯무날로 이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해녀는 보름물때를 다시 조금과 사리로 구분하여 인식하고, 물질 활동에 보다 구체적으로 활용한다.

조금은 한조금이 스무사흘, 한조금이 초여드레 한조금. 경 해영 세어 나가야 되는 거. 초여드레 한조금 부날이엔 현 거는 마지막 물때라이. 경허고 아끈조기 한조기 부날 영 허여. 조금이 사흘이라. 그다음은 혼물 두물 경허영 열두물까지 나가. 열두물 넘으면은 아끈조기 한조기 부날 영 되는 거. 열두물이 막물 아니가. 경허은 아끈조기 한조기 부날 영 허은 보름 걸리는 거지. 것이 보름.

(조금은 한조금이 스무사흘, 한조금이 초여드레 한조금. 그렇게 세어나가야 되는 거. 초여드레 한조금, '부날'이라고 한 거는 마지막 물때야. 그리고 '아끈조기, 한조기, 부날' 이렇게 해. 조금이 사흘이야. 그다음은 '한물', '두물' 그렇게 해서 열두무날까지 나가. 열두무날 넘으면은 '아끈조기, 한조기, 부날' 이렇게 되는 거. 열두무날이 막물 아니냐. 그러면 '아끈조기, 한조기, 부날' 이렇게 하면 보름 걸리는 거지. 것이 보름.)

- 유명자 구술

조금 돌아올 때까지 열한물 열두물까지 뒤감시은 죽어져. 열두물 날 뉘민, 뉘가민 물이 싹 쳐져. 게은 조금물로 돌아가근에 다시 해영 허민 이젠 잘 돌아가야 서물날까지 허민 안 헛주기.

(조금 돌아올 때까지 열한물, 열두물까지 되어가면 죽어가. 열두무날 되면, 되어가면 물이 싹 쳐져. 그러면 조금물로 돌아가서 다시 해서 하면 이젠 잘 돌아가야 서물날까지 하면 안 헛지.)

- 강복순 구술

사계리 해녀 공동체는 '아끈조기'부터 최대 '서물'까지를 물질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만조와 간조의 수위 차이가 적어 물살이 잔잔한 '조금' 기간을 택하여 작업의 안전 확보와 해산물 채취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한편 다섯무날부터 물살이 점점 세지기 시작하여 열무날과 열한무날 사이가 되면 조수 간만의 차가 최대에 달한다. 이 사리 무렵에는 물의 흐름이 빠르고 물살이 거칠어 해녀들이 이동하거나 물속의 시야를 확보하

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여건 때문에 해녀들은 사리 전후로 물질을 쉴 수밖에 없다.

해녀가 실제로 '물에 드는 날'은 물때와 바람 같은 기상 조건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공동체에서 결정된다. 해녀는 잠수회의 구성원이며, 사계어촌계의 회원으로 어촌계의 규칙과 관리에 철저히 따르고 있다. 즉, 해녀의 물질은 개인의 역량보다 공동체의 의사결정이 우선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옛날에는 다섯 시간 여섯 시간 살아신디 이젠 세 시간도 살고. 세 시간도 다 안 살아. 나이 들어가난 사고 난덴. 계장이 딱허게 세 시간 넘어가민 물질 한참 할 때 딱 데리러 와볼어.

(옛날에는 다섯 시간 여섯 시간 살았는데 이젠 세 시간도 살고. 세 시간도 다 안 살아. 나이 들어가니까 사고 난다고. 계장이 딱 세 시간 넘어가면 '물질' 한참 할 때 딱 데리러 와버려.)

- 강복순 구술

썰물에 들엉 들물 나민 나. 썰물 물 빠질 때 들어근에 들물 나민 나. 여섯 시간 일곱 시간. 옛날은 대여섯 시간은 보통으로.

(썰물에 들어서 밀물 나면 나와. 썰물 물 빠질 때 들어서 밀물 나면 나와. 여섯 시간 일곱 시간. 옛날은 다섯여섯 시간은 보통으로.)

- 유명자 구술

과거와 견주어 사계리 해녀들의 '물질' 시간은 감소한 추세이다. 현재 사계리 해녀는 '한조기'에 시작하여 '두물'까지를 물질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보름물때를 기준으로 보면 실제로 물질이 가능한 기간은 한 달에 6~8일 정도에 불과하다.

해녀는 '물질'이 가능한 기간이 정해지더라도 채취 대상에 따라 '물질' 시간을 조정한다. 사계리에서는 보통 썰물에 '물질' 작업을 시작하고, 썰물이 밀물로 전환될 때 작업을 마무리하고 밖으로 나온다고 하였다. 미역과 톳, 소라 '물질'은 대체로 썰물 때 시작하는 것이 수월하다고 하였다.

특히 톳 채취는 사리 때 썰물을 선호하는데, 물이 완전히 써서 바닥이 드러나면 작업이 수월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흔히 톳 채취는 '무른밭디(마른밭에)'서 하는 작업이라고 한다. 해녀들은 톳 채취의 경우 일반적인 물질과 달리 고무옷 대신 평상복을 입고 앉아서 톳을 베어낸다. 사계리에서는 현재까지 이 방식대로 톳 채취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툇할 때 응답물 날부떠. 일곱물 날부떠 시작허민 열두물 날까지 했잖아. 아침 저녁 허멍. 경혜신디 이젠. 물 싸야, 물 많이 싸야. 웨살에. 열두물까지 허민 못허여, 툇도. 고무옷 안 입엉. 평상복, 평상복 입엉. 이제도 마찬가지로. 물 썬 다음에 아니면 물 들면은 이거 허민 다 흘러 나가.

(툇할 때 여덟무날부터. 일곱무날부터 시작하면 열두무날까지 했잖아. 아침 저녁 하면서. 그랬는데 이젠. 물 싸야, 물 많이 싸야. 사리 때에. 열두무날까지 하면 못해, 툇도. 고무옷 안 입었어. 평상복, 평상복 입어서. 이제도 마찬가지. 물 썬 다음에 아니면 물 들면은 이거 하면 다 흘러 나가.)

-강복순 구술

그러나 성계와 같이 가까운 바다에서 채취하는 작업은 썰물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물질’은 물때 지식의 이용을 전제로 이루어지지만 해산물의 채취뿐 아니라 판매 여건도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조류 그건 아니고. 성계 할 때는 아침 인척 가. 그거는 시간 안 뵈 그자 아침 인척 가근에 한 두세 시간 인척 들고 인척 나와. 열한 시 뒤편은 와볼어. 경혜야 그거 작업할 거 아니가게, 성계.

(해조류 그건 아니고. 성계 할 때는 아침 일찍 가. 그거는 시간 안 뵈서 그저 아침 일찍 가서 한 두세 시간 일찍 (물에) 들고 일찍 나와. 열한 시 뒤편은 와버려. 그래야 그거 작업할 거 아니야, 성계.)

-강복순 구술

해녀는 성계를 채취하는 일뿐 아니라 성계의 단단한 껍질을 가른 뒤, 속에 든 알을 떼어내는 손질 작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하루를 기준으로 성계를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 만들기까지의 전체 공정을 두고 노동 시간을 분배할 수밖에 없다. 한편 깊은 바다에서 채취하는 해산물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소라는 사계리 바다 가운데서도 형제섬 주변이 풍부한 편이다. 해녀들은 배를 타고 나가서 형제섬 주변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개인의 물질 기량에 따라 소라를 채취한다.

소라는 그 시간에 들고 그 시간에 나오고. 이제 물 내리기 시작허민 가근에 물 어느 정도, 들물 돌아가자마자 나와야 돼. 오래 살면 네 시간.

(소라는 그 시간에 들고 그 시간에 나오고. 이제 물 내리기 시작하면 가서 물 어느 정도, 밀물 돌아가자마자 나와야 돼. 오래 살면 네 시간.)

-유명자 구술

사계리 해녀는 주로 배를 타고 나가서 하는 ‘뱃물질’을 하는데, 어촌계장이 선장의 역할을 맡고 있다. 어촌계장은 해녀의 안전을 위해 작업 시간을 철저히 관리하려고 노력한다. 특히 형제섬 주변은 물살이 거칠어 물때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형제섬 저기는 물발이 너무 세이. 저기는 물때 보고 가야 돼. 열네물, 부날 이틀. 경허고 한물부떠는 세어가지고 저기 못 가, 소라는 많은데. 경허면은 여기덜은 비슷허고게. 저기는 저기 작지곳이엔 현 디라. 일름이 작지곳. 형제섬 오른쪽 작지곳 글로 이쪽에 더 오면은 남생이꼴이엔 현 디. 저기는 또 물발이 더 세. 저기는 조금에만.

(형제섬 저기는 물살이 너무 세어. 저기는 물때 보고 가야 돼. 한조금, 무쉬 이틀. 그리고 한무날부터는 세어가지고 저기 못 가, 소라는 많은데. 그러면은 여기들은 비슷하고. 저기는 저기 ‘작지곳’이라고 한 데야. 이름이 ‘작지곳’. 형제섬 오른쪽 ‘작지곳’ 거기서 이쪽에 더 오면은 ‘남생이꼴’이라고 한 데. 저기는 또 물살이 더 세. 저기는 조금에만.)

-강복순 구술

해녀공동체는 물때를 단순히 물 흐름에 따른 변화로 인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정 어장의 지형과 물때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이해한다. 이는 해녀가 불안정한 생업공간에 적응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다.

해녀가 물때에 관한 지식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바다와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 가능한 생업 활동을 이어가는 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바다의 생태환경의 변화와 해녀의 생업환경 및 인식 등 ‘물질’을 둘러싼 상황과 여건에 따라 물때의 활용 방식은 재편성 될 수 있다. 특히 바다의 생태 환경과 생업 주체의 여건은 유동적이며 점차 복잡해지는 추세이다. 따라서 해녀가 물때 조건에 얼마나 적응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넘어, 지속 가능한 ‘물질’을 위해서 해산물의 분포 유지, 판로 여건, 안전에 대한 인식 등 다양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도 물때 지식은 해녀문화의 핵심적인 무형 요소이다. 해녀가 바다를 읽고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며, 공동체의 전승지식과 개인의 물질 경험을 통해 계속 진화해 갈 것이다.

4-1. 물옷

‘물옷’은 해녀들이 물질할 때 입는 옷이다. ‘물옷’은 전통적인 ‘물소중의’와 고무옷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전에는 무명이나 광목으로 만든 ‘속곳’을 입고 머리에 ‘물수건’만 써서 물질하였다. 춥고 거친 바닷속에서 ‘물소중의’만 입고 물질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 면으로 만든 ‘물소중의’에 비해 고무옷은 보온 효과가 뛰어나 해녀들이 바닷속에서 오래 머무를 수 있다. 30분에서 1시간이던 물질 시간이 3~5시간 이상으로 늘어났고,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가 작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획량의 차이 또한 상당히 컸다. 1970년대 초 고무옷이 들어오면서 ‘소중의’는 사라졌다.⁴³⁾



사진 123 물옷과 물질도구

43)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도서출판 각, 2024, 190쪽.

4-1-1. 소중의, 물적삼

해녀 허월자와 고옥련은 ‘속곳’과 ‘물적삼’은 만들어 입었다고 하였다. 해녀 임성자는 ‘흰소중의’와 ‘검정소중의’ 전부 입어봤고, ‘검정소중의’는 ‘흰소중의’에 검은 물을 들여서 입었다고 하였다.

속곳이영 물적삼은 다 만들어놨주.

(‘속곳’이랑 ‘물적삼’은 다 만들었었지.)

- 허월자 구술

옛날에는 흰소중의도 입어내고 검정 거도 입어내고. 검정은 물들여넣어 입어놨주.

(옛날에는 ‘흰소중의’도 입었고 검정 것도 입었고. 검정은 물들여 입었었지.)

- 임성자 구술

계. 속곳 만들었지. 적삼하고.

(그렇지. ‘속곳’ 만들었지. 적삼하고.)

- 고옥련 구술

‘소중의’의 어깨끈은 센 물살에도 옷이 벗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처음에는 왼쪽 어깨끈 하나만 있었는데 1920년대에 어깨허리가 도입, 확산되면서 어깨끈을 두 개 달게 되었다.⁴⁴⁾ ‘어깨마리’라고 해서 어깨를 감싸기도 한다.

해녀 김이선은 사계리 해녀들의 ‘소중의’는 어깨 부분이 러닝셔츠 형태로 만들어 입었다고 하였다.

우리 입은 건. 저 동네 사람덜은 영 훈착 어깨 허여. 영 훈착 어깨 허는디 우린 영 난닝구 식으로.

(우리 입은 거는. 저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한쪽만 어깨 해. 이렇게 한쪽 어깨 허는데 우리는 러닝셔츠 식으로.)

- 김이선 구술

44)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도서출판 각, 2024, 190쪽.



사진 124 사계리 어촌계 해녀체험에서 교육자료 사용하고 있는 '물적삼'

사진 125 사계리 어촌계 해녀체험에서 교육자료 사용하고 있는 '물소중의'

사계리 해녀들에게 '물소중의'와 '물적삼'이 있는지 문의하였을 때 없다고 하였다. 사계리 어촌계에서 해녀체험을 할 때 교육자료 사용하고 있는 '물소중의'와 '물적삼'이 있었는데 누가 어촌계에 기증을 했는 지는 모른다고 한다. 고무옷이 나오기 전까지 해녀들의 일상적인 물옷이었던 '소중의'와 '물적삼'은 시대변화에 따라 점점 흔적을 찾기가 어려워졌다.

없어. 몰라. 잇인 사람 물어보긴 허켜만 해도.

(없어. 몰라. 잇는 사람 물어보긴 하겠지만.)

- 김이선 구술

없어. 다 던져버렸지. 한 몇 년까진 잇어나서.

(없어. 다 던져버렸지. 한 몇 년까지는 있었어.)

- 고옥연 구술

4-1-2. 물수건, 까부리(까바리), 뚜데기

'물수건'은 해녀들이 물질할 때 머리에 쓰는 수건이다. 물수건을 쓰는 이유는 머리카락의 흠어짐을 막고 머리를 감싸 물속으로 들어갈 때 머리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햇빛을 가리는 모자로, 땀을 닦는 수건으로, 물질할 때는 머리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등의 다양한 기능이 있다.⁴⁵⁾ 흰 광목으로 만들었으며 너비가 30cm, 길이가 80cm 정도이다.⁴⁶⁾

1960년대에 일본이나 육지로 출항했던 젊은 해녀들에 의해 머리엔 '물수건' 대신에 천으로 만든 모자인 '까부리'를 썼다.⁴⁷⁾ '까부리' 혹은 '물모자'라고 부르는, 머리에서 목덜미까지 내려오는 모자는 햇빛 가리개 등 주로 해녀들이 미용을 위해 썼는데, 목덜미 전체와 양 볼을 덮을 수 있어서 햇볕도 가려주고 잘 벗겨지지 않았으며 보온성이 있었다. 고무옷을 입으면서 '까부리'는 고무모자로 바뀌었다.

해녀 고옥연은 머리에 쓰는 것은 물수건, 그 후 물수건 대신 쓴 것을 '까바리'라 하였다. 해녀 강복순은 물수건은 광목으로 만든 수건이라 하였고 수건처럼 머리에 쓰고 뒤로 묶으면 된다고 하였다. 여름에는 하얀 천으로 모자 모양의 '까바리'를 만들었다고 하였다.

머리에 쓰는 거 물수건. 물수건 대신 쓰는 거 까바리라.

(머리에 쓰는 거 물수건. 물수건 대신 쓰는 거 '까바리'야.)

- 고옥연 구술

물수건은 그냥, 그냥, 광목수건 영, 딱 무끄민 뉘는 거. 수건 쓰고, 경 해근에이. 이추록 헤여. 여름에는 까바리렌 헤여이. 이 하얀 걸 모자 닮은 거 요렇게 만들영. 레이스 닮은 거 영 행은에 만들어.

(물수건은 그냥 광목수건 이렇게. 딱 묶으면 되는 거. 수건 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 여름에는 '까바리'라 해. 이 하얀 것으로 모자 닮은 거 이렇게 만들어서. 레이스 닮은 거 이렇게 해서 만들어.)

- 강복순 구술

45)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제주 해녀옷 이야기』, 내내로전자출판, 2012, 18쪽.

46) 제주도, 『제주여성문화: 제주문화자료총서⑧』, 제주도, 2001, 101쪽.

47)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도서출판 각, 2024, 189쪽.

해녀들이 물질을 마치고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추운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입었던 옷은 ‘물체’와 ‘뚜데기’가 있다. ‘물체’는 누빔으로 지은 저고리 형태지만 저고리보다 길이가 길고 품도 넉넉하다. ‘물체’가 옷의 형태라면 ‘뚜데기’는 어깨나 등의 추위를 막는 일종의 솔⁴⁸⁾ 모양이다.

해녀 임성자는 ‘속곳’ 위에 입는 ‘뚜데기’는 누비 모양으로 만들었고 물질하고 난 후 ‘속곳’ 위에 입으며 언 몸을 녹였다고 하였다.



사진 126 까부리(해녀박물관 제공)

속곳 위에 입는 거 뚜데기. 영 행 만들어. 추우난. 두겹게 누비 모양으로 영.

(‘속곳’ 위에 입는 거 ‘뚜데기’. 이렇게 해서 만들어. 추우니까. 두겹게 누비 모양으로 이렇게.)

-임성자 구술

해녀 강복순은 ‘뚜데기’는 입어보지 않았고 물질하며 언 몸을 녹이는 것은 별이 든 모랫바닥이었다고 하였다. 모랫바닥에 엎어져서 별을 쬐면 더워져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그때는 한 시간 즈음 헤실 거라. 그때는 뭐 춥고 하문 우리는 송죽이난 모래 바닥에 엎어져나고 헤났어. 모래 바닥에 엎어정 멩글멩글 텅굴당 둥굴당 더우면 또 들어가.

(그때는 한 시간쯤 했을 거야. 그때는 뭐 춥고 하면 우리는 송죽이니까 모래 바닥에 엎드려 있고 했었어. 모래 바닥에 엎어져서 텅굴다가 둥굴다가 더우면 또 들어가.)

-강복순 구술

해녀 고옥연은 스무살에 언니가 있던 강원도에 3년간 바깥물질을 나갔다. 그때는 ‘뚜데기’는 입지 않았고 ‘속곳’을 여러 벌 들고 가서 물질하다가 추우면 ‘불턱’에 나와서 마른 ‘속곳’으로 갈아입으며 물질하기도 하였다.

48) 솔은 여자들이 방한이나 장식을 위해 어깨에 걸쳐 덮는 네모진 천을 말한다.



사진 127 물체(해녀박물관 제공)

강원도에서 하루에 세 번 들어갔어. 너무 추워가지고 옷은 다 벗어당 다른 옷 입고 막 이제 몸이 풀려나면 또 속곳 입고 또 나가. 세네 벌 가정 멩겨주.

(강원도에서 하루에 세 번 들어갔어. 너무 추워서 옷은 다 벗고 다른 옷 입고 막 이제 몸이 풀어지면 또 ‘속곳’ 입고 또 나가. 세네 벌 가지고 다녔어.)

-고옥연 구술

4-1-3. 고무옷, 오리발

고무옷은 네오프렌(neoprene)이라는 합성고무와 걸감은 고무 재질을 덧입힌 특수 원단으로 만들어진 옷이다.⁴⁹⁾ 고무옷이 도입된 계기는 1970년대 초, 한일회담 이후 일본과 통교하면서 재일동포가 제주의 친지에게 한두 벌 보낸 것이 시초이다.⁵⁰⁾ 속칭 ‘고무옷’이라고 하는 잠수복은 장시간의 작업과 능률 향상에 따른 소득 증대로 고무옷은 1970년대 중반 이후 급속도로 보급되었다.⁵¹⁾ 2011년 말부터는 조업 중 안전사고 발생하면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식별이 용이한 유색(오렌지색) 잠수복으로 지원하고 있다.⁵²⁾ 고무옷 아래 바지

49)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도서출판 각, 2024, 188쪽.

50)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제주 해녀옷 이야기』, 내내로전자출판, 2012, 31쪽.

51)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제주 해녀옷 이야기』, 내내로전자출판, 2012, 33쪽.

52)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제주 해녀옷 이야기』, 내내로전자출판, 2012, 92쪽.



사진 128 강복순 회장 고무옷(고무모자, 고무옷, 장갑(2종), 양말)

는 가슴까지 올라오고 윗옷은 아래 바지 위로 해서 고정하게 되어있다. 몸의 치수를 정확하게 재서 딱 맞게 입는다.

해녀 김이선은 일본의 친지가 고무옷과 오리발을 보내주었다고 하였고 해녀 고옥연은 큰딸이 태어난 시기인 1968년도에 고무옷을 처음 입었다고 구술하였다.

일본 이모가 보내주어. 여기서 입어. 난 이거 오리발 일본서 우리 시이모가 보내줬어. 고무옷도 보내주고. 오십 몇 년 됐일 거야. 오십오 년이 되나. 오십칠 년이 되나 했지. 고무옷 입은 지가.

(일본 이모가 보내주었어. 여기서 입었어. 난 이 오리발 일본에서 우리 시이모가 보내줬어. 고무옷도 보내 주고. 오십 몇 년 됐을 거야. 오십오 년이 되나. 오십칠 년이 되나 했어. 고무옷 입은 지.)

-김이선 구술

큰딸이 선여똥이난 육십팔 년도에는 고무옷 입었지. 큰딸 태어나서 입었일 거라.

(큰딸이 선여똥이니까 육십팔 년도에는 고무옷 입었어. 큰딸 태어나서 입었을 거야.)

-고옥연 구술

해녀 김이선과 강복순은 ‘속곳’을 입고 추워서 얼마 하지 못했던 물질을 고무옷을 입고서는 3~4시간은 물질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보온성이 좋은 고무옷을 입고서는 바닷속에서 해녀들이 오래도록 물질을 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무옷 입으면 네 시간 보통적으로 살아볼어. 고무옷 안 입을 땐 우리가 들어강 나왓. 들어강 나왓 허주만은 고무 옷 입으면 하루 종일 살아도 얼진 안허잖어. 경. 경 헛주게. 물속곳 입어 할 때는 추웠주이. 불 췌민 이 다리가 어 룩어 룩 베엠다리 댜어. 불 췌민 막 꽃이 피어.

(고무옷 입으면 네 시간 보통 살아버려. 고무옷 안 입을 때는 우리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만 고무옷 입으면 하루 종일 살아도 춥진 않아. 그렇게. 그렇게 했지. ‘물속곳’ 입고서 할 때는 추웠어. 불 췌면 이 다리가 어룩어 룩 댜 다리 댜어. 불 췌면 막 꽃이 폈어.)

-김이선 구술

물 소곱에 들어강 물질하는 거. 물질허면 삼십 분, 한 시간은 살았을 걸. 고무옷 입으면 세 시간.

(물 속에 들어가서 물질하는 것. 물질하면 삼십 분, 한 시간은 살았을 걸. 고무옷 입으면 세 시간)

-강복순 구술

고무옷이 처음 보급되자 해녀 사회에 문제가 대두되었다. 고무옷을 착용한 해녀의 작업시간이 길어지면 서 해녀 작업에 일대 이변이 생긴 것이다. 해녀회가 회의하여 고무옷을 입지 못하도록 규제하기도 했다.⁵³⁾

해녀 김이선은 고무옷을 처음 입을 당시 고무옷 착용 반대가 많아 배를 빌어 다른 동네 바다에 가서 물질 했다고 한다. 2년 정도 지난 후에야 마을에서 고무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

고무옷 입은 때가 오십 몇 년 됐일 거야. 나가 이삼 년 더 입었주게. 일본서 온 거 주기. 나하고 나 갑장 하나하고 헨에 육지 간 물질허단 제주도 오난. 하. 고무옷도 못 입게 베킨거. 우리 해녀덜이. 동네 단체에서. 오리발도 못 신게 하지. 난 이거 오리발 우리 시이모가 보내줬어. 고무옷도 보내주고. 이것도 보내주난 헛이난. 이 조계 멘들 안 물속에 들어 입어도 그것도 오래 살았젠 헨 못 입게, 아이고 잘도 시끄러워났져. 완전히 고무옷 못 입게. 경 허

53)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제주 해녀옷 이야기』, 내내로전자출판, 2012, 31쪽.

영 막 테왁도 다 그저가불고 다 허여. 동네 사람들이 그처럼 해난, 부에 나난덜 육지 강 입고 저 이디 왕은 안 입었
 인디. 우리 친구 아이가. 가이가 “야, 우리 입영 이 바당에 물질만 안 허든 될 거난 배 빌영 허게.” 배 빌영 허기는.
 저 바당 허곡 이 바당 못. 경. 배삐 주주게. 밥도. 저. 오랑 술도 상 맥이고. 그자 잡은 것도 갈라 안네고 경 헛주게.
 동네에서 막아 놓난. 억지 부리지도 못허곡. 경 허난 우리 바당만 아니 허민 될 거난 우리 바당 헐 때랑 아니 허크
 메. 저 바당헐 때랑 막지 말렌 허영 막 허연. 우리 이 년 쯤 경 허난에 고무옷을 트더라고.

(고무옷 입었을 때가 오십 몇 년 됐을 거야. 내가 이삼 년 더 먼저 입었어. 일본에서 온 거지. 나하고 나 갑
 장 하나하고 육지에 가서 물질하다가 제주도에 오니까. 하. 고무옷도 못 입게 벗겨버렸지. 우리 해녀들이.
 동네 단체에서. 오리발도 못 신게 하지. 난 이 오리발 우리 시이모가 보내줬어. 고무옷도 보내주고. 이것도
 보내주고 했는데. 이 조끼 만들어서 물속에 들어가 입어도 그것도 오래 산다고 해서 못 입게. 아이고 정말
 시끄러웠었어. 완전히 고무옷 못 입게. 그렇게 해서 테왁도 다 가져가 버리고 다 했어. 동네 사람들이 그런
 게 했어. 화나니까 육지 가서 입고 여기 와서는 안 입었는데. 우리 친구 아이가. 그 아이가 “야, 우리 입고
 이 바다에 물질만 안 하면 되니까 배 빌어서 하자.” 배 빌어서 하기는. 저 바다 하고 이 바다는 못하고. 그
 령게 배삐도 줬지. 밥도. 저, 와서 술도 사 먹이고. 그냥 잡은 것도 나눠 주고 그렇게 했어. 동네에서 막으
 니까. 억지 부리지 못하고. 그렇게 하니깐 우리 바다만 안 하면 될 거니깐 우리 바다 할 때만 안 하겠다. 저
 바다 할 때는 막지 말라고 했어 막 했어. 우리 이 년 쯤 그렇게 하니깐 고무옷을 입게 하더라고.)

-김이선 구술

해녀 강복순이 열입곱 살 때 육지로 바깥물질 나갔던 언니를 통해 고무옷과 오리발이 같이 들어왔다고
 하였다. 강복순 역시 주변의 반대로 처음에는 고무옷 착용이 어려웠고 익숙하지 않았던 오리발 착용 또한 애
 를 먹었던 경험담을 들을 수 있었다.

고무옷이영 오리발이영 같이 들어왔우다. 고무옷도 입지 못하게 막 헛우다. 물건 엇어진덴. 물건 없어진덴 고무
 옷도 못 입게 그 여기서 옛날 우에 어른들은 경 헛주게. 못 입게 막 헛인디 나중엔 어땡 어땡헐에 같이 의논들 헐
 에 입게 한 거라. 못 입게 해서. 그냥 이거만 허당 입으난 좋아 따뜻하고. 그때는 오리발도 헤민예. 우리 언니네가
 언니네도 물질헛인디 언니네가 육지로 강양. 육지로 나가 우리 언니네가. 나가면 그 당시 오리발을 육지서 헤나
 난. 가지고 왔어. ‘이거를 요렇게 신영 헤보라.’ 하면 처음에는 이거 신엇인디 헐 줄 몰라이. 헐 줄 몰랑 구능만 막
 허여이. ‘자전거 타는 것처럼 이렇게 헤라. 이렇게 헤라.’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허난 돼는 거라. 그거 안 헐 때는
 헐 줄 몰랑 그냥 신영 이쪽으로 뵈우니까 이렇게만. 오리발 있을 때는 자기만씩 허고 오리발 안 헐 때는 이거 이거

개구리처럼.

(고무옷이랑 오리발이랑 같이 들어왔어요. 고무옷도 입지 못하게 했어요. 물건 없어진다고. 물건 없어진
 다고 고무옷도 못 입게 그 여기서 옛날 위에 어른들은 그렇게 했지. 못 입게 막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어
 땡게 해서 같이 의논들 해서 입게 한 거야. 못 입게 했어. 그냥 이것만 하다가 입으니 좋아 따뜻하고. 그때
 는 오리발도 하면요. 우리 언니네가 언니네도 물질헛는데 언니네가 육지로 가서. 육지로 나가 우리 언니네
 가. 나가면 그 당시 오리발을 육지에서 헛으니. 가지고 왔어. ‘이거를 이렇게 신어서 헤보라.’ 하면 처음에
 는 이거 신었는데 할 줄 몰라. 할 줄 몰라서 시늉만 막 해. ‘자전거 타는 것처럼 이렇게 헤라. 이렇게 헤라.’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니깐 되는 거야. 그거 안 할 때는 할 줄 몰라서 그냥 신고서 이쪽으로 뵈우니까 이
 령게만. 오리발 있을 때는 자기만씩 하고 오리발 안 할 때는 이거 이거 개구리처럼.)

-강복순 구술

물질할 때 오리발을 착용하면 다리를 상하로 움직이고, 착용하지 않을 때는 다리를 수평으로 접었다 폈
 다를 하면서 수영을 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오리발 착용이 어색하고 다리를 상하로 움직이기가 쉽지 않았
 다고 한다.

장갑이 없던 시절에는 장갑을 직접 만들어 끼기도 하고 양말을 신기 전에는 고무 버선을 신고 물질을 하
 러 갔다. 해녀 김이선은 물질을 할 때 손과 발이 차가우니 직접 손으로 장갑을 만들어 끼고 고무 버선을 신었
 다고 하였다.

옛날에 장갑 엇일 땀 손으로 다 떠근에 멘들안 찌주게. 이제덜은 장갑. 장갑 안 끼면 손이 실루와. 요새도. 손. 바
 닷속예영. 손 시렵고 발 시렵고 헛다게. 발에도 잇저. 발에도 꺾. 양말 신기 전이 고무 보선이 잇어. 그거 신어 겨
 울은.

(옛날에 장갑 없을 때 손으로 다 떠서 만들어 꺾지. 이제는 장갑. 장갑 안 끼면 손이 시려. 요새도 손. 바닷
 속에서. 손 시리고 발 시리고 해. 발에도 잇어. 발에도 꺾어. 양말 신기 전에 고무 버선이 잇어. 그거 신어
 겨울은.)

-김이선 구술

해녀들이 물질하러 나갈 때, 고무옷을 입고 발에는 양말이나 신축성 있는 나일론 버선을 신고, 손에는 먼
 장갑이나 코팅 장갑을 끼는데 개인에 따라 다르다. 해녀 김이선은 사계리 해녀들 중에는 손이 시려서 고무장

갑 끼고 그 위에 장갑을 꺼서 총 두 개 착용하는 해녀도 있다고 하였다. 해녀 강복순은 오리발을 신기 전에 양말을 신고 손에는 코팅 장갑을 낀다고 하였다.



사진 129 오리발

오리발 신기 전에는 양말. 양말 안 신으면 발 시령 안 돼. 경 허고 장갑은 코팅된 거. 이거 (오리발 신기 전에는 양말. 양말 신지 않으면 발 시려서 안 돼. 그리고 장갑은 코팅된 거. 이거.)

-강복순 구술

장갑 안 끼면 손 시림덴 허더라고. 경 행 장갑. 이게 두 개라. 손 시려와부난 두 개 껌덴. 안에 끼는 것이 고무장갑. 고무장갑하고 우이 건 그냥 장갑. 성게 심기도 좋고. 구제기 잡아도 좋고. 두 개가 껌야만.

(장갑 안 끼면 손 시림덴 허더라고. 그렇게 해서 장갑. 이게 두 개야. 손 시려서 두 개 낀다고. 안에 끼는 것이 고무장갑. 고무장갑하고 위의 것은 그냥 장갑. 성게 잡기도 좋고. 소라 잡아도 좋고. 두 개를 껌야만.)

-김이선 구술

고무옷은 <대양산업>(제주시내), <삼원상사>(구좌읍), <고래표잠수복>(구좌읍), <소라잠수복>(성산읍), <공덕상사>(대정읍), <금산잠수복>(한림읍) 등 여섯 곳에서 제조되었으나, 2024년에 <고래표잠수복>은 폐업하여 다섯 곳만 남아 있다.⁵⁴⁾ 사계리 해녀들은 고무옷을 <공덕상사>에서 제작하여 입고 있다.

54)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도서출판 각, 2024, 188쪽.



사진 130 공덕상사 입구



사진 131 공덕상사 잠수복주문서



사진 132 공덕상사 고무옷본



사진 133 공덕상사 제단 된 고무옷

현재 유색 고무옷은 제주도만 입고 있고에. 검정 잠수복은 사십만 원. 유색은 사십오만 원. (현재 유색 고무옷은 제주도만 입어요. 검정 잠수복은 사십만 원. 유색은 사십오만 원.)

- 고소영(공덕상사 2대 대표) 구술

고무옷이 처음 나왔을 때는 개인이 사서 입었으나 현재는 제주도에서 1년에 한 벌씩 무료 지원해 주고 있다. 해녀들은 고무옷이 처음 나온 당시 가격이 너무 비싸서 누구나 쉽게 살 수 없었다고 하나같이 입을 모아 구술하였다. 지금은 무료 지원이 있어 좋아졌다고 이야기하였다.

이 녀이 돈 없으면 고무옷 못 사면 못 입었어. 거기는 막 돈이 없었지. 그 옛날이니까. 이제는 막 살기 좋았지만은 그때는 돈 나올 데가 없어. 계난 고무옷 할 가남이 없어. 이 저 나이 먹은 사람들 다 돌아가셨지만 불쌍하게 죽었어. 고무옷도 한 번 못 입어보고. 사지 못해가지고. 돈 없어가지고. 계난 돈 잇어사 사주. 이제는 다 공짜로 나오잖아.

(자기가 돈 없으면 고무옷 못 사면 못 입었어. 거기는 막 돈이 없었지. 그 옛날이니까. 이제는 막 살기 좋았지만은 그때는 돈 나올 곳이 없어. 그래서 고무옷을 할 가늌이 없었지. 이 저 나이 드신 사람들 다 돌아가셨지만 불쌍하게 죽었어. 고무옷도 한 번 못 입어보고. 사지 못해서. 돈 없어서. 돈 있어야 사지. 이제는 다 공짜로 나오잖아.)

- 고옥연 구술

그땐 많아서. 이십만 원 십오만 원. 경 허난 그 돈이 없어가지고. 한 벌 허젠 허민 십오만 원 이십만 원. 모자까지 다. 오리발까지 다. 이젠 전부 다 공짜로 주고. 고무옷도 나오지. 오리발도 나오지. 고급이라.

(그때는 많았어. 이십만 원 십오만 원. 그렇게 하니깐 그 돈이 없어서. 한 벌 하려고 하면 십오만 원 이십만 원. 모자까지 전부. 오리발까지 전부. 이제는 전부 다 공짜로 주고. 고무옷도 나오지. 오리발도 나오지. 고급이야.)

- 허월자 구술

저거 나오는 거. 저거 한 벌에 사십만 원짜리. 근데 지금은 도에서 해주는 거. 공짜로.

(저것 나오는 거. 저것 한 벌에 사십만 원짜리. 근데 지금은 도에서 해주는 거야. 공짜로.)

- 강복순 구술

고무옷이 일 년에 한 벌 무료로 지급이 되잖아요. 모슬포에 있어요. 공덕상사 엄청 오래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삼십은 안 됐어요. 일 년에 한 벌 받을 수 있고요. 선택을 해야 해요. 수경이나 오리발이나. 다 주진 않아요. 다 얻었죠. 주변에서 삼촌들이 테왁 하나 주시고 수경 하나 주시고 오리발은 샀어요. 오리발도 아는 동생이 줬는데 그게 크길래 샀어요. 비싸요. 그때 당시에는 할인하는 거 사서 십일만 원짜리 샀거든요. 지금은 십칠만 원 십팔만 원.

- 정하늘 구술

해녀 정하늘은 고무옷이 생고무라 보온이 잘 된다고 하고 입는 것도 요령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

한 보온의 역할을 하는 고무옷은 계절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입는다고도 한다.

요령이 생기면 좀 관찮을 수 있는데 일 년만 입어도 닳긴 해요. 그리고 금방 이렇게 흘러덩하다가 찌익, 입고 찢어지고 넣을 때도 기술이 필요해요. 벗을 때도. 찢어지면 고무풀을 하나 줘요. 공덕상사에서. 옷 한 벌당 고무풀을 하나 줘요. 너무 여기 수선 저기 수선하고 내구성이 떨어져요. 추워요. 이게 추워서 입는 거잖아요. 고무니까 시간 지나면 경화가 되잖아요. 지금 오 미리 사 미리 이렇게 써요. 추위를 잘 타니까. 안 버리고 바지가 있으면 그거를 깎아요. 칼로 다 저며요. 그러면은 오 미리짜리가 삼 미리가 되는 거죠. 그럼 여름에 그런 식으로. 작년에 너무 더웠어 가지고요. 유난히 더웠던 거 같어요. 길게 더웠고. 보면은 레깅스 같은 거에 어느 삼촌들 보니까 바지를 반 바지 같은 거로 잘라서 그렇게 입으신 분도 있었어요. 그냥 고무가 피부에 싹 밀착이 됐을 때 보온이 제일 좋아요. 일본 거 아모모토 원단이라고 있어요. 그걸 거예요. 압축한 그 아들아들한게 진짜 따듯해요.

- 정하늘 구술

고무는 한국산. 대만산. 일본산이 있는데 일본산 아모모토 원단을 쓰고 잇우다. 일본에서 주문해요. 고무 삼에서 오 미리까지는 가격이 같고 육 미리부터는 가격대가 올라가예.

(고무는 한국산. 대만산. 일본산이 있는데 일본산 아모모토 원단을 쓰고 있어요. 일본에서 주문해요. 고무 삼에서 오 미리까지는 가격이 같고 육 미리부터는 가격대가 올라가요.)

- 고소영(공덕상사 2대 대표) 구술



사진 134 고무옷 반바지 모습(김순심 해녀)



사진 135 계절별 고무옷(천영자 해녀)

해녀가 되기 전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두 개나 땀던 정하늘은 웨트슈트(Wetsuit)의 보온성은 고무옷보다 상당히 떨어진다고 말하였다. 고무옷의 장점은 보온성이라고 하였다.

이거는 보온이 보온성이 상당히 떨어져요. 이런 생고무라. 이게 오히려 여기서도 한 오만 원 추가하면은 안감 더 덧대 주시기도 하거든요. 안감을 덧대면 입고 벗기가 수월해요. 그 대신 보온성이 떨어져요.

-정하늘 구술

4-1-4. 물안경, 눈곽, 귀마개, 눈땀이

물안경은 해녀들이 물질할 때 쓰는 안경을 말한다. 알이 둘인 ‘족은눈’과 알이 하나인 ‘큰눈’이 있다. 지금은 초점이 하나로 모여 작업하기 편리하고 고무로 된 ‘큰눈’을 사용하고 있다.⁵⁵⁾ 해녀 강복순은 눈이라 안하고 안경이라고 말하였다.

기냥 안경이렌 헛어. 아니 안경.

(그냥 안경이라 헛어. 아니 안경.)

-강복순 구술



사진 136 큰눈 앞면



사진 137 큰눈 뒷면

55)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제주학연구원, 『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도서출판 각, 2024, 195쪽.



사진 138 큰눈과 수경

해녀가 된 지 만 4년이 되었다는 정하늘은 해녀들이 쓰는 물안경을 쓰지 않고 수경을 사서 쓴다고 한다.

수경은 저는 한 구만 원, 팔만 원. 구만 원짜리 샀거든요. 근데 이 해녀 수경은 정확히 얼마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삼촌들은 이렇게 이퀄라이징⁵⁶⁾이 좀 잘 되시나봐요. 저 동기 해녀분도 그냥 움찔하면은 이게 된대요. 이퀄라이징이 저는 근데 코 한 번 째어줘야지 딱 귀가 열리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 여기 코에 실리콘 말랑한 수경이 따로 있어요. 그거. 그러니까 이런 식 같은 이런 식이긴 한데 여기 실리콘이 말랑말랑해서 잘 째히게 이건 좀 딱딱해요.

-정하늘 구술

해녀들이 물질할 때 중이 압력을 맞추기 위해 자기만의 다양한 방법들을 한다. 해녀 정하늘은 코를 잡아 귀로 공기를 보내 압력을 맞추는 방법을 하는데 해녀들이 쓰는 ‘큰눈’은 고무 부분이 말랑하지 않아 코를 잡을 수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수경 중에 코 부분이 말랑한 실리콘으로 된 것을 사용하고 있다.

물안경을 쓰고 작업하게 됨으로써 수확물 생산량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하지만 물안경을 쓰고 물

56) 이퀄라이징은 프렌젤 이퀄라이징(Frenzel Equalizing)을 말하는 것으로 잠수·스쿠버·프리다이빙 시 중이(귀) 압력을 맞추는 대표적인 이퀄라이징 기법이다.



사진 139 큰눈과 눈뒹이(썩)



사진 140 큰눈과 영수증

속으로 들어가면 수온과 체온의 차이로 유리 안쪽이 흐려져서 시야를 방해한다. 그래서 물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항상 물안경을 닦아주어야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눈뒹이’⁵⁷⁾다. 주로 썩을 문질러서 닦는데 사계리 해녀들도 물질하러 나갈 때 물안경 안에 썩을 넣는다. 또한 물안경은 물질하고 나와 채취한 물건을 팔고 받은 영수증을 잠시 보관해 놓는 역할도 한다.

‘눈곽’은 물안경을 보관한다. 나무로 만든 상자와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이 있다. 지금은 해녀탈의장에 걸어두지만, 예전에는 ‘질구덕’에 넣어서 지고 다녔다.

해녀 고옥연은 ‘눈곽’이 없을 당시에는 물안경을 질구덕에 넣어 다녔다고 한다. 해녀는 은퇴했으나 플라스틱으로 된 눈곽은 창고에 보관 중이다. 예전에는 나무상자인 ‘눈곽’을 사용했지만 현재는 물안경이 들어가는 크기에 맞게 플라스틱으로 된 ‘눈곽’을 사용하고 있다.

이제는 요만한 거 안경 똑 들어가면 딱 맞는 거 있어. 플라스틱 이만한 안경 맞는 거 있어. 특 뉘가지고. 그냥 그런 거 안 나올 때 그냥 짚어져. 나도 이제 그대로 있어 저기. 해녀질 해놓은 거. 한 십 년 뉘도.

(이제는 요만한 거 안경 똑 들어가면 딱 맞는 거 있어. 플라스틱 이만한 안경 맞는 거 있어. 특 뉘서. 그냥 그런 거 안 나올 때 그냥 짚어져. 나도 이제 그대로 있어 저기. 해녀질 해놓은 거. 한 십 년 뉘도.)

- 고옥연 구술

57)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도서출판 각, 2024, 19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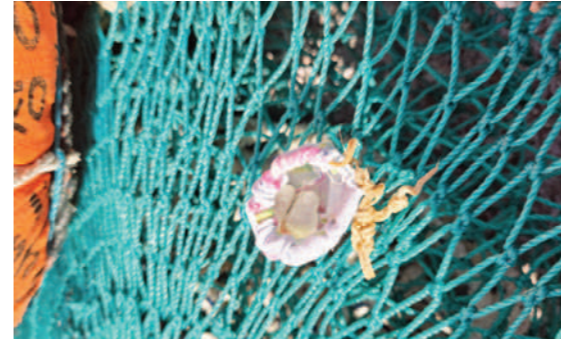


사진 141 귀마개 주머니와 고무찰흙



사진 142 귀마개 주머니



사진 143 귀마개 착용 모습

물질할 때 고막을 보호하기 위한 ‘귀마개’는 껌을 씹어서 이용하거나 고무찰흙을 쓴다. 크기가 작아서 잃어버리기 쉬워 ‘귀마개’ 주머니에 담아 망사리에 달아두었다가 사용한다.⁵⁸⁾

해녀 고옥연은 물질할 때 ‘귀마개’를 껌으로 만들어 썼었고 ‘귀마개’를 사용해도 귀에 물이 들어간다고 하였다. 실제로 귀에 물이 들어가면서 생긴 중이염으로 해녀를 은퇴했다고 한다.

귀마개 물질할 때 일로 막아도 물 들어가. 그 당시에 껌으로 만들었지. 귀에 어릴 때에 막 해녀질 배우멍 물에 들어갔잖아. 물 들어가. 물 들어가니까 옛날에는 병원도 없잖아. 그대로 살았지. 물 들어간 거 기냥 놔둬 살아가니까 일로 고름이 쳐서. 그거 물이 썩어가지고 귀 안에. 그 고름이 막 일로 나오니까. 시에 병원, 모실포 병원, 서귀포 병원 뎅겨도 오늘 강 오면 오늘 좋았다가 그날은 또 나와. 이전 서울병원에 수속 밟아가지고 가서 이거 귀를 수

58)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도서출판 각, 2024, 192쪽.

술을 하니까. 이제 말도 들리고 고름도 안 나고 깨끗해요 하니까, 이제 와서 이게 바다에 안 들어갈 수가 있어. 바다에 들어간 한 오 년 동안 하니까 또 재발해가지고 말도 못 듣고 하니까. 이제 또 그 병원이 시에 왔어. 나 수술하는 병원이 시에 오니까 이제 시에 병원에 또 가서 수술했잖아. 경이 수술하여 와서 또 재수술, 또 일로 몰라 기계 사 났는지. 어떻게 했는지 세 번 했어.

(‘귀마개’ 물질할 때 여기로 막아도 물 들어가. 그 당시에 껌으로 만들었지. 귀에 어릴 때에 금방 해너질 배우면서 물에 들어갔잖아. 물 들어가. 물 들어가니까 옛날에는 병원도 없었잖아. 그대로 살았지. 물 들어간 거 그냥 놔두고 살아가니까 여기로 고름이 생겼어. 그것 물이 썩어서 귀 안에. 그 고름이 막 여기로 나오니까. 제주시에 병원, 모슬포 병원 서귀포 병원 다녀도 오늘 가서 오면 좋았다가 그날은 또 나와. 이젠 서울 병원에 수속 밟아서 가서 이거 귀를 수술을 하니까. 이제 말도 들리고 고름도 안 나고 깨끗해요 하니까. 이제 와서 이게 바다에 안 들어갈 수가 있어. 바다에 들어가서 오 년 동안 하니까 또 재발해서 말도 못 듣고 하니까. 이제 또 그 병원에 제주시에 왔어. 나 수술하는 병원이 제주시에 오니까 이제 제주시에 병원에 다시 가서 수술했잖아. 그렇게 수술하고 와서 또 재수술. 또 여기로 몰라 기계를 났는지. 어떻게 했는지 세 번 했어.)

- 고옥연 구술

4-1-5. 연철, 뽕돌

연철은 고무옷을 입고 물질할 때 몸이 물속으로 가라앉도록 도와주는 납으로 만든 도구를 말한다.⁵⁹⁾ 과거에는 연철 전용 조끼를 만들어서 조끼 안에 연철을 넣어 옷을 입듯이 입기도 하였다. 지금은 대부분 고무줄에 연철을 끼워 허리에 착용하는 방식으로 한다. 기본 연철은 납적한 모양으로 생겼는데 간혹 무게가 부족한 경우 작은 구 모양의 ‘뽕돌’도 보조로 착용하는 경우도 있다. 무게는 6~8kg 정도이다. 해너체험을 할 때는 4kg 정도 착용하고 있다.

연철은 납이 사 미리라부난 팔 키로 육 차고. 나이 들어 가민이 납 힘으로 하는 거. 팔 아프고 어깨가, 나는 고장 나 불언. 물은 세고 헤엄쳐 나민 어깨 고장 납 힘줄 끊어정 파열되불언. 뽕돌이렌 허는디이 이젠 연철이렌 하주게. 체험어장 허는데 가민 납 허나가 일 키로 짜리라이. 겨울에 차는 거 따로. 여름에 차는 거 따로. 그것이 늦으면 즐라

59) 제주특별자치도 해너문화유산과·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해너문화 대백과사전』, 도서출판 각, 2024, 194쪽.



사진 144 연철과 테왁, 빗창, 망사리



사진 145 뽕돌

멘 것이 겨드랑이들이 왕 빙빙빙. 나는이 겨울에는 팔 키로 육. 여름에는 사 키로.

(연철은 납이 사 미리라서 팔 킬로그램 육(백 그램). 나이가 들어가면 납 힘으로 하는 거. 팔 아프고 어깨가, 나는 고장 나 버렸어. 물은 세고 헤엄치고 나면 어깨 고장 나서 힘줄 끊어져서 파열되 버렸어. ‘뽕돌’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연철이라 하지. 체험어장 하는 곳에 가면 납 하나가 일 킬로그램이야. 겨울에 차는 거 따로. 여름에 차는 거 따로. 그것이 늦으면 즐라 메서 그것이 겨드랑이쪽에 와서 빙글빙글빙글 (돌아 물질 못해). 나는 겨울에는 팔 킬로그램 육(백 그램). 여름에는 사 킬로그램 차.)

- 천영자 구술

4-2. 물질 도구

4-2-1. 테왁-관제-어음-망사리

‘테왁’은 해너들이 물질 장소로 이동하거나 물 위로 올라와 잠시 쉴 때 몸을 의지하는 도구이자 해너들의 작업 위치를 알려준다.⁶⁰⁾ 망사리를 매달아 채취한 해산물을 넣어 두기도 한다. 박으로 만든 ‘죽테왁’과 스티로폼을 이용해서 만든 ‘스티로폼 테왁’이 있다. 처음에는 박을 이용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죽테왁’ 또는 ‘클락테왁’이라 하였다. 박으로 만든 테왁은 잘 깨지는 단점이 있어 1960년대 중반부터 스티로폼을 깎아 모양

60) 제주특별자치도 해너문화유산과·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해너문화 대백과사전』, 도서출판 각, 2024, 175쪽.



사진 146 오리발, 연철, 장갑, 호명이, 성게 담긴 망사리, 테왁, 조락 2개

을 만든 후 천으로 감싸 부서지지 않게 하였다.⁶¹⁾ '테왁' 크기는 해녀 기량에 따라 크고 작고 한다. 그리고 수확물에 따라 크기가 다른 경우도 있다.

'관제'는 '테왁'의 위아래를 고정하기 위해 엮는 줄이다. 테왁 아래 망사리를 고정하기 위해 나일론 줄 따위로 엮어매는데 마을마다 테왁의 관제를 엮는 줄의 갯수는 다르다.

옛날에는 박으로 만든 테왁 써 냈지. 경 허당 스티로폼. 나는 바당에 스티로폼 이거 둥둥 떠밀려오면 그거 좇어당은에 나가 만들엉 다시 쓰메. 가만 놔둬볼민 바당에 다 쓰레기 뉘부는 거라. 게난 주어당 다시 만들엉 쓰고 허주게. 기본 두 개들은 다 잇이메. 작은 테왁은 성게나 양식장 갈 때 쓰는 거고. 이거 큰 거는이. 먼바당 나갈 때. 소라 잡으레 갈 때는 큰 거 쓰주게. 그리고 상군 해녀가 드는 것이 아무레도 크기가 크지. 상군하고 중군, 하군 해녀 테왁 크기가 달라.

61)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도서출판 각, 2024, 186쪽.

(옛날에는 박으로 만든 '테왁' 써 냈지. 그렇게 하다가 스티로폼. 나는 바다에 스티로폼 이거 둥둥 떠밀려오면 그거 주워다가 내가 만들어서 다시 쓰고 있어. 가만히 놔두면 바다에 다 쓰레기 되버리는 거야. 그래서 주어다가 다시 만들어서 쓰고 하지. 기본 두 개씩은 다 있어. 작은 '테왁'은 성게나 양식장 갈 때 쓰고, 큰 것은 먼바다에 나갈 때. 소라 잡으러 갈 때는 큰 것 쓰지. 그리고 '상군' 해녀가 드는 것이 아무래도 크기가 크지. '상군'하고 '중군', '하군' 해녀 '테왁' 크기가 달라.)

-천영자 구술

해녀 강복순은 해녀였던 어머니와 동네 해녀 할머니들을 따라 '테왁'을 들고 '이어서나' 노래를 부르며 미역 물질을 나가던 어린 시절 하군 해녀의 추억담을 구술하였다.



사진 147 관제 수가 다른 테왁



사진 148 크기가 다른 테왁



사진 149 들고 있는 큰 테왁

나중에는 미역 어른덜 할 때는 보먼은 히어가지에. 이 해녀덜 영 행 짝 같이에. 같이 다 히영. 제일 앞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하면. 거먼은 발덜은 요렇게 다 하곡. 이 테왁 영 해근에 그 앞에 어른. 앞에 요렇게 하고. 어 그축헌에 같이 히어에. 거민 발덜은 다 요렇게 돼. 응 한 줄로 딱. 거민 노렐 부르멍 가. '이~여싸나 이여싸나' 허멍. '우리 어멍 날 날 적에' 뉘. '무슨 날에 날 낳던고' 허멍 막 히멍 가주게. 영. 영. 영. 어른덜 허는 거 들으은. 거은 우리 제일 똥꼬냥이 부똥근에 그냥 막 영. 영 허곡예. 그축 허멍 노래 부르멍덜 가. 여기 할망덜. 테왁 박세기를 앞에 업마, 위에 요렇게 하면은. 또 요렇게 하고 요렇게 요렇게 허민 짝 해근에 허민, 발만 요렇게 네 짓는 것처럼.

(나중에 미역을 어른들 할 때 보면 해엄쳐 가지. 이 해녀들 이렇게 해서 짝 같이. 같이 다 해엄쳐. 제일 앞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엄치면. 그러면 발들은 이렇게 다 하고, 이 '테왁' 이렇게 해서 그 앞에 어른. 앞에 이렇게 하고, 어 그렇게 해서 같이 해엄쳐. 거민 발들은 다 이렇게 돼. 응 한 줄로 딱. 거민 노렐 부르면서 가. '이~여도사나 이여도 사나' 하면서. '우리 업마 날 낳을 적에'. 뉘. '무슨 날에 날 낳았나' 하면서 막 해엄치면서 가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른들 허는 노래 들으면. 그러면 우리 제일 똥구멍에 붙어서 그냥 막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가. 여기 할머니들. '테왁' 박을 앞에 업마, 위에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짝 해서 하면, 발만 이렇게 노 짓는 것처럼.)

-강복순 구술

사계리 해녀들의 테왁을 엮은 관젯줄은 몇 줄이라고 정해지지 않았다.⁶²⁾ 해녀 강복순은 가파도에서는 4개로 관제의 개수를 맞춘다고도 들었지만 사계리 해녀들은 관제 개수를 정해서 맞추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른 해녀들도 관제 개수를 정하거나 따로 맞추지 않는다고 하였다.

일곱 개도 하고 여덟 개도 하고 자기 마음. 네 개도 허여. 마음대로. 틀려. 구역이 틀려. 가파도는 네 개.

(일곱 개도 하고 여덟 개도 하고 자기 마음. 네 개도 해. 마음대로. 달라. 구역이 달라. 가파도는 네 개.)

-강복순 구술

그런 거 없어. 줄 개수는 더 헛덴 행은에 다르고 말고 없어.

(그런 것 없어. 줄 개수는 더 했다고 해서 다르고 말고 없어.)

-임성자 구술

62) 사계리 해녀들의 관제 개수는 평균 여섯줄이었다.



사진 150 부위별 설명

정해지진 않안. 네 개도 허는 디 있고. 여러 개 하면 그 밑에 엮는 줄을 이게 여러 개가 되는 거난 잘 중심 잡앙 멘들 어사 이게 옆으로 테와져볼지 않지. 경 안 하민 사람으로 치민 영 한쪽 고개가 내려가분 모양으로 뉘부는 거주게. (정해지지 않았어. 네 개도 하는 곳 있고. 여러 개 하면 그 밑에 엮는 줄이 여러 개가 되는 거라서 잘 중심 잡아 만들어야 '테왁'이 옆으로 쳐지지 않아. 그렇게 안 하면 사람으로 치면 이렇게 한쪽 고개가 내려간 모양으로 되는 거야.)

-천영자 구술

'어음'은 기본적으로는 망사리에 부착하여 채취한 수확물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이다. 하지만 어음은 테왁과 망사리를 연결하는 역할도 한다. 과거 어음은 다래나무 줄기(드레줄), 상동나무(삼동낭) 등으로 붙여 그을려 둥그렇게 만들어 썼다. 20년 전까지만해도 나무로 된 어음을 썼다고 한다. 지금은 둥근 PVC 파이프나 두꺼운 철사로 만든다. PVC파이프는 시중에 판매를 하는 것을 사서 쓰고 철사는 직접 둥그렇게 만들어 쓴다고 한다.

ㄷ레줄, ㄷ레줄. 아 이제 목장에 가면 막 하. 이제도. 그거 삼동냥으로도 하고. (PVC파이프) 그거 멘드랑 풀아 하나만 원씩 허멍. 쉼로도 한다게 지금도 쉼로 허여. 그건 이녁냥으로 멘드어사. (나무로) 허난 딘 허 이십 년도 넘은 거 님은디. (그거) 썩지 안 헤게. 돌아메민 안 썩어. 삼동냥이고 ㄷ레줄 안 썩어. 무끄멍 불 그실리멍 구부려. (다래나무 줄기, 다래나무 줄기. 아 이제 목장에 가면 막 님아. 이제도. 그거 상동나무으로도 하고. (PVC파이프) 그거 만들어서 팔아 하나에 만 원씩 하면서. 쇠로도 한다 지금도 쇠로 해. 그건 자기가 만들어야 해. (나무로) 한지는 한 이십 년도 넘은 거 님은데. (그거) 썩지 않아. 달아매면 안 썩어. 상동나무하고 다래나무 줄기 안 썩어. 묶으면서 불 그을리며 구부려.)

-김이선 구술

‘어음’이 바닷물에 지속적으로 적어 혹시 썩지 않을까 하지만 다래나무, 상동나무는 잘 안 썩는다고 한다. ‘테왁’을 사용하고 나서 벽에 걸어 말리기 때문이다.

망사리는 ‘테왁’에 얹어서 바다 밑으로 내리게 만들어진 원통형의 그물자루다. ‘망시리’, ‘망아리’, ‘홍사리’, ‘홍아리’라고도 한다. 망사리는 용도와 재료에 따라 쓰임이 다르다. 채취하는 수확물에 따라 망사리 크기도 다르다. 미역물질을 할 때는 ‘테왁’도 큰 것으로 사용하지만 망사리도 매우 큰 것을 사용한다.

4-2-2. 조락

‘조락’은 전복, 오분자기, 해삼 등의 해산물을 따로 구분해 담아두는 작은 그물주머니⁶³⁾이다.

해녀 강복순과 천영자는 조락에 담겨 있는 판꼴을 보여주며 물질 나갈 때 들고 가는 약이라 하였다. 해녀들이 물질할 때 들고 나가는 판꼴은 일종의 비상약인 셈이다.

이건 조락. 전복 같은 거 보이민 여기 담양 오주. 약도 담양 가기도 하고. 물에 들어강 아플 수도 잇이난. 약은 판꼴. (이것은 ‘조락’. 전복 같은 것이 보이면 여기 담아서 오지. 약도 담아 가기도 하고. 물에 들어가 아플 수도 잇으니. 약은 판꼴.)

-강복순 구술

63)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도서출판 각, 2024, 184쪽.



사진 151 조락



사진 152 조락



사진 153 조락과 판꼴



사진 154 우뭇가사리가 담긴 조락



사진 155 전복과 배웁이 담긴 조락

이건 판꼴. 비상약이라. 물에 들어갈 때 잇이민 안 돼주. 가정 잇당 나 아니어도 누게가 필요하다 허민 전해주고. 7정 다녀야 안심 돼어.

(이건 판꼴. 비상약이야. 물에 들어갈 때 없으면 안 되지. 가지고 있다가 내가 아니어도 누가 필요하다 하면 전해주고. 가지고 다녀야 안심 돼.)

-천영자 구술

4-2-3. 빗창, 호맹이, 증계호미

채취 도구로는 ‘빗창’, ‘호맹이’ 등이 있다. ‘빗창’의 ‘빗’은 전복을 뜻하는 옛말로, 전복을 따는 데 사용하는 쇠로 만든 도구이다. 바다 환경에 맞게 제작된 것으로 길이와 두께가 다양하고 머리에 동그란 고리가 있어, 고



사진 156 빗창



사진 157 빗창을 허리에 차고 있는 모습

무릎이나 손목에 묶을 수 있는 끈을 달 수 있다.⁶⁴⁾ 빗창을 허리에 차고 있다가 전복이 보이면 꺼내어 사용한다.

과거 ‘소중의’를 입던 시절에는 ‘소중의’의 고름으로 허리를 휘감아 동여매고 난 후 ‘빗창’을 끼운다고 해녀 강복순은 구술하였다.

고름. 여기 허리 한 바퀴 돌려. 무끄면은 여기에다 빗창.

(고름. 여기 허리 한 바퀴 돌려. 묶으면 여기에다 ‘빗창’.)

- 강복순 구술

‘호맹이’는 오분자기, 소라, 성게, 문어 등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날 끝이 갈고리 모양으로 생긴 연장이다.⁶⁵⁾ 날이 긴 것은 바위틈에 있는 소라, 성게, 문어를 끄집어 낼 때 사용하고 짧고 끝이 날카로운 것은 오분자기를 채취할 때 쓴다.⁶⁶⁾

해녀 고옥연은 ‘호맹이’, ‘빗창’은 해녀인 어머니께 물려받았던 경험은 없고 직접 철물점이나 고무옷을 파는 가게에서 사서 사용했다고 하였다. 해녀 임성자는 물질하러 들어갔다가 물고기를 보면 ‘호맹이’로 잡았다고 하였다. 사계리 해녀들이 성게 작업을 하던 현장에서도 ‘호맹이’로 직접 잡은 쥐치, 문어 등을 볼 수 있었다.

64)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도서출판 각, 2024, 176쪽.

65)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도서출판 각, 2024, 187쪽.

66)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도서출판 각, 2024, 187쪽.

호맹이, 빗창은 다 철물점 강은에 사지. 맨 처음에도 모슬포 강 상 왔지. 이녁냥으로 사왔주. 육지 물질 갔다 와서 이제 파는 디 가서 사다가기네.

(‘호맹이’, ‘빗창’은 다 철물점 가서 사지. 맨 처음에는 모슬포 가서 사서 왔지. 자기가 사왔지. 육지 물질 갔다 와서 이제 파는 곳에 가서 사와.)

- 고옥연 구술

물질하러 들어강 보이민 호맹이로 잡는 거주. 객주리도 경 잡아서.

(물질하러 들어가서 보이면 ‘호맹이’로 잡는 거야, 쥐치도 그렇게 잡았어.)

- 임성자 구술

‘중게호미’는 톳, 미역, 모자반 등 바다풀을 벨 때 쓰는 도구이다. 사계리에서는 ‘메역무래’ 때 사용한다. 톳, 모자반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한다.

미역을 채취할 때는 미역 줄기를 비어야 하기 때문에 낮 형태로 날이 잘 들어 있는 것을 사용해야 유리하다. 새로 장만한 ‘중게호미’는 날이 날카롭고 위험하다고 날집을 꼭 가지고 다닌다. 대부분 오일장이나 철물점에서 구입을 했다고 한다.



사진 158 호맹이



사진 159 미역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중게호미



사진 160 새 중게호미

4-2-4. 닻

닻은 물질 시 자신의 위치를 표시하는 테왁이 조류에 떠밀리지 않게 고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테왁과 닻줄로 연결해 작업 구역을 잡아두는데 예전에는 구멍이 뚫린 돌을 이용했다. 돌닻은 무겁고 들고 다니기 불편하다. 그리고 무게나 모양이 일정치 않아 물속에서의 고정력이 약해 쇠로 된 금속 닻을 사용하게 되었다. 닻줄은 예전에는 50발⁶⁷⁾도 했었지만 지금은 30발 정도가 평균 길이이다. 현 닻은 가까운 곳에서 사용하고 새 닻은 먼바다에 나갈 때 무게가 무거운 것을 가지고 간다고 한다.

옛날에는이 돌에 무경 헤낫주. 이제는 이추록 쇠로 된 거. 줄은 평균 삼십 발. 옛날에는 오십 발도 헤난. 현 닻은 가까운 바닷 들어갈 때 쓰고, 새 거는 저기 먼디 갈 때. 무거운 거로 가정가주게.

(옛날에는 돌에 묶어서 했었지. 이제는 이렇게 쇠로 된 것을. 줄은 평균 삼십 발. 옛날에는 오십 발도 했어. 현 닻은 가까운 바다에 물질하러 갈 때 쓰고, 새 닻은 먼바다에 물질하러 갈 때. 무게 무거운 것으로 가져가.)

-천영자 구술



사진 161 닻



사진 162 닻줄

67) 보통 1발 기준은 약 1.5~2미터 정도이다.

4-2-5. 성계작업 도구

성계물질이 끝나 바로 작업 공간으로 오면 <사진 165>와 같은 모습이다. 이제 성계알을 꺼내기 위한 도구를 준비하고, 바닷물을 떠 온다. 성계알을 꺼낼 때 사용되는 물은 꼭 바닷물을 사용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염도를 맞춰서 사용하기도 한다. 사계항에 성계 작업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있어 바로 바닷물을 떠다 쓰고 있다.

바다에서 금방 잡은 성계를 배에서 포구로 옮겨질 때 성계 가시에 찢리지 않게 빨랫방망이로 성계를 툭 툭 치는 모습은 꽤나 인상적이었다.



사진 163 성계물질이 끝나고 공영호에서 내리는 해녀들



사진 164 성계가 담긴 테왁 내리는 모습



사진 165 성계 작업장 모습



사진 166 방망이로 성계를 대야에 넣는 장면



사진 167 티스푼과 집게



사진 168 성게칼, 집게, 숟가락



사진 169 도마



사진 170 성게체



사진 171 작은 대야

방망이. 이거 빨래방망이. 가시 찔리면 아프니까 이거로 툭툭 치는 거라. 영 치든 어땀 안해.

(방망이. 이것은 빨랫방망이. 가시 찔리면 아프니까 이거로 툭툭 치는 거야. 이렇게 치면 괜찮아.)

-천영자 구술

성게 작업에는 방석, 도마, 도구 담는 통, 숟가락, 집게, 칼, 성게체, 바구니, 분할기 등 다양한 도구가 필요하다. 사계리 해녀들은 작업 도구 채비를 갖추고 사계항 공동작업장에서 성게 까는 작업을 진행한다. 물질하는 시간보다 성게를 잡고 손질하는 시간이 더 많이 드는데 이때 해녀들의 손놀림 또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3~4시간씩 걸리는 장시간의 작업을 위해 꼭 필요한 방석, 성게를 자르는 분할기 역시도 작업시간의 단축



사진 172 성게칼로 성게 까기



사진 173 집게로 불순물 제거하기



사진 174 방석, 플라스틱 양동이, 대야



사진 175 성게분할기로 성게 까기

과 효율성을 올려준다. 성게알 꺼내는 숟가락, 집게와 체도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한몫하는 도구이다.

성게알 꺼내는 티스푼, 집게, 숟가락, 성게체, 작은 대야, 성게칼 등 보통 2개씩 준비해서 성게 작업을 한다. 성게를 쪼갤 때는 칼이나 성게분할기를 사용한다. 그 다음 성게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가능한 성게 내장을 비껴가며 성게알을 티스푼으로 떠낸다. 그리고 바닷물이 있는 그릇에 성게알을 넣는다. 성게알이 어느 정도 차면 성게체에 받쳐 불순물이 떠내려가게 흔든다. 잘 안 떨어지는 내장이나 불순물은 집게로 떼낸다. 성게알을 바닷물에 살살 흔들며 씻기를 여러번 반복하고 성게알을 통에 넣는다.

방석 잇이민 작업 못하여. 영 앓아사 이거 작업을 허지. 경 안하민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헐 수가 있어. 분할기



사진 176 성계분할기 정면



사진 177 성계분할기 옆면

옛일 땀 다 칼로 헛주. 아이고 쉬운 게 아니라. 이젠 분할기 시난 편해.

(방석 없으면 작업 못해. 이렇게 앉아야 이거 작업을 하지. 그렇게 안 하면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할 수가 없어. 분할기 없을 땀 다 칼로 했지. 쉬운 게 아니야. 이제는 분할기 있으니깐 편해.)

- 김이선 구술

성계분할기는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에서 2010년부터 기획, 설계해 제품을 개발하였으며 2018년부터 작업 현장에 보급하였다.⁶⁸⁾ 처음에는 성계분할기 사용하는 것이 익숙치 않아 성계칼을 선호하였으나 요즘은 많이 사용하는 추세이다.

4-2-6. 작살

작살은 물고기를 쏘아 잡을 때 사용하는, 작대기 끝에 날카로운 쇠를 박아 만든 도구를 말한다.⁶⁹⁾ 제주 방언으로 '소살'이라고도 한다. 작대기는 마디가 없는 이대를 이용하여 만든다. 한쪽 끝에 미늘 달린 쇠를 박고, 다른 한쪽에는 엄지손가락을 끼울 수 있게 고무줄을 곁치어 동여맨다. 물고기가 보이면 고무줄 고리에 엄지손가락을 집어넣고 고무줄을 늘였다가 놓음으로써 물고기를 맞히게 된다.⁷⁰⁾ 미늘이 하나인 것을 '외가달

68)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도서출판 각, 2024, 182쪽.

69)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도서출판 각, 2024, 183쪽.

70)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도서출판 각, 2024, 183쪽.



사진 178 세소살

사진 179 세 가닥의 미늘



사진 180 작살로 잡은 객주리



사진 181 작살로 잡은 우럭

소살(외가닥작살), 두 쪽으로 갈라진 것을 '양가달소살(양가닥작살)'이라 한다.⁷¹⁾ 형태는 길고 뾰족한 쇠끝을 가진 막대기 모양으로, 던지거나 찢어서 해산물을 포획한다.

훈탁이 골갱이 다 꺾어지고 잇이난 '야 이레주라.' 강 고무줄로 묶고 골양은에 주난. '골갱이 좋아냐?' 허난. 삼촌 엄지손 하명 '짱'. 개난 소살로 갓돔 하나 쓰앙 줘서.

(훈탁이(사계리 해남) '골갱이' 다 꺾어지고 있어서 '야 여기 주라.' 가서 고무줄로 묶고 갈아서 줘어. '골갱

71)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도서출판 각, 2024, 429쪽.

이 좋았냐? 하니깐. 삼촌 엄지손 하면서 '짱'. 그래서 '소살'로 갖둠 한 마리 썬서 쫘어.)

-천영자 구술

4-2-7. 갯닭이 도구

사계리 해녀들은 일 년에 두 번 갯닭이 작업을 한다. 작업을 하러 나갈 때는 편한 옷차림의 모자, 장화를 신고 손에는 장갑, '갯닭이용 호맹이'를 들고 나간다.

밭을 갈 때 사용하기도 하지만 사계리 해녀들이 갯닭이 작업을 할 때에도 사용한다. '갯닭이용 호맹이'는 철물점에서 구입한다고 하였다. '갯닭이용 호맹이'는 군부 같은 따개비 종류를 떼내기 편하게 왼쪽이 뽕족하게 되어있고 굽기 편하게 직각으로 넓은 면이 있다.

밭도 강 메어. 밭. 밭디에서도 쓰고. 갯닭이 할 때 이거 다 들렁 하나씩 다 테와쫘주게. 일본 거. 다 판다.

(밭도 가서 매. 밭. 밭에서도 쓰고. 갯닭이 할 때 이것 다 들고 하나씩 나눠쫘지. 일본 거야. 다 판다.)

-김이선 구술

갯닭이용 굴쟁이가 있어. 그거도 들렁 가고. 호맹이도 들렁 가고. 굴쟁이로 파고 떼고. 경 허민 호맹이는 굴꼬.

(갯닭이용 '굴쟁이'가 있어. 그것도 들고 가고. '호맹이'도 들고 가고. '굴쟁이'로 파고 떼고. 그렇게 하면 '호맹이'는 굽고.)

-천영자 구술



사진 182 갯닭이용 호맹이와 장갑

19세기 말 이후 제주해녀들이 제주도 밖인 한반도, 일본, 중국, 러시아 등으로 나가서 물질했던 어로작업을 출가(出稼)물질이라 부른다. 1876년 개항 이후 제주해녀들은 제주도 밖 외지에서 물질하기 위해 고향을 떠났다. 그런 해녀를 '고향을 떠나서 작업하는 해녀'라는 의미로 출향(出鄕)해녀라 부른다. 그리고 그런 해녀들의 작업은 '돈벌이 물질을 간다'는 의미로 출가물질이라고 하였다.⁷²⁾

해녀들 사이에서는 타지에서 물질하는 것을 '섬 바깥으로 나간다'고 하여 '바깥물질'이라고 불렀으며, '육지물질 간다', '원정물질 간다' 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기도 한다.

'출가'는 원래 일본어 표현인 데카세키(出稼ぎ: 타 지역으로 돈을 벌러 나가는 행위, 또는 그런 사람)에서 차용한 용어다.⁷³⁾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전 및 전승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출가물질' 용어를 '출향물질'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해녀박물관의 전시 소개에도 '바깥물질'과 '출향해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사계리 해녀 중 대표적으로 1970년대 강원도 지역으로 바깥물질 다녔던 80대의 김이선 해녀와 2000년대 이후 육지로 다니는 60대 강미화 해녀를 만나 바깥물질 이야기를 들었다. 두 분 해녀 모두 바깥물질 가는 표현을 육지물질 간다고 하며, 그 지역의 사람들은 제주해녀들에게 원정물질 왔다고 말한다고 한다.

72)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도서출판 각, 2024, 94쪽~95쪽.

73) 데카세키는 자신의 고향을 떠나 국내의 타 지역이나 외국으로 돈을 벌기 위해 나가는 행위 및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문화유산보존사업회, 《(통사로 살피는) 제주해녀》, 제주특별자치도, 2015, 50쪽.

출가물질이런은 안 해. 원정물질. 육지물질 육지 감저 육지 감저렌 허지. 너 육지 언제 갔다 왔어? 육지 언제 가? 그 근데 육지 사람들이 우리 보고 이제 원정 왔저렌 해. 니 육지 어느 때 가멘? 영 하지.

(출가물질이라고는 안 해. 원정물질. 육지물질. 육지간다고 하지. 너 육지 언제 갔다왔어? 육지 언제 가? 그 근데 육지 사람들이 우리 보고 이제 원정왔다고 해. 너 육지 언제 가? 이렇게 말하지.)

-강미화 구술

5-1. 김이선 해녀(1945년생)

김이선 해녀는 1945년생, 올해 81세로 사계리 출신 현직 해녀다. 8남매 중 맏이로 태어나 15~16살쯤에 본격적으로 물질을 시작했다. 1960년대 사계에서는 물질 잘하는 해녀들을 ‘큰좁녀’라고 불렀고, 물질을 배우는 해녀들에게는 ‘족은좁녀’라고 불렀다. 김이선 해녀는 18살까지는 ‘족은좁녀’였다.



사진 183 해녀 김이선

여에 히어 갖닥 히어 왓닥 허단 보난 열다섯 솔 넘으난, 열여섯 솔 뒤년에 물건 잡기 시작했주게. 우리, 족은좁녀, 큰좁녀. 하군이엔도 안 골안. 족은좁녀, 큰좁녀. 잘하는 사람은 큰좁녀, 지금 배우는 아, 우리 배우는 거, 열여섯?진. 배와근에, 돈 버스려 주건딘, 우리가 부모덜한티 돈 버스려 주건딘, 열여덟 때나 돈 버슬멍 부모덜 밧도 사는디 보테 주곡 헛저. 그문 그때까지, 열여덟 때까지는 족은잡녀, 족은잡녀렌 헛. 초초초초 뵤우멍 뒤어가는 거난게. 솜씨가 좋앙 물건 하영 잡으민 큰좁녀, 족영잡으민 족은좁녀.

(여에 헤엄쳐서 갔다가 헤엄쳐서 왔다가 하다가 보니깐 열다섯 살 넘으니깐, 열여섯 살 되니 물건 잡기 시작했지. 우리는 ‘족은좁녀’, ‘큰좁녀’라고. 하군이이라고는 안 말했어. ‘족은좁녀’, ‘큰좁녀’ 잘하는 사람은 ‘큰좁녀’, 지금 배우는 아, 우리 배우는 거 열여섯까지는 배워서 돈 벌어서 줬는데, 우리가 부모들에게 돈을 벌어서 줬는데, 열여덟 때나 돈 벌어서 부모들 밧도 사는데 보태 주곤 했어. 그러면 그때까지, 열여덟 때까지는 ‘족은잡녀’, ‘족은잡녀’라고 했어. 차차차차 배우면서 되어

가는 거니깐. 솜씨가 좋아서 물건 많이 잡으면 ‘큰좁녀’, 작게 잡으면 ‘족은좁녀’.)

-김이선 구술

열여섯에 사계에서 물질할 때는 주로 ‘소중의’를 입고 미역, 소라를 잡았다. 고무옷이 나오기 전이라 ‘물소중의’를 입고 노를 저어 형제섬까지 가서 소라를 잡았다. 30분 정도 작업하고 나와서 ‘불턱’에서 불을 쬐고 다시 물에 들어가기를 5번 정도 반복했었다.

처음 열여섯 살부터 물건 잡기 시작했, 구제기 혼 근 두 근 헛주게. 그때는 키로가 아니고. 구제기 그때는, 고무옷도 없고, 물 따신 땀이, 미역 허영, 미역 허어난 다음에 소라 잡았주게. 물 추워 놓난, 그땐 고무옷 엇인 때난, 가민 삼십 분 살민 잘 살아. 한 시간 산 건 막, 특 벗, 벗어지게 산 사람덜이고. 달달 털멍 그자 헤엇인디. 경 해도. 불 초양, 영, 불 초양 또 들어가고. 하루에 다섯 번씩 물질했어. 노 젓는 배로 젓영 저디 형제섬에 강 구제기 잡앙 또 젓영 오고 경 헛주기.

(처음 열여섯 살부터 물건 잡기 시작했어. 소라 한 근, 두 근 했지. 그때는 킬로그램이 아니고. 구제기 그때는 고무옷도 없고, 물 따뜻할 때는 미역 하고, 미역 한 다음에는 소라 잡았지. 물 추우니깐. 그때는 고무옷 없을 때니깐, 가민 삼십 분 살민 잘 살아. 한 시간 산 건 막 특 벗,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덜이고, 덜덜 떨면서 그냥 했었는데. 그렇게 해도 불 쬐고, 응, 불 쬐고 또 들어가고, 하루에 다섯 번씩 물질했어. 노 젓는 배를 저어서 형제섬에 가서 소라 잡고서 또 저어서 오고 그렇게 했지.)

-김이선 구술

고무옷을 입은 지는 53년 정도 되었다. 큰아들 낳기 전 바깥물질 가서 제주도에 있던 해녀들 보다 먼저 입었다. 일본에 살던 시이모가 고무옷을 보내주었다. 상의에 지퍼가 달려있었고, 고무옷이 몸에 딱 달라붙지 않아 옷 안으로 물이 들어갔다. 처음에는 ‘고무옷 입으면 오래 못 산다’ 이런 이야기가 무성했었다고 한다.

고무옷은 입건 디, 내가 입건 딴 오십삼 년 뒤저. 자이, 우리 큰아덜이, 저, 그, 이제 쉰셋인디 자이, 쉰셋인디. 자이 낳기 전이, 나가 육지 가불었어. 육지 간 뒤, 그때, 고무옷이 육지 간 보난에 그때 나오더라고, 체암으로. 경 허난 이제 그거 만드난, 우리 시이모가 일본서 완에, 물질허켄 허민 고무옷을 행 보네켄. 거난 일본서 그 우리 어머, 시어멍 아시가, 동생이, 고무옷을 행 보네테라고. 게난 그때는 영 잠바식으로 영 자꾸 돈 고무옷이라라게. 지금 우리가 입는 거추룩 허는 것이 아닌. 게난 영 엇더지만 물이 잘잘잘잘 들곡. 경 헛게 이제 옷덜은 영 자꾸 안 돌렁 그자 그냥,

그냥 입은 고무옷이고. 그거 입건 디가 경 오래시네. 게난 사람덜 무슨, '고무옷 입으면 오래 못 산다', 무슨 '빙신된다' 해도 아직?진 빙신 안 뉘연에, 허리 아프는 건 고무옷 안 입은 사람도 허리 아판 죽어감저만은게. 경 헛저.

(고무옷은 입은 지, 내가 입은 지 오십삼 년 됐지. 우리 큰아들이, 저, 그, 이제 쉰셋인데, 저아이 쉰셋인데. 저아이 낳기 전에, 내가 육지 가버렸어. 육지 가서 뭐, 그때, 고무옷이 육지 가서 보니깐 그때 나오더라고. 처음으로. 그렇게 하니깐 이제 그거 만드니깐, 우리 시이모가 일본에서 와서, 물질하겠다고 하면 고무옷을 해서 보내주겠다고 했어. 그니깐 일본에서 그 우리 어머, 시어머니 동생이, 동생이, 고무옷을 해서 보냈더라고. 그니깐 그때는 이렇게 점퍼식으로 이렇게 지퍼가 달린 고무옷이었어. 지금 우리가 입는 것처럼 아니고. 그러니깐 이렇게 엮어지면 물이 잘잘 들어가고. 그렇게 하더라. 이제 옷들은 이렇게 지퍼 안 달리고 그냥 그냥, 그냥 입은 고무옷이고, 그거 입은 지가 그렇게 오래됐어. 그러니깐 사람들 무슨, '고무옷 입으면 오래 못 산다', 무슨 '빙신된다' 해도 아직까지 빙신 안 됐다. 허리 아프는 것은 고무옷 안 입은 사람도 허리 아파서 죽어가고 있지만. 그렇게 했지.)

-김이선 구술

19살에 처음 바깥물질을 다녀왔고, 25살에 다시 가서 5년 동안 강원도에 바깥물질을 다녔다. 큰딸 쌍둥이를 낳고 4살 때 가서 9살 때까지 다녔다. 당시에 바깥물질 가서 정착하고 살고 있던 제주도 해녀들에게서 연락이 왔다. 강원도에서는 미역을 채취했는데, 열 구덕 채취하면 한 구덕은 해녀들 몫으로 계산해 줬었다.

나? 오 년 멩겨저. 강원도 (불청) 멩겨저. 열아홉에 갓당, 시집 간 아기 나명 살아부난 못 갓단에, 이 하르방이영 싸완 돌 네 개 난, 촛, 돌 두 개 난에 네 술에 띠연. 네 술에 띠연에 아홉 살 나도록 물질 멩겨저. 배 주인이 아니고, 그거, 그디, 지방 사름덜이 해녀덜 우리 제주 사름 강, 그디도 가민 제주 사람이 한다. 게난 우리신디 연락 오는 것도 제주아이 간 물질해당 그디서 살림 사난, 사난, 가이가 이제 우리신디 모, 모집을 와. 경 해근에 가민 프러스, 미역 열 구덕 허은 한 구덕 우리 쪽시.

(나 오 년 다녔어. 강원도에 다녔어. 열아홉에 갓다 시집가서 아기 나면서 살다가 못가다. 할아버지(남편)랑 싸워서 딸 네 명 낳고, 딸 두 명(쌍둥이) 낳고 네 살에 떼어놓았어. 네 살에 떼어놓아서 아홉 살 나도록 물질 다녔어. 배 주인 아니고, 그거, 그디, 지방 사람들이 해녀들. 우리 제주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도 가민 제주 사람이 한다. 우리한테 연락 오는 것도 제주아이(해녀)들이 가서 물질 하다 거기서 살림 살아. 그 아이가 우리한테 모집을 와(우리를 모집해 가). 그렇게 해서 가민 플러스, 미역 열 구덕 작업하면 한 구덕이 우리 몫.)

-김이선 구술

김이선 해녀는 25살 쯤 강원도 갈 때 사계 해녀 8명을 모집해서 데리고 갔다. 보통 음력 2월에 가는데, 2월은 추워서 물질 못하고 3월부터 물질해서 8월 명절에야 돌아왔다. 양력으로 9월 보름이 되어야 돌아왔다는 것이다. 같이 간 해녀들과 함께 방을 얻어 살았으며, 쌀, 보리쌀 등 먹을 기본 양식은 제주도에 가서 가져왔다. 제주에서 저녁 5시에 배를 타고 부산으로 가면 다음 날 아침 8시에 내려 버스를 타고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으로 도착했다.

오답 사름. 나가 모집행 갔주게. 나가, 나가, 우리 동네 아이덜 다나가 돌아왔주게. 부아레 안 받아경 해도. 우리, 이, 가민 똑?튼 동네에서 와부난에 뭐, 나 물건 잡은 건이 하영 잡아시난 나 흐김 드라 영도 안 해여. 먹는 것도 다 가정 가야돼. 보리, 보리쌀, 보리쌀 열 말 시고곡 줍쌀 열 말 시고곡 헨 옛날은 멩겨저, 우리. 가민 이월 둘 가주게. 이월 둘 가민 이월 둘은 물질 못하여, 추왕, 강원도 물은 추왕근에 허민. 삼월 들부터 물질허민, 팔월 멩질 웨야와. 쌀은 이녁만씩 다 가정 가. 거기서도 우리가 방 빌영 살았주게. 거 선주가 빌어주는 거 아니. 우리가 빌영 방값 내어. 제주도에서 저기, 배 탕 부산 강 내령, 조녁 다섯 시에 올르민 아침 오답 시 뉘어서 내리주게. 그냥 버스로 가. 강원도 저, 근덕. 근덕면. 강, 삼척, 근덕이주게, 그디가.

(여덟사람. 내가 모집해서 갔어. 내가, 내가, 우리 동네 아이들(해녀) 다 내가 데려서 갔지. '부아레' 안 받아 그렇게 해도. 우리, 이, 가면 똑같은 동네에서 와 버리니깐 뭐, 나 물건 잡은 거 많이 잡았으니깐 나 조금 주라 이렇게도 안 해. 먹는 것도 다 가져서 가야 돼. 보리, 보리쌀, 보리쌀 열 말 신고, 줍쌀 열 말 신고 해서 옛날은 다녔어. 우리. 가민 이월 달에 가지 이월 달에 가면 이월 달은 물질 못해, 추워서, 강원도 물을 추워서 하면, 삼월 달부터 물질하면, 팔월 명절 되어야 와. 쌀은 자기만씩 다 가져서 가. 거기서도 우리가 방을 빌어서 살았지. 그거 선주가 빌어주는 거 아니. 우리가 빌어서 방값 내. 제주도에서 저기, 배 타서 부산 가서 내려. 저녁 다섯 시에 오르면 아침 여덟 시 되어야 내리지. 그냥 버스로 가. 강원도 저, 근덕. 근덕면. 가서, 삼척, 근덕이지, 거기.)

-김이선 구술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에서는 미역과 성계, 전복을 채취했다. 소라는 없었다. 발동기가 없을 때라 작은 멩목을 타고 뱃물질을 다녔다. 미역은 말려서 단으로 하고, 성계와 전복은 근으로 무게를 달았다.

한 물때 지나면 계산해서 돈을 받았다. 명절이 가까워지면 돈을 다 받기도 했다. 그러면 은행에 가서 제주도 집에 보내기도 하고, 고향이 제주인 지인에게 맡겨놓기도 했다. 제주도 사람들은 돈을 떼어먹지 않았다고 한다.

응, 걸영 땡기곡, 그자, 거세기 저, 배에는 발동기 그디도 엇인디, 옛날 우리 갈 때 발동기 엇이민 때, 때 젓영 땡기 곡, 또시 구멍이 썩질락 현 덴마, 젓는 덴마. 그거 허영, 탕 땡기고. 미역허고 성계, 전복. 마찬가지로, 소라만 없어, 그딘. 미역 멧, 그딘 단수로 한다고 이 미역을. 또 성계는 이제 키로 수로 허지 아녀, 근을 멧 근 허민 이제 어떻게 땡 허곡 경 허명. 전복도 문딱 근으로 돌아 경 허곡, 경 허더라고. 응.

(응. 걸어서 다니고, 그냥, 거시기 저, 배에는 발동기는 거기도 없는데, 옛날 우리 갈 때 발동기 없으면 때, 때 저어 다니고. 다시 구멍이 작은 전마선⁷⁴), 젓는 전마선. 그거 해서, 타고 다니고. 미역하고 성계, 전복. 마찬가지로, 소라만 없어, 거기는. 미역 멧, 거기는 단수로 한다고 이 미역을. 또 성계는 킬로그램 수로 하지 않아, 근을 멧 근 하면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전복도 모두 근으로 달아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 응.)

-김이선 구술

멍절이 가까워 가면 돈을 또. 다 주지. 그때 그때 줘. 돈은 그 사람덜이 모였당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안티, 한 물 때, 한 물 때 지나민, 딱 계산, 계산해근에 얼마, 경, 계산행 줘. 은행, 은행에도 가곡. 친구신디, 이 제주 아이덜신 디 못치주게. 못청, “느네 집이 놔두라. 이거 놔다근에 우리 갈 때랑 드라.” 허민 지네 썩당이라도 다 주곡 경 허주 게. 제주 사람덜은 그런 건 막, 거, 거, 두 동네 강 살아도 서로가 돈 버스레 오란 영 허는 거 경, 돈 십 원 놔난 때어 먹지도 안 해여. 어디 나쁜 사람덜 걸리민 어떻게 허 지 몰라도 우리 동네 사람, 아이덜은 그디 간 살림 사는 아이덜 으라 아이가 잇인디, 경 아니해반.

(멍절이 가까워 가면 돈을 또. 다 주지. 그때 그때 줘. 돈은 그 사람들이 모았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한 물 때, 한 물 때 지나면, 딱 계산, 계산해서 얼마, 그렇게, 계산해서 줘. 은행, 은행에도 가고. 친구한테, 이 제주 아이들한테 맡기지. 맡겨, “느네 집이 놔두라. 이거 놔다가 우리 갈 때랑 주라.” 하면 자기네 썼다 가도 다 주고 그렇게 하지. 제주 사람들은 그런 거 막, 거, 거, 두 동네 가서 살아도 서로가 “돈 벌러 왔니?”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돈 십 원 놓고 떼먹지도 안 해. 어디 나쁜 사람들 걸리면 어떻게 하는 지 몰라도 우리 동네 사람, 아이들은 그디 가서 살림 사는 아이들 여러 아이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해봤어.)

-김이선 구술

강원도의 미역바위는 임대받은 주인이 있었다. 미역은 바다를 임대받은 주인과 9대 1로 나누었다. 미역은 열 구덕을 채취하면 한 구덕은 해녀들의 몫이었다. 성계는 해녀들이 채취한 만큼 팔았다. 심호섭이라는 사람이 미역도 받아 가고, 성계도 받아 갔다.

바당 임제. 안주. 성계, 성계는 우리 마음대로 행 팔아 먹는다. 미역만. 미역만 경, 계난 열 구덕 해민, 우리 한 구덕 그자, 경 그 동네 바우 임제, 동네 사람, 성씨. 아이고, 성도 잊어붙어진 거 다행. 이젠 이. 저, 삼척, 아이고, 곧 져 허난, 죽어붙었게. 죽엇인디, 죽엇인디. 심, 심, 심호섭이. 응. 심호섭이. 미역 주인도 허고 성계도 받곡 그 사람이 다 모집이라. 경 행 다 해영 돈 팍팍 해영 주곡 해여. 그 사람은 우리 부아레도 안 띠여. 그냥, 그냥 다 주어. 겐디 바당 임제엔 허는 건 그, 영 그창, 부락이민 으짝엔 셋동네, 이쪽엔 동동네 영 해근에, 그차근에 바당을 경 행 허더라고. 경 허난 우리추록 마찬가지로. 경 허민 그 사람덜신디 미역을 우리가 따 주근, 따 주민 한 구덕 주는 거, 열 구덕 당 한 구덕.

(바다 입자. ‘안주’. 성계, 성계는 우리 마음대로 해서 팔아 먹는데. 미역만. 미역만 그렇게, 그러니깐 열 구덕 하면, 우리 한 구덕 그냥, 그렇게 그 동네 바위 입자, 동네 사람, 성씨. 아이고, 성도 잊어 버려진 것 다행. 이젠 이, 저, 삼척, 아이고, 말하려고 하니깐, 죽어버렸지. 죽었는데, 죽었는데. 심, 심, 심호섭이. 응. 심호섭이. 미역 주인도 하고 성계도 받고 그 사람이 다 모집이라. 그렇게 해서 다 해서 돈 팍팍 해서 주고 해. 그 사람은 우리 ‘부아레’도 안 때. 그냥, 그냥 다 주어. 그런데 바다 입자라고 하는 거 그, 이렇게 끊어서, 부락이민 이쪽에는 ‘셋동네’, 이쪽에는 ‘동동네’ 이렇게 해서, 끊어서 바다를 그렇게 해서 하더라고. 그렇게 하니깐 우리처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한테 미역을 우리가 따 주는, 따 주면 한 구덕 주는 거, 열 구덕 당 한 구덕.)

-김이선 구술

6개월 정도 미역을 채취하면 40만 원 정도 벌었다. 당시 밭 한 마지기에 3만 원씩 했었으니 1960년대 40만 원이면 지금은 400만 원 이상의 가치일 것이다. 해녀 김이선은 바깥물질해서 번 돈으로 남편 빚을 갚아 줬고, 1만5천 원을 남편한테 주었다.

아이고, 게메이. 그때이 육 개월 벌영 놔두민이, 한 그때 돈 한 수십만 원이민 이제 수백만 원보단 더 컷저. 밭, 저, 밭 한 말지기, 그때 밭 한 말지기 삼만 원씩 해라. 나 밭 말양 간, 서방 밭 말양 간 다 물언에 돈 만오천 원 올란 서방신디 줬저.

74) 전마선은 큰 배와 육지 또는 배와 배 사이의 연락을 맡아 하는 작은 배를 말한다.

(아이고, 그러게. 그때 육 개월 벌어서 놔두면, 한 그때 돈 한 사십만 원이면 이제 사백만 원보다는 더 컸지. 밭, 저, 밭 한 마지기, 그때 밭 한 마지기 삼만 원씩 해라. 나 밭 맡아서 가서. 서방 밭 맡아서 가서 다 물었는데 돈 만오천 원 올라서 서방한테 컸지.)

-김이선 구술

바깥물질 갔다 돌아오면 겨울에는 사계에서 물질하다 다시 봄이 되면 강원도로 갔다. 육지물질 간 동안에 아이들은 시어머니가 봐줬었다. 딸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동안 육지물질 갔다 와서 보니 머리를 칠퓌이 마냥(그릇 옆에서 동그렇게) 잘라 놔서 속상했었다.

겨울에, 겨울 내 낭 살당 봄 나가 사라. 물질 허주게. 이디서 물질 허주게. 여기서 물질 허주게. 경, 그렇게 힘들게 살았인디 이제 사는 건 진짜 대통령 부럽지 안 허게덜 다 살았저게. 시어머 보난 우리 아기덜, 우리 딸덜 초등학교 가젠 허난이, 완 보난에 칠퓌이 머릴 멘들엉 놔뒀어라. 영 헨 사발 더깁, 사발 옆언에 ㄱ스 거 모양으로 문 동글락 허게 영 ㄱ산에. 아기 보난 나가 오죽 기가 맥현에. 아이고, 나 돈 버스레 가지 말주. 이 아기덜 띠여동 돈 버스레 강, 돈 버스레 밧 헤여. 경 헨 살당 보난

(겨울에 내내 사계에서 살다가 봄이 되면 나가서 물질하지. 여기(사계)서 물질하지.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사는 건 진짜 대통령 부럽지 않게 살고 있네. 우리 시어머니가 아이들 돌봐줬었어. 우리 쌍둥이 딸들 초등학교 갈 때 와 보니 '칠퓌이' 머리 만들어 놔더라. 그릇 옆에서 자른 거 모양으로 이렇게 동그렇게 잘란. 아이 보난 내가 기가 막혀서 나 돈 벌러 가지 말아야지. 이 아이들 떼어놓고 돈 벌러가서 뒤흔. 그렇게 해서 살다보니)

-김이선 구술

해녀 김이선이 5년 동안 강원도 바깥물질을 다니면서 돈을 보내주니 집에서는 시어머니와 아이들이 편하게 살았다. 육지에서는 먹을 것 사는데도 거의 돈을 쓰지 않았다. 고동을 잡아다 된장이나 감자를 바꿔 먹으면서 돈을 아꼈다. 때마다 아이들 입을 옷을 사서 보내줬었다.

걱정 없언. 애기덜은, 겐디 나가 그것덜 먹고 쓰는 거 보내주고 헛주게, 경. 경 보내주곡 헛지. 그추록 행 오 년 동안 가난 강원도 데깁, 많이 벌곡게, 안 쓰니까 우리가 돈을 안 쓰니까 버스런 것덜 다 굳지. 그거. 여기추록 버스레 그디 불 일 보곡 저디 불 일 보곡, 들고 나곡 허민 돈 버스레 손에 심을 것이 어디 시니게. 그딘 가문 먹지 안 허지

놀레 안 가지, 그자 바당에만 멩기곡, 무사. 밧 헤영 먹는 줄 알암사? 보말 잡아근에 강원도도 막 보말 한다. 보말, 보말 잡아근에 그거 ㄱ정 동네 가민 장도 받아당 먹곡, 감자도 받아당 먹곡, 경 허여. 그거 주민, 그런 거 줘, 다. 경 허민 그자 솔만 열, 열 말씩만 ㄱ정 가민 오도록 솔 허나 안 사근에 그걸로 다 먹곡 행와. 돈 십 원 하나 쓰질 안 헤여. 옷은 ** 디 상 보내주긴 허주, 나가 이제, 이제, 여름 나 가민 여름옷 상 보내주곡, 그자 경 헤영 뭐, 살아왔인디, 나는 경 헛어. 다른 사람덜은 어떻 헨디.

(걱정 없었어. 아이들은 그런데 내가 아이들 먹고 쓰는거 보내주고 했어. 그렇게 보내주곤 했어. 그렇게 오 년 동안 강원도 다녔어. 많이 벌었어. 안 쓰니까. 우리가 돈을 안 쓰니까 버는것들이 다 그대로지. 여기처럼 벌고 여기저기 불일 보고 하면 돈 벌어 손에 쫄 것이 없을 건데. 거기 가면 먹지 않고, 놀러 가지 않고 그전 바다에만 다니고. 뭐 해서 먹는 줄 알아? 고등 잡아서. 강원도도 고등 많아. 고등 잡아서 그거 가지고 동네 가면 장도 바꿔 먹고 감자도 바꿔 먹고 그래. 그거 주면 그런 거 줘. 그러면 그저 쌀 열 말씩만 가져가면 돌아오도록 쌀 하나 사 먹지 않고 그걸로 다 먹고 해. 돈 십 원 하나 쓰지 않아. 옷은 ** 다 사서 보내주긴 하지. 내가 이제 여름 되면 여름옷 사서 보내주고, 그저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그렇게 했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김이선 구술

5년 동안 바깥물질 다니니, 남편이 배를 사서 울릉도까지 오징어 잡으러 다녔었다. 남편은 21년 전 간암으로 돌아가셨다.

바당에. 선장허고이, 배 헤영, 아이고, 배 헤영, 울릉도ㄱ지 큰 배 타근에 오징어 잡으레 가곡 경, 이십일 년 뒫져. 죽건디. 간암으로 죽엇주게, 간암으로.

(바다에 선장하고. (남편은) 배 사업을 했어. 배를 해서 울릉도까지 큰 배 타서 오징어 잡으러 가고 그렇게, 이십일 년 뒫져. 죽은지. 간암으로 죽었어. 간암으로.)

-김이선 구술

5-2. 강미화 해녀(1960년생)

해녀 강미화(1960년생⁷⁵)는 안덕면 대평리 출신으로 현재 사계어촌계 소속의 현직해녀다. 집에서는 큰 딸이었고, 친정어머니도 해녀였다. 어렸을 적 동네 친구들과 바다에 가서 보말 잡고 헤엄치면서 놀면서 자연스럽게 해녀가 되었다.

친정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소중의’를 입고, 큰눈을 쓰고, ‘쿱테왁’을 들고 다니며 물질을 시작했다. 물살이 센 곳에서 두령박⁷⁶이 바위에 부딪혀 깨지면 어머니에게 혼났던 기억이 있다. 물질을 배울 때 깊은데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 같이 물질을 시작했던 대평리 친구들중에는 지금 혼자만 해녀일을 하고 있다.



사진 184 해녀 강미화

몰라. 그냥 옛날에는 바닷가에 강 히당 보난, 우리 그때야게 벗들이영 바닷가에 강 보말 잡고 뭐 하고 허당보난 해녀가 됐겠지. 어릴 때 그냥 막 가기로 강 보말 잡고,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옛날에 그 두령박 해갓고 깨먹음인게 어명신디 욱 들고. 바닷센데 구디 강 팍 부딪혀볼면 깨져볼면 어명신디 욱 들고. 그러니까 그때 배울 때도 벗들보다 나가 허곰 물질을 잘 해난 해녀가 된 거야. 그래도 난 막 깊은 데 가고 했어. 다른 애들은 막 여기도 아프다. 뭐 허멍 잘못된 거라. 대평리 우리 친구 중에 해녀는 나뿐. 아무도 안 해. 나 혼자 그러니까 그때 어릴 때도 무사 그 깊은 디도 가지고 해신지 모르쿠다.

(몰라. 그냥 옛날에는 바다에 가서 헤엄치다 보니깐, 우리 그때는 벗들이랑 바다에 가서 고둥 잡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깐 해녀가 됐겠지. 어릴 때 그냥 막 바닷가에 가서 고둥 잡고,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옛날에 그 ‘두령박’ 해서 깨면 어머니한테 욱 들고. 바다 센데 가에 가서 팍 부딪혀 버리면 깨져 버리면 어머니한테 욱 들고, 그러니까 그때 배울 때도 벗들보다 내가 조금 물질을 잘했으니깐 해녀가 된 거야. 그래도 난 막 깊은

데 가고 했어. 다른 애들은 막 여기도 아프다. 뭐 하면서 잘못된 거라. 대평리 우리 친구 중에 해녀는 나뿐. 아무도 안 해. 나 혼자 그러니까 그때 어릴 때도 왜 그 깊은 데에 가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 강미화 구술

결혼하기 전, 18~20살 쯤(1980년대 초) 친구들과 함께 통영으로 처음 바깥물질을 나갔다. 노씨 아저씨의 집으로 제주에서 연락선을 타고 부산까지 가서 부산에서 버스를 타고 통영을 갔다. 마산으로 가서 버스를 타고 통영까지 가기도 했다. 갈 때는 먹을 식량을 가져가지 않고 고무옷과 오리발, 수경만 가지고 다녔다. ‘테왁 망사리’, 연철 등 다른 도구들은 현지에서 구했다.

모집하는 사람은 노씨 아저씨. 친구들이 ‘야 너 육지 한번 가보젠?’ 하면 그냥 따라간 거지. 노씨 아저씨가 어디 다른 마을에 사람한테 ‘어디 해녀이시냐?’ 물어보면 이제 거기 사람이 이제 연결 연결해서 갔어. 그때 우리 그 배에 탈 때가 한 열두 명. 여기서야 연락선 타고 갔지. 탑동에 와근에, 통영에 가서도 배 타고. 여기서 나갈 때 도라지훈가 아리랑훈가 타고 갔어. 저녁에 타면 아침에 내렸지, 부산으로. 부산항에서 버스 타고 통영으로 갔어. 맨몸으로 옷만 가지고 갔어. 마산에서 내령 층무 갈아탄 거 닮아.

- 강미화 구술

통영에서는 주로 해삼을 잡는데, 보통 4월에 가서 8월 추석에는 집으로 돌아왔다. 한 배에 12명이 왔는데, 같이 간 친구 4명이 같은 방을 썼다. 방은 선주가 얻어 주었고, 해녀들은 돈을 모아 쌀과 반찬거리들을 샀다.

한조금에 이틀 쉬고, 거의 매일 작업을 했다. 통영의 해삼은 검은 해삼으로, 손으로 주워서 잡아 ‘테왁망사리’에 넣었다. 파도가 센 날이 쉬는 날이었다.

조금 따뜻해질 때 가실 거라. 그게 막 추운 때는 아니라. 여름에 가서. 사월에 가면 팔월 추석에는 집에 왔어. 해삼만 잡아, 거기는 해삼밖에 없는데, 통영 미수동은 해삼만 잇인다. 옛날에는 그냥 ‘두령박’에다가 그냥 여기 잡아다근에. 이제 ‘두령박’에 낚주게 통영은 흑삼, 검은 거 손으로 줍는 거. 통영은 매일 헛주게, 한 조금에 이틀만 놀고 계속 해. 서해안에 노는 날이 없어. 바닷싸야 노는 날.

- 강미화 구술

당시 배 선주와 얼마를 주겠다는 식으로 구두로 계약을 하고 가는데, 보통 4:6제(해녀 40%, 선주 60%) 였다.

75) 호적에는 1960년생으로 올라갔으나 원래는 1959년 돼지띠이다.

76) 테왁을 두령박이라고 불렀다. 쿱테왁은 스티로폼이 나오기 전 박으로 만든 테왁을 말한다.

한조금마다 계산을 하는데 작업한 물량을 받은 전표를 받는 식이다. 번 돈은 돌아갈 때 한꺼번에 현금으로 받기도 하고, 선주가 제주도 집으로 송금해주기도 했다.

사육제를 하든지. 예를 들어 우리가 만 원짜리 잡으면은 이제 선주는 육천 원 가지고, 해녀가 사천 원. 그런 식, 집을 얻어주는 선주도 있고, 배마다 달라. 옛날에 예를 들어 해삼 오천 원이면 우리한테 이천 원을 주든지 그래. 돈은 한조금에 한 번씩 계산해 주는데, 계산만 헛당 내려올 때 한 번에.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주기도 하고.

- 강미화 구술

통영에 3년 정도 다니다가 25살에 결혼을 하고, 아이들 키울 때까지는 바깥물질을 다니지 않았다. 사계리에서만 물질을 했다.

이후 40대 후반(2006년경)에 작은아이가 대학에 갈 때쯤, 3~4년 정도 일본 미에현으로 바깥물질을 나갔다. 미에현에는 예전부터 제주도 해녀들이 많이 다닌 곳이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관광비자로 들어가니 3개월 정도 작업하다가 돌아오곤 했다. 사계리에서 소라작업이 끝나면 6월쯤 가서 3개월 살다 음력 8월 추석에는 돌아왔다.

일본 사람이 선주, 우리나라 해녀들이 이제 일본을 다닌 거라. 지금은 안 다니지만은 옛날에는 이제 거기 해녀들이 우리 갈 때도 있더라고. 그 해녀들이 이제 연결시킨 우리가 가났주. 작은아들 대학 들어간 해⁷⁷⁾에. 나도 오래는 안 다녔어. 한 삼사 년. 여기서 소라 끝나면 유월달부터 가가지고 한 석 달 살다가 팔월 추석에 돌아왔어.

- 강미화 구술

일본 미에현에서는 주로 전복, 소라 등을 잡았다. 우리 같은 어촌계에서 바다를 임대한 주인(사장)이 해녀들을 고용하는 것이다. 강미화 해녀를 고용한 사장은 좋은 사람이었다. 사는 집은 사장이 구해줬고, 해녀 4명이 한집에 살았다. 일본인 사장은 해녀들을 무시하지 않고 한국말을 배워서 소통하려고 노력했다. 해녀들이 잘 먹어야 한다며 쌀도 좋은 쌀을 가져다 주었다. 해녀들은 사장을 ‘오야가다(おやかた)’라고 불렀다. 일본말을 몰라서 눈치로 ‘아와비(あわび(전복))’, ‘사자에(さざえ(소라))’ 등 기본적인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알아들었으며, 사

77) 작은아들은 1986년생으로, 대학 들어간 해는 2006년 경이다.

장은 전표를 한국어로 적어서 주기도 했다.

물건은 많아. 전복 같은 거 사이즈도 크고. 뭐 그냥 마찬가지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일본 예를 들면 우리 사장 같은 데는 이제 그 어촌계, 거기도 다 어촌계 바다야. 우리 이제 같은 사장님이 그 바다를 이제 돈 얼마 주고 계약하는 거라. 거기서도 우리끼리 해 먹어. 방이고 쌀은 이제 사장네가 해주고. 반찬은 해녀들이. 집 하나를 줘. 우리 사장은 그거는 다 지역마다 틀리지만. 우리 사장 하면 좋아가지고 일본 사람이라도 쌀도 최고급. 쌀 우리가 잘 먹어야 이제 이렇게 잘 한다고 집도 통째로 줘. 오야가다렌 불런. 그 우리 사장님은 막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더라고. 좋은 사람인데 진짜 글을 사사에 뭐 뭐 뭐는 다 한국말로 적어 전표를 줘. 사장님은 아무튼 한국말을 배우려고 그러니까 다른 일본 사람은 한국을 무시하는지 몰라도.

- 강미화 구술

일본에서의 작업은 아침 8시에 배를 타고 가서 작업하고 2시면 돌아왔다. 파도 센 날을 제외하고 80일 정도 물질을 할 수 있다. 바닷가에 ‘하마’라고 부르는 탈의장이 있어서 거기서 고무옷을 갈아입었고, 작업이 끝나면 거기서 널어놓고 왔다. 일본에 갈 때는 김치 등 부식을 조금씩 가져갔고 가끔 사장이 바닷고기를 가져다 주었다. 시장 보러 나가거나 그 지역을 구경하러 나가지는 못했다.

일본에서는 아침에 여덟 시에 배 타고 가면은 이제 두 시 되면 딱 나와. 파도 세면 노는 거 파도 안 세면 매일 매일 해야만 그 팔십 일 동안 부지런히 돈 벌어 올 거 아니. 두 시부터는 자유 시간. 망사리 올령 무게 쟁 전표 써줘. 딱 점표 딱 담고 나는 집에 가고. 거기도 탈의장이 있어. 바닷가에 우리 옷 갈아입고 여기처럼. 옷 갈아입고 그 앞에서 이제 배 타고 갔어. 하마라고 불렀어. 옷도 그냥 그 하마에 다 널어놔. 거기다 널어놓고 이제 모만 집에 오는 거지. 여기서 갈 때 대충 뭐 김치랑 뭐 이것저것 가져가. 또 거기 사장네가 또 이제 바닷고기 같은 거 먹는 거는 또 조금씩 주지마셈. 시장 보러에? 말도 못하는디 어디 갑니까?

- 강미화 구술

‘앞조락’은 일본에서 같이 물질했던 친구가 만들어 주었다고 한다. 전복, 소라를 잡을 때 허리에 차고 사용했던 앞조락이다. ‘앞조락’을 차면 망사리가 저만큼 떨어져 있어도 망사리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 편하다. 지금은 고무줄이 없어 나일론끈으로 되었지만, 고무줄과 고리를 끼우면 쉽게 매고 풀 수 있다.

3년쯤 일본에 다니다가 54세쯤, 2013년부터 서해안으로 바깥물질을 갔다.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이다. 선주의 모집으로 갔기 때문에 나잡어업 신고를 하기 위해 주소를 옮겼다.⁷⁸⁾ 서해안에서도 하루에 5시간 정도 해삼을 잡았다. 보통 4월쯤 가서 6월까지 작업했고, 물건값은 4:6제로 계산했다. 해녀들이 받는 돈은 잡은 물건의 40% 정도다.

서해안은 물이 싸고 들고 하고 동해안은 물고 싸는 게 없어. 동해안은 물이 내려가도 맨날 진짜 요거. 서해안도 다섯 시간 그냥 막 일찍 추운 때 다니주게. 해삼은 유월 말로 끝. 거기도 다 사육제 하는 데 뭐 삼칠제 하는 데도 있고. 우리 옛날에 다닐 때 뭐 오전 원도 받고 육천 원도 받고, 사장네가 이제 어촌계에 얼마 주고 우리한테 얼마 주고.

- 강미화 구술

해삼티셔츠는 강미화 해녀가 서해안에 해삼을 잡으러 다닐 때 직접 만들어서 가져갔다. 해삼티셔츠를 입고 작업할 때는 '테왁망사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처음에는 같이 데려간 해녀가 만들어준 해삼티셔츠를 입고 작업했다. 다음 해에 갈 때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가져갔으며, '해삼티'라고 부른다.

나일론티셔츠 안쪽에 늘어나지 않는 보자기천을 덧대어 두 겹으로 만들고, 가슴팍과 아래쪽 허리 부분에 고무줄을 달아 만든다. 목에도 잘 늘어나기 쉽게 고무줄과 천을 덧댔다. 고무옷 위에 '해삼티'를 입고 가슴 안쪽으로 해삼을 집어넣고, 배 위로 올라와 해삼을 뺄 때는 허리 부분의 고무줄을 풀어 해삼을 대야(해삼 담는 통)에 쏟아낸다.

78) 강미화 해녀는 서해안에 바깥물질을 다닌 2013년과 2015년 2번에 걸쳐 주소를 옮겼다. 2013년 5월에는 태안군 소원면, 2015년에는 충남 서산시 고북면으로 이전했다가 안덕면 사계리로 돌아왔다.



사진 185 앞조락을 차는 시범을 보이는 강미화 해녀

군산 쪽에서 해삼작업 할 때 만들어 사용했던 '해삼 조락'이다. 조락 윗부분에 고무끈과 고리를 달아 허리에 쉽게 매고 풀수 있게 만들었다. '앞조락'에 해삼이 어느 정도 차면 '테왁망사리'에 가서 쏟아부었다.

강미화 해녀는 7-8년 전부터 동해안 주문진으로 성계작업하러 바깥물질 다니고 있다. 보통 육지로 바깥물질 다니는 해녀들은 한림, 구좌, 서귀포 등 지역별로 있는데, 해녀들끼리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바깥물질 다니는 해녀들은 소문이 난다고 한다.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지역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주도 고향의 지인을 불러오고 지인이 또 연락하면서 바깥물질 하고 싶은 해녀들을 부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도 우리 사촌이 연락 온 거라. 여기 한번 가보렌. 이제 가니까 이제 그게 인연으로. 사촌도 한림 해녀. 연결 연결되어. '야 너 육지 가면 또 가고 싶은 사람 잇이나?', '나 데려 가라게.' 데령 가라는 사람이 그러지 옛날 어머니 우리 어머니 시절에 아가씨 때 육지물질 가난 그 물질 간 때 이제 거기 남자들이랑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그 분들이 제주도에 이제 조카가 있으면 보내주라 했는데 그게 이제 연결 연결이 되는 거지. 우리 어머니는 그때 그래도 육지 남자 안 만난 결혼 안 하난 다행이지만 우리도 가보면 이제 한 팔십 난 할머니들 그분들이 그 아가씨때부터 사는 거야. 이제 그 어른들이 이제 조카도 부르고 누계도 부르면 이제 그게 연결이 되지.

- 강미화 구술

동해안 주문진에서의 성계 작업은 보통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작업을 하고, 주문진 어촌계에서 어장을 임대받은 성림수산 사장의 모집으로 제주도 해녀 3명이 함께 다닌다. 그 지역 지방 해녀들이 없는 곳이다.

사장님은 개인 사장님인데 이제 여기 사장님이 우리 해녀를 이제 불러 모아. 불러 모으면은 이제 어촌계에서가



사진 186 서해안에서 해삼을 잡을 때 고무옷 위에 입었던 해삼티셔츠를 입는 것을 보여주는 강미화 해녀



사진 187 군산에서 해삼 잡을 때 직접 만들어 사용했던 앞조락

해녀도 없고 하나까. 자기네는 이제 성게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우리 가는데 사장님은 큰 성게 공장 하는 사장님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어촌계서가 이 사장님한테 우리 바다에 와서 성게 좀 잡아달라 하면 이제 우리 사장님이 이제 해녀를 데리고 가서 이제 성게 잡아주는 거주게. 동해안도 지방 해녀 있는 동네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 우리 다니는 데는 없는 동네. 이제 지방 해녀 있는 데는 우리 못 가.

-강미화 구술

해녀들이 성게를 잡아서 피성게⁷⁹⁾로 납품하면 공장에서는 동네 사람들을 고용해서 성게를 깬다. 보통 아침 7시부터 물질해서 12시쯤 나오면 2~3시쯤 공장으로 피성게를 가져간다. 바로 냉장고에 집어넣었다가 다음날 새벽 4시부터 공장에서는 성게를 까기 시작한다. 8~10명의 사람들이 성게를 까는데 하루에 100kg 정도, 한 철에 공장에서 5톤 정도를 생산한다.

우리는 그냥 피성게를 잡아. 공장이니까. 그럼 그 공장에 까는 사람들이 있어. 성게를 오늘 잡아 오면 냉장고에 하루 집어넣어. 이제 오늘 잡아온 거 우리가 한 열두 시에 나오면 사장님네 집에 그 성게가 도착하면 한 두세 시 되지. 그럼 이제 성게가 이제 다 냉장고로 들어가. 냉장고로 들어가면 이제 내일 아침 네시부터 이제 그 성게를 까기 시작해. 그러니까 매일 성게 까는 거지 오늘 들어온 거 냉장고에 들어가고 내일 이제 돌림빵 하면서 그 사장님네

79) 피성게는 껍질을 까지 않은 온전한 성게를 말한다.

성게 깬 거만 한 오 톤, 한 철에 성게만 이거 까는 거 하루에 막 백 키로 이상씩까 한 십 명씩 여덟 명씩 한 사람이 예를 들어 십오 키로씩만 알을 깬데도 하루 백 키로가 넘는데.

-강미화 구술

강원도 성게는 작업 하지 않았던 곳에는 돌 위에도 시꺼멓게 많이 깔려 있었다. ‘쪽’이라고 하는 작은 사들(뜰채) 형태의 그물망으로 주워 담아 테왁망사리에 넣는다.

성게는 하루에 150kg 정도 잡는다. 테왁망사리 하나 가득 찰 때도 있고 적게 할 때도 있다. 해녀들도 오후에는 성게 까는 일을 하기도 한다. 냉장고에 성게가 가득 차면 다음날 잡아 와도 보관할 곳이 없어서 성게를 빨리 까야 하기 때문이다. 알성게는 그날 그날 회사에서 가져가 전국 각지로 유통이 된다.

돌 위에 그냥 둥그렇게 앉아. 이런 망 같은 쪽을 만들주게 손잡이 이런 이렇게 둥그랑 해가지고 여기에 제주도는 조락 있잖아요. 그런 조락 말고 여기 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손잡이 달려 그럼 이거 이렇게 가가지고 성게를 막 그냥 주워 담아. 족바지 작은 모양. 성게 그냥 뭐 보통 하루에 백오십 키로 잡는다 하면 되주게. 꾸준히 망사리 많이 할 때도 있고 적게 할 때도 있고 망사리가 하나하나 채우면 끝 우리도 시간상으로 해주게. 아침 일곱 시에 들어가면 열두 시 되면 나와. 그 이후에 우리도 알바 허주게 알바. 성게 까는 거. 안 까려고 해도 깔 수밖에 없어. 성게를 그 성게 냉장고가 차버리면 우리가 다음 날 작업을 못 가 그걸 다 까야 되니까 우리도 알바난 돈 버는 거지. 그럼 작업 갔다 와 이제 점심 먹고 이제 그런 시간도 잘 가지. 요즘엔 어디로 회사에서 다 가져가. 개인 회사에서 그



사진 188 피성게 잡는 ‘쪽’(사들)

날그날 막 가져가. 경기도 어디 그 회사로 막 일 톤씩 실러 가는데 작년에부터는 그날 저녁 딱 여섯 시 되면 무조건 가져가. 가져다가 이제 거기서가 냉동하는지는 몰라도 작년에부터는 아무튼 그날그날 가져가.

- 강미화 구술

올해는 피성계 1kg에 3,500원을 받았다. 성계가는 작업은 1시간에 1만 원을 받는다. 사람마다 성계 까는 속도와 양이 다르다. 공장에서 성계를 깔 때는 대량으로 성계를 꺼내놓기 때문에 칼로 반으로 갈라 대야에 놓은 다음 불순물을 걸러낸다. 아무래도 해녀들이 까는 성계가 성계알도 부서지지 않고, 불순물도 잘 걸러낸다. 사람에게 따라 깔끔하게 걸러내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해 한해 성계도 수확량이 줄어드는 것 같다. 많이 잡아서 몇 년 안에는 다 없어질 것 같다고 말한다.

성계는 키로에 삼천오백 원. 올해는 삼천오백 원 받았고, 성계 까는 알바는 일 키로에 만 원. 성계 까는 아이들은 십오 키로 까는 사람, 십삼 키로 까는 사람 엄청 차이 나 시간상. 엄청 차이 나는 건디. 빨리 까는 사람 성계는 나는 안 사 먹어. 막 성계알도 막 부서버리고 이거 일 때도 막 까시. 그냥 빨리 하려고. 우리 깐 거는 기술자난 성계 알이 살아 있게 해. 성계 재는 우리도 그 사무장 아이가 잇인디. 우리 해온 거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깐 거는 다 죽 만들어. 그거는 사장이 엄청 손해 봐. 엄청 차이나. 우리도 그전에 다닐 때 그냥 막 하루에 막 성계 막 이백오십 키로 기본 피성계 시커멍만 한데. 요즘은 하도 그걸 피성기로 잡아버리니까 없어. 미역은 잇인디, 몇 년 잇이면 끝 날 거 다햐아.

- 강미화 구술

강미화 해녀는 지역마다 성계알 가격이 다른 이유는 물 빼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한다. 물을 바짝 빼고 성계알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성계알 가격이 비싼 것이다.

물 빼는 거에 따라. 물이 많이 빼면은 비싸고 물이 덜 빼면은 바짝 우리 동네는 그냥 그 구멍난 체 있잖아 체에다가 섬겨 놓고 딱 들고 물이 한방울도 안 나오게 해. 동쪽에는 그 경 안 해. 나가 육지 다니면 영 다 지역 아이들 만나면 니네 동네는 얼마 니네 동네는 얼마 물어보주게. 강원도 우리 히는디 성계도 마찬가지로 달라. 우리 그 성계 거기도 그쪽에 다 성계랑 나란히 놔 처음부터 이제 물 빼지는 거야 전혀 물 한방울도 안 나와요. 마라도 거는 우리(사계)보다도 더 비싸.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물 빼는데 집에 강도 소쿠리에 놔잇넌.

- 강미화 구술

사계 바다어장은 다른 마을에 비해 해조류나 소라 등 해산물이 풍부한 편이다. 다른 마을은 해가 갈수록 점점 잡을 물건이 없다고 하는데, 사계마을은 다르다. 행정의 지원을 받는 다양한 어촌계 사업을 통해 해녀들이 채취하는 미역, 소라, 전복 등 해산물이 풍부한 편이다.

사계어촌계의 어장관리 사업은 바다숲 조성, 바다어장 청소, 시비재 살포, 수산종자 방류, 자율관리 어업, 뉴딜사업 등이 있다.

마을어업 어장관리 규약은 어업질서 확립과 어업인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산업법 제37조 및 수산업법시행규칙 제33조⁸⁰⁾에 따라 각 마을 어촌계에서 제정하고 있다. 사계어촌계는 2024년 사계어촌계가 취득한 서귀포시 제28호, 제29호 마을어업권의 관리 및 행사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마을어업 어장관리 규약이 제정되었다. 사계어촌계의 어장관리 규약에는 마을어장 운용 원칙, 어업권 행사 자격, 어업권 행사 방법, 행사자의 수 및 행사 기간, 행사의 우선 순위, 입어자의 자격, 사용 어구의 종류, 행사계약의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다.

80) 수산업법시행규칙 제33조 1항은 수산업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 어업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다. 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query=%EC%88%98%EC%82%B0%EC%97%85%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dt=20201211#undefined>(검색일 2025.11.9))

6-1. 바다숲 조성

바다숲은 해조류와 해초류로 구성된 군락지로 해양생물의 서식처이자 산란지이며 탄소 흡수, 오염물질 정화 등의 효과로 사람에게도 유익한 바닷속 생태계이다. 바다숲 조성 사업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바다 사막화(갯녹음)로 훼손된 바다 생태계에 바다숲 조성을 통한 생태계 복원 및 탄소흡수원(블루카본)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⁸¹⁾

바다숲 조성 시 암반 등에 부착하여 자라는 해조류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다. 먼저, 해조류의 뿌리가 달라붙어 살아갈 수 있도록 부착기질⁸²⁾이 될 자연석을 시설하거나 조성 지역의 자연 암반을 활용한다. 또한, 조간대·조하대 대상으로 부착기질을 개선하는 갯닦이도 실시하고 있다. 바다숲 조성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해조류를 먹는 생물(조식동물) 구제 및 해양폐기물 수거를 실시하여 바다숲 기능 유지에 노력하였다. 특히 제주 바다숲 조성 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고수온 시기에도 생존력이 높은 청각 등을 대상으로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다.

사계어촌계에서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바다숲 조성 사업으로 올해(2025년)부터 4년간 투석 사업, 해조류(감태, 청각, 모자반) 이식 사업, 수중 갯닦이 사업, 육상 갯닦이 사업 등을 실시하여 바다숲을 조성하고 있다.

6-1-1. 투석 사업

올해 상반기에는 ‘절잔개’, 용머리에 1톤 정도 산의 돌을 바지선으로 옮겨 집어넣었다. 투석을 하는 이유는 해녀들이 물질하는 바닷속 여에 모래가 점점 쌓여 해조류가 자라지 못하기 때문이다. 화순항으로 물조류가 바뀌고 화순의 모래는 유실되는 반면, 사계 바다에는 모래가 많이 쌓여가는 상황이다.

투석은 절잔개하고 용머리 앞에. 상반기가 절잔개 하반기는 용머리 앞에. 보통 한 한 일 톤짜리 돌을 바지선 헤가지고 바지선에 싣고 와서 포크레인으로 들이치는 거. 돌을 투석하는 거는 지금 모래로 막 쌓여부럼서예. 모래 때문에 여들이 지금 쌓여볼고 있는 현상이라 거의 한해 한해 자꾸 해녀들이 얘기하는데 이걸 조사 자꾸 해보라고

81) 한국수산자원공단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https://www.fira.or.kr/fira_010201_2.jsp?mode=view&article_no=34596&board_wrapper=%2Ffira%2Ffira_010201_2.jsp&pager.offset=50&board_no=7(검색일 2025. 11. 7))

82) 부착기질은 해조류와 같은 고정성 또는 반고정성 수생 생물이 붙어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바닥이나 물체를 말한다.

해. 여들이 자꾸 쌓인다고. 왜냐하면 물조류 때문에. 모래로 헤가지고 막 쌓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화순항이나 가면서, 화순 축항이 나가면서 또 물조류 틀리지 않습니까. 조류가 나가버리면은 그쪽 모래가 아마 이쪽으로 다 오는 것 같아. 화순은 모래가 없어서 난린데. 해수욕장 하려고 모래 투입하면서 해수욕장을 하는 판국인데 우리는 또 이쪽으로 또 모래가 좀 많이 오지.

-김기범 구술

1톤 정도 크기의 큰 돌을 어장에 투석한 다음 스쿠버가 들어가서 돌을 닦아 청소하고 돌에 구멍을 내어(천공) 청각, 모자반, 감태 등의 해조류 작은 것들을 구멍에 심어 끈을 묶어 고정시킨다. 이러한 과정이 바다숲 조성 사업 안에 포함된다.

일단 투석한 다음에 스쿠버가 들어가 가지고 싱거. 모자반하고. 감태하고. 돌에 구멍을 내가지고 이걸 만들어 싱그게끔. 육지서 탐차 헤가지고 (청각) 요만씩 자란 것들 싣고 와. 배로 헤가지고 스쿠버 들어가가지고 연결을 다 해. 천공이엔 하지. 천공 구멍 뚫은 거 천공 그 밑에 고정 시키는 거지. 청각 요만한 게 자란 거를 고정 시켜. 수산자원공단 우리 바다숲 조성안에 그 사업이 들어 이수다. 투석 사업도 들어 있고 감태 그런 거 이식 사업도 들어 있고 갯닦이, 수중 갯닦이 사업도 들어 있고 또 육상 갯닦이 사업도 들어 있고 사 년 앞으로 사 년. 결과물 나와.

-김기범 구술

6-1-2. 해조류 이식

바다에 해조류 이식 사업은 해조류는 모래나 진흙에 심으면 파도에 떠내려갈 수 있어 바위에 잘 붙어있도록 돕거나 인공적으로 구조물을 만들어서 바다에 가라앉혀야 한다. 어린 해조류가 잘 자라도록 밧줄을 연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조류를 가꾼다.

사계에서는 올해 5월에 ‘절잔개’ 어장(사계리해안체육공원 부근)에 청각을 심었는데 청각이 잘 자라서 9월에 해녀들이 청각을 채취했다. 9월에 캐지 않으면 질겨지고 나중에 삭아서 녹아버린다. 포자는 퍼질 만큼 퍼졌으니 내년 3월경에 다시 날 것이라고 한다.

이번에도 청각도 싱거지. 청각은 또 캐 먹었지만은. 오월에 심었어. 구월에 다 자라니까. 기간 지나면 다 삭아볼지. 청각도 삭아. 녹아붙어. 어차피 또 포자는 퍼질만이 다 퍼졌으니까 내년에 또 날 수 있게끔 다 돼 있으니까 먹

어보라 하는 거지. 저기 저쪽에 우리 체육공원 쪽에 절장기. 투석만 하면은 빨리 안 자라잖아. 이물질이 붙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리 심어버리는 거지 거기에. 잘 자라 청각도 이번에 해 먹었우게. 천공해가지고 투석에 천공해가지고 청각 요만께 자란 거를 고정 시켜가지고 십 명 들어갔우다. 해먹을 사람만. 청각도 종류가 있어. 참청각하고 육지청각하고 틀린 것 같애. 육지 청각 탐차에 해가지고 요만씩 자란 거를 해가지고 심었는데 한 요만씩 자라 더라고. 그래가지고 캐 먹은 거지. 이번에 또 모자 반 참 모자반이니까 먹은 몸. 그거 싱글 꺼. 시월에 그럼 몇 군데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지금 싱거야 될 거예. 상반기 투석한 데 하고 하반기 한데하고 수중갯닻이 한데. 모자반, 감태 이식해알 꺼. 감태는 소라 먹이니까.



사진 189 해조류 이식을 위해 잠수부들이 준비하는 모습

-김기범 구술

6-1-3. 수중 갯닻이

수중 갯닻이는 스쿠버가 돌을 청소하는 것으로 에어(공기)를 쏘는 기계로 청소를 한다.

요 앞에 또 수중 갯닻이 한 데도 천공해가지고 이번. 올 내냥(올해 나서) 바당에 살았우다게. 그냥 스쿠버 들어가 가지고 바위를 청소 싹 해. 왜냐하면은 투석을 안 하는 대신 청소를 해. 그냥 깨끗하게. 에어로 쏘는 게 있어요. 에어로 쏘는 거. 잡아가지고 물아래서 쏘는 게 있어. 거기도 천공 들어갈 꺼. 항 너머. 마을어장 안에.

-김기범 구술

6-1-4. 육상 갯닻이

물때가 다섯무날에서 열무날까지 물이 빠지면 8-9일 정도 갯닻이를 한다. 갯닻이 도구로 지층이나 따개비 등 바위에 붙어있는 것들을 두드려 깨는 작업이다. 해녀회장 주도로 장소를 정하고 해녀들이 참여하는데,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안전상 어촌계장이 통제를 한다. 만약 공동으로 작업하는 갯닻이에 참여하지 않으면 해녀회 자체적으로 불이익이 주어진다. 갯닻이 불참한 해녀는 사계해녀의집 담당 순번에서 빼 장사를 못하는 게 하는 벌칙을 주고 있다.



사진 190 사계리 남대기 갯닻이 현장

갯닻이 도구는 사계 해녀들이 원하는 것으로 주문 제작하거나 모슬포의 철물점에서 구입한다.

여기 한 팔 일에서 구 일해야돼. 그러니까 여기 쪽에 한 사 일하고 동쪽에 한 사 일하고. 그때는 물때가 아니 물이 빠져야 되니까 물줄기가 세. 그러니까 딱 여기는 세물까지만 딱 물질을 해 조금하고 딱 세물까지만 물질하고 그 다음 갯닻이는 다섯 물부터 열 물까지 물이 좀 빠져야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 두 시간 하루에 두 시간 어촌계에서 통제도 해야 되고 비 오고 하면 미끄러우니까 통제시켜 버리고 '오늘은 안 됩니다.' 해가지고 안전이 우선이니까 비 올 때는 통제시켜 버리고. 해녀회에서 결정을 해. 왜냐면 옛날에는 우리 용머리 장사를 하루 빠지게끔 만들어 용머리 장사가 좀 잘될 때 돈이 되거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나와. 하루 빠지게끔 만들어 버리니까 해녀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규칙이 좀 있지.

-김기범 구술

6-2. 어장 청소

6-2-1. 형제섬 청소

형제섬 청소는 사계리 청년회 사업으로 1년에 4번 정도 실시한다.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기상을 보고 날을 정한다. 올해는 8월, 9월, 10월, 11월에 진행했다. 형제섬 가까이엔 큰 배는 접안을 할 수 없어 작은 배

로 갈아타서 섬 안에 들어간다. 청소한 쓰레기를 마대에 담아 역시 작은 배에 실었다가 큰 배로 옮겨 싣고 나온다. 8월에는 청년회, 부녀회, 어촌계원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한번 청소하면 마대 30~40개 정도의 쓰레기를 수거한다.

대부분의 쓰레기들이 바다에서 떠다니다가 조류에 따라 섬 근처 해안에 걸쳐진다. 보통 폐기물, 스티로폼, 생활 쓰레기로, 육지에서 떠밀려온 쓰레기도 있고 중국, 일본 등에서 밀려온 패트병, 로프, 어구 등이 많았다.

바람의 방향과 조류에 따라 쓰레기가 올라오는 것도 다르다. 겨울에는 북서풍이 불어 쓰레기가 올라오는 것이 적는데, 봄, 여름에는 마파람이 불면 쓰레기들이 섬 안쪽으로 들어간다.

바람 방향 조류 따라 가지고 달라. 겨울에는 이 북서풍이 거의 부니까 쓰레기가 막 올라올 일이 거의 없는데. 봄 여름쯤에는 이 마파람이 불어오면은 밖에 쓰레기들이 안으로 들어와 버려. 남풍 불면은 남풍 불면은 올라오는 거지.

-김기범 구술

형제섬 정화활동은 플로깅하는 단체, 환경단체의 자원봉사팀도 함께한다. 8월에는 사계리마을회, 부녀회, 청년회가 함께 참여했고, 9월에는 화순의 화력발전소 직원들과 어촌계, 청년회가 참여했으며, 10월에는 '플레이 사계' 상인회에서 신청한 사람들이 참여했다. 형제섬은 접안시설이 없어 배를 대어 오르고 내리는 것이 힘들다. 평평한 땅이 아니라 돌밭, 자갈, 풀들이 우거져 섬에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장 정화 활동에 참여하여 깨끗한 섬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어촌계 문의가 와. 오면은 언제쯤 할 거니까 같이 좀 동참 좀 하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요 라인은 또 환경단체에서 그냥 자꾸 해. 하고 바다지킴이도 자꾸 하고 하니까 좀 깨끗해. 옛날보다는. 형제섬은 (쓰레기를) 끌고 나와야 되니까 그게 배편도, 배편도 필요하고.

-김기범 구술

6-2-2. 용머리 해안가 청소

사계 해안은 바다지킴이들이 배치되어 해안가가 비교적 깨끗한 편이다. 사계어촌계는 자율관리어업 어촌계로 자체적으로 해녀들이 직접 1년에 4번 정도 어장정소를 실시한다. 해녀회에서 날짜를 정하고 실시하는데 참석을 하지 않는 해녀들에게는 벌칙(벌금)이 있다.

용머리 부근에 쓰레기가 많다 하면 오늘은 그쪽에 하고, 다음에는 다른 쪽에 청소하는데 새벽에 시작해서 일찍 끝낸다. 고무옷을 입지 않고 해안에 떠밀려온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것이다.

이게 점수가 있어 자율 관리에서 점수가 있어가지고 해마다. 그것도 참석을 안 하면은 이 해녀회의에서 자체적 벌칙이 있어. 봐가지고 용머리 쪽에 좀 쓰레기가 많다 하면 오늘은 그쪽에 하고 다음에는 쪽에 이쪽에 쓰레기가 많다 하면 또 그때그때 정해.

-김기범 구술



사진 191 형제섬 들어가는 배



사진 192 형제섬 정화 활동



사진 193 형제섬 정화 활동



사진 194 형제섬 쓰레기를 배로 옮기는 현장

6-3. 시비재 살포 사업

시비재는 해조류의 생육 증대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해 뿌리는 바다 비료다. 갯녹음 현상 등으로 인해 제주 연안의 해조류가 감소하고 있어 제주도는 지속 가능한 마을어업 육성을 위해 시비재를 지원하고 있다.⁸³⁾ 해조류들이 빨리 자랄 수 있도록 비료를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⁸⁴⁾ 블록형과 마대형이 있는데, 마대형은 비료 성분이 빨리 없어지는 반면 블록은 3개월 사이에 천천히 나와서 블록형을 선호한다고 한다.

올해 9월에 ‘납데기’ 부근 해안에 블록 133개를 심어놓았다. 블록은 나중에는 인공 어초가 되기도 한다. 수중촬영으로 모니터링을 해 보니, 작년에 블록을 놓은 부분과 안 놓은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났다. 미역 등 해조류 성장이 빨랐다. 블록 하나당 50kg 정도로 스쿠버다이버가 들어가서 바닥에 짚 깔아 놓는다.

시비재는 해조류 빨리 클 수 있는 거 비료 주는 거. 농사도게 약 치고 하면은 비료 주고 하면 빨리 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푸대는 빨리 없어져 버리니까. 이게 한 삼 개월 사이에 천천히 나온다더라고 블록형. 전에는 마대 했는데



사진 195 시비재 살포를 위해 준비 작업(어촌계 제공)

사진 196 시비재 살포를 위해 준비 작업(어촌계 제공)

83)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도서출판 각, 2024, 140쪽.

84) 시비재의 원료는 황산철과 규조도를 콘트리트기질에 혼합하여 조제한 입상 제2철재로서 철의 기능을 이용하여 육상에서 비료를 시비하는 원리로, 수중에 시비하여 서서히 철성분이 용출되어 해조의 생육과 영양염 공급에 효과를 주는 바다 비료다. 주로 수심이 비교적 낮고(5~10m) 조류 이동이 비교적 적은 연안 해역, 시설지 주변 포자 방출이 가능하며 모조가 소량이라도 있는 갯녹음 발생 해역, 영양염류가 부족한 빈영양 해역, 주위에 파도에 의한 유실이 적은 만형으로 형성된 해역이 시비재를 살포하는 적지이다.

이제는 블록 많이 해. 하고 또 나중에 블록이 또 우리 인공 어초도 되고 하나까. 모니터링을 보니까, 수중 촬영한 걸 보니까 옆에 하고 그 시비재는 놓은 데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성장이 빨라. 미역도 차이가 나더라고. 거기서 납데기 옆엔데 거기서 조사해 와. 뿌려주는 업체에서. 그 지역에 조금 이동은 할 수 있어. 해녀들 의논하고 그 옆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놓구다 하면은 거기서 놓아줘. 스쿠버가 들어가 가지고 또 첫째 줄 다 깔아줘. 일단 던져놓고 스쿠버가 들어가가지고 오 명이 들어가가지고 정리를 해 물에 들어가.

-김기범 구술

6-4. 수산 종자 방류

6-4-1. 마을어장 경영평가 우수어촌계 지원

마을어장 경영평가는 마을어장의 체계적 이용 관리, 마을어장 입어자인 해녀보호 육성을 위해 어촌계가 ‘경영개념’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어촌계 자율적 노력을 유도하고, 살기 좋은 어촌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다.

평가 항목은 해안가 청소, 해적생물 구제, 자체 금어기 설정 및 이행, 조업시간 단축의 자원 회복 노력도와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 안전사고 예방 노력, 고령해녀 배려 노력 등 해녀 보호 육성 노력, 어장개방 실적 등이다. 여기에 자율관리어업과 조업 중 해녀 사망 사고, 갯닭이 등으로 어촌계 가점으로 평가하여 제주도에선 정한다.

사계어촌계는 2023년 마을어업 경영평가 우수어촌계로 선정되어 홍해삼 3만 미를 뿌렸고, 작년에도 방류사업으로 홍해삼을 뿌렸다. 해삼은 2~3년 있어야 잡히는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6-4-2. 돌돔 치어 방류

돌돔은 어민들을 위한 치어 방류로 9월에 2만 미를 방류했다.



사진 197 돌돔 방류 작업



사진 198 방류된 돌돔

6-5. 자율관리 공동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는 어업인들이 스스로 어업 자원을 관리하고, 환경 보호 및 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는 공동체 활동이다. 자율관리어업은 정부주도의 자원관리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업인과 함께 상호협력적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2000년대부터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어장환경개선, 폐어구 수거, 어장 청소 등 어장관리, 금어기 및 금어구 설정, 치어 포획 금지, 어구 수 축소 등의 자원관리, 공동생산 판매, 특산물 브랜드화, 어장 관광 자원화 등의 경영개선, 불법어업 감시, 자체규약 준수, 분쟁해결 등 질서 유지 등이다.

사계어촌계는 어촌계원과 지역주민이 참여해 해안변 쓰레기를 수거하고, 홍해삼·전복·해삼 등 해산물 방류, 치어·종패 살포 등 자원 회복에 힘쓰고, 어촌체험 및 소득사업으로 해녀 체험, 바닷잡이 체험어장 개방, 수산물 직매장 건립 등으로 해양관광과 1차산업을 연계해 어업인 소득을 높이고 있다. 육성사업비 지원을 위한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등급을 결정하는데, 사계어촌계는 자립공동체(2등급)이다.

6-6. 뉴딜사업

이곳 사계항 앞에는 예전에는 마라도 잠수함을 운항했던 건물이 있다. 이 건물이 위치한 공유수면을 활용 2024년부터는 '서귀포시 사계항 어촌 뉴딜 300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이다. 어촌 뉴딜 300 사업은 '가기 쉬운 어촌, 찾고 싶은 어촌, 활력 넘치는 어촌'이라는 방향 아래 국내에 낙후된 어촌과 어항 300곳을 현대화해 해양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어촌의 경쟁력을 새롭게 키우는 사업으로 정주 여건이 악화 되고, 어촌 노령화와 낙후된 시설을 기반 시설을 현대화해서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을 목적으로 사계항에 어구 보관창고와 교류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어촌계장은 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해녀탈의장을 이곳으로 옮기고자 노력 중이다. 그리고 이곳 사계리는 어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고자 이미 해녀체험과 바닷잡이, 해녀 테왁만들기, 테왁 무드등 만들기 등의 관광객 수용 태세를 확장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가 체험 마을로 선정이 되가지고, 지금 그 행사를 해요. 하루짜리하고 테왁 작은 거 만들기도 하고, 피자 체험도 하고 있어요. 해녀하고 같이 동승해가지고, 똑같이 고무옷 입고, 물질 체험하는 것도, 일 인당 삼만 원에서 오만 원씩 받고.

-김기범 구술

하지만 지난 코로나로 인해 제주의 거의 모든 관광산업이 침체에 빠졌던 것처럼 사계리 어촌 체험 프로그램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사무장이 코로나 시기에 들어와서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다시 운영하고 싶어 하는 어촌계 사무장의 꿈이 이루어 지기를 기대해 본다.

사계리가 어촌 체험 휴양마을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해녀 체험, 바닷잡이, 낚시 체험 그리고 제가 이제 일 중에는 워케이션⁸⁵⁾도 넣는데. 워케이션만을 위해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열악한 면이 있습니다. 해녀 삼촌

85)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휴가지에서 업무와 휴식을 동시에 즐기는 근무 형태를 의미한다. 즉, 일터가 아닌 휴양지 등 원하는 곳에서 원격으로 근무하면서 휴가를 즐기는 것을 일컫는다.

들도 오월 달까지만 물질이 되고 유월부터 구월까지는 금채기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에는 주된 소득이 없으니까.

- 이안숙 구슬

어촌 뉴딜뿐 아니라 어촌 체험 프로그램도 해녀와 어촌의 자원을 가지고 금채기, 어업이 쉬거나 해녀의 작업이 없는 기간에도 일정한 수입이 생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체험 프로그램은 관광객의 방문이 잦은 사계리의 특성상 아주 적합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IV

사계리 일과 생활

1. 농업
2. 수산업
3. 공동체 활동

사계리의 북동쪽으로는 ‘산방산’과 ‘용머리’, 북서쪽으로 ‘단산’, 남서쪽으로 ‘송악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남쪽의 ‘형제섬’을 바라보고 있는 농어촌 지역이다. 사계 지역의 경작지는 토심이 깊고 배수가 양호하여 밭 농사 지역으로 우수한 토양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바닷바람에 의한 해수의 영향으로 토양 환경이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과거 사계리는 가운데 논과 밭을 놓고 동그랗게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1960년대 사계리 주작물은 봄에는 보리, 유채이고 가을에는 고구마였다. 봄이 되면 사계리는 노랗게 물들었다고 한다.

이렇게 가운데는 논이고 경작지 다 논이고 하여간 마을이 이렇게 됐다고 요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하면은 논, 밭 이렇게만 됐어. 계민 옛날은 여기가 다 유채를 심었어. 계민 사계가 노래여. 옛날에는 육십 년대 이쪽에는 보리, 유채 가을에는 고구마 이렇게 사계 주요 작물이 육십년대 주작물이 보리, 유채, 고구마 그래서 이것을 우린 고구마를 ‘감저’, ‘감저’ 하는데 이것을 보호해서 아까처럼 해변에 나무를 다 심은 거라. 사계사람들이 방풍, 해수 방지.

-이경옥 구술

소낭들 잇수게 해안도로양. 쪽 잇어, 베늘이렌 허주게. 지역 이름이 베늘. 옛날엔 우리 사계가 주작물이 고구마. 감저는 고구마고 지슬은 감자라. 경 해군에 사계가 주작물이 보리, 유채, 고구마, 감저 주게. 잘 안 땀주기. 해수로. 그래서 방풍림이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른들이 심은 거지. 사계가 큰 나무가 없어. 이제사 심은 큰 낭들



사진 199 사계리 해안도로에 소나무 군락지 ‘베늘’

이지. 바람과 해수 그래서 사계가 과수가 안 된다는 거야.

(소나무들 있잖아요. 해안도로에. 쪽 잇어. ‘베늘’이라고 하지. 지역 이름이 ‘베늘’. 옛날에는 우리 사계가 주작물이 고구마. ‘감저’는 고구마고, ‘지슬’은 감자라. 그렇게 해서 사계가 주작물이 보리, 유채, 고구마, ‘감저’지. 잘 안땀지. 해수로. 그래서 방풍림이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른들이 심은 거지. 사계가 큰 나무가 없어. 이제야 심은 큰 나무들이지. 바람과 해수 그래서 사계가 과수가 안 된다는 거야.)

-이경옥 구술

사계리의 토지 대부분은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바람과 해수의 영향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컸으나 소나무를 심고 난 후부터는 과수 작물 재배도 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밭에서 마늘이 주로 재배되고 있는 것을 보아 마늘 재배면적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무, 양배추, 보리, 조, 쪽파, 브로콜리, 단호박, 애플망고 등도 재배되고 있다.

1-1. 고구마

고구마는 추위를 견디지 못하는 탓에 따뜻한 남쪽 섬인 제주를 중심으로 재배가 잘 되었다. 제주 사람들은 고구마를 심어 월동 준비했을 정도로 제주의 지역을 가리지 않고 여러 곳에서 고구마를 재배했고 전통적인 구황작물로 여겨졌다.

사계리는 토질이 좋아 생산되는 고구마의 맛도 우수하여 일찍부터 고구마를 가공하는 전분 가공업이 발달하였고 마을에는 전분 공장이 지어졌었다. 또한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물탱크 외에 용천수가 풍부하여 고구마 가공에 필요한 물의 양을 확보할 수 있었다. 특히 사계리는 고구마가 주요 작물로 재배되어 일제 강점기 때부터 주정과 전분 원료로 권장되기도 하고 농가의 주 식량원이 되기도 하였다. 고구마에는 전분이 많기에 공출되고 남은 절간고구마를 넣어 밥을 하거나 죽으로 먹었다. 고구마를 잘게 썰어 몇 달 동안 말렸다가 끓여 먹는 ‘빼떼기죽’은 지금이야 별미로 먹지만 절간고구마는 과거 힘든 겨울을 나기 위한 저장식품이자 가족의 주식이었다.

옛날에나 많이 해놨주. 놀감저로. 공장에 강 풀민 얼마 안 돼어. 여기 감저공장 크게 해놨져게. 절간 하민 돈 댜는 디어. 밤에 거 하젠 하민 덩고.

(옛날에는 많이 했었지. 생고구마로. 공장에 가서 팔면 얼마 안 되었어. 여기 고구마공장 크게 했었지. 절간(切干) 하면 돈이 되는데. 밤에 그거 하려고 하면 덩고.)

- 허월자 구술

빼떼기. 아 솔직히 우리가 뭐 옛날에 큰돈 벌이지게. 그래서 이 밤이 오면은 밧디 막 썰어 널었다가. 빗방울 약간 헤 가민 그 한 밤이 차가 있나 뭐가 있나 드르라. 드르라. 우리 어릴 때 봐라 이제 어머은 그냥 밧디 손심어 막 강 뿔로 모아방 비 안 맞게 더깁.

(절간고구마. 아 솔직히 우리가 뭐 옛날에 큰돈 벌이었지. 그래서 이 밤이 오면 밧에 막 썰어서 널었다가. 빗방울 약간 내리기 시작하면 그 한밤중에 차가 있나 뭐가 있나. 달려라. 달려라. 우리 어릴 때 봐라 이제 엄마는 그냥 밧에 손잡고 막 가서 뿔로 모아 놓고서 비 안 맞게 더고.)

- 신용하 구술

감저는 조금씩 갈아났는데. 넌중에 그 박정희 때 완에 절간 허렌 헨에 감저덜 많이 심곡 절간 했주. 그 나머진 먹



사진 200 옛 고구마 저장고(현 커피숍)



사진 201 옛 고구마 저장고 입구 모습

을 거나 허곰 허곡.

(고구마는 조금씩 농사지었는데. 나중에 그 박정희 때 되어서는 절간고구마 하라고 해서 고구마를 많이 심고 절간 했지. 그 나머지는 먹을 거나 조금 하고.)

- 이용택 구술

현재 고구마 농사를 짓는 농가는 예전보다 많이 줄었으나 마을에는 아직도 고구마 저장고가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으며 사계리 주민들은 그 곳을 ‘감저 창고’라고 부른다. 예전 ‘감저 창고’의 본연 그대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마을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는 서핑 체험과 커피를 판매하는 가게로 탈바꿈하여 운영 중이다. 그 옛날 먹을 것이 없었던 배고픈 시절에 없어서는 안 될 작물이었던 고구마는 현재 살아온 지난날의 기억으로 사계리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오월 장마에 심어야 살지게. 여름엔 죽어볼주. 팔월, 구월 뉘민 수확하지. 이젠 고구마 잘 안 심어. 쪼끔 먹을 거나 허곰 심주. 아이고 감저 옛날엔 하영 해놨주. 그것이 돈이. 절간 행은에 몰리왕. 풀아야 아이덜 학교라도 시키곡. 절간행 빼떼기로 허면은 농협에서 수매해. 그걸로 돈이 아이덜 학교에 납부금 내곡 했주. 놀감저는 공장에 강 풀민 돈이 얼마 안 돼어. 붕에못 앞에 그디 감저 공장 크게 해놨져게. 그디 강 풀아난디. 그것이 돈 안 돼어. 절간 허민 돈 댜는디. 절간행 밤이 비암젠 허민 돌곡. 전분 공장은 놀감저를 가져가곡. 농협더레는 감저 빼떼기를 가져가곡. 옛날 우리 어머니네 고생했잖아.

(오월 장마에 심어야 살아. 여름에는 죽어버려. 팔월, 구월이 되면 수확하지. 이제는 고구마 잘 안 심어. 조

금 먹을 거나 조금 심지. 아이고 고구마 옛날에는 많이 했었지. 그것이 돈이. 절간고구마 해서 팔려서. 팔아야 아이들 학교라도 시키고. 절간해서 절간고구마로 하면 농협에서 구매해. 그것으로 돈이 아이들 학교에 납부금 내고 했지. 생감자는 공장에 가서 팔면 돈이 얼마 안 되어. '봉에뭇' 앞에 거기 고구마 공장 크게 했었지. 거기 가서 팔아 냈는데. 그것이 돈이 안 되어. 절간 하면 돈이 되는데. 절간 해서 밤에 비온다고 하면 뛰고. 전분 공장은 생감자를 가져가고, 농협에는 절간고구마를 가져가고. 옛날 우리 어머니네 고생했잖아.)

-이용택 구술

고구마 옛날에나 많이 해놨주. 옛날에는 돈이 댜난 썰엇 빼떼기 해서 팔앙 했인디. 이제는 엇우다. 이제는 해도 소량으로 자기네 먹을 거만.

(고구마 옛날에나 많이 했었지. 옛날에는 돈이 되니깐 썰어서 절간고구마 해서 팔았는데. 이제는 없어요. 이제는 해도 소량으로 자기네 먹을 것만.)

-임성자 구술

1-2. 마늘

마늘은 추운 겨울을 나는 대표적인 월동작물로 우리나라에서는 중부와 남부 지역에서 널리 재배되고 있다. 마늘은 생태형에 따라 한지형 마늘과 난지형 마늘로 구분하며, 제주에서 재배되는 품종들은 주로 난지형 마늘이다. 제주에서 생산되는 마늘은 우리나라 총생산량(연간 약 30만 톤)의 약 33.4%에 해당되며, 제주 전역에 걸쳐 재배되지만 주로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재배되고 있다.⁸⁶⁾ 사계리 농업의 주요 작물인 마늘 재배는 보통 8-9월 심어서 다음해 5-6월에 수확을 한다. 생육 기간이 270일 정도이다. 마늘은 토심이 깊고 배수가 양호하며 부식질이 많은 양토나 사양토에서 생육이 양호하다.⁸⁷⁾ 5-6월경에 마늘을 수확하고 나면 다시 파종이 이루어지는 8월까지의 마늘을 건조하고 선별하며 마늘을 까는 일, 비닐을 밭에 깔고 마늘밭의 토양을 소독하는 작업 등이 쉴 새 없이 이어진다. 겨울에도 생장이 가능한 제주 마늘은 맨땅에 씨마늘을 파종하고

86) 오서영·고석찬, 「제주지역의 화산회토양과 비화산회토양에서 재배된 난지형 마늘의 생장과 무기성분 함량」, 『원예과학기술지 제 38권 제1회』, 한국원예학회, 2020, 57쪽.

87) 오서영·고석찬, 「제주지역의 화산회토양과 비화산회토양에서 재배된 난지형 마늘의 생장과 무기성분 함량」, 『원예과학기술지 제 38권 제1회』, 한국원예학회, 2020, 63쪽.



사진 202 마늘 멀칭



사진 203 마늘 재배 우수 모델



사진 204 마늘 심기



사진 205 마늘 수확

한두 달 후 싹이 올라오면 이랑에 비닐을 덮고 비닐의 구멍에 싹 하나하나를 빼내는 작업을 한다. 농작물 재배에서의 토양 관리 방법의 하나이자 농작물 뿌리의 보호, 지온(地溫)의 확보, 토양 수분의 증발 방지, 토양 비료의 유실 방지, 잡초 방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멀칭을 이용하여 품질이 좋은 마늘을 수확하고 있다.

팔월 말경에 심고. 일 년에 한 번. 겨울에 돌아와서 매는 거지.

-이용택 구술

마늘은 사월에 수확해영. 여름 장마 지남 종자 부상 만들어 낫당은에 구월 텡은에 심는 거지.

(마늘은 사월에 수확해서, 여름 장마 지나서 종자를 부숴 만들어 두었다가 구월 되서 심는 거지.)

-임성자 구술

이거 팔월에 심경. 유월에 케고. 일 년에 한 번. 마늘 심경. 비료 주곡. 검질 메국. 비니루 더깁은에 멀칭허영. 문딱 비니루 톨랑 그추록 허민은 크면은 마늘종 짤랑. 멀칭 먼저 허는 검은 비니루 잇는디 그거는 수확이 많이 안 나. 경허난 그건 치와된. 이제 이디 심고곡. 씨를 심겨 놓고 나는 거라. 나민. 이제 비니루를 더깁. 고망 톨랑.

(이거 팔월에 심어서. 유월에 케고. 일 년에 한 번. 마늘 심어서. 비료 주고. 잡초 매고. 비닐 덮어서 멀칭하고. 모두 비닐 뚫고 그렇게 하면 크면 마늘종 자르고. 멀칭 먼저 허는 검은 비닐 잇는데 그것은 수확이 많이 안나. 그래서 그건 치워 두고. 이제 여기 심고. 씨를 심어 놓고 나는 거야. 나면 이제 비닐을 덮어서. 구멍을 뚫어.)

-허월자 구술

사계리 농업의 주요 작물인 마늘은 올해 가격이 상승하면서 특별 방법 순찰이 있을 정도로 마늘 수확기 순찰도 강화 되었다.

올해는 한 마다리. 이십 키로가 팔만삼천 원

(올해는 한 포대. 이십 킬로그램이 팔만삼천 원.)

-이용택 구술

올해 마늘, 사계리 마늘 심근 사람이 몇 사람 없어. 굉장히 힘들거든. 마늘이. 금년은 마늘 심근 사람들 돈 벌었주만은 곤디. 간냥 심근 사람덜도 다 돈 벌었어. 무 심근 사람도 돈 벌고 금년엔 모든 게 다 돈 벌었어.

(올해 마늘, 사계리 마늘 심은 사람이 몇 사람 없어. 굉장히 힘들거든. 마늘이. 올해 마늘 심은 사람들 돈 벌었지만. 양배추 심은 사람덜도 다 돈 벌었어. 무 심은 사람도 돈 벌고 올해엔 모든 것이 다 돈 벌었어.)

-강경하 구술



사진 206 마늘 일손도우미



사진 207 마늘 저장

최근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에 따른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일손 돕기 봉사와 직거래장터 등을 전개하며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도움을 주고도 있다.

씨 심고 싹 나면 검은 비니루 행은에. 비니루 더고는 사름이 어려왕 중국 사름 빌영은에 허는디. 이제 중국 사름들이 안 들어온덴 허난 문제라. 이디 사름들은 다 늙은에. 젊은 사름들은 다 안 허여.

(씨 심고 싹이 나면 검은 비닐 해서. 비닐 덮는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서 중국 사람 빌어서 허는데. 이제는 중국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고 하니깐 문제야. 여기 사름들은 다 늙어서. 젊은 사름들은 다 안 해.)

-허월자 구술

1-3. 양배추

국내의 양배추 소비는 식생활의 서구화 추세에 따라 증가되고 있으며 잎이 연하고 수분이 많아 씹이나 샐러드용으로 안성맞춤인데다 아삭아삭한 맛이 있어 재배면적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역별 양배추 재배면적은 제주도가 국내 생산량의 3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강원도로 23%를 차지하고 있다.⁸⁸⁾ 양배추는 재배 관리가 타 농산물에 비해 비교적 쉬운 편인 작물이다. 대체로 8월 중에 파종하여 이듬해 1월부터 4월까지 출하가 이루어지는 편이다.



사진 208 양배추 육묘



사진 209 양배추 정식



사진 210 양배추 받

88) 엄향란 외 4인, 「정식시기에 따른 고랭지 양배추의 수확 및 저장중 품질변화」, 『생물환경조절학회지 21권 2호』,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2012, 95쪽.

미강밭 팔아분 지가 이제 십일 년째. 향교 앞에 밭 천백삼십 평 있어, 거기 그냥 마늘 심곡. **를 메워서 간당도 허곡 그렇게 하지.

(굴밭 팔아버린 지가 이제 십일 년째. 향교 앞에 밭 천백삼십 평 있어. 거기에 그냥 마늘 심고. **를 메워서 양배추도 하고 그렇게 하지.)

- 강경하 구술

이젠 양배추도. 젊은 사람들은 양배추 하주. 돈 나는 건 그거주.

(이제는 양배추도. 젊은 사람들은 양배추 하지. 돈 되는 것이 그거지.)

- 이용택 구술

1-4. 보리

세계 4대 작물 중에 하나인 보리는 우리나라에서 오곡(쌀, 보리, 조, 콩, 기장) 중 하나이며 쌀 다음으로 중요한 주식 곡물이다. 재배시기는 10월~11월 경에 파종을 하고 겨울을 지나 다음 해 4월~5월에 꽃이 피고 6월 중에 수확을 한다. 사계리 보리는 농사가 잘되었고 보리로 밥을 지으면 손을 받치지 않아도 될 만큼 찰기가 있는 게 특징이었다고 한다.

보리가 또 잘 뉘여. 옛날에 서귀포가 미강허기 전에. 여기 보리는 찰져서 손 받치지 안허영 보리밥을 먹었우게. 손



사진 211 보리밭



사진 212 보리



사진 213 쪽파 종구



사진 214 수확 전 쪽파

가락으로. 건디 동쪽은 찰지지 안해서. 사계리 보리는 찰보리. 서쪽 지역. 사계만이 아니고.

(보리가 또 잘되었어. 옛날에 서귀포 굴 하기 전에. 여기 보리는 찰져서 손을 받치지 않고서 보리밥을 먹었어요. 순가락으로. 그런데 동쪽은 찰지지 않아서. 사계리 보리는 찰보리. 서쪽 지역. 사계만이 아니고.)

- 이경옥 구술

가을은 동짓달. 가을 훈 시월달 음력 시월에. 음력 사월 말이나 오월. 이제 수확하고 있어. 지금이라 지금.

- 이용택 구술

보리쌀마저 넉넉하지 않던 그 시절, 척박한 제주 땅의 옛사람들에게 밭벼, 피, 보리, 조, 콩, 팥, 메밀 등의 잡곡은 주식이기도 하였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밭에 따라 다니며 익숙치 않은 쟁기를 사용해 본 제보자의 추억담도 들을 수 있었다.

봄 나가민 먹을 거 앓영. 보리 단 비어당. 불에 케왕 먹고. 간식이 그거라. 청 먹고. 그거 골아다근에 수제비 행 먹곡.

(봄 되어 가면 먹을 것 없어서. 보리 단 비어다가. 불에 태워서 먹고. 간식이 그거야. 찌서 먹고. 그거 갈아다 수제비 해서 먹고.)

- 허월자 구술

아 보리는 저 자갈밭보다 막 높지는 안하고, 그런대로 뉘어마씨. 비기도 좋고, 저도 어린 때, 쉼로 밭 같고 말로 밭 같고, 아버지 따라 해봤는데, 이 안쪽, 비행장 쪽에는 눈 가망 밭 같고, 저 산방산 즈곶드레 들어가면 여기가 탕탕 처요. 탕탕 친단 말이야. 쟁기가, 초등학교 때도 되게 두드려 버렸어요. 키가 작아서.

(아 보리는 저 자갈밭보다 막 높지 않고, 그런대로 돼요. 베기도 좋고, 저도 어릴 때, 소로 밭 같고 말로 밭 같고, 아버지 따라 해봤는데, 이 안쪽, 비행장 쪽에는 눈 감아서 밭을 갈고, 저 산방산 근처에 들어가면 여기가 탕탕 처요. 탕탕 친단 말이야. 쟁기가, 초등학교 때도 많이 두드려 버렸어요. 키가 작아서.)

- 고희봉 구술

1-5. 조

조는 사계 지역에서 보리와 함께 2대 식량작물로 오래전부터 재배하여 오다가 1960년대 후반부터 노동력 투입은 많고 소득이 낮아 급격히 감소된 작물이다. 최근에는 조를 재배하는 모습을 매우 드물게 볼 수 있다.⁸⁹⁾ 5월 장마가 끝날 때쯤 조를 심고 10월 초부터 수확하면 그 후에 보리를 심는다는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다.

심는 거는 마, 장마, 오월 장마 끝날 때, 가을에 수확, 시월 초, 그때 허면은 그 후에 보리를 가는 거지.

- 이용택 구술

1-6. 쪽파

쪽파는 주로 봄과 가을에 심는다. 봄 쪽파는 3월 중순에서 4월 초, 가을 쪽파는 8월 말에서 9월 초에 심는다. 사계리에서는 10월 말일부터 이듬해 4월까지 재배한다. 적절한 월동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겨울철에도 잘 자랄 수 있는 작물이다. 쪽파는 농협에서 수매해 전국 각지로 출하되고 있다.

쪽파는 가을, 구월 심고 시월 말일 출하 조금씩, 경 해가사 십일월부터 사월까지 쪽파. 농협에서 왕 그걸 어느 정

89) 사계리 마을회, 『사계리誌-明沙碧溪의 고장』, 대영인쇄사, 2015, 537쪽.

도 수확할 때는 가져가. 농협도 우리 사람들 때문에 수수료도 먹고, 직원들도 그 월급 주고 허는 거라. 전국으로 가는 거주게.

(쪽파는 가을, 구월 심고 시월 말일 출하 조금씩, 그렇게 해야 십일월부터 사월까지 쪽파. 농협에서 와서 그걸 어느 정도 수확할 때는 가져가. 농협도 우리 사람들 때문에 수수료도 먹고, 직원들도 그 월급 주고 허는 거야. 전국으로 가는 거지.)

- 임성자 구술

1-7. 브로콜리

최근 식생활의 변화와 더불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신선 채소의 소비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건강 채소로 잘 알려진 브로콜리는 참살이(Well-being)의 붐을 타고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⁹⁰⁾

브로콜리 특성상 재배 및 수확 후 품질 유지가 어려워 재배를 피하고 봄, 가을, 겨울 재배를 위주로 한다. 국내의 브로콜리 재배 작형은 재배지역의 온도 조건에 따라 파종 및 출하 시기가 분화되어 있다. 제주의 경우 10월 하순부터 3월 하순까지 생산되며, 특히 저온기인 1월부터 2월은 다른 지역보다 온난한 기후의 영향으로 제주지역에서만 생산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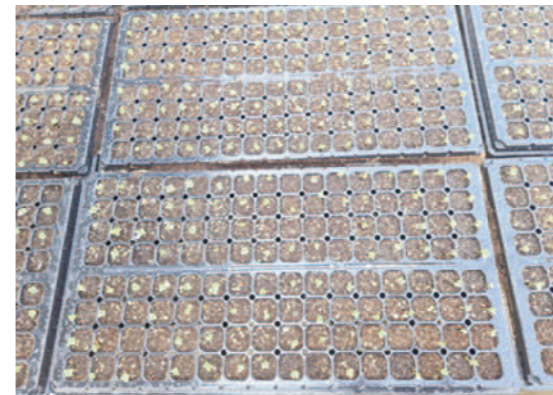


사진 215 육묘용 트레이에서 키우고 있는 브로콜리 모종



사진 216 브로콜리 꽃

90) 고순보, 『브로콜리 재배 기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 원예연구과, 2011, 5쪽~6쪽.

여름에는 더워부난 밭디 농사도 휴가. 지금 해볼민 뜨거와볼민 종자들 다 녹아불어. 사람덜 벗이에 녹듯. 여름 지나사 브로콜리도 허곡 하나씩 해가는 거라.

(여름에는 더워서 밭에 농사도 휴가. 지금 해 버리면 뜨거워 버려서 종자들 다 녹아 버려. 사람들이 벌에 녹듯. 여름 지나야 브로콜리도 하고 하나씩 해가는 거야.)

-임성자 구술

브로콜리는 육묘기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는 재배의 생력화(省力化)가 요구되면서 플러그 트레이를 이용한 육묘가 이루어지고 있다. 브로콜리는 여름 파종과 겨울 파종이 있다. 유난히도 더운 올해의 여름은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물주기 등 온도를 최대한 낮추며 육묘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1-8. 단호박

단호박은 따뜻한 기온에서 잘 자라는 작물이며 4월 중순부터 5월 초에 묘종을 심고 7월 말~8월 중순 사이 수확한다. 현재 여름철에 많이 출하되고 있는 단호박은 1920년대 이후 도입되었는데 주로 일제 강점기에 왜 호박으로 호칭 되어 이용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 단호박 이용이 많지 않았으나, 1985년경부터 제주도와 전남 해남 일부 지역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시작되었다. 현재는 경기도 연천과 화성, 경북 안동, 경남 합천, 전북 순창, 전남 진도 및 신안, 경남 하동, 의령, 제주 등을 중심으로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단호박



사진 217 자라고 있는 단호박



사진 218 단호박밭 전경

은 일반 호박에 비해 당질 함량이 높고 밤처럼 타박한 맛이 강하여 식미가 좋고 항암효과와 변비 예방, 피부미용에 좋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재배면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⁹¹⁾ 용머리 해안 사계 해녀의 집에서 만난 해녀 삼촌들의 간식에도 찐 단호박이 올라왔고 근방 음식점에서도 단호박으로 만든 밀반찬을 볼 수 있었다.

단호박 이거 쟈은에 먹으면 간식으로도 좋고 밥 대신도 좋으메. 너미 썬볼민 물랑행 허곰만 썬사 이추록 적당히 돼서 먹으면 맛있는 거라.

(단호박 이거 썬서 먹으면 간식으로도 좋고 밥 대신에도 좋아. 너무 썬버리면 물경해져서 조금만 썬야 이렇게 적당히 되어 먹으면 맛있는 거야.)

-천영자 구술

1-9. 무

무는 일반적으로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나, 추위와 더위에는 약한 편이다. 토심⁹²⁾이 깊고 보수력이 좋으며 물 빠짐이 좋은 토양이 적합하다. 끈끈하고 차진 토양에서는 갈라지고 구부러지거나 수확하기 전에 터지고 뿌리 썩음 등이 발생하기 쉽다.⁹³⁾

사계리 밭이 요즘은 서쪽 토양이 좋다고 해서 그리고 여기 관수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여기가 이제 이쪽으로 많이 오는 편이라고 하더라구요. 이제는 동쪽이 좋다고 했는데, 모양은 이쁜데, 맛이나 그런 거는 이쪽 서남쪽이 요즘 한 삼 년 전부터 이쪽 거를 좀 알아주기는 해요.

-이훈탁 구술

91)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 『단호박 재배 기술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 2020, 6쪽.
92) 토심은 토양의 깊이를 말한다.
93)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근채류 재배 기술 당근·무』,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2023, 53쪽.



사진 219 무밭 전경



사진 220 수확하고 난 후 무밭



사진 221 씨감자 심어진 모습



사진 222 개화가 진행되고 있는 감자밭

제주지역의 경우 국내 다른 지역과 다르게 겨울철 온도가 높아 겨울을 나는 월동재배가 이루어진다. 이는 제주에서만 재배가 가능한 작형으로 8월 말부터 10월에 걸쳐 파종하여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수확한다.⁹⁴⁾ 농가와 계약재배를 하거나 자가로 수확해서 세척 후 공판장으로 보내져 경매가 들어가며 가격이 책정된다.

아버지 농사 같이하고 있고 작년부터 부모님 월동 무랑 양배추 세척장하고 있는데 마늘 조금. 쪽파는 어머니 부업으로. 세척장이 지금은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겨울 무를 캐면 구월 초부터 파종해서 십이월 달부터 수확하면 보통 농가와 계약재배를 한다거나 자가로 하면. 수확해서 세척해요. 세척 한 다음 공판장에 보내는 거죠. 이십키로 상자에 넣어서 이제 경매하는 거죠. 갈치를 잡으면 공판장에서 가격을 매기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 이훈탁 구술

1-10. 감자

기온이 빠르게 오르는 지역적 특성상 감자를 더 일찍 심고 빠르게 수확한다. 일반적으로 2월 하순부터 3월 초에 감자를 심고, 5월말에서 6월 중순 사이에 수확하는 것이 적기다.

94)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근채류 재배 기술 당근·무』,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2023, 56쪽.

1-11. 참깨

참깨(Sesamum indicum L.)는 식용 기름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여 재배되고 있는 대표적인 유지작물⁹⁵⁾이며, 고온·단일 조건에서 개화가 촉진되는 대표적인 단일성 작물⁹⁶⁾이다. 재배기간이 90~120일로 비교적 짧으며 일반적으로 5월에 파종하여 8월경에 수확한다. 수확 과정은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사람이 직접 참깨 줄기를 베어 단으로 묶고, 1~2주가량 햇빛과 바람에 말려 건조시킨다. 이후 건조된 줄기에서 낱알을 2회 가랑 털어내는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 전 과정에서 많은 노동력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옛날 꿬렌 헛 거는 이제 7튼 게 아니고 낭 ㅎ나가 다섯 개 여섯 개 꿬가 깨작깨작 부땡. 아이고. 그거 꿬 비젠 허민 잘도 애먹어서.

(옛날 깨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것이 아니고 나무 하나에 다섯 개 여섯 개가 깨가 다닥다닥 붙어. 아이고. 그거 깨 베려면 정말 애먹었어.)

- 천영자 구술

95) 오서영 외 2인, 「남부지역 논에서 2모작 재배 시 동계 밀과의 작기연결성을 고려한 참깨의 최적 파종시기」, 『한국농림기상학회지 제27권 제3호』, 2025, 114쪽.

96) 김충국 외 3인, 「참깨 주산지의 재배실태와 수량 및 소득에 관한 연구」, 『북방농업연구』 북방농업연구소, 2025, 53쪽.



사진 223 참깨밭 전경



사진 224 수확한 참깨 줄기를 묶어 햇볕과 바람에 말리는 건조과정



사진 225 건조된 참깨를 터는 모습



사진 226 메밀밭 전경

1-12. 메밀

기후가 따뜻하고 강수량이 풍부함에 따라 봄과 가을 두 차례 메밀을 심고 수확할 수 있어, 다른 지역보다 재배 주기가 빠르고 생산량도 많다.

2025년 11월 기준 사계리 인구는 1,286세대, 2,52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서귀포시 안덕면 총인구 12,258명의 20.6%에 해당한다. 사계리 어촌계는 100가구, 164명으로 사계리 총인구 6.5%이다. 어촌계원은 남자 56명, 여자 108명이다.⁹⁷⁾

표 6 인구 현황

(단위: 명)

	총인구	세대수	세대당 인구	남자 인구수	여자 인구수
안덕면	12,258	6,527	1.88	6,308	5,950
사계리	2,521	1,286	1.96	1,248	1,273
사계어촌계	164	100	1.64	56	108

사계리 어선 현황은 어장관리선 공영호를 포함하여 27척이다. 어장 면적은 사계리 앞바다 2,487,430㎡와 형제섬 308,000㎡이다. 2013년 기준으로 ‘납데기’ 바다와 ‘황우치’ 바다는 사계 어장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어부회 회장 선출은 추천제로 한다. 어부회 운영은 회비와 기부금으로 이루지고 있다. 그리고 20~30톤으로 큰 배들은 일손이 없어 외국인을 쓰고 있다고 한다. 주로 6~7톤 정도의 배는 사계항에 정박을 할 수 있는데 20~30톤 정도 되는 배는 모슬포항에 정박을 한다.

어업은 낚시 손님을 받아 낚시어업을 주로 하거나 고령의 어부는 형제섬 방문자를 실어 나르는 일을 하

97)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참조([https://jumin.mois.go.kr/#\(검색일 2025. 11. 30.\)](https://jumin.mois.go.kr/#(검색일 2025. 11. 30.))).

고, 나머지 배들은 조업을 한다. 사계 어부들이 잡는 어종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다. 갈치, 옥돔, 뱅어돔, 부시리, 방어, 다금바리, 돌돔, 황돔, 참돔 등 다양한 어종을 잡고 있다. 수확물은 어부가 직접 식당을 하는 경우에 본인의 식당에서 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경우는 수협 판매, 개인 상회 등으로 유통을 한다.

일년 연중 갈치, 옥돔을 주로 잡는데 과거에는 옥돔을 주로 잡았지만 지금은 잘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 겨울 12월에서 2월 말까지는 주로 잡는 어종은 뱅어돔, 히라스, 방어를 잡는다. 방어는 소방어, 중방어, 대방어, 특방어로 나누고 소방어는 2kg 미만, 중방어 4kg 미만, 대방어는 8kg 미만, 특방어는 8kg 이상을 말한다. 소방어는 판매 금액이 적어 잘 잡지 않는다고 하고 특방어는 대방어 2개 값을 쳐준다고 한다.

갈치잡이는 마라도에서 남쪽으로 20마일 즉 32km 정도 나가서 주낙⁹⁸⁾으로 조업을 한다.

이십 마일 정도 나가요. 마라도 기준으로 더 내려가죠. 남쪽으로.

- 이동섭 구술

주낙은 멍 또는 닳으로 고정하는 고정낙시류와 해류나 조류에 따라 흘러가도록 하는 흘림낙시류가 있다. 이동섭 어부는 주로 흘림낙시를 한다. 모릿줄이 보통 500m 정도이고 이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낚시 바늘이 있는 가릿줄을 달아 놓는다. 낚시 바늘에 미끼를 끼쳐 준비한다. 이렇게 준비한 것을 한 통이라고 하면 한번 조업을 할 때 49~56통 정도를 준비하고 많이 준비할 때는 60통까지 준비한다. 오전에 주낙을 흘려 보내면 다시 걷으면서 수확물이 제거하면서 다시 어구를 정비하고 다시 오후에 주낙을 흘려 보낸다. 하루에 두 번 정도 작업을 한다. 미끼는 멸치를 주로 사용하는데 멸치가 없을 경우는 꽁치를 사용한다.

보통 몇 킬로라고 제가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몇 마일 쯤 되는데, 사십구 통에서 오십육 통 정도 그때 그때마다 달라요. 주낙 한 통이라고 하면 사십구에서 많은 육십 통까지. 그러니깐 원줄 하나에 오백 메다라고 치면 오백 메다를 한 통에 다 넣으면 사십구 통. 바늘 하나하나 미끼 하나하나 달면서 한 통을 준비하고. 그걸 오후에 작업할 걸 오전에 주낙을 풀면서 오후 주낙 작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오전에 한번 피고 오후에 한번 피고. 한번 찢다는 게 몇 킬로미터를 갔다가 다시 회수하면서 주낙 낚시 바늘 하나하나 갈치를 올라오면 제거하고. 미끼는 겨울에는 멸

98) 주낙은 대상으로 하는 어업자원 생물 여러 마리를 동시에 잡기 위하여 한 가닥의 긴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개의 낚시를 달아 어업자원 생물을 잡는 어구를 말한다.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생업기술사전-어업2』, (주)사월오일, 2021, 223쪽.

(멸치)을 많이 쓰고 멜(멸치)이 안 날 때는 꽁치를.

- 이동섭 구술

조업이 아주 잘될 때는 갈치 10kg 상자 50상자 정도라고 한다. 갈치는 겨울에는 크기도 크고 상품성이 있는데 여름에는 크기도 작고 상품이 떨어진다. 그래서 멀리까지 나가서 조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길게는 한달 정도 배에서 살면서 조업을 하기도 한다.

갈치 잡으려면. 겨울 같은 경우에는 갈치가 씨알이 커요. 마라도 밑 쪽에 가면 있어요. 크고 하니깐 한 이틀 정도 작업하면 가득 채워요. 이삼일 정도 하면 가득 채워요. 들어와서 갈치 푸고 또 나가고. 여름에 이제 여름은 갈치가 비시즌이거든요. 그래서 갈치도 작고 씨알도 작아요. 그래서 멀리 나가서 오랫동안 작업하고 가득 채워서 오는 거고. 한 달 정도 배 타고

- 이동섭 구술

이동섭 어부는 큰아버지와 같이 조업을 하고 있고 식당도 같이 경영하고 있다.

2-1. 머구리

머구리는 잠수부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쓰는 투구같이 생긴 헬멧을 뜻하기도 한다. 머구리는 큰 철제 헬멧을 쓰고 산소 공급을 받으며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 전복·조개 등을 채취하는 사람을 말한다. 머구릿배 즉 잠수기선은 산소 공급 기계장치가 있는 배를 뜻한다. 머구리의 어원은 개구리의 옛말이다. 머구리가 배에서 내려와 바다에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 개구리와 비슷하다고 하여 붙여졌다고도 한다.⁹⁹⁾ 머구리의 또 다른 어원은 일본어로 모구(모구루)의 명사형인 모구(모구리)에서 머구리로 된 것이라는 말도 있다.¹⁰⁰⁾

일본에서는 서양문물이 들어왔던 에도시대에 잠수기가 들어왔고 이때부터 머구리 작업이 시작되었다는

99) 울산광역시 문화원연합회, 『울산지역문화연구-울산의 옛 머구리들』 울산 향토사 통합연구지 제5호, 울산광역시 문화원연합회, 2017, 57쪽.

100) 수협 공식 유튜브 채널-바닷말 나들이 “머구리”편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JP-8PmvgdvY(검색일 2025. 11. 30.))

기록이 있다.¹⁰¹⁾ 잠수기선이 우리나라에 등장한 것은 일본에 의해서이다. 1876년 개항 이후 선진 어업 기술을 갖춘 일본 어민들이 국가권력의 비호 아래 제주 연해 어장을 침탈하였다. 제주도 어장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것은 일본의 잠수기업자들이었다. 1880년대 말부터 일본의 잠수기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가파도를 본거지로 두고 12척의 잠수기선이 20여 년간 조업을 했다. 일본 어민들은 잠수기선을 이용하여 제주 바다의 밑바닥까지 훑어서 전복·해삼·해초 등을 모조리 긁어가 버렸다. 1906년에는 잠수기 수가 20대 정도였다고 한다. 잠수기선의 대량 채취에 따라 전복 자원이 고갈 상태에 이르자 1908년 어업법에 의해 잠수기의 수량이 제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31년 어업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조업 구역을 설정하고 대수를 한정하는 등 자원 보호에 유의한다고 했지만 제주도 연안의 수산자원은 이미 황폐화된 상태였다고 한다.¹⁰²⁾

머구리는 양쪽 신발에 7kg, 앞뒤 허리에 10kg, 어깨에 7kg의 납덩어리를 메고 바다로 들어간다. 바닷속 20~30m 깊이에서 일반 잠수부보다 2배 이상 작업이 가능하다고 한다. 약 20분 이상이라고 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호스는 약 150m 정도로 배에서 바로 잠수부로 연결한다. 머구리의 약점은 이 호스이다. 호스가 장애물에 걸리거나 찢릴 위험이 있다.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첨단장비의 발달로 머구리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¹⁰³⁾ 현재 제주에는 머구리가 없다.

아니 하다 보니깐 원래 저 잠수부 출신이에요. 머구리, 머구리. 여기 바닷속을 많이 누볐죠. 우리는 이제 제주도는 옛날에 스물넷 척이 있었어요. 머구릿배가.

-정성수 구술

정성수 어부는 돈을 잘 벌 수 있어서 머구리 일을 선택했다고 한다. 20대 때 머구리를 시작해서 허가가 갱신되지 않아 그만두었다. 10년 정도 머구리 활동을 했다. 1980년대 시작해서 1990년대 그만둔 것이다. 잠수를 하면 잠수병에 걸릴 위험 때문에 수심이 깊은 곳만 가는 건 아니다. 수심이 낮은 곳, 높은 곳을 조절하

101) 울산광역시 문화원연합회, 『울산지역문화연구-울산의 옛 머구리들』 울산 향토사 통합연구지 제5호, 울산광역시 문화원연합회, 2017, 57쪽.

102) 제주학연구센터 아카이브>테마 아카이브>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검색어 잠수기선(<http://www.jst.re.kr/haenyeo/dictionary.do?id=75>(검색일 2025.11.30.)).

103) 수협 공식 유튜브 채널-바닷말 나들이 “머구리”편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JP-8PmvgdvY>(검색일 2025.11.30.))

면서 작업을 했다고 한다. 한번 들어가면 15~20분 정도 머물면서 작업을 했다. 수심은 30~50m정도 들어갔다고 한다.

그게 농구공 있잖아요. 농구공. 수압 알잖아예. 십 메다 가면 그게 짜부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듯이 잠수부도 이제 수압 그게 잠수병 걸리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수심 야픈 데는 오래 하고 수심 깊은 데는 그것을 조절하면서.십오 분이나 이십 분 그 정도 했다가 올라오고 수심 삼십 메다 이상 들어가니깐 사오십 메다 들어가니깐.

-정성수 구술

머구리들이 어업 활동을 하는 동안 가장 무서웠던 것이 잠수병이다. 잠수병은 물속에 들어갔을 때 수압이 높아져 체내에 용해된 질소가 깊은 잠수 후 물 표면으로 빠르게 올라오면서 기화되어 조직이나 혈액 내에 기포를 형성하면서 발생한다. 이는 탄산이 있는 음료의 뚜껑을 갑자기 열었을 때 생기는 현상과 유사하다. 잠수병에 걸리면 한 여름에도 겨울 이불을 덮고 자야 할 정도 춥다고 한다.

이 잠수병이 있어가지고 이 잠수병이 생겨, 이거 하는데 한삼 년 걸려요. 이렇게 원상태로 몸 속에 질소가 박혀가지고 빠지는 게 한삼 년 걸려. 저는 삼 년 걸리더라고. 한 여름에 겨울 이불 덮고 자고.

-정성수 구술

수확물은 소라, 전복, 해삼, 조개류 등과 산호도 포함된다. 담배파이프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 산호가 필요했다고 한다. 산호는 깊은 바다에 있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많았다고 한다.

옛날에는 산호 있죠. 그거를 그건 수심 깊은 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거 옛날엔 돈을 썼으니깐 그걸 캐다가 수압 때문에 잘못해서 죽은 분들이 많아요. 담배파이프 만들려고 그런 뭐.

-정성수 구술

머구리는 일년에 6개월 정도 작업을 한다. 금채기에 들어가면 작업을 멈추었다고 한다. 보통 하루에 소라를 잡으면 200~300kg 잡을 때도 있고 100kg 정도 잡을 때도 있어서 평균을 낼 수는 없다. 망사리를 허리에 차고 걸어 다니면서 작업을 한다. 망사리에 수확물이 차면 스피커로 말을 해서 올려 보낸다.

머구릿배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 사람들이 운영하다 패망하면서 그대로 놔두고 간 것을 같이 일했던 하인이나 종사자들이 물려받아 운영했다고 한다. 해녀는 제1종 공동어장에서 작업을 하고 머구리는 제2종 공동어장에서 작업한다. 공동어장은 제1종, 제2종으로 나뉜다. 제1종 공동어장은 간조 시 수심 10m(제주도는 15m)이고 제2종 공동어장은 해안선에서 500m(서해안은 1,000m)까지를 말한다.¹⁰⁴⁾ 기준이 서로 달라 바다 공간이 겹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녀와 머구리는 서로의 공간을 침범할 수 밖에 없고 그로인해 해녀의 불만이 커져 분쟁이 많았다고 한다. 오죽하면 머구리를 ‘허가 받은 해적’이라고 했을 정도였다.

그 머구릿배는 옛날 그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운영을 하다가, 그래서 패망하면서 가면서 거기서 일했던 하인들이나 일했던 종사자들이 이제 어찌 보면 물려받아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이어져 왔어요. 이어져 오다가 바다에는 일종 공동어장이 있고 이중 공동어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중, 그래서 해녀들하고 마찰이 많이 있었어요. 해녀들은 일종 공동어장에서 하게끔 되어 있고 우리는 이중 공동어장 밖에. 허가는 이중 공동어장에서 작업을 하라 했는데 어차피 일종 공동어장에 소라가 많거든요. 많다 보니깐 자연스럽게 침범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사계가 이제 소라덜 많이 나고 이제 뭐 용수바당이나 저쪽더러 소라덜 많이 나면 가서 어찌 보면 옛날에 허가받은 해적이라고. (웃음) 그래서 도, 옛날에 고** 과장이라고 도에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오 년마다 허가 갱신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해녀들하고 마찰이 많이 있다 보니깐 그 이제 없애 버린 거죠.

-정성수 구술

제주에서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해녀와 머구리의 분쟁이 심해지면서 머구리 어업 허가를 갱신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머구리 사업을 퇴출시켰다.

허가도 도에서 똑같은 같이 주진 않았거든요. 연도가 다 틀리거든요.년도 다 틀린데 점차적으로 하나씩 앓으면

104) 어장 수심한계는 마을어업과 협동양식어업의 경우에만 설정하고 있고, 우선 마을어업의 경우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이 5미터 이내(단, 강원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7미터 이내)이다. 다음 협동양식어업의 경우는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이 5미터 초과 10미터 이내(단, 강원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7미터 초과 15미터 이내)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면의 범위 내에 있더라도 먼 거리에 위치한 낙도 또는 무인도와 연결한 수면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을어업을 면허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면허어업의 종류와 수심한계 참조.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8916&pageFlag=&sitePage=1-2-1>(검색일 2025. 11. 30.))

서(가져가 버려서) 배 두 척이 남았었는데 이분들은 법적 투쟁을 했어요. 도 상대로. 그래서 어차피 졌죠. 그래서 허가 기간이 되니깐 그 배 두 척도 없어지고 제주도 내 머구릿배가 없을 걸요.

-정성수 구술

정성수 어부는 바다 자원이 사실 해녀들이 갈 수 없는 곳에 더 많다고 한다. 해녀들이 점점 고령화가 되면서 깊은 바다는 갈 수가 없게 되어 그렇다고 한다.

그리고 요부분도 저는 잠수부 했었잖아요. 했었기 때문에 이 바다의 자원이 일종 공동 밖에 이 해녀들 못 하는 자원이 엄청 많아요. 밖에 아니더라도 해녀들이 고령화 되고 그러니깐 깊은 데 못 가잖아요. 그니깐 깊은 데 못 가는 것들이 다 이제 누가 캐 갈 수가 없잖아요.

-정성수 구술

정성수 어부는 다시 머구리 사업이 시작된다고 해도 자신은 잠수병 때문에 머구리를 안하겠다고 한다.

저는 이제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침에 들어가서 한 시에 나왔나? 한 신가, 두 신가 나왔어요. 그때는 뭐 아침 한 아홉 시에 들어가서 그때는 그럴 사정이 있었어요. 우리 선원이 이제 파도도 썩지만은 인제 선원이 없어 가지고 어차피 올라갔다 하면 위험도 하고 그래서 그냥 물속에서 버틴 적 있어요. 사실 그렇게 하면 죽어버리죠.

-정성수 구술

3-1. 마을회

사계리 마을회 관련 내용은 이용옥 이장, 장행관 부이장, 고현정 사무장 등의 구술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사계리 마을회는 마을회, 경로당, 청년회, 부녀회, 학부모회, 어촌계, 총동문회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은 28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계리 임원 기구표를 보면 총회와 운영위원회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총회는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회의 기구이고 운영위원회는 자문위원 1명, 선거관리위원 1명, 감사 2명, 지도자 3명, 리장 1명, 부리장 1명, 운

표 7 사계리 임원 기구표 현황

사계리 임원 기구표						
총회						
자문위원장 1명	운영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1명	
감사 2명		리장 1명 부리장 1명		지도자 3명		
지도자 3명						
직전리장 1명	경로당회장 1명	청년회장 1명	부녀회장 1명	학부모회장 1명	어촌계장 1명	총동문회장 1명
당연직 7명 외 선출직 17명 총 24명						

반장 28명				사무장 1명
1반	8반	15반	22반	
2반	9반	16반	23반	
3반	10반	17반	24반	
4반	11반	18반	25반	
5반	12반	19반	26반	
6반	13반	20반	27반	
7반	14반	21반	28반	



사진 227 1997년 임시총회 모습(마을회 제공)



사진 228 2025년 정기총회(부녀회 제공)



사진 229 신항동 동명표석 제막식(마을회 제공)



사진 230 신항동 표지석(마을회 제공)

영위원 24명(당연직 7명, 선출직 17명), 반장 28명, 사무장 1명으로 총 6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계리 반은 총 28개로 나뉘져 있다. 1반부터 11반까지 대전동, 12반부터 20반까지 송죽동, 21반부터 27반까지 용해동, 28반이 신항동이다. 신항동은 원래 국유지였다. 1993년에 국가에서 땅을 분할해서 분양한다고 하니 화순리, 감산리, 덕수리 등 지역 사람들이 신청해 집을 짓고 2000년대에 구성된 마을이다. 하지만 번지가 사계리인 관계로 사계리 마을로 포함되어 있다.

사계리 경로당은 자연부락으로 대전동, 용해동, 송죽동, 신항동으로 각각 하나씩 있어서 경로당도 4개이다. 각 경로당 노인회장이 있고 노인회장 중에서 경로당회장 1명이 있다. 노인회원 기준은 65세부터이다.

과거 사계리는 북쪽 산방산을 놓고 동그랗게 가운데가 논과 밭이 있고 동쪽이 용해동, 서쪽이 대전동, 남쪽이 송죽동으로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반이 여기가 중심지라면은 중심지라면은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면 이렇게 쪽 오다 한 요정도 돼서 대전, 일로 쪽 해서 송죽. 산방산을 이제 가까운 쪽에 양계물 용해 이렇게 구분이 되어

- 이경옥 구술

과거 마을회에서는 공동 창고 짓기, 마을가꾸기 등 1970년대 들어서면서 새마을 사업¹⁰⁵⁾과 연계된 일들을 많았다. 현재 리사무소 자리에 마을 공동 창고가 있었다.

105) 새마을운동은 '가난으로부터의 탈출'을 희망하던 국민의 요구와 '조국 근대화'를 추진하던 국가의 의지가 결합된 '잘 살기 위한 운동'이었다. 새마을운동의 태동 배경은 첫째, 1960년 5·16을 통해 집권에 성공한 박정희 체제는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얻고 국가 통치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를 위해 반공주의와 발전주의에 기초한 '조국 근대화' 전략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둘째,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수행으로 연평균 9%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지만 경제발전을 향한 국가와 사회의 열망은 여전하였다. 셋째,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탈농현상'과 도시빈민문제 등 다양한 사회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를 치유할 수 있는 사회통합의 국가적 시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새마을가꾸기'를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농촌부흥을 위한 국가정책으로 시작되었다. 1970년~1971년 정부는 새마을가꾸기사업을 시행하여 전국 33,267개 마을에 시멘트 336포를 공급하고 마을 앞길 확장, 공동빨래터·공동우물 설치 등 마을공동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정부는 사업 성과가 우수한 마을 16,600개를 선정하여 시멘트 500포와 철근 1톤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이후 마을의 등급화와 차등 지원이라는 새마을운동의 추진 원리를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농촌마을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대하지 않은 성과로 인해 1972년 새마을가꾸기사업은 농촌환경개선을 위한 하나의 '사업'에서 전국민적 참여를 요구하는 '농촌새마을운동'으로 확장되어 시행되었다. 1974년부터는 산업현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공장새마을운동'이 시작되었다. 1976년에는 도시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새마을운동의 범국민화를 위하여 '도시새마을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



사진 231 산방산과 사계리(1960년대)(마을회 제공)



사진 232 사계리

〈사진 233〉은 1964년 사계리 창고의 축낙성(祝落成) 당시, 낙성식을 진행하던 장면을 담고 있다. 창고는 마을의 동쪽에 위치하였으며, 각종 농자재와 일부 농산물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창고의 규모는 약 100평 정도였다. 해당 창고는 특정 개인이 아닌 마을 공동의 시설로,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었다. 건립 당시에는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비용을 모아 창고를 조성하였다. 이후 1996년에 기존 창고를 기반으로 현재의 건물을 증축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사진 233 1964년 사계리 창고 낙성식 모습(마을회 제공)

었으며, 이로써 새마을운동은 짧은 기간 동안 지역과 세대를 넘어 급속도로 보급될 수 있었다. 1980년대 새마을운동은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과 제5공화국의 출범을 맞이 하여 '새마을운동중앙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주도운동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새마을운동은 권위주의적 체제였던 제5공화국의 정권적 목표를 뒷받침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관변운동'이라는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1988년 '5공 청문회'에서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새마을운동은 침체기를 맞게 되었다. 1990년대 새마을운동은 국민의 무관심과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직을 정비하고 사회공익활동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운동 방향을 모색하며, 2000년대까지 이어져 왔다. 국내적으로는 민간안전망 사업, 지역활력화 및 농촌살리기 사업 등을 실행하여 공동체 의식 함양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였으며, 국제사회에서는 북한·필리핀·몽골·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의 지역사회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대외적 위상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국가기록원〈새마을운동 기록물 참조. (https://theme.archives.go.kr/next/semaul2016/viewSub.do?dir=sub02&subPage=sub02-1-1(검색일 2025. 11. 30.))

‘축낙성(祝落成)’ 또는 ‘낙성식(落成式)’은 건축 공사가 완료된 후 이를 기념하고, 건물이 마을 공동의 공간으로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함을 알리는 의례이다. 단순한 준공 행사가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시설의 완공을 축하하고 향후 안전과 원활한 활용을 기원하는 공동체적 의례의 성격을 지닌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낙성식이 마을의 결속을 확인하고, 공공시설이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자산임을 확인하는 상징적 행위로 인식되었다.

과거 리사무소는 행정 업무뿐 아니라 마을 공동체 운영의 중심 공간으로 기능하였다. 이와 함께 설치된 창고는 단순한 보관 시설을 넘어, 마을 운영에 필수적인 물자와 농자재, 공공 용품을 관리하는 핵심 공간이었다. 약 100평 규모의 리사무소 창고는 마을 단위의 행정과 생산 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 시설로서, 공동 노동, 행정 사업, 농업 활동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던 당시 마을 운영 구조를 보여준다.

당시 창고는 마을 공동 재산으로서 행정 지원과 공공사업을 통해 조성된 공동체 기반시설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창고는 행정 주도의 개발과 마을 공동체의 일상 운영이 결합되었던 시기의 공간적 흔적이라 할 수 있다.

사계리사무소는 1996년에 신축을 하였다. 원래 있던 자리에서 신축을 한 것이다. 신축은 서귀포시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건립을 하였다.

〈사진 234〉 새마을가꾸기는 행정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다. 당시 마을의 재정 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자체적으로는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물통 정비 역시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마을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 지원 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사진 236〉는 사계리 과거 3통 동네, 현재 대전동 일대에서는 과거 땅을 일구고 길을 만드는 작업이 마을



사진 234 새마을가꾸기(1971.03.10.) 봉에못 정비된 모습



사진 235 봉에못 현재 모습(겉은 건물로 되어 있음)

공동노동으로 이루어졌다. 이 지역은 오랫동안 초가집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어 ‘민속동네’로 불리기도 하였다. 새마을 사업이 추진되면서 마을 안길이 확장·정비되었는데, 이 과정은 기계 장비 없이 전적으로 사람의 인력에 의존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해당 공사에는 외부 인력이 동원되지 않고, 동네 주민들만 참여하여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는 새마을 사업이 행정 주도로 추진되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마을 단위의 공동노동과 주민 참여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사계리 일주도로 정비는 이승택 지사 재임 시기(1971년 6월-1976년 1월)에 이루어졌으며, 당시 덕수리에서 사계리로 이어지는 구간의 도로 정비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마을별로, 다시 반 단위로 구간을 나누어 도로 주변의 땅을 돌로 메우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때 동원된 노동을 ‘출력’이라 불렀는데, ‘출력’은 마을 공동의 일이나 행정 사업을 위해 주민이 선발되어 나가 노동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가구에서 한 사람씩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특별히 연령 제한은 없었으나 일정 수준 이상의 노력이 가능한 사람이 출력 대상이 되었다. 부득이하게 출력을 나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 대신 금전으로 부담을 대신하였다. 출력에는 여성도 참여하였으며, 남녀 구분 없이 마을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로 인식되었다. 이경옥 이장은 약 14세 무렵부터 출력에 참여하였다고 하며, 당시에는 경운기와 같은 농기계가 보급되지 않아 ‘쉐구르마(달구지)’를 이용해 돌과 흙을 나르는 작업을 수행



사진 236 새마을 사업으로 마을 정비하는 모습



사진 237 새마을 사업(도로 공사)(마을회 제공)



사진 238 새마을 사업(도로 공사)(마을회 제공)

하였다고 한다. 도로 정비로 베어진 나무는 땔감으로 썼다.

도로 정비 이후 마을가꾸기 일환으로 꽃길 조성 사업도 하였다.

슬레이트집은 새마을 사업이 추진되던 시기부터 마을에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기존 초가집의 지붕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변화의 일환이었다. 지붕 개량 과정에서는 먼저 초가 지붕을 모두 걷어낸 뒤, ‘처낙(찰흙)’을 다져 넣고 그 위에 슬레이트 지붕을 얹는 방식이다. 이때 사용된 찰흙은 사계리 공동묘지 부근에서 주로 채취되었다고 한다.

〈사진 241〉는 ‘붕에뭇’ 주변 도로 정비하는 모습이며, 외부 업자가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은 과거 고구마 전분 공장이 자리하던 곳으로, 전분 공장은 1980년대 초반까지 운영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체육공원 주변에 조성된 소나무숲은 지역에서 ‘베늘’이라 불린다. 이 소나무숲은 강한 해풍을 막기 위한 방풍림의 역할을 하며, 해안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염해를 완화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사진 242〉은 해수가 마을 안쪽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과거 사계리 지역은 바람이 매우 강하고 해풍의 영향이 심해 농사 여건이 좋지 않았으며, 이러한 자연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풍·방재 시설이 필요했다.

사계리 마을에서 공동으로 고구마 저장고도 지었다. 사계리 고구마 저장고는 총 3곳이다. 용해동 2곳,



사진 239 새마을 사업(꽃길 조성)(마을회 제공)



사진 240 새마을 사업 슬레이트 지붕 교체(마을회 제공)



사진 241 새마을 사업(붕에뭇 주변 도로 정비)(마을회 제공)

송죽동 1곳이다.

고구마 저장고는 1960년대 무렵에 건립된 것으로 전해진다. 저장고는 모래밭 위에 조성하였으며, 매년 11월 고구마를 수확한 뒤 씨고구마를 저장하였다. 이듬해 파종 시기가 되면 저장해 두었던 씨고구마를 꺼내어 고구마 줄기를 받아 심는 방식으로 농사가 이루어졌다. 고구마 재배는 씨고구마에서 돌아난 줄기를 잘라 밭에 다시 심는 방식이었으며, 저장고에서 씨고구마를 보관한 뒤 각 농가에서는 집 근처 밭에 임시로 심어 줄기를 키운 후, 이를 끊어 정식 밭에 옮겨 심었다.

과거에는 모래 구덩이를 파서 고구마를 저장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나, 이후 저온 저장이 가능한 고구마 저장고가 건립되면서 보다 안정적인 보관이 가능해졌다. 사계리에는 이러한 고구마 저장고가 총 세 곳 있으며, 이 가운데 두 곳은 리모델링을 거쳐 현재 찻집으로 활용되고 있고, 한 곳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이 저장고들은 행정의 지원을 받아 조성된 시설이었다.

고구마는 매년 11월부터 저장을 시작하여 이듬해 4월경까지 보관하였으며, 이후 농사에 활용되었다. 저장고 내부는 칸막이 구조로 되어 있어 각 농가가 자신의 칸에 고구마를 보관함으로써 소유를 구분할 수 있었다.

사계리 마을회 연간 행사는 1월에 신년하례, 정기총회, 2월 마을포제, 4월 안덕면 체육대회 참가, 5월 어버이날 행사, 부처님오신날 행사, 6월에 현충일 추모행사, 11월 임시총회 등으로 진행된다.



사진 242 새마을 사업으로 해안가 해수방지를 하기 위해 댐을 쌓은 모습(마을회 제공)



사진 243 고구마 저장고에서 행사를 하는 모습(마을회 제공)



사진 244 고구마 저장고(마을회 제공)



사진 245 1998년 신년하례회(마을회 제공)



사진 246 2025년 신년하례회(부녀회 제공)

신년하례회는 매년 1월 1일에 산방복지회관에서 진행하고 있다. 사계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식사를 하면서 세배를 드리는 행사이다. 세배가 끝나면 레크리에이션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부처님오신날 행사는 산방굴사에서 진행하고 있다. 마을회 임원진들이 순번을 정해 행사 전날 밤부터 가서 부처님께 등을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마을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준비는 행사 전날 밤에 와서 산방굴사 주변 정리를 하고 미리 요청한 경우는 등도 달고, 초도 켜준다. 준비팀은 산방굴사에 새벽에 방문하는 분들을 맞이한다. 다음날 다음팀이 오면 내려간다. 올해 준비팀은 4명이 근무를 했다. 하루팀은 오전에 교대한다. 하루팀은 행사 당일 오후 5시에 근무를 마친다. 산방굴사는 사계리 마을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평상시는 관리자 1명이 상시 근무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부처님오신날은 특별히 조를 짜서 관리를 하고 있다. 사계리에서 산방굴사를 언제부터 관리를 했는지 기억이 없을 정



사진 247 부처님오신날 행사

도 오랫동안 관리를 했다고 한다. 행사 당일에는 보살 한 명을 채용해서 산방굴사에 방문한 분들을 위해 기도를 해준다고 한다.

현충일 추모행사는 마을에 충효비가 있는 공동묘지에서 진행한다. 리사무소에서 제물로 과일, 빵, 술 등을 준비하고 임원 및 자생단체(부녀회, 청년회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국화꽃 헌화도 한다. 모든 비용은 마을회에서 부담한다.

마을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꿈드림문화숲은 꿈드림청소년공부방과 무인북카페로 되어 있다. 꿈드림문화숲은 마을 자산인 비료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다. 리모델링은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정부 보조 받아 실행했고 현재까지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적은 보조금으로 운영하기가 매우 쉽지 않은 상태이다. 꿈드림문화숲 관리팀을 학부모 1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다가 지금은 8명이다.



사진 248 1999년 충혼비 제막식(마을회 제공)



사진 249 2016년 현충일 추모식 행사(마을회 제공)



사진 250 안락면 체육대회 참가 (청년회 제공)



사진 251 어버이날 행사 (마을회 제공)



사진 252 사계리 꿈드림문화숲 외부 모습



사진 253 사계리 꿈드림문화숲 내부 모습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본 생활비가 많이 나오는 편이라 마을회에서 비용을 충당하는 경우가 많다. 프로그램 운영은 로봇교실, 요리교실, 한자교실, 탁구교실, 레고교실 등 일년에 두세 개를 운영하고 있다.

사계리 마을회에서는 사계리 사무소 홈페이지¹⁰⁶⁾를 통해 마을회 회원 자격 규정을 공지하고 있다. 회비 납부 대상은 세대주 및 만 18세 이상 재정수입이 있는 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 자격을 갖고, 다만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자격 기준은 만 70세 이상의 세대주 및 배우자, 마을 이장이 인정하는 세대의 세대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회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 사계리와 관련된 공익사업, 마을 보조금, 리사무소 도움 요청 등을 제한한다고 공지함으로써 마을회 단체의 범위를 확고히 명시하고 있는 셈이다. 삶의 변화를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자신이 사는 공간 중심으로 공동체가 묶이고 활동해 왔지만 현대는 공간이 개인 소유의 개념으로 바뀌면서 누구든 공간 즉 땅을 소유한다면 그곳에서 생활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은 과거 공동체와는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을회 단체 형식의 회원제가 자연스럽게 형



사진 254 사계리 사무소 홈페이지

106) 사계리 사무소 홈페이지 참조. (<http://www.sagye.co.kr/index2.php>(검색일 2025. 11. 4.))

성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그러다보니 사계리 출신인 사람들이 생활 공간이 사계리가 아니더라도 사계리 마을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상황까지 형성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현상은 제주도 전역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이런 회원제가 타지역 사람들이 제주에 정착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제주도민의 배타성을 강조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3-2. 부녀회

사계리 부녀회는 사계리 주민 중 여성이고 결혼을 한 70세까지 모두를 포함한다. 외지인인 경우는 사계리 거주 기간이 3년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특별한 가입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입비, 회비 등 이런 것은 없다. 주로 활동하고 있는 부녀회 임원은 26명이고 회장 1명, 상임부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자문위원 1명, 감사 2명 그리고 나머지 모두 임원이다. 회장 선출은 전 회장이 상임부회장을 뽑고 상임부회장이 다음 회장이 되는 것으로 특별히 선거를 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사계리 부녀회 일년 행사는 1월 마을 신년하례 즉 새해 경로잔치에 참석한다. 신년하례는 산방복지회관에서 진행한다. 예전에는 2층에서 행사를 했는데 지금은 어르신들이 2층에 올라가기 힘들시다고 행사를 1층에서 하고 있다. 음식을 준비해 식사를 하면서 세배를 한다.

신년하례 이후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을 진행한다. 회장 선출 및 임원직 구성 등을 결정하고 1년 활동을 계획한다. 그리고 청년회 정기총회, 제주시 향우회 이취임식, 사계초등학교 총동문회 행사 등에 부녀회에서 국수, 떡 등의 음식을 담당한다.



사진 255 사계리부녀회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부녀회 제공)



사진 256 사계리 어르신 식사 대접(부녀회 제공)

부녀회에서 돈까스를 공동구매해 일년에 두 번 판매를 하고 있다. 그 수익으로 연말에 불이웃돕기를 한다. 작년까지는 불이웃돕기 수익 사업으로 1년에 2회 일일포차를 진행했는데 올해부터는 돈까스 판매로 변경하였다. 수익이 생각보다는 많이 나오는 편이다. 수익금으로 연말에 사계리 어르신들 식사도 대접한다.

4월에는 안덕면 부녀회장들이 모여서 독거노인 반찬봉사를 한다. 각 마을 부녀회장이 마을별 10명을 추천해서 집으로 찾아가 반찬을 만들어주고 있다. 반찬봉사는 6월, 9월에도 진행한다. 안덕면 체육대회에도 참가한다.

5월 어버이날에는 음식은 만들지 않고 어른들과 놀기만 한다. 음식은 주문해서 조달한다. 레크레이션 진행, 노래도 부르고, 식사하는 것도 옆에서 도와주고 하지만 음식을 만드는 것은 하지 않는다. 부처님오신날에는 산방굴사에 참석한다. 선진지 견학으로 전남 여수시 화정면 하화도를 방문하였다.

9월에는 독거노인 추석상차림 봉사를 한다. 안덕면 부녀회에서 안덕면 전체 1,000명 대상으로 추석상차림을 포장해서 집으로 배달해주는 방식이다. 안덕면 각 마을 부녀회에서 마을 경로당에 방석 보내기 봉사를



사진 261 추석상차림 봉사(부녀회 제공)



사진 262 경로당 반찬봉사(부녀회 제공)



사진 257 반찬봉사(부녀회 제공)



사진 258 반찬과 김장 봉사(부녀회 제공)



사진 263 김장(부녀회 제공)



사진 264 환경공예교실(부녀회 제공)



사진 259 하화도 선진지견학 "사계리부녀회와 함께하는 꽃섬길 나들이" 1(부녀회 제공)



사진 260 하화도 선진지견학 "사계리부녀회와 함께하는 꽃섬길 나들이" 2(부녀회 제공)

하는데 안 입는 옷, 헌옷을 수거하여 그 수익금으로 보내고 있다.

11월에는 올레걷기 행사를 하고 있다. 12월에는 김장을 하는데 절임배추를 사서 양념만 부녀회에서 직접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독거노인 등 김장하기 힘든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나눔을 하고 있다.

부녀회는 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마을에서는 부녀회와 또 다른 활동을 하는 부녀회 좌판이라는 이름으로 용머리 해안 해산물 판매를 맡아서 하는 팀도 있다. 용머리 해안 해산물 판매는 3년에 한번 마을에서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한다. 그 모집을 통해 용머리 해안 해산물 판매를 맡아서 3년을 진행한다고 한다. 마을에 임대비를 내고 부녀회 좌판팀이 조를 짜서 순번으로 돌아가며 해산물 판매를 하고 그 수익은 팀이 공



사진 265 사계리부녀회 올레 걷기 행사(부녀회 제공)



사진 266 사계리부녀회 기부(부녀회 제공)

평하게 나눈다. 이 외에도 사계리 주방팀이라고 해서 산방복지회관에서 경조사를 진행할 경우 주방을 맡아서 하는 팀도 있다. 부녀회에서 산방복지회관을 관리한다. 복지회관이 마을 소유다 보니 경조사 한 건당 어느 정도의 임대비를 내고 관리를 하고 있다. 작년 산방복지회관에서 진행한 경조사는 30여 건이었다. 올해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한다. 부녀회 주방팀에서 발생한 수익은 노인회와 연계하여 어르신 나들이 행사를 진행한다.

김란 부녀회장은 올해 10년째 부녀회 활동을 하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부녀회 임원 평균 연령대가 40~50세가 넘었는데 지금은 참여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 외지인 비율도 임원 전체 40% 가까이 된다고 한다.

3-3. 청년회

사계리 청년회는 1980년에 마을 방법을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 방법창립기념일이 45주년이라고 한다. 사계리 청년회 기준은 사계리 출신이면 사계리에 살든 안 살든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나이는 50세 이하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결혼 유무도 상관없다. 외지인인 경우도 거주지가 사계리이며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회 회장은 1년 단위로 새로 취임한다. 임원은 회장, 상임부회장, 내외무부회장, 직전 회장, 간사 2명, 총무로 되어있고 회원은 33명이다.

연간 활동은 1월에는 마을 신년하례에 참석을 하고, 역대회장 간담회, 임원 상견례, 정기총회 취임식 등을 한다. 2월에는 자매결연을 맺은 위미2리, 연합청년회 정기총회에 참석하는데 서로 참석한다고 한다.

3월에는 방법창립기념일 기념행사 진행과 안덕면 종합체육대회 준비를 한다. 4월에는 안덕면 종합체육



사진 267 사계리청년회 자율방법대 창립 기념행사(청년회 제공)



사진 268 사계리청년회 농번기일손돕기 행사(청년회 제공)



사진 269 무인도서 정화활동(청년회 제공)



사진 270 형제섬 정화 활동 모습(청년회 제공)

대회 참석을 한다.

5월에는 어버이날 행사를 하고 농사 봉사활동으로 마늘 뽑기 등을 한다. 부처님오신날 산방굴사는 임원만 참석한다.

5월 중순에서 6월까지의 방법창립 기간으로 마늘 수매가 끝날 때까지 안덕과출소와 함께 방법 순찰을 한다. 요즘 농산물 절취 절도가 많아 순찰을 돈다고 한다. 경찰은 경찰대로 들고 청년회에서는 순번을 정해서 돈다. 7월에는 마을 어르신들 집 방충망 교체 봉사활동을 한다. 8월~11월까지 형제섬 정화활동 4회를 한다. 형제섬 정화활동은 8월에 마을회, 부녀회, 청년회가 했고, 9월에는 청년회, 남부발전소와 했고, 10월에는 청년회, 사계리축구회, 지오서포터즈와 했다. 11월은 마을회, 부녀회, 청년회 이렇게 활동을 하였다.



사진 271 사계리 해안변 정화활동(청년회 제공)



사진 272 절장개 정화 활동 모습(청년회 제공)



사진 273 사계리청년회 마을방역활동(청년회 제공)



사진 274 사계리 한가위 노래자랑(청년회 제공)

9월에는 마을 골목길 방역을 하는 보건소에서 기계를 싣고 약은 자체조달을 해서 방역을 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보건소에서 방역사업을 민간업체에 이관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민간업체가 하게 되면 큰길 위주로 방역을 하기 때문에 청년회에서는 별도로 방역을 하기로 했다. 사계리 셋길이 복잡하고 작은 골목길 방역이 안 되는 부분을 생각해서이다.

10월 혹은 9월에는 추석 한가위 노래자랑을 한다. 청년회에서 가장 큰 행사라고 한다. 이후 임시총회를 해서 회장, 부회장을 선임하면 일년 행사가 마무리 된다.

3-4. 계(楫)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공동으로 일을 할 때, 혹은 공동으로 무언가를 사거나 팔거나 등 그것이 표출적인 것이든 도구적인 것이든, 공동의 관심 주제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집단을 이루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이러한 공동이익의 추구를 위한 집단 형성은 계(契)의 조직화로 나타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¹⁰⁷⁾

우리나라에서 계(契)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삼국유사』다.

“景德王代康州 今晋州. 一作剛州, 則今順安. 善士數十人志求西方於州境創彌陀寺約萬日爲契. ……(경덕왕 때 강주 지금의 진주이다. 또는 강주라고도 했는데 즉 지금의 순안이다. 의 선사 수십 명이 서방을 구하려는 뜻으로 고을 경내에 미타사를 세우고 만일을 기약하고 계를 만들었다. ……)”¹⁰⁸⁾

경덕왕 때 강주에 미타사 절에서 여종 옥면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정성껏 기도하였다. 옥면은 기도의 힘으로 절 대들보를 뚫고 하늘로 올라가 서방정토로 갔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 중에 미타사 절을 세울 때 훗날을 기약하기 위해 계를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고려시대 기록에는

“資諒, 字湛然, 應圭之弟也, 莊重寡言. 毅宗朝, 文臣大盛, 資諒年十六, 與儒家子弟, 約爲契. 欲併引武人吳光陟·文章弼, 衆皆不肯. 資諒曰, “交遊中, 文·武俱備可矣. 若拒之, 後必有悔.” 衆從之. 未幾, 鄭仲夫作亂, 同契者, 賴光陟·章弼營救, 皆免. (유자량은 자가 담연이며, 유응규의 동생으로, 씩씩하고 의젓하면서 말수가 적었다. 의종 때 문신들이 크게 번성하였는데, 유자량은 16세의 나이로 유가의 자제들과 어울려 계를 만들자 약조했었다. 무인 오광척과 문장필을 끌어들이어 함께 하고자 하였으나 계원들이 모두 좋아하지 않았다. 유자량이 말하기를, “서로 사귀는데 문·무가 모두 갖추어지는 것이 옳다. 만일 거절하면 뒷날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일세.”라고 하니, 모두 그를 좇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중부가 변란을 일으키자 계원들은 오광척과 문장필이 힘써 구해준 덕분에 모두 (죽음을) 면하였다.)¹⁰⁹⁾

107) 김석준, 「제주도 중산간부락민의 계집단 참여와 사회적 유대」, 『제주도연구 제2집』, 제주도연구회, 1985, 305쪽.

108) 삼국유사>권 제5>제7감통>옥면비념불서승, 국사편찬위원회(한국고대사료 DB).

109) 고려사>열전 권제12>제신>유응규>유자량, 국사편찬위원회(한국고대사료 DB).

기록에 의하면 유자량은 고종 16년(1229년)에 80세의 나이로 죽었다고 되어있다. 유자량 나이 16세는 1165년으로 추정된다. 위 기록은 의종 24년(1170년)에 일어난 무신정변(武臣政變)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유자량이 문인들과 계를 구성하고 계원으로 무인 두 명을 추가로 받아주면서 무신정변 당시 문인 계원들의 죽음을 면한 것이다.

계는 『삼국유사』의 내용을 정설로 본다면 신라 제35대 경덕왕은 재위 기간이 742~765년으로 1200년이 넘는 세월을 지속적으로 공동체 조직의 모습으로 이어져 온 것이다. 고려시대를 정설로 봐도 800년이 넘는 세월을 이어온 것이다. 이는 인간의 사회성을 대변하는 것이다.

2010년 조사보고서¹¹⁰⁾에 의하면 제주에서는 계를 접, 제 등으로도 부른다. 조사 지역은 제주시, 조천읍, 구좌읍, 성산읍, 추자면, 우도면, 표선면, 남원읍, 서귀포시, 안덕면, 대정읍, 한경면, 한림읍, 애월읍이다. 각 지역에 2개에서 9개 마을 선정하여 실행하였다. 안덕면 조사 내용을 보면 화순리 답회(논농사 관련), 동계서당(가문 교육 관련), 배남밭 물방아계(공동경비와 물방에 공동 사용), 테우리계(방목 및 목장 관리), 영은동 상여계(상여 공동 제작 및 공동 사용), 잠수계(해녀 물질 관련), 선박계(어로정보 공유 등), 어부계(정보공유, 친목), 의리형제 쌀제(대소사), 덕수리 동부락 화단지(상여 공동제작 및 공동 사용), 별제(마을의례), 물 7레접(공동 경비 및 물 7레 공동 사용), 곳바구리물통(물통 공동 제작 및 공동 사용), 소낭밭제(조림사업 및 땀감), 협동친목회(관광 친목), 뚝¹¹¹⁾접(이동식 천막 제작 및 공동 사용), 상창리 심의저축계(야학 운영 경비), 임업계(조림사업 및 친목), 상여계(상여 공동제작 및 공동사용), 어머니 쌀계(경조사 때 쌀모으기), 관복계(훈례 관복 공동제작 및 공동 사용), 돛개(독교)제(가마 공동제작 및 공동 사용), 산담계(산담공사), 참기름틀계(기름틀 공동 제작 및 공동작업), 뜰계(이동식 천막 제작 및 공동 사용)가 조사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화순리 잠수계이다. 화순리 잠수계는 구성원 40여 명으로 구성되었고 결성은 1960년대, 해산은 2000년이다. 목적은 해녀들의 안전한 조업과 생산성 증대로 해녀들의 권익을 높이는 것이고 계원들의 친목 도모 및 상부상조이다. 내용은 금채기간 지키기, 공동어장 보호와 감시선 운영, 불턱·탈 의장·직판장·창고 등을 공동 건립 및 운영, 입어권 부여, 금채기간 및 허채기간 결정, 해녀들 간의 친목 도모 및 상부상조 등이다. 현재 잠수회의 역할과 동일하다. 어촌계 형성 전의 모습으로 보인다.

사계리 마을 계를 본격적으로 조사하지 못하였으나 허월자와 이영택 부부의 면담 내용에서 과거 계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110)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도 접계계契문화조사보고서』, 일신출판사, 2010, 369쪽~395쪽.

111) 뜰은 짚, 띠, 부들 따위로 거적처럼 엮어 만든 것으로 비, 바람, 벌을 막는데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사계리 그릇계의 처음 모습은 큰일 경조사 때 8촌에서 10촌 안에 ‘퀘당(권당)들 집 그릇을 모아서 집마다 그릇에 색을 칠해 구분하여 사용하고 다시 돌려주는 형식이었다.

옛날은 이 그 멧질 때, 멧질 때 가족들 친족들 다 모드잖아. 한 팔촌, 팔촌까지 막 멧 촌까지 막 와. 그추록 허민이 멧질 때 사발이 족주게. 경 허민 퀘당덜 사발덜 문탁 빌령 허젠 허민, 이런 디 문탁 뺑기 칠허근에 무슨 색깔 무슨 색깔 행 강 이거 배와근에. 올 땀 훗아근에 그거 보멍 훗앙 완. 아이고 옛날 우리도 그추록 허멍 살았저. 우리 어무니네 시대사 오죽행 살아사.

(옛날은 이 그 멧질 때, 멧질 때 가족들 친족들 다 모여들잖아. 한 팔촌, 팔촌까지 막 멧 촌까지 막 와. 그렇게 하면 멧질 때 사발이 적지. 그렇게 하면 권당들 사발들 모두 빌려서 하려고 하면, 이런 데 모두 페인트 칠해서 무슨 색깔 무슨 색깔 해서, 가서 이거 보여서. 올 땀 훗아서 그거 보면서 훗아서 왔어. 아이고 옛날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 우리 어머니네 시대사 오죽해서 살았겠니.)

- 허월자 구술

그 옛날에는 막 옛날에는 집집마다 퀘당덜끼리 사발을 조금씩 빌려다근에 접시면 접시 멧 개 그 뺑기 칠허멍 그 추록 헤근에 모다당 큰일을 치러신디 나중에는 그릇계를 했어.

(그 옛날에는 막 옛날에는 집집마다 권당(眷黨)들끼리 사발을 조금씩 빌려서 접시면 접시 멧 개 그 페인트 칠하면서 그렇게 해서 모아서 큰일을 치렀는데 나중에는 그릇계를 했어.)

- 허월자 구술

경조사 때 친척 간에 그릇을 모아서 사용하다가 후에 그릇계를 만들게 된 것이다.

우리 어머니 시대에 그릇계를 허여근에. 그 그릇을 이 콘테나¹¹²⁾에 접시 혼 콘테나, 밥사발 혼 콘테나, 국사발 혼 콘테나, 정반 그추록 헤근에, 질구덕 질구덕으로 하나씩 헤근에 책임자. 우리가 영 계 아니가 경 허면은 그거 빌려주면 돈 받거든 경 허민 그 돈으로 허여근에 우리 뭐 사당도 먹고 돼지고기들도 돼지 사다근에 잡아근에 먹고 그추록덜 허여났인디, 서방덜 빌영. 그추록 허여근에 허고 그릇 책임자가 우리 어무니가 젤 일등 했어. 멧 년 우리 어무니네 집이 저디가 막 도당집이라고 옛날 도당 더곤 집이 없었어.

112) 콘테나는 플라스틱 컨테이너인 운반용 바구니를 말한다.

(우리 어머니 시대에 그릇계를 했어. 그 그릇을 이 컨테이너에 접시 한 컨테이너, 밥사발 한 컨테이너, 국사발 한 컨테이너, 쟁반 그렇게 해서, 바구니로 바구니로 하나씩 해서 책임자. 우리가 이렇게 계 아니냐 그렇게 하면 그거 빌려주면 돈 받거든 그렇게 하면 그 돈으로 해서 우리 뭐 사다가 먹고 돼지고기도 돼지 사다가 잡아서 먹고 그렇게들 해놨었는데, 서방들 빌어서. 그렇게 해서 하고 그릇 책임자가 우리 어머니가 제일 일등 했어. 몇 년 우리 어머니네 집이 저기 막 양철집이라고 옛날 양철 덮은 집이 없었어.)

- 허월자 구술

그릇계의 규모가 점점 커져 돈을 받고 빌려주기도 하였다. 그릇계 책임자는 그릇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릇 낫다근에 큰일 나면은 우리집이 와근에 우리 어무니 문밖 세어줘. 접시 멧 개, 종지 멧 개, 사발 멧 개. 거문 또 7저울 거 아니. 거민 영영 쓸멍 타진 거여. 건은 안 뉘주게. 큰일 뎅기당 보문 타지지 아녀냐. 다 사기 사발이난. 우리 어무닌이 영 허문 이거 타졌이나? 허문이 모르켜 허문 영 쓸어. 영 쓸민이 걸리잖아. 여기 허곰 톨아진 건 카트. 사오렌. 거문 큰일 집이서이 접시도 스무나문 개 빌려져근에 사오고, 그거 내놓는 돈도 많아. 사발도 타지고.

(그릇 낫다가 큰일(경조사) 나면 우리집에 와서 우리 어머니 모두 세어줘. 접시 몇 개, 종지 몇 개, 사발 몇 개. 그러면 또 가져올 거 아니.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쓸면서 떨어진 거야. 그것은 안 되지. 큰일 다니면서 보면 떨어지지잖아. 다 사기 사발이니깐.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하면 이거 떨어졌어? 하면 모르겠어 하면 이렇게 쓸어. 이렇게 쓸면 걸리잖아. 여기 조금 떨어진 것은 커트. 사오라고. 그러면 큰일 집에서 접시도 스무남은 개 깨져서 사 오고, 그거 내놓은 돈도 많아. 사발도 떨어지고.)

- 허월자 구술

그릇계 책임자는 그릇을 돌려받을 때 모든 그릇을 확인하고 그릇에 흠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흠집이 있는 경우 차용인에게 변상을 요구하였다. 변상한 돈은 그릇을 채워 넣기하고 계원들과 의논하여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였다.

과거에는 병풍계도 있었다고 한다. 돈이 없어 병풍을 쉽게 살 수도 없었다. 권당들끼리 돈을 모아 병풍 하나를 사면 제사 때 돌아가면서 빌려 썼다고 한다. 그런데 명절이 되면 문제가 생긴다. 병풍 하나로 모든 권당들 집에서 동시에 차례를 지낼 수 없기 때문이다. 병풍 하나로 첫번 차례를 지내면 다음 집으로 차례대로 돌면서 지내는 것이다.

병풍 사기가 경 쉽냐 경. 돈이 잇이난에게. 권당덜끼리. 우리 집이서 해 놔민 저레 강 또 허고 우리집이서 병풍 처 나민.

(병풍 사기가 그렇게 쉽냐 그렇게. 돈이 없었지. 권당들끼리. 우리 집에서 해 놔면 저리로 가서 또 하고 우리 집에서 병풍 처 나면.)

- 허월자 구술

출령 해 나민 그다음에 가주게.

(차리고 해 나면 그다음에 가지.)

- 이영택 구술

동네도 뉘고 형제간은 돌아가멍 병풍 처야주게. 형제간은 빌려줘야주게.

(동네도 뉘고 형제간은 돌아가면서 병풍 처야지. 형제간은 빌려줘야지.)

- 허월자 구술

그때는 병풍 하나가 온동네를 한바퀴 도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병풍은 제사, 명절에도 사용하지만 결혼식에서 사용되었다.

한자는 제사 때, 꽃 헌 거는 결혼할 때. 저런 디 그냥 상 출려지냐게 병풍 헤영 그거 모시는 맛으로게.

(한자는 제사 때, 꽃 헌 것은 결혼할 때. 저런 데 그냥 상 차려지냐. 병풍 해서 그거 모시는 맛으로.)

- 허월자 구술

과거에 병풍이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이었다.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차례가 끝나고 남편은 병풍을 지고 아내는 그릇 담긴 바구니를 지고 다음 차례를 지낼 친척집으로 이동하였던 것이다. 지금은 병풍이 더이상 그 쓸모가 없어지고 있다고 한다.

개난 이제 병풍이 썩엄져. 두 개난. 병풍이 썩엄서. 병풍이.

(그런데 이제 병풍이 썩고 있어. 두 개인데. 병풍이 썩고 있어. 병풍이.)

- 허월자 구술



사계리 수리계는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지만 오랜 세월 존재하고 지금도 있다. 사계리에서 식수는 ‘봉에뭇’에서 저다 먹었다. 수도가 처음 생길 때는 골목마다 하나씩 있었다고 한다. 1960년대에 집으로 수도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허월자는 1978년도에 자신의 집으로 수도가 들어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전에 온천물이런 허는 저 봉에뭇이런 현 물이 그거 저단 먹단에 그 물을 수도로 걸어서. 죽아 먹기가.

(그전에 온천물이라고 하는 저 ‘봉에뭇’이라고 하는 물이 그거 저다가 먹다가 그 물을 수도로 걸었어. 작아 먹기가.)

- 허월자 구술

수도가 없던 시절은 제사 때 권당들이 물을 저가는 것이 부조였다고 한다.

제사 때는 종갓집이 제사할 때는 그 권당들이 물 저가는 게 부지라. 이제는 뭐 쌀 한 말이며, 돈이며 험주만은 그 때는 물 한번 저가는 게.

(제사 때는 종갓집에 제사할 때는 그 권당들이 물 저가는 게 부조라. 이제는 뭐 쌀 한 말이며, 돈이며 하고 있지만은 그때는 물 한번 저가는 것이.)

- 이영택 구술

쌀이 어디 시니. 술도 사갈 땐 사. 술도 한 뿔도 사가고 그 맥주병으로 하나 들렁 갈 때도 시는디 물은 우선 경가 사. 물 안 경가민 막 옥 들어. 수도 엇일 땐 물이, 물이 문제.

(쌀이 어디 있어. 술도 사갈 때는 사. 술도 한 뿔도 사가고 그 맥주병으로 하나 들려서 갈 때도 있는데 물은 우선 저서 가야. 물 안 지고 가면 막 옥 들어. 수도 없을 땐 물이, 물이 문제.)

- 허월자 구술

목은학교 터 근처가 물통이었다. 사계리 수리계에서 그곳에 물통을 봤다고 한다. 그 이후 지하수를 이용하여 농업용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수리계에서 전기세 등을 관리 담당한다. 사계리 농부는 모두 수리계를 들어야 한다.

사계리 문화유산

1. 역사 문화
2. 생활 문화
3. 신앙 문화
4. 사계리 자연과 해양 문화

(일본 군인이 떠난 건물을 활용해서 학교는 만들었지만, 우리는 학교 안 다닐 때지만은, 여섯 살 때, 사계초등학교 8회가 1학년 교실이 없어서. 교실이 적어서. 바다에 가서 하고, 친구네 집에 가서 공부하고 했었지.)

- 이영택 구술

어렵게 학교를 들어가도 사친회비(師親會費)가 없어 학교를 못 가거나, 여자라는 이유로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야학을 겨우 다녔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근디, 그디 물이 엇언에 그 묵은학교에 물을 판, 물을 파난에, 그디 거 다 질어단 먹엇주. 물을 막 기프게 판. 거

1-1. 묵은학교

사계리 묵은학교가 생길 당시는 해방 직후 정부 수립 전이라 혼란기였고 국가 경제 또한 매우 어려운 시절이었다. 하지만 “오직 배워야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마을 주민들의 뜨거운 교육열로, 일본군이 사용했던 창고 4동을 교실로 개조해 제1회부터 4회까지 졸업생 158명을 배출하였다.¹¹⁴⁾ 묵은학교는 광복 이듬해인 1946년 12월 12일 사계리 속칭 ‘고개왓’(사계리 3509번지)에서 사계공립국민학교로 문을 열었다. 그러나 6·25 전쟁으로 학교 교사를 육군 제1훈련소 산하 장정 대기소¹¹⁵⁾로 활용하게 됨에 따라 UNKRA(유엔한국재건단)의 원조로 현재의 학교 위치에 석조로 2개 교실을 신축하고, 1952년 6월 1일 현재 자리로 사계국민학교를 이전하였다.

일본 군인이 떠난 건물을 활용해서 학교는 만들었지만, 우리 학교 안 텅길 때주만은, 여섯 살 때, 사계초등학교 팔회가 일학년 교실이 엇언, 교실이 족아부난, 바당에 강 허곡, 친구네 집이 강 공부허곡 헤넛주.

114) 사계초등학교는 1946년 9월 1일 사계 공립국민학교로 설립 인가, 1946년 12월 12일 사계리 3509 적산 건물 4교실을 임대하여 개교하고, 1950년 6월 1일 사계국민학교, 1996년 3월 1일 사계초등학교로 각각 개명되었다. 사계초등학교 홈페이지 참조. (<https://school.jje.go.kr/sagye/main.do>(검색일 2025. 11. 30.))

115) 황석규 외 2인,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구술조사- 부대시설 위치를 중심으로」,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019, 42쪽.



사진 275 묵은학교 터



사진 276 1949년 2월 23일 사계공립국민학교 제1회 졸업 기념 사진 (마을회 제공)



사진 277 1955년 5월 15일 사계국민학교상량 기념 사진(마을회 제공)



사진 278 옛 사계국민학교(마을회 제공)



사진 279 현재 사계초등학교 모습

기에서 물이 나와. 우리 어릴 때, 일곱 살 여덟 살 때.

(그런데, 거기 물이 없어서 그 묵은학교에 물을 끌어. 물을 파니까, 거기 거 다 길어다가 먹었지. 물을 막 깊게 끌어. 거기에서 물이 나왔지. 우리 어릴 때, 일곱 살, 여덟 살 때.)

- 허월자 구술

학교도 아이들이 사는 생활공간이다 보니 물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이다. 현재는 돌로 대충 막아 놓은 곳이지만 실제 파보면 물이 나올 거라는 구술도 있었다.

우리 저 초등학교, 묵은학교 땡길 때는 다 사계 따인 다 일로 와서 일로 학교를 다녔어. 이던 칠쿨왓이엔¹¹⁶⁾ 헨에, 칠쿨왓이엔 헨 거 칩 모양으로 꾸작 허니까 칠쿨왓.

(우리 저 초등학교, 묵은학교 다닐 때는 다 사계 아이는 다 여기로 와서 여기로 학교를 다녔어. 여기는 '칠쿨왓'이라고 해서, '칠쿨왓'이라고 한 것은 칩 모양으로 쪽 뺐으니까 '칠쿨왓'.)

- 이영택 구술

116) 칠쿨왓은 송죽동의 지명을 말한다.

옛날 묵은학교 한번, 옛날에 건물. 일본 사람들이 저 뭐 건물만 지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일제 때. 경 헨 가니까 운동을 못했어, 운동회를. 겐, 요디 큰 밭 한 천칠팔백 평짜리 밭이 하나 잇었는디, 조 갈았단, 학부형들이 간 그 조를 맺어, 조그르를 맺어. 그걸 기부허연.

(옛날 묵은학교 한번, 옛날에 건물. 일본 사람들이 저 뭐 건물만 지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일제 때. 그렇게 해서 가니까 운동을 못했어, 운동회를. 그래서, 여기 큰 밭 한 천칠팔백 평짜리 밭이 하나 있었는데, 조 갈았다가 학부형들이 가서 그 조를 맺어. 조그루를 맺어. 그걸 기부했지.)

- 이영택 구술

1-2. 산방연대

연대란 횃불과 연기를 이용하여 정치·군사적으로 급한 소식을 전하던 통신수단이였다. 봉수대와는 기능 면에서 차이가 없지만 연대는 주로 구릉이나 해변에 설치되었고, 봉수대는 산 정상에 설치하여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횃불을 피워 신호를 보냈다. 산방 연대는 사계리 산방산 앞 도로변 해안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모슬진에 소속된 것으로 대정현 소속의 별장 6명, 봉군 12명이 배치되어 한 달에 5일씩 6교대로 24시간 동안 해안선을 지켰다고 하며, 동쪽으로 당포 연대(하예동-직선 5.7km), 서쪽으로 무수 연대(하모리-6km)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¹¹⁷⁾



사진 280 산방연대

나도 이 고장에서 태어나시난에, 원래 연대가 저렇게 크질 안 했어요. 요렇게 연대에 가민 요 밑에 까만 돌 그실린 거 셔나고, 요렇게 싸지고, 우린 눈으로 봤는디, 저렇게 거창하게 크지 안 해났어.

- 신용하 구술

117)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포털(<https://www.heritage.go.kr/heri/idx/index.do>(검색일 2025. 11. 30.))

뜻은 잘 모르곡 ‘어디쯤 가사?’라고 물으면 ‘복병목쯤 가실 거우다.’ 라고 하면 거기쯤 생각하는 거주마씨.
 (뜻은 잘 모르고 ‘어디쯤 갔니?’라고 물으면 ‘복병목쯤 갔을 거예요.’ 라고 하면 거기쯤 생각하는 것이죠.)
 -장행관 구술

연디동산이엔. 밤에는 불빛, 낮에는 연기 피와서 통신 역할을 허는디, 지형적으로 훈련 배 엘에스티, 미군 수송선
 와근에 직접 훈련해났주.
 -신용하 구술

이곳 산방연대는 주민들이 ‘연디동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복병목, 복봉목이라고 불리는 고개 중앙에 연대가 복원되어 있다. 기록에 따르면 조선 세종 19년(1437)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쌓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1950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없어지고 연대의 주춧돌로 보이는 돌들만이 남아 있었고 지금 연대는 최근에 보수한 것이다.¹¹⁸⁾

1-3. 단산

대정읍 인성리와 안덕면 사계리에 걸쳐 있는 오름인 단산의 다른 이름은 바굼지 오름¹¹⁹⁾이다. 바굼지 오름 외에도 ‘바구미 오름’ 또는 ‘바구니 오름’이라고도 불리는데 단산(簾山)이라는 말도 바굼지 오름의 차자 표기이다.¹²⁰⁾ 그러나 ‘탐라순력도’에는 단산을 파군산(破軍山)과 파군산악(破軍山岳)으로 표기하고 있다. 오름의 형체가 대바구니(대를 엮어서 만든 바구니)와 같다는 데서 ‘바구미 오름’이라 부르다가 ‘바굼지 오름’¹²¹⁾이 되었다고 한다.

옛날에 이디 물이 막 이렇게 차난 모양이라. 옛날 옛날에, 계난 거기가 바굼지만큼 밖에 안 남앗젠 헨에, 바굼지 오름이라고 허고,

118) 산방연대 표지판 참조.

119) 단산 입구 안내 표지판에 ‘날개를 편 박쥐를 닮아 바굼지오름’이라고 쓰여 있다.

120) 한글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우리말 이름을 한자로 표기하는 방법으로 차자 표기법(借字表記法)은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우리말을 기록하던 표기법을 말한다.

121) 바굼지는 바구니의 제주 방언이다.

(옛날에 여기 물이 막 이렇게 차던 모양이야. 옛날 옛날에, 그러니까 거기가 바구니만큼 밖에 안 남았다고 해서 ‘바굼지오름’이라고 하고.)
 -허월자 구술

계난, 금산이오름은 그추록 물이 막 하난에, 그디 물 찰 때 요만이 금만이 남아부난 금산이오름 그렇게 지었잖아. 산방산은 산만이 남으난, 산방산 이엔 허곡.

(그러니까, ‘금산이오름’은 그렇게 물이 막 많으니까, 거기 물이 찰 때 요만큼 금만큼만 남아서 ‘금산이오름’ 이렇게 지었잖아. 산방산은 산만큼 남으니까, 산방산이라고 하고.)
 -허월자 구술



사진 281 단산

이곳 단산에는 여러 가지 전설이 전한다. 전설에 의하면 옛날 마을과 산야가 모두 물에 잠겼을 때 단산(바굼지오름)이 대바구니만큼 보였다고 해서 ‘바굼지오름’이라고 했는데 한자로 단산(簾山)이라고 표기를 했다고 전하기도 하고, 오름의 모양새가 박쥐와 닮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전한다.

이 단산이 박쥐 형상이우다게. 형상이, 박쥐. 이쪽 말고 요디 각도로 보면, 요쪽 면에서 보면, 머리, 코 이렇게 앞에 잇인디, 저쪽 보성에서 봐도 마찬가지로, 진짜로 보이는 거는 모슬포에서 사계레 와야 돼. 모슬포에서 이디로 오면은 박쥐가 있어. 서북쪽으로 날아가. 박쥐는 나쁜 뜻이 아니고 눈에 따라 박쥐는 행운이라, 문양도 거 보면, 거 가구에 보면 박쥐 문양 잇잖아예, 만자 무늬도 많이 보이교예. 좋은 동물이라.

(이 단산이 박쥐 형상이예요. 형상이, 박쥐. 이쪽 말고 여기 각도로 보면, 요쪽 면에서 보면, 머리, 코 이렇게 앞에 있는데, 저쪽 보성에서 봐도 마찬가지로, 진짜로 보이는 것은 모슬포에서 사계로 와야 돼. 모슬포에서 여기로 오면은 박쥐가 있어. 서북쪽으로 날아가. 박쥐는 나쁜 뜻이 아니고 눈에 따라 박쥐는 행운이라, 문양도 거 보면 거 가구에 보면 박쥐 문양 잇잖아요, 만자 무늬도 많이 보이교요. 좋은 동물이라.)

-고희봉 구술

바굼지 오름의 총면적은 약 339,982㎡, 둘레는 2,566m, 높이는 158m이다. 특이한 것은 제주의 일반적인 오름 형태가 유연한 곡선인데, 이곳 단산은 봉우리가 칼날처럼 날카롭고 수직에 가까운 벼랑으로 되어있어 독특한 정기를 뿜어낸다. 그리고 단산 바로 앞 기슭에는 대정향교가 있으며, 서쪽 오름 입구에는 단산사라는 태고종 사찰도 있다. 그리고 새로 난 길을 마주 보고 금산이 오름이 있다. 단산과 금산이 오름 사이에 있는 사계리와 대정 고을 사람들이 단골 길로 사랑받던 좁다란 ‘새미고개’가 있다. 현재 ‘바굼지오름’ 남쪽 경사면은 가파른 절벽이 있고 그 주변 풀밭에는 소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으며 서쪽과 북쪽으로는 오름 정상으로 올라가는 산책로 조성되어 있다. 오름에서 만난 지역 주민들은 4월과 5월 봄에 빨간색에서 검은색으로 익어가는 상동을 채취하러 자주 온다고 하였다. 상동 열매를 사계리에서는 ‘삼동’, 또는 ‘산동’이라고 부른다.

단산이 가든 산동 이서. 가는 디마다 산동이라. 강은에 앓안 노래 부르멍 하나씩 탕 먹고. 옛날에 집집마다 쉼 키 올 때는 소나무가 들성들성 헛인디, 출 비난 이제, 단산이 막 잔디밭이라고 과장되게 허멍, 출왓이라 났어. 산방 산도.

(단산에 가면 삼동 있어. 가는 데마다 삼동이야. 가서 앉아서 노래 부르면서 하나씩 따서 먹고. 옛날에 집집마다 소 키울 때는 소나무가 들성들성 했는데, 풀 비니까 이제, 단산이 막 잔디밭이라고 과장되게 하면서, 풀밭이었어. 산방산도.)

- 고희봉 구술

1-4. 대정향교

단산을 뒤로 하고 서쪽으로 금산이 오름과 새미물, 동쪽으로는 거대한 산방산이 있어 풍수적으로도 영험한 명당으로 전해지는 대정향교는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3126번지에 있다. 깎아지른 듯한 벼랑과 함께 독특한 정기를 뿜어내는 단산 남동쪽에 자리 잡은 대정향교는 예부터 선비들의 왕래가 잦았던 것으로 보인다. 향교란 공자를 비롯한 여러 성현께 제사 지내고, 지방 백성의 교육과 교화를 위하여 세운 국립 교육기관을 말한다.



사진 282 대정향교

역사서에 의하면 대정향교는 조선 태종 16년(1416)에 세웠는데 이후 터가 좋지 않다고 하여 여러 차례 옮기다가 효종 4년(1653)에 제주목사 이원진(李元鎭)에 의해 현재의 위치인 단산 아래로 옮겼다고 한다. 그리고 영조 48년(1772)에는 명륜당을, 헌종 원년(1834)에는 대성전을 다시 지었다. 추사 김정희가 유배 생활을 할 때 이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다고 전한다.¹²²⁾ 순조 때 현감 변경봉이 주자필체를 본떠 명륜당 편액을 내 걸었고, 당시 제주로 유배를 온 추사가 헌종 12년(1846) 훈장 강사공의 요청으로 대정향교의 기숙사인 동재에 ‘의문당’이라는 글씨를 써주었다고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 대정향교의 재원은 임금이 하사한 학전(學田)으로 유지되었으나 서원이 발달하자 유생들이 서원으로 몰려들어 서서히 그 힘이 약해졌다고 전한다.¹²³⁾

우리 어린 땀데 나기 전일부터 단산 앞이는 향교가 있었어. 향교, 그때 차 웃인 때니까. 중문, 대정, 안덕, 삼 개 읍면이 그디 향교에 덩기고 뭘 할 때, 물 탕근에 오면은 그 물, 이제 같으면, 저 주차장이지. 그래서 뉘 내불민 갈 때 탕 가곡. 단산에 물을 내불어. 그 물들 틀어 먹당은에 주인이 왕은에 탕 가곡.

(우리 어릴 때인데 나기 전일부터 단산 앞에는 향교가 있었어. 향교, 그때 차 없는 때이니까. 중문, 대정, 안덕, 삼 개 읍면이 거기 향교에 다니고 뭘 할 때, 말 타고 오면은 그 말, 이제 같으면 저, 주차장이지. 그래서 뉘서 내버리면 갈 때 타고 가고. 단산에 말을 내버려. 그 말들 뜯어 먹다가 주인이 와서 타고 가고.)

- 이영택 구술

대정향교의 건축은 앞쪽으로 강학 공간인 명륜당이 북향하여 자리 잡고, 뒤쪽에 제향 공간인 대성전이 남쪽을 향하여 자리 잡아, 전학후묘의 배치를 이루고 있다. 지금 남아 있는 건물로는 대성전과 명륜당, 동재·서재, 내삼문 등이 있다.

‘의문당’이라는 편액과 함께 제주로 유배와 있던 추사 김정희의 숨결이 스며있는 곳인 대정향교는 많은 개보수로 본래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주위에 큰 소나무들이 있어 운치를 더한다.

그디 한자 배우레 덩기곡, 거 대학교라 대학교, 그딘 대학교.

(거기 한자 배우러 다니고, 거 대학교라 대학교, 거기는 대학교.)

- 허월자 구술

122)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https://www.heritage.go.kr/heri/idx/index.do>(검색일 2025. 11. 30.))

123) 오성찬, 『제주의 마을 시리즈-귀양객들 님이 스민 大靜고을』, 반석, 1988, 39쪽.

현대에 들어서서 유림의 수는 많이 줄었으나, 현재 대정향교 유림회에서는 공자를 비롯한 선현(先賢)들에게 지내는 제사인 석전대제(釋奠大祭)를 비롯하여, 다도, 제주 전통음식 만들기 선비 체험 등을 진행한다. 2025년에도 안덕면 주민자치 참여 예산으로 ‘도포자락 휘날리며’ 선비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서예와 다도에 관심 있는 지역민과 관광객이 선비 복식을 착용하고 유교 문화를 체험하는 활동이었다. 또한 희망자에게는 전통 혼례를 재현하거나 직접 혼례 예식을 진행하기도 한다.

2025년 여름 대정향교에서는 지역 주민 및 어린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도, 붓글씨 등을 직접 체험하고 써보는 선비체험 행사를 실시하였다. 선비체험을 통해 참가자들은 옛 선인들의 정신을 느끼고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된다.

1-5. 황우치 해변과 향만대

‘황우치’는 사계리와 화순리 바다의 경계인 ‘소금막’과 용머리 사이의 바다를 일컫는다. 이곳은 과거에 사계와 화순 해녀들이 공동으로 물질을 하던 곳이기도 하다. 1994년 화순항 방파제 설치 후 후내기 현상으로 ‘황우치’ 모래가 화순항을 메우게 되었다. 2014년 ‘황우치’ 앞바다에 삼발이를 투석하여 이러한 현상을 막았다.

‘황우치’라는 지명 대신 이곳 해변을 향만대라고 부르며, 다른 이름으로는 마을에서 이곳으로 넘어오는 곳이 고개, 등성이라서 ‘복병목’, ‘복봉목’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황우치’ 해안의 화순리 해안 지경에는 염막, ‘소그막’, 또는 ‘소금막’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옛날에는 막을 치고, 소금을 만들었다고 해서 ‘소그막’, ‘소금막’이라 불렀다고 한다.

황우치에서 소그막까지 우리 사계 바당. 우리가 강은에 잔소리를 잡아다가 여기 투하하여. 소라 새끼를 비와 가지고 크면은 우리가 그냥 자연산인 거. 삼발이를 놓으면은 그 물 먹젠 물건들이 완전 달려드는 거. 거기 삼발이 놓젠 하난 돌 이만큼 놔다니깐. 세 군데 이렇게 길게 놔어.

(‘황우치’에서 ‘소금막’까지 우리 사계리 바다. 우리가 가서 새끼 소라를 잡아 여기에 투하하지. 새끼 소라를 비워서 크면 그것이 자연산이지. 삼발이를 놓으면 그 물 먹려고 물건들이 완전 달려드는 거야. 거기 삼발이 놓으려고 하니깐 돌 이만큼 만들었다니깐. 세 군데 이렇게 길게 놔어.)

- 천영자 구술

복봉목, 목은 돌아가는 디고, 복봉목? 나는 가끔 듣는다, 원래 연대목이엔 해났는데,

- 신용하 구술

한때 제주에서 촬영된 그룹 뉴진스의 새 뮤직비디오 덕분에 입소문을 타면서 큰 호응을 얻었던 ‘황우치’ 해변은 지질트레일의 주요 코스이면서 해녀들에게는 어장으로서도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황우치’ 해안의 모래가 사라지고 ‘황우치’ 동쪽에 쌓여 지형을 바꿔 놓은 데다가, 옛 모습과 기능을 잃어가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¹²⁴⁾

모래밭, 모래밭인데 옛날엔 이거 자연항 이거, 육이오 때에 제일 훈련소, 엘에스티 연락선. 훈련병 태우고 와서 훈련하고 다시 그 배로 퇴소하고 육지로 전진 배치하고 그런 것이 이 황우치라고, 이게 황우치 지역 이름이고, 향만대라고 그러합니다. 여기 향만대 여기 초소가 있었어요. 향만 두레라고 그래서 그거를 향만대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지금은 막 모래가 끌여가지고, 바닷물에 끌여가 버려가지고, 돌이, 바위가 많이 나왔어요. 퇴적층이 바닥이 났어요. 옛날에 모래가 많이 쌓였는데.

- 신용하 구술

향만대라는 지명은 한국전쟁 당시 이곳을 통해 전국의 장정들이 미군이 지원한 LST를 타고 군에 입대(入



사진 283 황우치 해변



사진 284 향만대 안내판

124) 고성식, 「[해안사구의 개발건]③제주 황우치 해변에 33만t 모래 붓고도 침식 막지 못해」, 『연합뉴스』, 2025.6.29. (<https://www.yna.co.kr/view/AKR20250626063000056?input=1195m>(검색일 2025.08.17.))

隊)하기도 하고, 또 훈련을 마친 군인들이 다시 이곳을 거쳐 출정(出征)하였다 하여 명명되었다. 당시 항만대에 도착한 신병들은 바로 훈련소로 입소하지 않고 수용대 소속인 장병대기소에서 3~4일 대기하며 간단한 신체검사 등을 받고 훈련소에 입소하였다. 만일 문맹인 신병들의 경우에는 군사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 최대 2주 동안 한글을 배우고 훈련소로 입소하였다고 한다. 당시 LST 1척은 신병 최소 250명을 싣고 입도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매일 2척 이상의 LST가 항만대에 접안했다.¹²⁵⁾

옛날에 군인들 배 정박 해난 디는 저, 황우치, 모살밭에.

(옛날에 군인들 배 정박 했던 데는 저 '황우치', 모래밭에.)

- 고육연 구술

역사적으로 항만대는 한반도의 슬픈 역사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 곳이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의 주둔지였고, 태평양 전쟁을 지나 제주 4·3사건, 한국전쟁과 중공군 포로수용소까지 굵직굵직한 한반도 근대사의 이야기가 이곳을 통해 펼쳐진다.

거기서 이제 막 만들켄 해도, 여기 주민들이 느시 못허게 헨에, 이디 관광지 아냐. 이디 용머리. 관광지도 못하고 헐 거난, 이디, 막막 허여도, 허지 못허게, 주민들이 다 일어산 못허게 허니까 황우치 그 모살에 배 매는 디, 큰 배들 왕 메국 다 허켄 헛인디, 못허게 허난, 게난 거 강정 거기 갓잖아.

(거기서 이제 막 만들겠다고 해도, 여기 주민들이 결국 못 하게 했어, 여기 관광지잖아, 여기 용머리. 관광지도 못하고 할 거니까, 여기 마구마구 해도, 하지 못하게, 주민들이 다 일어나서 못하게 하니까 '황우치' 그 모래에 배 매는 데, 큰 배들 와서 매고 다 하겠다고 했는데,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강정 거기 갓잖아.)

- 고육연 구술

게다가 근대를 지나 현대에 이르면서는 해군기지 건설이라는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말미암아, 투쟁으로 점철된 곳이기도 하다. 결국 주민들의 반대로 해군기지는 무산되었으나, 해군기지가 실현되었더라면 지금 사계항의 풍광도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125) 황석규·고광명·송훈,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구술조사-부대시설 위치를 중심으로」,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019, 40쪽~41쪽.

1-6. 진지동굴

사계리 용머리 해안에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갯도 진지가 있다. 동굴은 용머리 해안 출구 방향에 있는데,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들이 경계초소로 사용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파놓은 동굴이다. 용머리 해안의 갯도 진지동굴은 용머리 해안을 입구에서 한 바퀴 돌고 나오는 출구 근처에서 볼 수 있다. 지리적으로 화순항을 통해 일본군의 군수물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화순항 사수가 아주 중요한 임무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런 전략적 이유로 산방산 용머리 앞의 갯도를 비롯해, 다양한 장소에 일본군들이 갯도를 만들어 놓았다.¹²⁶⁾



사진 285 진지동굴

옛날에 진지동굴 요쪽에 나가면, 이쪽에 올라가면 있고. 요쪽에 올라가는 요 방향에 있고, 저 넘어서 서쪽에 가면 조금 내려가면 바위에 우리가 아는 것은, 더 나올 수도 있죠.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세

군데인데, 진지동굴 없는 데가 없어요. 아무 지역

- 신용하 구술

126) 고영철의 역사교실>사계리 용머리 해안갯도진지 참조. (http://www.jejuhistory.co.kr/bbs/view.php?id=local&page=1&sn1=&di_vpage=1&sn=on&ss=on&sc=off&keyword=%BB%E7%B0%E8%B8%AE&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449(검색일 2025. 11. 30.))

1-7. 용해동 참 사계인 조남상¹²⁷⁾

고(故) 조남상(1938-2001)은 사계 용해동 경로당과 마을 창고 등이 지어진 3필지 700평을 지난 1989년 마을회에 무상으로 기탁했다.

그때 거기가 운동장, 친구들이영 축구허곡, 놀곡.
(그때는 거기가 운동장, 친구들하고 축구하고, 놀고.)
-장행관 구술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마을회 지난 2015년에 마을에 경로당 부지 등을 기증한 고 조남상씨의 흉상제막 행사를 열었다. 흉상제막 행사에는 제주도의회의장을 비롯하여, 안덕면 고경숙 부면장과 주민 400여명이 참석했다. 당시 사계리장은 경로당이 “주민들의 고단했던 삶의 숨소리가 느껴지는 사계리의 역사를 간직한 공동체의 중요한 장소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귀중한 공간”이라며 부지를 제공한 고인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다.



사진 286 참 사계인 조남상 동상

1-8. 사계리 호적중초

호적중초(戶籍中草)는 조선 시대 전국의 호구를 파악하기 위해 3년에 한 번씩 작성하는 호적대장의 초본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 단위에서 작성된 호적중초를 중심으로 호적대장이 만들어진다. 조선 시대 인구 현황

127) 이승록, 「고마움 잊지 않은 사계리, 조남상씨 흉상 제막」, 『제주의소리』, 2015. 2. 25.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58727>(검색일 2025. 11. 30.))

파악을 위해 작성된 호적 자료로는 호구단자(戶口單子), 준호구(准戶口), 통적(通籍), 호적중초(戶籍中草), 호적대장(戶籍臺帳) 등이 있다.¹²⁸⁾

사계리 호적중초는 1996년~1998년에 걸쳐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에서 『제주 대정현 사계리 호적중초(I~VI)』 영인본이 간행되었다. 사계리 호적중초는 총 42책으로 1807년~1908년까지 백년의 시간을 기록한 자료이다. 도광 17년(1837년) 기록에 사계리의 옛 지명인 ‘검은길’을 한자로 표기하여 ‘금물로리(今勿路里)’로 기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금물로리에서 사계리로 마을 명칭이 개명된 것은 도광 20년(1840년)부터이다. 자료의 보관 상태도 매우 양호한 편이다.¹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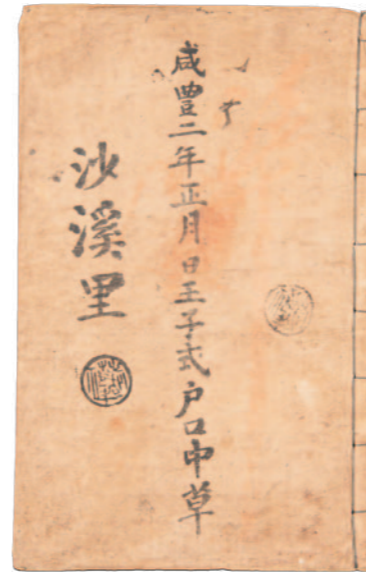


사진 287 함풍 2년(1852년) 입자식 호적중초 표지



사진 288 함풍 2년(1852년) 입자식 호적중초 내지

128)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제주학연구센터, 「제주 호적중초의 문화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 보고서」, 제주콤, 2020, 16쪽.

129)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제주학연구센터, 「제주 호적중초의 문화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 보고서」, 제주콤, 2020, 54쪽~55쪽.

1970년대 초 이전에는 현대식 상수도가 가정으로 도입되지 않았던 시기였다. 이에 마을 내의 용천수¹³⁰⁾는 주민들에게 주된 생활용수였다. 그러나 각종 개발로 인한 고갈 위험 등으로 용천수의 자취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상수도가 보급되기 전 마을 사람들의 젖줄이자 생명수 역할을 했던 중요한 흔적들이 없어지고 있고 더 나아가 마을 생활 문화의 하나가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용천수는 제주도 물 이용 역사의 상징이자, 제주 물을 대표하는 물 유산이다. 용천수는 한라산 백록담 기슭에서부터 해안가에 이르는 제주도 전역에 분포한다.¹³¹⁾

2016년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관리계획》에 따르면, 전체 용천수 1,025개소 중 270개소는 도로 개설 등 개발사업으로 매립되거나 멸실되었고, 94개소는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364개소의 용천수는 사라져 버렸고, 661개소만이 남아있다. 또, 234개 용천수에 대한 수질조사 결과, 먹는 물로 이용 가능한 용천수는 157개소(분석대상 24%)에 불과했다. 이러한 현상은 상수도가 보급되면서 용천수에 대한 무관심이 불러온 결과¹³²⁾이자 수자원 사용량이 해마다 늘어난 데다 난개발이 이뤄지면서 물길 자체가 끊겼기 때문이다.¹³³⁾

130) 지층 속을 흐르던 지하수가 지표의 암석이나 지층의 열린 틈을 통해 솟아나는 곳을 '용천(Spring)'이라 하고, 그 물을 '용천수'라 한다.
 131) 제주특별자치도·제주연구원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제주 물 이야기』, 제주지하수연구센터, 2023, 194쪽.
 132) 제주특별자치도·제주연구원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제주 물 이야기』, 제주지하수연구센터, 2023, 210쪽.
 133) 천권필, 「물 좋은 제주 옛말...용천수 1025→661곳 줄어 마실 물」, 『중앙일보』, 2019. 7. 11. (<https://v.daum.net/v/20190711050102616>(검색일 2025. 11. 30.))

표 8 사계리의 용천수 분포실태

연번	용천수명	용도	보존상태	이용시설
1	새미물	생활용	양호	접수/보호시설
2	큰물	"	"	"
3	당물	"	"	"
4	웃정물	"	"	"
5	알정물	"	"	"
6	봉에못	농업용	"	"
7	군애물	미이용	"	없음
8	절장개물	"	"	"
9	양개물	"	수량부족	접수/보호시설
10	거스물	생활용	"	"
11	작은샘이물	미이용	"	보호시설
12	조물이물	고갈/멸실	수량고갈	고갈/멸실
13	생이물	"	"	"
14	넘나물	주변훼손	주변훼손	없음
15	고비물	고갈/멸실	수량고갈	고갈/멸실
16	언물(은물)	고갈/멸실	위치멸실	고갈/멸실
17	오르코미물	"	"	"

1999년 제주도가 조사한 시기에 보존 상태가 양호했던 사계리의 용천수는 새미물을 비롯하여 8개소이고 나머지 9개소는 수량 부족, 고갈, 주변 훼손 등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었다. 송죽동 마을의 해안가에서 용출하는 용천수는 ‘군애물’과 ‘절장개물’이고, ‘봉에못’과 ‘큰물’을 비롯하여 ‘당물’, ‘웃정물’, ‘알정물’, ‘양개물’, ‘조물이물’, ‘생이물’, ‘넘마물’, ‘고비(씨)물’, ‘언(물)’ 등 11개소는 마을 내에서 용출하는 용천수이다. 송죽동 마을에 위치한 ‘봉에못’을 제외한 나머지 용천수들은 ‘설킴동네’에 위치한다. 현재 보존상태가 양호한 용천수는 ‘새미물’을 비롯하여 8개소이다.¹³⁴⁾

134) 사계리 마을회, 『사계리誌-明沙碧溪의 고장』, 대영인쇄사, 2015, 152쪽~153쪽. 표 재정리.

2-1. 새미물(샘이물, 세미물)

‘새미물’은 안덕면 사계리 3582-42에 위치하고 있다. 대정향교를 향해 걷다 보면 그 옆에 작은 돌담을 두른 샘에서 ‘새미물’이 나온다. 추사가 마시던 물이다.¹³⁵⁾ ‘돌세미石泉’ 또는 ‘세미물’로 불리는 이곳은 옛날 주민들의 식수로 사용되었으며, ‘바굼지오름’ 아래에 있다고 해서 ‘바굼이세미’라 부르기도 했다. 차를 즐겨 마셨던 추사도 이 물을 길어 차를 마시며 힘든 유배 생활에서 위로를 받았다고 한다.¹³⁶⁾



사진 289 새미물 표지석

옛날부터 구멍이 두 개. 이디 단산 옆. 향교 옆이 물이 나왔어. 그걸로 수도물을 땡견에 동네마다 하나씩 세웠어.

- 135) 허호준, 「추사의 숨결 따라 걷는 사색·인연·집념의 길」, 『한겨레』, 2018. 11. 14. (<https://v.daum.net/v/20181114113602590>(검색일 2025. 11. 30.))
- 136) 강동삼, 「추운 날이 되어서야 소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안다... 추사 '세한도'처럼」[강동삼의 벽차오름], 『서울신문』, 2024. 6. 8. (<https://v.daum.net/v/20240608080251948>(검색일 2025. 11. 30.))

경 허당 물이 족안. 경 행 이제 서림물도 땡견에 먹고. 덕수 사람들이나 서광 사람들 이레 물 실레 왔어. 이제는 한라산 물 먹엄주.

(옛날부터 구멍이 두 개. 여기 단산 옆. 향교 옆에 물이 나왔어. 그것으로 수도물을 땡겨서 동네마다 하나씩 세웠어. 그러다가 물이 적었어. 그래서 이제 ‘서림물’도 땡겨다 먹고. 덕수 사람들이나 서광 사람들 여기에 물 실으러 왔어. 이제는 한라산 물 먹지.)

- 이영택 구술

향교 옆이 세미물은 허벽으로 바가쓰로 들어당 먹당 해났주.

(향교 옆에 ‘세미물’은 허벽으로 양동으로 들어가 먹고 했었지.)

- 허월자 구술

세미물은 옛날에 많이들 들어당 먹었지. 향교 옆이 잇인 거. 옛날에는 물 질러당 먹어났잖아. 허벽에다 행은에. (‘세미물’은 옛날에 많이 들어다 먹었지. 향교 옆에 잇는 거. 옛날에는 물 길어다가 먹었었잖아. 허벽에다 해서.)

- 천영자 구술



사진 290 새미물

2-2. 큰물

‘큰물’은 지하에서 용천수가 샘솟는 곳으로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끊이지 않는다는 데서 유래했다.¹³⁷⁾ ‘대천물’이라고도 불린다. 과거에는 식수원, 빨래터, 목욕탕 등 용천수 역할을 했던 곳이다. 현재는 관리가 소홀해져 퇴적되고 방치된 상태이다.



사진 291 당물(왼쪽)과 큰물(오른쪽)

큰물은 우리 먹는 물. 옛날 여기 오민 누게네 영장이여 잔치여 소식 듣고 빨래터. 몇 번째 제사여 뒤여. 이디와야 다 뉴스지. 텔레비가 잇어사 뒤 헤사.

(큰물은 우리 먹는 물. 옛날 여기에 오면 누구네 장례식이다 결혼식이다 소식 듣고 빨래터. 몇 번째 제사다 뒤다. 여기에 와야 다 뉴스지. 텔레비전이 있었나 뒤 했다.)

-천영자 구술

사계리 사람들은 물통에서 만나 서로 소식을 전했다. 물통에 와야 동네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았고 서로 일을 도왔다.

2-3. 당물

‘큰물’이 있는 대전동에는 남자목욕탕인 ‘당물’이 있다. ‘당물’은 큰물 입구에 있는 산물로 그 자리에 큰물당이 있었다는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당에서 굿할 때 이 산물을 사용했다. 이 당의 신은 한라산에서 솟아난 ‘사계큰물당신’이라고 전해진다.¹³⁸⁾

큰물에 당물. 당물은 여기 집 지어진 디. 당물은 그 옛날에 남자목욕탕이어난. 지금은 풀이 덤병행 못 들어가. (‘큰물’에 ‘당물’. ‘당물’은 여기 집 지은 곳. ‘당물’은 그 옛날에 남자목욕탕이었어. 지금은 풀이 우거져서 못 들어가.)

-천영자 구술



사진 292 당물



사진 293 당물 내부 모습

2-4. 웃정물, 알정물

‘큰물’ 아래쪽에 있는 두 개의 물통으로 이루어진¹³⁹⁾ ‘정물’은 예전에는 논에 물을 대는 산물이었다. 사계

137) 사계리 마을회, 『사계리誌-明沙碧溪의 고장』, 대영인쇄사, 2015, 192쪽.
 138) 고병련, 「용이 물로 변해 마을 지키는 용머리 산물」, 『제주의 소리』, 2018. 10. 24.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211096>. (검색일 2025. 10. 15.))
 139) 사계리 마을회, 『사계리誌-明沙碧溪의 고장』, 대영인쇄사, 2015, 190쪽.

리 1947번지의 논 옆에 있다.¹⁴⁰⁾ 두 군데에 돌담으로 보호됐는데 위쪽에 있는 ‘웃정물’과 아래쪽에 있는 ‘알정물’로 구분한다. ‘웃정물’은 여자들이 목욕하는 장소로 여자목욕탕이다. 그리고 ‘알정물’은 농기구를 씻거나 우마용 또는 농업용수¹⁴¹⁾, 빨래하는 물이었다.



사진 294 정물로 추정됨

웃정물로 모욕해놨지. 알정물은 옛날에 빨래하는 물. 일로 논밭으로 영 행 바다로 내려가는 디. 갠디 이젠 풀 우거정이. 들어가지 못해.

(‘웃정물’로 목욕했었지. ‘알정물’은 옛날에 빨래하는 물. 여기 논밭으로 이렇게 해서 바다로 내려가는 곳. 그런데 이제는 풀이 우거져서. 들어가지 못해.)

-천영자 구술

2-5. 봉에못(봉어못)

단산에서 바닷가 방향인 사계모래해변 250m 위쪽 사계남로¹⁴²⁾에는 ‘봉에못’이 있다. ‘언못에 봉어가 많다.’며 하천 옆에 있는 ‘못’이라 ‘봉에못’이라 했다. ‘봉에못’에 ‘通政大夫 金基銀 修井 紀念’이라고 새겨진 비석이 있다. 이 비석에 관한 정확한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봉에못’은 물이 풍부하여 목욕탕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제보자들은 하나같이 ‘봉에못’의 물이 좋아 피부에도 좋고 신경통에도 좋다는 이야기를 했다.

승죽동에는 봉어못. 거기 물이 시원하고 또 바다로 그것이 쪽 잇어근에예. 용수 물 나와. 요 바당 저쪽으로. 군어 바당은예. 그 우로 물줄기가 영 뒤편인고라. 물이 풍풍풍 풍 솟아. 지금도. 지금도 솟아. 그니까 물 영 짝어 먹으민

140) 사계리 마을회, 『사계리誌-明沙碧溪의 고장』, 대영인쇄사, 2015, 190쪽.

141) 고병련, 「용이 물로 변해 마을 지키는 용머리 산물」, 『제주의소리』, 2018.10.24. (<https://www.jeju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211096> (검색일 2025.10.15.))

142) 고병련, 「추사가 다도(茶道)하며 인정한 명수 ‘석천(石泉) 산물」, 『제주의소리』, 2018.10.27. (<https://www.jeju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211185>(검색일 2025.10.30.))



사진 295 봉에못 비석



사진 296 봉에못 내부



사진 297 봉에못 여탕 내부



사진 298 봉에못 남탕 내부

심심해. 그민 해수욕 왔당 거기 영 몸 해와도 뉘어. 백중날은 그 물 맞넌 행 그디 왕덜 사람덜 잘도 헛우다게. 옛날엔. 그디가 물 맞으민 피부 좋덴 허멍. 가려운 것도 좋덴 막 헛주.

(송죽동에는 '붕어못'. 거기 물이 시원하고 또 바다로 그것이 쪽 이어져서. 용수 물 나와. 이 바다 저쪽으로. '군여바당'에. 그 위로 물줄기가 이렇게 되어있는지. 물이 퐁퐁퐁퐁 솟아. 지금도. 지금도 솟아. 그래서 물 이렇게 짝어 먹으면 싱거워. 그러면 해수욕 왔다가 거기 이렇게 몸 씻어도 돼. 백중날은 그 물 맞는다고 해서 거기 와서 사람들 잘도 헛었지. 옛날에는. 거기가 물 맞으면 피부 좋다고 하면서. 가려운 것도 좋다고 막 헛지.)

-강복순 구술

물이 풍부한 동네라. 그 물 중에 붕어못. 신경통 어깨가 달라. 딴 디 가든 경 안 하느디 여기 커 앓으민 나아.

(물이 풍부한 동네야. 그 물 중에 '붕어못'. 신경통 어깨가 달라. 다른 곳에 가면 그렇게 안 하는데 여기 잡겨서 앓으면 나아.)

-허월자 구술

2-6. 군애물

'군여'에 있는 솟아나는 물¹⁴³⁾을 이르는 '군애물'은 사계포구 옆 모래 해변에도 산물이 있다. '군애물'이라고 부르는데 무리져 있는 여의 뜻을 가진 '군여'에서 '단애(斷崖)'같이 생긴 바위틈 여기저기서 솟아 나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사계 모래 해변은 사람 발자국, 공룡 발자국, 새 발자국 등 화석 발견지¹⁴⁴⁾이다.

군애물. 바닷가레 내려오는 디. 바닷가 저레 내려가는 물. 초등학교로 행은에 내려오는 디. 거기가 화석 잇인 곳 거기주게.

('군애물'. 바닷가로 내려오는 곳. 바닷가 저리로 내려가는 물. 초등학교로 해서 내려오는 데. 거기가 화석 잇는 곳 거기지.)

-천영자 구술

143) 사계리 마을회, 『사계리誌-明沙碧溪의 고장』, 대영인쇄사, 2015, 197쪽.

144) 고병련, 「추사가 다도(茶道)하며 인정한 명수 '석천(石泉) 산물」, 『제주의소리』, 2018.10.27.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211185>(검색일 2025.11.30.))

2-7. 조물이물

'조물이물'이 있던 곳은 현재 집이 들어서며 원형을 볼 수는 없으나 예전에는 생활용수로 쓰였다고 한다.

옛날에 조물이물 거기서 빨래헛났주. 옛날에 토끼동네 사람들도 질러와났주. 그 지금 집 잇인 디. 메와부난 것어 저블었주.

(옛날에 '조물이물' 거기에서 빨래헛었지. 옛날에 토끼동네 사람들도 길어왔었지. 그 지금 집 잇는 곳. 메워서 없어졌지.)

-천영자 구술

2-8. 양계물

'양계물'은 큰물 남서쪽에 있는 물을 말한다. 사계리 1970번지의 집 옆, 사계리 1972-1번지에 있다.¹⁴⁵⁾ '양계물'은 돌담으로 둘러져 있는 물통 형태로 되어있다. 예전에는 가정용수로 이용되었으며 다른 동네에서도 물을 길러 왔다고 한다. 현재는 이용되지 않고 있다.

옛날인 거기서 야채도 씻어나고 경 써났지. 서광에서도 물 싣그레 와났주. 쇠구르마에 행은에 물 질레 들 와나서.

(옛날에는 거기에서 야채도 씻었고 그렇게 썼었지. 서광에서도 물 싣으러 왔지. 달구지로 물 뜨러 왔었어.)

-천영자 구술



사진 299 양계물

145) 사계리 마을회, 『사계리誌-明沙碧溪의 고장』, 대영인쇄사, 2015, 187쪽.

2-9. 화상못(하상못)

‘화상못’은 용천수가 아니고 봉천수이다. 송죽동 북서쪽, 대전동 서남쪽에 위치해 있고 주소는 사계리 2449번지이다. 주변의 묘비에 화상지(·화상못의 한자차 용표기)로 표기되어 있으나, 일부에서 花上地·花上습 등으로 표기하기도 한다.¹⁴⁶⁾

원래는 지금보다 훨씬 컸다고 하고, 점점 이 물을 사용 안 하면서 물통을 조금 메웠다고 한다. 주로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식수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진 300 화상못

2-10. 가물통 매립지

‘가물통’은 화순에서 내려오는 물이라고 한다. 현재는 매립해서 공원을 만들어 사람들이 쉬는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사진 301 가물통 옛터

3-1. 유교의례(포제)

사계리 마을제 명칭은 별제(別祭)이다.¹⁴⁷⁾ 혼한 사례는 아니다. 마을제인 포제의 명칭은 포제(酬祭), 농포제(農酬祭), 이포제(里酬祭), 이사제(里社祭), 동사제(洞社祭), 향제(鄉祭), 밭을제(-祭), 동넛제, 거릿제, 가제(街祭), 별제(別祭), 치성제(致誠祭), 건성제(建誠祭) 등 마을마다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보통은 포제라고 한다.¹⁴⁸⁾

사계리 포젯단은 안덕면 사계로 15번지에 위치해 있다. 제단만 있었는데 날씨와 여러가지 이유로 벽면과 지붕을 없어 단장하였다. 제단은 원래 ‘베늘’ 지경에 제단을 따로 두지 않고 일정한 곳에 ‘젯자리’를 깔고 제물을 차려 지내다가 1946년경 지금의 자리로 옮겼다. 처음은 울타리만 둘렀을 뿐 따로 제단이 마련되지 않았었다.¹⁴⁹⁾



사진 302 사계리 마을 포젯단

146) 사계리 마을회, 『사계리誌-明沙碧溪의 고장』, 대영인쇄사, 2015, 195쪽.

147) 2025년에 별제를 조사하지 못하여 마을에서 제공해준 2020년 자료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148) 남제주군, 『남제주군의 문화유적』, 세림원색인쇄사, 1996, 367쪽.



사진 303 별제 예행 연습(2020년, 마을회 제공)



사진 304 별제 제물 진설 모습(2020년, 마을회 제공)



사진 305 별제 지내는 모습(2020년, 마을회 제공)

사계리 별제 제일은 정월 첫 신일(上辛日)이다. 신위는 태세지신위(太歲之神位), 이사지신위(里社之神位), 전조지신위(田祖之神位)로 3위를 모신다. 태세는 그 해의 간지를 맡아보는 천신이고 이사는 마을 수호신이며, 전조는 농사를 관장하는 신이다. 포제의 대상인 신격은 마을마다 다르다. 신위도 1위에서 4위 이상 되는 경우도 있다. 같은 신의 다른 이름으로 다르게 관념하기도 한다. 천신, 마을 수호신 등을 주로 모시고 전염병을 막아주는 신을 모시기도 한다. 혹은 상단제, 하단제로 나눠 신격의 우열을 따져 지내기도 한다.

사계리 마을제는 첫 신일(上辛日)에 한다. 대부분 마을 '或丁或亥日'에 치르는데 사계리만은 천간(天干)으로 첫 신(辛)자 든 날을 제일로 하고 있다. 3일 동안 제관들은 제청에 들어 합숙하며 정성을 한다. 원래는 1년에 두 번 제를 지냈다. 정월에 里社祭 또는 醮祭 음력 6월에 지내는 걸 農醮祭라 했다. 지금은 제단에 함께 모신다. 50년대 초에는 미신 타파다 뭐다 하며 당을 부수더니, 60년대 와서는 새마을 운동이다 뭐다 하면서 마을제도 지내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제를 지내지 않다가 10여 년 전부터 다시 지내게 되었다. 희생으로 돼지 1마리를 잡는다. 신은 4位인데, 里社之神, 農醮之神, 田主之神 등이다. 제관은 3헌관, 집례, 대축, 봉로, 봉향, 봉작, 준소, 사준, 전작, 알자와 예비 제관을 두었다. 제관은 음력 12월 그물어 갈 때 향회에서 선출하며, 제비는 마을마다 구역별로 바다에서 채취한 뭍을 팔아 번 돈을 내놓아 마련한다.¹⁵⁰⁾

『남제주군의 문화유적』의 자료에 의하면 제관은 3일 정성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1박 2일로 별제 전날

은 예행 연습을 한다. 그리고 원래는 정월에 한 번, 음력 6월에 한 번해서 1년에 두 번 제를 지냈다고 하는데 1990년대부터 1년에 한 번 제를 지내는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제관은 현재 16명으로 마을회에서 선정하고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전사관, 집례, 대축, 찬자, 알자, 봉향, 봉로, 전작, 집사 4명으로 구성하는데 크게 달라진 모습은 아니다. 제비는 마을마다 구역별로 바다에서 채취한 모자반을 팔아 번 돈으로 하였다고 한다. 지금은 마을회에서 마련한다. 제물은 장만한 돼지를 분육하여 태세지신에는 머리, 전작, 승을 올리고 이사지신에는 목살과 갈비, 접작뼈를 올리고, 전조지신에는 후각과 일흔, 비피를 올린다.

3-2. 무속의례

3-2-1. 당신앙

제주도의 신당 분포는 제주신당조사 연구¹⁵¹⁾에 따르면 제주시권 192개, 서귀포시권 199개로 총 391개의 신당이 존재한다. 제주도는 7개의 읍, 5개의 면 그리고 제주시, 서귀포시 동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연 마을은 172개이다. 마을 수와 신당 수를 비교하면 한 마을에 신당이 2~3개가 존재하는 셈이다. 사계리도 예외는 아니다. 사계리에 알려진 신당은 4개이다. 하지만 현재 개당을 빼고는 멸실 위기에 놓여 있다.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¹⁵²⁾ 기록에 보면 사계리 본풀이는 <큰물당> 2편, <청밭할망> 3편, <개당> 3편, <굴르락당(오씨아미당)> 1편으로 총 8편이 있다. 본풀이로 볼 때 당이 큰물당, 청밭할망, 개당, 굴르락당으로 네 개이다. 본풀이 구연한 심방은 고인옥(여무, 사계리), 오기연(남무, 하모리), 오신정(여무, 상예리), 좌군타(여무, 하모리), 강오생(여무, 고산리), 송경순(여무, 사계리)으로 제주 서쪽 심방들에서 전승됐던 것으로 보인다. 굴르락당(오씨아미당)을 기억하는 마을 주민은 없었다. 단 『제주도무속본풀이사전』 굴르락당(오씨아미당) 본풀이 내용을 보면 오씨아미가 향

149) 사계리 마을회, 『사계리誌-明沙碧溪의 고장』, 대영인쇄사, 2015, 437쪽~438쪽.

150) 남제주군, 『남제주군의 문화유적』, 세림원색인쇄사, 1996, 369쪽.

151) 제주특별자치도·(사)제주전통문화연구소, 『제주신당조사(제주시권) 연구』, 도서출판 각, 2008.

제주특별자치도·(사)제주전통문화연구소, 『제주신당조사(서귀포시권) 연구』, 도서출판 각, 2009.

152) 진성기, 『제주도무속본풀이사전』, 민속원, 2002, 533쪽~537쪽.

교에서 술 심부름을 하다 죽어 불쌍하다고 향교 뒤에 모셔 당을 설립하였다고 한다. 향교 다니는 사람들이 이 당을 위한다고 나와 있다.

3-2-1-1. 당물 큰물당

사계리 ‘당물 큰물당’은 현재 그 위치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당물 큰물당’에 대한 이야기도 ‘당물’ 동네에 당이 있었다 정도만 들을 수 있었다. 『남제주군의 문화유적』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계리 ‘큰물당’은 정월 초하루와 8월 보름 당제를 지내며, 제물로는 나락 1단, 메 1그릇을 가지고 간다고 한다. 당 근처에 ‘당물’이라는 샘수가 있어 큰물당이라 하는데, 이 당은 위낙 세어서 경신년 호열자에도 마을이 무사하였다 한다. 이 당에는 사계리 웃동네 강씨·오씨가 상단궐이다. 메인심방 계보는 오태원-오기영-김평석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큰물당 당굿을 하려면 먼저 심방이 쾌자를 입고 정장을 하여 산방산 할망이 산뫼를 잡았던 ‘신맛이 동산’에 올라가 신을 청해 와서 굿을 한다. 이 큰물당 당신은 산뫼 13마리를 잡아 젊은이들에게 한 마리씩 먹이고 논 1판씩 파서 13판을 만들어 논농사를 하여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¹⁵³⁾

1996년까지 메인 심방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굿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물이 나락 1단, 메 1그릇을 올리는 것으로 보아 논농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방산 할망이 산뫼를 잡았던 신맛이 동산에 올라가 신을 청해 와서 굿을 한다.’ 이 부분을 보면 당신을 산방산에 가서 청해 온다는 것이다. 당본풀이 내용으로 보이는 산방산 산뫼를 잡아 젊은이들에게 먹이고 논 만들어 논농사를 하게 했다는 것인데 사계리에 논농사를 시작하게 된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신은 여신으로 표현되고 있다.

큰물당 조상님은/할루산 셋어깨/무유알에서 솟아나니/그 할으방이/삼방굴사로 느렸수다./이 때에 산뫼이/삼백머리가/삼방구절에 노리까/삼방골새 구절머리로/산뫼를 다올리는 것이/골은 아흔아홉골이라,/동골로 느리민/섯골로 오고/번내골로 올르민/앞골로 느리고, 흐는 것이/아흔아홉골을/다 돌았수다./남신 신은냥/삼방굴로 느려서/큰물당물 느려서/그 산뫼 삼백머릴/잡아서/설 빼여먹고/여지물동산 도올라/좌우

153) 남제주군, 『남제주군의 문화유적』, 세림원색인쇄사, 1996, 342쪽~343쪽.

방을 슬퍼보니,/큰물머리에/좌정홀만 흐여/거기 집을 지어/살았수다./그 때에 농수도 아녀고/큰물골쟁이가 있었는데,/거길 전부 논을 맨들어서/농수를 지니/천하 거부로 살아,/이 때에/흐를날은/소서중이 권제 삼문 받으레/느르스니,/“어떤 일로 권제 삼문 받으레/느렸느냐?”/“헌당이 떨어지고/헌절이 떨어져서/권제 삼문 받아당/헌절수리 헌당수리/흐젠 느렸수다.”/“그건 헌당수리/헌절수리 흐민 뭘 흐느냐?”/“귀흠 천흠을 아옵소서.”/“귀흠 천흠을/어찌 흐여 알겠느냐?”/“되 아흠, 말 아흠, 흠 아흠,/푸는체 아흠을/매일 당물에서 시쳐서/일뤼간을/식전 아침이/문전으로 올렛기 지 엮어서/글로/바라가곡 바라오곡 흐시오./그 때는 귀흠 천흠을/알 껌네다.”/아닐서라 그 할으방이/되 아흠, 말 아흠, 흠 아흠,/푸는체 아흠을/매일 식전 아침이/일뤼간을 시쳐서/문전으로 올렛기 지 엮어서/글로/바라가곡 바라오곡 흐여가니,/이 때에 대오방 수천리에서/수이가 지여서/물이 북거,/논에 나룩이/전부 극떨어가비여,/흐니,/송년이 지여,/“이거 즈순들도/귀흠 천흠을 알겠다.” 흐여,/할으방은 그 때에/이 밋실에/집첩 상단궐 흐고,/조첩 상단궐 흐고,/이첩 상단궐에/논덜을/앞궐이, 중궐이/하궐이를,/강답, 수답 흘 게 웃이/다 즈손가지에/분짓시겨 쥐비니,/그 멧법으로/큰물당 조상님께/흐 해에 흐 번씩/나룩 흐뭇씩/이 본당 맨 사름은/다 갖다 줌네다.”¹⁵⁴⁾

『제주도무속본풀이사전』의 당본풀이 내용을 보면 ‘큰물당’은 한라산에서 솟아났고 산방산에 내려와 산뫼지를 삼백 마리를 잡아 먹고 ‘큰물머리’에 좌정했다는 내용이 앞부분에 있고 그때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하며 ‘큰물’ 동네에 논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천하거부가 되었다. 자손들에게 논을 나눠주면서 한 해에 한 번씩 나락 한 묶음을 받는 당이 되었다고 한다. 사계리가 논농사를 많이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당신은 남신으로 표현되었다.

“당물’이라는 용천수가 나는 곳 맞은편 밭 사이에 있다. 당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 밭에는 백년초들이 심겨 있다. 돌담을 네모나게 두르고 가운데 돌을 쌓고 그 위에 시멘트를 발라 제단을 만들었다. 제단 위에는 까마귀쪽나무가 자라고 있다. 원래 이곳은 논농사를 짓던 지역이었다. 그래서 가을 추수가 끝나면 집집마다 벼 한 단씩을 거두어서 당에 올렸다고 한다. 그러나 30여 년 전부터 벼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당을 찾는 사람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에도 사람이 다녀간 흔적이 있다.”¹⁵⁵⁾

154) 진성기, 『제주도무속본풀이사전』, 민속원, 2002, 533쪽~534쪽.

155) 제주특별자치도·(사)제주전통문화연구소, 『제주신당조사(서귀포시권)』, 도서출판 각, 2009, 326쪽.

『제주신당조사(서귀포시권)』의 기록에는 ‘당물’ 맞은편에 ‘큰물당’이 있고, 돌담을 두르고 시멘트로 된 제단을 확인했다고 한다. 가을 추수가 끝나면 벼 한 단씩을 거두어서 제물로 올려 당시 최근 다녀간 흔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봐서 15년 전까지는 당을 다닌 사람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당물 큰물당’이 멸실된 것으로 보인다. 큰물 할망으로 당신은 여신이다.

『제주도무속본풀이사전』이 1960년대 조사된 기록으로 가장 빠른 기록물이다. 심방이 직접 본풀이를 구연한 것으로 보인다. 본풀이 내용에서 부부의 연을 맺었다는 내용도 없다. 그런데 남신에서 어떻게 여신으로 변화하였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지금은 큰물 할망당으로 인식하고 있다.

큰물당은 그디가 아니고 그디 바다에 뎅기는 사름들 뎅기는 당 아닌가? 우리 조상은 그디 안 다니난 우린 안 다니고. 옛날 그디 다녀난 사름들은 그디 가고. 조상 때 안 다녀난 사름은 안 가.

-문순화 구술

마을 주민들 사이에 ‘큰물당’의 기억은 거의 없다. 문순화 제보자가 이곳에 시집을 온 것을 계산해 보면 70년 전 쯤으로 1950년대인데 메인 심방도 있는 당을 기억 못한다는 것은 일찍이 ‘큰물당’이 그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옛날에 대를 세우고 크게 굿을 하였으나 오래 전에 비념으로 전환되었다. 심방은 제일 전날 낮에 당을 청소해두었다가 밤 11시쯤에 당으로 가서 자리를 잡는다. 이 당을 잘 찾지 않는다. 메인심방이었던 송씨 할망에 따르면 몇 년 전에 “용왕굿 할 때 그곳으로 와서 받아 먹읍서.”하고 고하고 신위를 용왕굿 제장으로 옮겼다고 한다. 당제를 중단한다는 뜻을 고한 셈이다. 사정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포구에서 용왕굿을 할 때는 심방이 본향당신을 모셔간 뒤에 굿을 시작하는 것은 변함이 없었다고 한다.¹⁵⁶⁾

『사계리지』는 2015년도 기록으로 보아 메인심방 송씨 할망이 당제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큰물당’이 논농사와 관련이 있는 당으로 사계리 논농사가 쇠퇴해 가면서 당도 같이 쇠락해 간 것은 아닌 추측해 본다.

156) 사계리 마을회, 『사계리지誌-明沙碧溪의 고장』, 대영인쇄사, 2015, 443쪽.

3-2-1-2. 청밭 할망당

사계리 ‘청밭 할망당’은 산방복지회관 옆 주차장을 지나 밭 사이 나무가 우거진 작은 숲처럼 보이는 곳이 ‘청밭 할망당’이다. 주소로는 사계리 1846-1번지에 걸쳐져 있다. 숲이 많이 우거져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찾기 못할 정도였다. 제일은 매 7일과 보름이다.

일렛당, 아 청밭당 청밭당, 으 청밭할망. 이제 회관 뒤에 복지회관 뒤에. 산방복지회관 뒤에. 청밭당. 옛날은 청밭 할망당이렌 헤넛인디 난중에 일렛당이렌 골은 거주게. 나이든 사름들은 다 청밭당이렌 골앗주게. 청밭할망이렌. 혼 이십 년 전까지 다녀졌일 거라. 이십 년 전까지 다녀졌일 거라. 그때까지 사름들이 다녔주게. 칠일에 못 간 사름은 보름에 가고. 이디 부락에 당멘할망이 잇주게. 당멘할망, 저 송할망이렌 현 할망이 당멘할망. 이디 송할망은 덕수 송 씨인디 여기 사계에 왕 사는 사름. 그 할망이 당멘 헤넛우다게. 엿주게. 메는 사름이 엿언 웨방 사름 빌어 당 그자, 자꾸 오지도 아녀 우리냥으로 갔다근에 그냥 출령 우리냥으로 그자 말민 안 해도 허여근에 절혜동 오고 헛주게. 심방이 엿이민. 정월 나근에 동네가 편안허영 장사가 안 나민 사름이 많이 안 가고 장사가 낭 못 가. 게민 분산행 거주게 보름에 거주만은 쟁 자꾸 장사 나불민 또 장사 안 난 때 강 허젠 허민 막 기다려. 사름이 많이 가. 정성을 해야. 동네가 다 비리민 아무나도, 개가 하나 죽어도 못 가. 개도 죽으면 비리는 거난.

(일렛당, 아 ‘청밭당’ ‘청밭당’, 으 ‘청밭할망’. 이제 회관 뒤에 복지회관 뒤에. 산방복지회관 뒤에. ‘청밭당’. 옛날은 ‘청밭 할망당’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일렛당이라고 말했지. 나이든 사름들은 다 ‘청밭당’이라고 말하지. ‘청밭 할망’이라고. 한 이십 년 전까지 다녔을 거라. 이십 년 전까지 다녀졌을 거라. 그때까지 사름들이 다녔지. 칠일에 못 가 사름은 보름에 가고. 이디 부락에 ‘당멘할망’이 있지. ‘당멘할망’. 저 ‘송할망’이라고 한 할망이 ‘당멘할망’. 이디 ‘송할망’은 덕수 송 씨인디 여기 사계에 와서 사는 사름. 그 ‘할망’이 당 매서 했지. 없지. 매는 사름이 없어. 외방 사름 빌어서 그냥. 자꾸 오지도 않고 우리끼리 갔다가 그냥 차려서 우리끼리 그냥 ‘말명’은 안 해도 해서 절해서 오고 했지. 심방이 없으면. 정월 나서 동네가 편안하고 장례가 안 나면 사름이 많이 안 가고 장례가 나서 못 가. 그러면 분산해서 가지. 보름에 가지만 그렇게 자꾸 장례 나면 또 장례 안 난 때 가서 하려고 하면 막 기다려. 사름이 많이 가. 정성을 해야. 동네가 다 부정 타면 아무나도, 개가 하나 죽어도 못 가. 개도 죽으면 부정 타는 거니깐.)

-문순화 구술

문순화 제보자에 따르면 매 7일 또는 보름에 당에 간다고 한다. 동네에 장례 치를 일이 생기면 당에 못 간

다. 개가 죽어도 못 간다고 한다. 마을에 당뎨 심방 송씨 할망이 살았다고 하고 그 이후는 외부 심방을 불러 와서 했는데 당에 잘 오지 않아 본인들이 스스로 제물을 올리고 절을 하고 왔다고 한다.

많이 갈 땐 한 세 시만 뉘도 기다려. 사람들 막 기다려. 차례차례로 간 사름 차례차례로 다 그디 올령, 그 사람이 이 녀집이 식구 다 열명허영 올리주게 불당에 강 **허듯 경허민 그 할망이 허영 우리 돈 열메 가정 강 또 영 그 할망 신디 올려난 거 그 할망신디 떡이고 쌀이고 다 그 심방 줘동 오주게. 메하고 지물하고 지물허면은 영 다데떡 영 동 골랑허게 멘들양 경 허고 과일허고 세 종류허고 또 고기 마른 고기, 생선 생선 마른 거. 말린 거 그거 구워가지고, 옥돔이나 우럭이나 그런 거. 쌀도 그 보섭쌀이렌 헤근에. 보시로 하나, 많이 허는 사름은 사발로 하나. 영 올리주 게 그디 강. 쌀도. 삼색 험벅. 그것에 실에 무꺼근에 올리주게. 게난 처음에 허단 말젠 이거 돌아멜 때가 엇언 잘 안 7정 가주게. 실만 7정 간. 소지 올리는 거. 거 석 장 가정 강 이녁냥으로 영 소지 올렌 허민 이녁냥으로 영 영 우터레 올리주게.

(많이 갈 땐 한 세 시만 뉘도 기다려. 사람들 막 기다려. 차례차례로 간 사람 차례차례로 다 거기 올려서, 그 사람이 자기집에 식구 다 열명을 하면 올리지. 불당에 가서 **하듯 그렇게 하면 그 '할망'이 해 우리 돈 열마 가지고 가서 또 이렇게 그 '할망'한테 올렸던 거 그 '할망'한테 떡이고 쌀이고 다 그 심방 주고 오지. 메하고 지물하고 지물허면은 이렇게 도래떡 이렇게 동그렇게 만들어 그렇게 하고 과일하고 세 종류하고 또 고기 마른 고기, 생선 생선 마른 거. 말린 거 그거 구워서, 옥돔이나 우럭이나 그런 거. 쌀도 그 보섭쌀이라고 해서. 보시로 한, 많이 허는 사름은 사발로 하나. 이렇게 올리지. 거기 가서. 실도, 삼색 천. 그것에 실에 묶어서 올리지. 그러니깐 처음에 하다가 마지막엔 이거 달아멜 곳이 없어서 잘 안 가지고 갔지. 실만 가지고 간. 소지 올리는 거. 그거 석 장 가지고 가서 자기대로 이렇게 소지 올리라고 하면 자기대로 이렇게 이렇게 위에 올리지.)

-문순화 구술

마을이 편안하면 당에 분산해서 자기 시간에 맞춰 가기 때문에 많이 기다리는 일이 없는데 마을이 일이 생기면 날짜를 맞춰 가야 하기에 같은 날에 사람들이 물리게 되어 새벽 3시에 가도 많이 기다렸다고 한다. 제물은 메, 과일(3종류), 생선, 돌레떡, 쌀, 실, 삼색물색, 소지 이렇게 준비해서 간다. 돈도 많이 준비하는 사람은 5천 원 정도이고 보통은 2천 원에서 3천 원 정도 준비해서 간다. 자기집 식구들이 많은 경우 돈도 많이 준비해서 간다.

(심방) 앓양 허민 간 사름 차례로 집이 식구 이름은 안 올리고 성 씨가 뵈이고 나이가 몇 살 쪽 올리면 나중에 할망이 축원을 해주주게 골은 데로 올린 데로 다 해주민 '이 아기들 좋게 해줍서.' 헨에 다 올리는 거. 다 허면은 말자 절허는 건 이녁 마음대로 절허영 그걸 금년에 제수가 어떻게 할 거. 다 봐주주게. '야야 좋다.' '나쁘다.' 제비 뽑양. 이녁 7정 강 술에 영 그 사름이 제비 뽑아근에 '좋다.' '나쁘다.' 다 골아주주게. 그때 우리 텅길 땐 많으면 오천 원. 경 안 허민 천 원씩 그땐 돈이 귀할 때 두루 천 원 올렸주게. 게고 식구가 많으면 많이 올려. 식구가 적으면 적게 올려. 식구가 많으면 그 사름이 말을 많이 해야주게. 식구가 많은 사름은 많이 7정 가고 식구가 적은 사름은 족영 7정 가고 경허여. 아이들이 몇 뉘난 아, 딸덜은 안 올려. 아들만. 딸덜은 올려나민 일일이 시집가민 좇아 오지 못헌덴 안 올려. 이디 올려나민 따시 그 할망신디 좇아와야 뉘니깐 안 올려. 아들만 올려. 아들만. 그때는 돈이 귀허난 옛날에 이십 년 전이민 어디 먹으러 가젠 해도 이천 원, 삼천 원 허지 안 해서게. 부조허는 게 그 정도니깐 그디 갈 때도 돈 많으면 이천 원, 삼천 원 경 올렸주게.

((심방) 앓아서 하면 간 사람 차례로 집의 식구 이름은 안 올리고 성 씨가 뵈이고 나이가 몇 살 쪽 올리면 나중에 '할망'이 축원을 해주지. 말한 데로 올린 데로 다 해주면 '이 아기들 좋게 해주세요.' 해서 다 올리는 거. 다 하면 마지막에 절허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절해서 그걸 금년에 제수가 어떻게 할 거. 다 봐주지. '야야 좋다.' '나쁘다.' 제비 뽑아서. 자기가 가지고 간 쌀에 이렇게 그 사람이 제비 뽑아서 '좋다.' '나쁘다.' 다 말해주지. 그때 우리 다닐 땐 많으면 오천 원. 그렇지 않으면 천 원씩 그땐 돈이 귀할 때 두루 천 원 올렸지. 그리고 식구가 많으면 많이 올려. 식구가 적으면 적게 올려. 식구가 많으면 그 사람이 말을 많이 해주지. 식구가 많은 사름은 많이 가지고 가고 식구가 적은 사름은 적게 가지고 가고 그렇게 했어. 아이들이 다섯 되니깐 아, 딸들은 안 올려. 아들만. 딸들은 올리면 일일이 시집가면 찾아오지 못한다고 안 올려. 여기 올리면 다시 그 '할망'한테 찾아와야 되니깐 안 올려. 아들만 올려. 그때는 돈이 귀하니깐 옛날에 이십 년 전이면 어디 먹으러 가려고 해도 이천 원, 삼천 원 하지 안 했어. 부조허는 게 그 정도니깐 거기 갈 때도 돈 많으면 이천 원, 삼천 원 그렇게 올렸지.)

-문순화 구술

당에 간 차례대로 제물을 올리면 송씨할망이 순서대로 축원을 해준다. 마지막에는 제비점을 봐서 신년운수를 점쳐 알려준다. 자식들 중에 딸은 열명에 올리지 않고 아들만 올린다. 딸은 시집을 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딸을 열명 올렸다가 나중에 찾아오지 못한다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아들 선호 사상이 기보다 딸은 시집을 가면 호적을 옮겨야 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느껴진다.

몰라. 우리 왕 보난 청밭 할망. 시어머니가 멩기단 나 잇이난 물려주난 멩긴 거 뿐이난 그 이을 물어보질 안 헛주 게.

(몰라. 우리 와서 보니깐 '청밭 할망'. 시어머니가 다니다가 내가 있으니깐 물려줘서 다니는 것 뿐이니깐 그 이을 물어보질 안 했지.)

- 문순화 구술

‘청밭 할망’이 왜 이름이 ‘청밭’이냐는 질문에 문순화 제보자는 모른다고 하였다. 그 이유를 묻지도 않았다고 한다.

『남제주군의 문화유적』과 『제주신당조사(서귀포시권)』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계리 ‘청밭 일뤼당’의 당신은 ‘청밭할망’ 또는 ‘청밭일뤼당’이라 하며, 당에는 매달 일뤼에 다니는 일뤼당이요, 이 당의 여신은 산육·치병신이다. 당에 갈 때는 메 2기를 가지고 간다. 당은 제단 위에 넓은 반석이 있고, 그 가운데 케(구멍)가 있는 전담형·신석형·제단형·석원형·신목형이며, 이 여신은 큰물당의 딸이라고 한다. 이 당신은 초일뤼엔 서서 단골을 기다리고, 열일뤼엔 앉아서 기다리고, 스무일뤼엔 누워서 기다린다고 한다.”¹⁵⁷⁾

“사계리 복지회관 근처 전담 안 수림에 있다. 팽나무, 보리수나무, 멀구슬나무, 사철나무 등이 우거진 동그란 수림 내에 돌담을 두르고 가운데 제단을 마련하여 당을 형성하였다. 당자리 한가운데에 돌을 쌓고 그 위에 시멘트로 마감을 했다. 가운데 케를 만들고 작은 돌로 뚜껑을 만들어 덮었는데, 케 안에 음식찌꺼기가 들어 있다. 제단 뒤쪽의 나무에 지전 물색과 실이 여러 곳에 걸려 있고, 제단 바로 앞쪽에 있는 나무막대에는 실만 감겨 있다. 제단 위에 타나 남은 양초 3~4개가 있고, 당 주위에 숟가락, 양초, 술병, 음료수병 등이 흩어져 있다. 당 안의 여기저기에 떡, 과일 등 음식찌꺼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최근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⁵⁸⁾

157) 남제주군, 『남제주군의 문화유적』, 세림원색인쇄사, 1996, 342쪽.

158) 제주특별자치도·(사)제주전통문화연구소, 『제주신당조사(서귀포시권)』, 도서출판 각, 2009, 324쪽.



사진 306 2019년 사계리 청밭 할망당 외부 모습



사진 307 2019년 사계리 청밭 할망당 내부 모습



사진 308 2025년 사계리 청밭 할망당 외부 모습



사진 309 2025년 사계리 청밭 할망당 내부 모습

『남제주군의 문화유적』 자료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청밭 할망당’은 ‘큰물당’의 딸로 되어 있고, 『제주신당조사(서귀포시권)』 자료에도 ‘큰물당’의 딸로 기록되어 있다. 1960년대 조사된 『제주도무속본풀이사전』 기록으로는 ① “검은질은 청밭할망/큰물 7에 즈개(좌정)후연”, ② “청밭할망은 예조부인인디,/이 한집은/난드르니척뿔로/가지갈라 오랏수다.” ③ “큰물당 한집 청밭할망”으로 세 편의 본풀이 중 ①과 ③은 큰물당과 연관된 당으로 풀고 있고, ②번은 대포동에서 가지 갈라 왔다고 한다. 청밭 할망당에 신위가 돌일 수도 있고 혹은 ②번이 잘못 전승되고 있는 본풀이일 수도 있다.

위 사진은 2019년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여신당 조사를 했던 당시의 모습이다. 2019년까지도 당에 사람들이 다녔던 흔적을 볼 수 있었다. 당 주변 음식 관련한 잔여물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굿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개인 비념정도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밭 할망당’은 잡풀로 우거진 사이에 제단의 모습이 보이지만 사람이 오갔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이제랑 거기랑 지제해볼게.’ 허멍 허는 거 다투게. 막 가시덤불 해부난. ‘그디랑 이제랑 기냥 지제허영 가지 말게.’ 해났인다. 가신디 말아신디 몰르큰게.

(‘이제는 거기 지제(止祭)해버리자.’ 하면서 하는 거 다투던데. 막 가시덤불 해버리니깐. ‘거기하고 이제는 그냥 지제해서 가지 말게.’ 해났는데. 갔는지 말았는지 모르겠어.)

-강복순 구술

이제는 더이상 당을 다니지 말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당은 다니는 사람이 없으면 그 존재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당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2-1-3. 큰뒷밭 으드렛당

‘큰뒷밭 으드렛당’ 위치는 사계리 2037번지 주변에 있다. 당에 사람이 다녀갔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사계리 주민들은 으드렛당을 기억하고 있지만 당을 다니는 사람은 없다고 하였다. 사계리 최씨 집안 시어머니가 정의현 출신이라 이 으드렛당을 다녔고 며느리까지는 다니다가 지금 손자며느리는 안 다니고 한다. 『남제주군의 문화유적』과 『제주신당조사(서귀포시권)』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계리 ‘큰뒷밭 으드렛당’은 토산서 가지 갈라 온 ‘동의할망’을 모신 당이다. 매달 7, 8일 메 2기를 가지고 간다. 정의서 시집 와서 사는 사람들이 조상으로 위하는 당이다.”¹⁵⁹⁾

“남경미락 맞은편 밭 가운데 있는 동산형 수림 내에 있다. 수림 내에 팽나무, 사철나무, 까마귀쪽나무 등이 자라고 있다. 잡목 숲 안으로 들어가면 큰 암반이 둥그렇게 병풍처럼 둘러져 있고, 그 앞에 낮은 돌이 계단처럼 자리를 잡았다. 돌 틈에는 실이 끼여 있고, 지전물색과 실이 걸린 나뭇가지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아주 오래된 것이다. 주위에 소주병, 음료수병, 과자봉지 등이 보인다. 사람이 다녀간 지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¹⁶⁰⁾

159) 남제주군, 『남제주군의 문화유적』, 세림원색인쇄사, 1996, 345쪽.

160) 제주특별자치도·(사)제주전통문화연구소, 『제주신당조사(서귀포시권)』, 도서출판 각, 2009, 330쪽.



사진 310 사계리 으드렛당 외부 모습



사진 311 사계리 으드렛당 내부 모습

『남제주군의 문화유적』 기록으로 보면 정의현 출신의 여성들이 사계리로 시집을 오면서 ‘토산으드렛당’을 가지 갈라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당은 사계리 주민 중에 고향이 정의현인 사람들만 다니는 곳이다. 당이 어떻게 새롭게 형성이 되는지 알 수 있고, 또 어떻게 사라지는지도 알 수 있다.

『제주신당조사(서귀포시권)』 기록에 사람들이 다녀간 지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지만 당 주변에 곳을 했던 흔적은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모습을 보면 당을 다녀간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사계리에서 ‘으드렛당’이 없어질 수도 있다 하여 ‘으드렛당’에 있는 돌 하나를 가져다 청밭 할망당에 모셨다고 한다.

3-2-1-4. 토기동네 개당

사계리 개당은 사계포구 동쪽 끝에 있다. 주소는 특정되어 있지 않다. 개당은 지금도 사람들이 다니고 있다.

“사계리 토기 동네에는 옛날부터 당이 없었다. 그래서 배들이 자꾸 바다에서 사고가 났다. 고씨 선주가 수선주였을 당시, 선왕당을 하나 모시자고 어부·해녀들이 당집을 짓기로 하였다. 대마도에서 나무를 실어 오고, 동네 목수가 굵은 대마도 숙대나무로 집을 짜고, 석공이 돌을 깨어 담을 쌓고 신평리에서 기와를 구워와 지붕을 덮고, 선주와 선원들이 등짐으로 시멘트를 저 날라 몇 백 년이 가게 튼튼하게 집을 지었다. 그 후 해방이 되어 4·3사건 때 서북청년단이 들어와 철거하라 하며 당집을 불태워 버렸다. 차츰 완화된 가니 옛 어른들 모시던 것을 무심하게 내버리지 말자고 의논해서 다시 무너진 담을 고치고 축이나 고하고 상자

를 만들어 모셨다. 담 안에 그대로 모셨는데 쓰레기도 거기 던져 버리고 해서 보기 싫게 되어 가니, 현 도 당이라도 덮자고 선주들이 주장하여 현 도당을 덮었다. 다시 철거 명령이 있어 그 당을 철거한 장 순경은 눈병이 나 고치지 못했다. 장순경은 눈병을 고치려고 다시 축항 옆에 담을 쌓고 다시 당신을 모시고, 모슬 포에서 심방(빠마 심방)을 데려다 당굿을 하려니 본초(본풀이)를 몰랐다. 심방에게 개당은 "큰물당에서 가 지 갈라다가 언제 당을 세웠고, 누가 불태웠으며, 누가 부숴 버리고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유래를 말해 주 니, 심방이 그렇게 본초를 풀었다. 장순경이 꿰어앉아 잘못했다. 범령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부 셧다고 빌면 절하니 눈병이 좋아졌다."¹⁶¹⁾

『남제주군의 문화유적』 기록을 보면 사계리 토끼 동네에 당이 없었는데 어민들의 요구로 당을 지었다. 4· 3 때 당이 불타 없어질 뻔하다 다시 어민들에 의해 양철 지붕이라도 덮자고 하여 건물을 정리하였다. 이후 다 시 철거 명령이 있어 철거하는 과정에서 철거를 지휘한 순경이 눈병이 나 그 병이 낫지 않자 다시 당을 지었 다고 한다. 개당은 큰물당에서 가지 갈라 온 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주도무속본풀이사전』 기록에는 개당 본풀이가 3개가 있지만 이와 같은 내용은 없다.

“사계리 포구에 있다. 사각형으로 돌담을 두르고, 시멘트로 당집을 짓고 초록색으로 페인트칠을 했다. (1980, 9월 준공이라고 새겨짐). 당집은 출입문과 창문 2개가 있는데, 천정이 새까맣게 그을려 있다. 시멘트로 제 단을 만들고 그 위에 나무로 된 케를 모셨는데, 그 안에 지전 물색과 실, 쌀이 들어 있다. 제단 위에는 신체의 좌우로 촛대가 있고 그 주위로 향로, 술병, 초 등이 보인다. 창문들 위에 과일, 메, 생선 찌꺼기 등이 울 려져 있다. 당집 뒤로는 백년초가 자라고 있다.”¹⁶²⁾

『제주신당조사(서귀포시권)』 기록을 보면 당집이 1980년 9월에 준공했다고 새겨져 있다고 한다. 자료 사진 으로 확인해 보면 작은 창문에 알루미늄으로 되어있고 문도 알루미늄으로 다시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건 물 안 천정이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다는 내용으로 봐서 현재의 당은 2009년 이후 당을 다시 새롭게 지은 것 으로 보인다. 현재는 나무로 된 집이고 내부 모습도 매우 깨끗한 상태이다.

개당은 어부와 해녀들이 다니고 특히 어부들이 주로 다닌다. 제일은 초하루, 보름이다. 제물은 메, 과일(3

161) 남제주군, 『남제주군의 문화유적』, 세림원색인쇄사, 1996, 344쪽.

162) 제주특별자치도·(사)제주전통문화연구소, 『제주신당조사(서귀포시권)』, 도서출판 각, 2009, 328쪽.



사진 312 2009년 이전 사계리 개당



사진 313 사계리 개당 외부 모습



사진 314 사계리 개당 내부 모습



사진 315 사계리 개당 신체

종류), 생선, 술, 쌀, 돈 등이다. 하지만 어부들은 배가 바다에 나갈 때 아무때나 당에 갔다고 한다.

개당은 아무때나, 이거 바닷에 다니는 사람 개당이난. 어부덜만. 해녀도 이디 막 모영 이 년에 한 번 저 그 풍 험 네. 그축 혈 땀 가. 바다에 나가젠 허면은 저 강 다녀사 바다에 나가는 거. 바다에 그자 고기 잡으레 가젠 허면은 널 고기 잡으레 가젠 허면은 오늘밤 널 아침이 그디 다닌 후에 나가는 거. 다녀난 거 배에 실령 가서 먹고 경 안 허민 집에 가정 와. 초하루 저 날에 다녀. 배 안 가도 초하룻날은 다녀. 개당에 강 와가지고 배가 나가. 과일 놓고 술 놓고 메 저 밥하고 생선 하나 굽고 아무거나도 그자. 쌀 한 사발하고 싹도 뭇 혈 때 놓고 경 안 혈 때 가고 풍제혈 땀 그런 거 다 들어. 그냥 혈 때엔 메만 하고 고기하고 과일하고 술하고 거만 놔. 쌀도 가정 가는 사름 가정 가고 안 가정 가는 사람 안 가정 가고. 나는 안 가정 가. 갈치는 안 해. 저 머리 인 고기만. 갈치는 안 해. 우럭이나 생성이나 경. 돌레떡은 풍제나 혈 때 허주. 돈도 강 놔야지. 천 원. 천 원 올려. 경 해근에 '바다에 나감수다.' 해근에 '도와줍서.' 허영 골아근에 절 세 번 허고 해어근에 그거 영영 잡신혜영 버려두고 가정 가.

(개당은 아무때나. 이거 바다에 다니는 사람 개당이니깐. 어부들만. 해녀도 여기 막 모여서 이 년에 한 번 저 그 풍(풍어제) 하잖아. 그렇게 할 땐 가. 바다에 나가려고 하면 저 가서 다녀야 바다에 나가는 거. 바다에 그자 고기 잡으러 가려고 하면 널 고기 잡으러 가려고 하면 오늘밤 널 아침이 거기 다닌 후에 나가는 거. 다녔던 거 배에 실어서 가서 먹고 그렇게 안 하면 집에 가지고 와. 초하루 저 날에 다녀. 배 안 가도 초하룻날은 다녀. 개당에 갔다 와서 배가 나가. 과일 놓고 술 놓고 메 저 밥하고 생선 하나 굽고 아무거나 그자 쌀 한 사발하고 싹도 뭇 할 때 놓고 그렇게 안 할 때 가고 풍제(풍어제)할 땐 그런 거 다 들어. 그냥 할 때엔 메만 하고 고기하고 과일하고 술하고 거만 놔서. 쌀도 가지고 가는 사람 가지고 가고 안 가지고 가는 사람 안 가지고 가고. 갈치는 안 해. 저 머리 있는 고기만. 갈치는 안 해. 우럭이나 생선이나 구워서. 돌레떡은 풍제(풍어제)나 할 때 하지. 돈도 가서 봐야지. 천 원. 천 원 올려. 그렇게 해서 '바다에 나갑니다.' 해서 '도와주세요.' 해서 말하고 절 세 번 하고 해서 그거 이렇게 이렇게 잡식해서 버려두고 가지고 가.)

- 고옥연 구술

배가 바다로 나가려면 배 나가기 전에 개당에서 비념을 하고 나서 배가 출항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초하루에는 배가 출항을 하든 안 하든 개당에 갔다. 혼자 가서 당에 제물을 올리고 “오늘 배가 나갑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절 세 번하고 온다. 제물은 제반 견음, 잡식을 하고 배로 가지고 가서 아침으로 먹기도 하고 집을 가지고 가기도 한다.

또 배에도 다녀. 선양 배선양. 배에도 다녀. 것도 고기 굽고 메 허고 과일 허고 것도 초하루만 허었주. 그 전인 아

빠네 잇일 땐 초하루, 보름에 다녔주게. 겐 이젠 초하루만 허다가 이젠 우리도 안 땡기난 몰라. 험신지. 경허영 막 혜영 정성 혜영 가민 고기도 많이 잡고. 선양 앞더레 이 앞더레 다 버려 놓고 선양도 그거처럼 7치 해. 메하고 고기 굽고 술하고 과일 세 가지 허고. 그거. 돈이나 잇이민 돈이나 천 원 올리고 실이나 거기 강 올리고. 그 전인 초하루, 보름 허단 이젠 초하루만 허여. 초하루만. 배에서. 개당 갖당 배에도 가고 따로 따로. 배에도 따로 따로 나가 주민 남자도 허고 여자도 허고 이녁 같이 배니깐. 초하루만 험실 거라.

(또 배에도 다녀. 선양 배선양. 배에도 다녀. 그것도 고기 굽고 메하고 과일하고 그것도 초하루만 하지. 그 전에는 아빠(남편)가 살아있을 땐 초하루, 보름에 다녔지. 근데 이젠 초하루만 허다가 이젠 우리도 안 다니고 몰라. 하는지. 그렇게 해서 막 해서 정성 해서 가면 고기도 많이 잡고. 선양 앞에 이 앞에 다 벌려 놓고 선양도 것처럼 같이 해. 메하고 고기 굽고 술하고 과일 세 가지 하고. 그거. 돈이나 있으면 돈이나 천 원 올리고 실이나 거기 가서 올리고. 그 전엔 초하루, 보름 허다가 이젠 초하루만 해. 초하루만. 배에서. 개당 갖다가 배에도 가고 따로따로. 배에도 따로따로 내가 주면 남자도 하고 여자도 하고 자기 배니깐. 초하루만 하고 있을 거라.)

- 고옥연 구술

배 조정실에 선양을 모시고 초하루에 뱃고사를 한다. 초하루가 되면 개당에 가서 비념을 하고 다시 배로 와서 비념을 하는 것이다. 고옥연 제보자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초하루, 보름에 했다고 한다. 그렇게 정성을 드리면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한다. 개당에 메인심방은 따로 없었다.

나그네가 없어. 아무 나그네나 데령 자기 뭐 할 때 하고 나그네가 없어. 송씨할망 신 때에 딴 사람 빌어다가 같이 가서 허었지. 그 할망 신 때 딴 사람 빌어다가 다 했잖아.

(나그네(심방)가 없어. 아무 나그네나 데리고 자기 뭐 할 때 하고 나그네가 없어. '송씨할망' 있을 때에 딴 사람 데리고 같이 가서 했지. 그 '할망' 있을 때 딴 사람 데리고 다 했잖아.)

- 고옥연 구술

3-2-2. 풍어제(요왕굿)

사계리 풍어제는 2년에 한 번씩 행해진다.¹⁶³⁾ 사계리 풍어제는 달리 요왕굿(용왕굿)이라고도 한다. 과거에는 요왕굿이라 불렀는데 지금은 풍어제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요왕굿은 어부와 해녀를 중심으로

해서 별이는 곳으로 바다를 관장하는 요왕신(용왕신)을 청하여 바다 일이 안전하기를 빌고, 바다 농사가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는 의례이다. 164)

음력 2월 초순에 택일하여 굿을 한다. 특별히 제장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포구에 제장을 마련해 놓고 굿을 진행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당맨심방이 용왕굿을 맡았다. 굿은 사흘 정도 벌였다. 첫날에는 삼분향-삼석울림-초감제-하정-석살림-요왕제스본풀이 등을 하고, 둘째 날에는 용왕대신맞이(초감제-신청계-하정-요왕맞이-질침)등을 하며, 마지막 날에는 액맥이와 배방선을 진행한다. ‘씨드림’도 하고 배방선도 하니 영등굿과 잠수굿의 성격도 두루 지니고 있는 셈이다. 씨드림은 메밀, 수수, 콩, 조, 보리 등 오곡 씨를 가지고 한다. 곡식의 씨를 바다에 뿌림으로써 소라, 전복이 많이 나기를 바라는 것이다. 165)

과거에는 요왕굿을 사흘간 하었다고 한다. 씨드림, 배방선을 같이 하여 영등굿과 잠수굿의 성격을 두루 갖고 있는 굿이라고 하였다.

2024년도 사계리 풍어제는 3월 20일(음력 2월 11일)에 하루 굿으로 하였다. 제장은 어촌계 사무실에 딸려있는 회의실을 정리하여 제상을 차렸다. 고덕유 심방이 수심방으로 소미 3명과 굿을 하였다. 풍어제를 하기 앞서 전날 3월 19일에 청밭 할망당에 가서 내일 영등굿을 하니 오시라고 청하는 ‘본향고함’ 의례를 한다. 토산 으드렛당은 현재 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당에 있는 돌 하나를 청밭할망당에 갖다 놔서 청밭할망당에 의례를 할 때 으드렛당까지 함께 했다. 그리고 다시 개당으로 가서 ‘본향고함’ 의례를 하였다.

풍어제 제차 순서는 삼석울림을 하고 이후 아침식사를 하고 나서 초감제를 시작하였다. 초감제는 들어가는 말미-베포도업침-날과국섬김-열명-연유담음-신도업-군문열림-새드림-신청계-석살림-분부사림 순서로 진행하였다. 이후 추물공연을 하고 점심식사를 하였다. 새드림과 추물공연은 소미가 하였다. 점심식사 시간에 어촌계장이 선왕상을 들고 공영호로 가서 뱃코사를 하였다. 공영호 조정실에 ‘선양도갑’ 앞에 상을 놓고 의례를 하였다. 사계리에서는 ‘선양도갑’을 ‘당’이라고도 한다. ‘선양도갑’은 문이 달린 위패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그 안에 지전, 물색, 돈 등이 들어있다. 점심식사가 끝나고 뉘들임을 하였다. 배에서 넘어져 어깨에 금이

가 다친 해녀와 어촌계장이 신자리에 앉아 뉘들임을 하였다. 제차는 뉘들임-뉘새드림-푸다시 순서로 소미가 진행하였다.

이후 제장 밖에서 요왕맞이를 하였다. 요왕맞이 제차는 요왕맞이>초감제>베포도업침-날과국섬김-열명-연유담음-신도업 이후 요왕질침을 하였다. 질침이 끝나고 개별 영가상에 의례를 하였다. 2024년 개별 영가상은 하나였다. 과거에는 아주 많았다고 한다. 다시 제장으로 들어와 차사본풀이-상당숙임-액맥이-선양풀이-씨드림, 배방선-도진 순서로 진행하였다. 씨드림과 배방선은 공영호를 타고 바다로 나가 진행하였다. 그때 함께 배를 타고 간 해녀들은 개별 의례로 지드림도 하였다. 도진은 배방선이 나가고 나서 바로 진행하였다. “쭈어나라”를 말하며 콩을 뿌리고 이후 “입수계수”라 하여 입에 술을 머금고 뿌리는 행위를 하며 제장을 처음의 모습으로 정리하여 오후 늦게 굿을 마쳤다.



사진 316 초감제 (2024년)



사진 317 새드림 (2024년)



사진 318 요왕뉘 (2024년)



사진 319 석살림 (2024년)

163) 사계리 풍어제는 2025년에는 쉬는 해였고, 2024년에 풍어제를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에서 2024년 사계리 풍어제를 조사한 바가 있어, 이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164) 사계리 마을회, 『사계리誌-明沙碧溪의 고장』, 대영인쇄사, 2015, 446쪽.

165) 사계리 마을회, 『사계리誌-明沙碧溪의 고장』, 대영인쇄사, 2015, 446쪽.



사진 320 선왕상(2024년)



사진 321 선왕도갑(당)(2024년)



사진 322 뉘들임(2024년)



사진 324 요왕맞이 질침(2024년)



사진 323 개별 영가상 의례(2024년)



사진 325 선왕풀이(2024년)



사진 326 요왕기를 앞세워 대양을 치며 배방선을 들고 공영호로 가는 모습(2024년)



사진 327 도진(2024년)

4. 사계리 자연과 해양 문화

4-1. 사계리 자연

산방산 정상에서 보면, 황우치를 비롯하여 용머리, 사계포구, 설쿡바당, 형제섬, 송악산, 가과도, 마라도까지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경이로운 풍광이 펼쳐진다. 산방산은 화구로부터 점성이 높은 조면암질 마그마가 천천히 분출하여 만들어졌다. 용암의 높은 점성으로 인해 용암이 화구로부터 멀리 흘러가지 못하고 화구 주변에서 고화되어 원형의 용암돔 형태를 이루었다. 북사면을 제외하고 급경사를 이루는 주상절리 절벽은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진 풍혈이 발달해 있으며, 남쪽에는 산방굴이 있다. 특히 산방굴사는 영주십경의 하나로 국가지정 명승지로 지정되어 있다. 1703년 이형상 제주목사가 남긴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산방배작(山房盃酌)에 그려져 있던 곰솔은 안타깝게도 2013년 재선충병으로 고사하였다. 또한 산방산은 지네발란, 솔잎난 등 암벽 착생하는 희귀식물이 자생하는 곳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산방산 암벽과 상공에서 멸종위기종이면서 천연기념물인 매를 확인할 수 있다.

용머리는 수성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응회물질이 층서를 이루고 있으며, 수월봉이나 성산일출봉처럼 층서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 산방산은 용머리응회환이 만들어진 후 약 80만 년 전에 형성되었으며, 형성 과정에서 일부 화산분출물이 용머리응화암층을 덮고 있다.¹⁶⁶⁾

166) 박기화 외 6인, 『제주도 지질여행』, 한국지질자원연구원·제주발전연구원, 2013, 121쪽.

형제섬은 두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쪽의 작은 바위섬은 용암 위에 송이가 쌓여 있는 구조이며, 주상절리층이 수직으로 발달한 곳이다. 동쪽의 큰 섬은 해변, 바위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다. 형제섬은 하부로부터 화산쇄설층, 집괴암 및 분석층, 분화구 용암, 아아 용암류와 이를 피복하는 재동퇴적층과 해변퇴적층 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산 분출 연대는 약 9천 2백 년 전후이다.¹⁶⁷⁾ 형제섬의 암벽은 매의 번식지와 가마우지의 쉼터로 이용되고 있다. 가마우지는 형제섬과 송악산 일대에서 오랜 시간 앉아서, 날개깃을 말리거나 배설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사계리 사람들은 형제섬의 작은 섬은 ‘웃섬’이라 하는데, 가마우지의 하얀 배설물이 바위 절벽을 하얀 웃으로 뒤덮은 모습에서 연상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산방산과 용머리는 바다와 접한 풍광이 뛰어나고, 독특한 화산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제주의 대표적인 자연생태 관광지이다. 계절에 따라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며, 특히 세계지질공원 축제 시에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한데 모여 특별한 여행을 즐긴다. 세계지질공원은 지질학적으로 뛰어난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 지역을 보호하면서 이를 토대로 관광을 활성화하여 주민 소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유네스코 프로그램이다. 2004년 유럽 지질공원망(EGN)의 협력으로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가 설립되었으며, 전 세계 485개국 213개소(2025년 기준)가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다. 제주도는 2010년 10월 1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었으며, 대표 명소는 산방산과 용머리를 비롯하여 한라산백록담, 성산일출봉, 만장굴, 수월봉, 중문대포주상절리대, 천지연, 서귀포패류화석층, 선홍곶자왓, 비양도, 우도, 제주삼다수숲길 등 13개소이다. 제주도에서는 2011년부터 한경면 수월봉 일대, 성산읍 성산일출봉 일대, 구좌읍 만장

167) 박준범 외 5인, 『제주도 형제섬 화산체의 지질과 화산활동』, 『자연환경지질 54권 2호』, 대한자연환경지질학회, 2021, 187쪽~197쪽.



사진 328 탐라순력도 산방배작(소장 제주세계유산본부)



사진 329 산방산



사진 330 산방산 정상에서 본 사계리의 전경

굴 일대, 안덕면 사계리 산방산과 용머리 일대, 조천읍 교래리 삼다수숲길을 중심으로 지질자원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산방산과 용머리 해안 지질트레일은 산방산-용머리 해안-황우치-주슴길 낚자왈을 잇는 생태·문화·역사 탐사, 사계리 마을 탐방, 체험과 공연, 지역특산물 판매 코너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사계리에는 세계적으로 빠지지 않는 세계지질공원 두 곳이 있다. 하나는 산방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용머리 해안이다. 제주의 대표적인 지질 명소는 제주의 상징인 ‘한라산’을 비롯해 수성화산체의 세계적인 연구지인 ‘수월봉’, 용암돔으로 대표되는 ‘산방산’, 제주도 형성 초기 수성화산 활동의 역사를 간직한 ‘용머리 해안’, 주상절리의 형태적 학습장인 ‘중문 대포 해안 주상절리대’ 등 모두 13곳이 있지만 이곳 사계리의 경우에는 용머리 해안과 산방산 용암돔이 들어간다.

옛날부터 관광지 된 지는 오랫동안. 오래됐는데, 한 마을에 두 곳이 이제, 관광지로 이제.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정받는 데는 여기 사계리가 유일합니다. 딱 데는 없어요.

- 신용하 구술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지질공원이자 국가지질공원인 제주도의 핵심 명소를 알리는 트레일 행사가 사계리 지역 상권과 상생 행사로 마련돼 주목을 끌었다.



사진 331 산방산과 용머리 해안의 전경

나 여기(용머리 해안 지질해설 안내소) 온 게 한 칠 년 됐는데, 그렇게 큰 행사는 안 해봐수다게. 처음 아닌가 건물 빌어가지고, 먹거리 만들고, 뭐 시범도 보이고 허난, 선전 효과도 있고예, 소문도 나고. 널리 알려도 지고.

- 신용하 구술

우리 사계 사람들이 지질이 이렇게 많은 걸 인식이 부족해. 이것을 앞으로 우리 행사나 교육이나 할 때 자주 부각을 시켜줘야. 여건이 되게 강조하고, 회의하고, 교육하고 해야 돼. 우리 사계가 제주도에서 세 군데 밖에 잇일 거라. 김녕, 교래, 고산벵기 잇일 거라.

- 이경옥 구술

하지만 아직까지도 마을 주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주민 참여가 적은 것을 안타까워하는 이야기처럼 주민들의 주인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임을 깨닫게 한다.

4-1-1. 산방산

산방산은 안덕면 사계리 산 16번지에 위하고 있으며, 해발 395m의 커다란 용암돔이다. 산방산은 사계리 진산이며, 사계리의 상징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산방산이라고 표기하고, 민간에서는 ‘산방오름’이라고도 한다.¹⁶⁸⁾ 산방산 위에 구름이 살짝 걸쳐 있을 때는 신비롭기까지 하다. 산방산의 지질학적 나이는 120만 년에서 70만 년 정도로 추측하는데, 조면암질 용암으로 이루어진 종상화산으로서, 용머리 해안과 함께 아주 오래된 화산지형 중 하나이다.

산방산은 뜨거운 용암이 뜨거운 대지를 뚫고 올라왔으나 멀리 흐르지 않고 주변에 쌓이고 쌓여서 봉긋한 종 모양의 용암돔으로 굳은 것이다. 산방산은 수성화산으로 만들어진 용머리 해안의 응회암을 산방산에서 화산이 분출할 때 만들어진 화산쇄설물이 덮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용머리 응회암이 만들어진 후에 산방산을 만든 화산활동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¹⁶⁹⁾ 이러한 지질학적 가치와 특징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었다.

168) 사계리 마을회, 『사계리誌-明沙碧溪의 고장』, 대영인쇄사, 2015, 182쪽.

169)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도 지질여행』, 제주발전연구원, 2013, 116쪽~117쪽.

이 산방산 이제 산방굴사 소곶에 절간 하나, 옛날에 우리 땡길 때 영 산방덕이엔 영, 앓아나신디. 돌하르방추룩 행, 앓아나서.

(이 산방산 이제 산방굴사 속에 절간 하나, 옛날에 우리 땡길 때 이렇게 ‘산방덕이’라고 앓아 있었는데. 돌하르방처럼 해서, 앓아 있었어.)

- 허월자 구술

한 번 들은 적이 있는 게, 저기 결혼도 안 했에, 뭐 혼자만 뭐 살곡, 뭐 어찌고 저찌고. 그때는 알아났지만 이제는 몰라.

(한 번 들은 적은 있는 것이, 저기 결혼도 안 하고, 뭐 혼자만 뭐 살고, 뭐 어찌고 저찌고. 그때는 알았었지만 이제는 몰라.)

- 허월자 구술

이곳 산방산 중턱에는 산방덕이라는 여자 신에 대한 전설이 있다. 산 중턱에 작은 동굴로 된 방이 하나 있다. 이 동굴의 천장에서는 석간수가 계속 떨어지는데, 이 물을 먹으면 장수 한다거나 물의 효험이 좋아 병이 낫는다는 등의 다양한 전설이 있다.

그리고 산방산 중턱에 있는 커다란 굴은 ‘산방굴사’라 해서 고려시대 때 이곳에 고승 혜일(慧日)이 불상을 모시고 수도를 하면서 ‘굴속의 절’이라는 굴사(窟寺)로 불리게 되었다고 전한다.

낭 허젠 허민, 산방산에 올라가서 낭 강 헤다가 져가지고 쟁여 낫다가 밥헨 먹언. 올라가는 길이 있어, 나무허러 가는 길이 있어.

(나무 하려고 하면, 산방산에 올라가서 나무 가서 헤다가 져서 재겨 났다가 밥해서 먹었어. 올라가는 길이 있어. 나무하러 가는 길이 있어.)

- 고육연 구술

지들커는 산방산에 간 허단에 산방산 앞으로 강 하다, 이제 뛰어강 올라가면, 영 내려가젠 허민 쫄라 매면, 털어 추알근에. 앞으로 털어져, 앞으로 털어치민.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어.

(뽕같은 산방산에 가서 하다가 산방산 앞으로 가서 하다, 이제 뛰어가서 올라가면,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면 쫄라매면, 떨어뜨리고. 앞으로 떨어져. 앞으로 떨어트리면.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어.)

- 이영택 구술

현재 산방굴사는 사계리 마을회가 직접 운영하고 환경정화를 담당하며, 매년 사월 초파일이 되면 사계리 이장단과 임원들이 산방굴사를 찾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위해 연등을 밝히는 초와 향을 준비한다.

사월 초파일 전날, 어저께 밤에 여기 와근에, 여기 정리도 좀 하고, 청소도 좀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다 달 아주렌 헨 거 달아도 주고, 촛불도 켜 주고.

- 이경옥 구술

여기서 잠을 자는 게 아니고, 잠을 못 자마씨. 많이 오지는 않지만은, 꾸준히 올라오니까. 어저께 저녁에 어제 여기 네 명이서 근무했수다.

(여기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고, 잠을 못 자요. 많이 오지는 않지만은, 꾸준히 올라오니까. 어저께 저녁에 어제 여기 네 명이 근무했어요.)

- 장행관 구술

우리 산방굴사가 우리 마을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리에서가 초파일 되면, 평상시에는 관리자가 항상 한 명 상주합니다게예, 경헌디 한 명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 마을에서 임원들이 올라와가지고 요걸 도와주는 거 우다게. 손님들 올라와가지고 촛불 키고 하는데, 혼자만은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가 조를 편성 해가지고, 야간 조, 아침 조 하루 썩 돌아갑니다게. 젊은 사람덜은 밤에 하고, 나이 있는 분은 낮에 하고, 오늘 하는 데가 저녁때까지 다섯 시쯤 되면 끝나는 거. 마을에서 계속 어릴 때부터. 여기만 관리, 밑에는 개인 사찰이니까.

- 이경옥 구술

산방산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제주의 많은 오름들과는 달리 정상부에 분화구가 없다. 산 중턱에 방이 있어서 산방산이라고 불렀다고 전한다. 전설에 의하면 ‘산방덕’ 여신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 사계 주민들과 인터뷰하였으나 자세한 내용을 기억하지는 못했다.

당시는 사계리 주민들도 집마다 소를 키우던 시절이라, 용머리 해안으로 소를 끌고 나가서 풀을 먹였다. 당시만 해도 산방산과 단산 모두 과장하면 잔디밭처럼 풀이 무성했다고 전한다. 그 풀을 헤다가 겨우내 소들의 양식으로 삼았다. 지금의 풍경과는 사뭇 달랐던 이야기이다.

또한 이곳 산방산은 탐라순력도 ‘산방배작’에도 나올 만큼 풍수적으로도 명당으로 유명하여 금장지(禁葬地)라고도 불렸다. 제주도의 산방산과 용머리 해안은 예부터 왕후지지라 하여 왕이 태어날 맥이 서렸다는 호

종단 전설과 함께 명당으로 소문이 난 곳이다. 그래서 이 지역 유지들은 산방산에 묘를 쓰고자 줄을 섰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한다.¹⁷⁰⁾

4-1-2. 용머리 해안과 뽕이자랑

제주도는 섬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주에는 지질 관련 명소가 많다. 그중에서 제주에서 지질학적으로 지질 연대가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산방산과 용머리 해안이다. 용머리 해안의 정식 명칭은 ‘제주 사계리 용머리 화산쇄설층’으로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수성화산이며, 오랜 기간 퇴적과 침식 작용으로 해안 절벽의 모습이 마치 용의 머리처럼 보이기 때문에 용머리라고 불린다. 경관적 가치도 높으나 지질학적으로는 바닷속 세 개의 화구에서 분출된 화산쇄설물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해안으로, 성산일출봉, 수월봉과 달리 화구가 이동하며 생성되었기 때문에 지질·지형적 가치가 크다.

그거 용머리엔 허연애, 용 대가리처럼 생겼젠 헨애,

(그거 용머리라고 해서, 용 대가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 이영택 구술

일반적으로 제주도는 약 180만 년 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 퇴적층을 뚫고 올라온 마그마가 물과 접촉하여 수성화산 분출로 시작했다고 말한다. 용머리 해안의 응회환은 이 시기에 발생한 수성화산 분출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바다에서 용암이 폭발한 후 화산재가 오랜 세월 겹겹이 쌓여 누룩돌¹⁷¹⁾을 만든 곳이 바로 용머리 해안인 것이다.

옛날 보릿고개 시대에, 요기 소도 놔서 키우고, 그 줄 손에 잡아가지고, 우리도 어린 때 소 키우고 했는데, 밭에 끌고 가서, 췌가 배불러야 집이 오면은 ‘오늘 수고했져’ 헌 말을 듣고, 배 고프면 집이 와서 욱 들어요.

- 신용하 구술

그 여기 칼바위라고 있는데, 우리 저디 옛날에는 많이 다녔우다만은, 막 숲이나 잡풀로 옛날에 염소도 키우고, 염

170) 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96, 237쪽~238쪽.

소도 지나가다가 떨어져서 죽고. 거기 저 소 보다가 어, 소가 막 튀어 넘으니까, 소는 그디를, 넓어도 이 정도밖에 안 합니다. 길기만 하고. 길게 나가지고 완전 직각이예요. 직각. 소는 넘어갔는데 사람이 쉽게 생각해가지고, 그 걸 소 잡으려고 넘어가다가 그냥 들어. 사람도 죽고, ‘뽕이자랑’ 말은 들어본 적은 없는데.

- 신용하 구술

이곳 용머리 해안에는 ‘뽕이자랑’이라는 지명을 가진 장소가 있다. ‘뽕이자랑’이란 제주에서 아기를 재우기 위해 ‘애기구덕’을 흔들면서 부르는 자장가를 말한다. 현재는 출입이 금지되어서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해녀나 마을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기억하는 장소로 ‘뽕이자랑’ 굴을 들 수 있다.

해녀덜도 요 위애를. 옛날에야 사람들이 뭐 위험한 거 옛날이야, 뭐 위험은 뭐 들썰고, 막 다닐 때니까. 그런데 지금은 위로 못 다니게, 절대 못 다녀요. 저 여기서 통제도 하고 못 갑니다. 못 가는데, 오로지 이렇게 한 바퀴씩 돌아야.

- 신용하 구술

사계리 용머리 해안은 해안이 절벽으로 되어있어 아주 위험하다. 그러나 예전에는 해녀들도 용머리 해안 절벽 위를 걸어 다녔으며, 지금은 폐쇄되었으나 옛 산책로를 따라 90년대까지만 해도 관광객들이 용머리 해안 절벽 위를 직접 걸어 다녔다.

4-1-3. 사계 포구

사계리에는 절장포와 토끼포구라고 부르는 사계 포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포구는 토끼포구가 유일하다. 절장포(절장개) 해녀 탈의장을 만들었으나, 체육공원 안에 있어 현실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며, 공동어장인 ‘넙데기’ 어장에서도 멀어서 해녀들이 불편한 점도 있다. ‘불턱’도 실질적으로 존재했다고 하나 현재는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171) 누런 암석 덩어리가 해안에 길게 누운 모습이 마치 누룩 같다고 이곳 사계리 사람들은 ‘누룩돌’, ‘누룩빌레’라 부른다. 사계리 마을 지에 의하면 썰물 때는 선명하게 드러나고 밀물 때는 잠기는 ‘누룩돌 빌레’는 썩은 돌과 같이 푸석푸석하다는 데서 ‘썩은 빌레’, ‘썩은 빌레’라고도 한다.

사계 포구는 일제 강점기인 1920년대에 축항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후 사라호 태풍(1959년)으로 무너지고 등명대도 부서졌다고 전하며, 축항으로 포구 주변으로 있었던 원담도 없어서 ‘큰원’, ‘무을원’, ‘동편원’ 등이 모두 사라져¹⁷²⁾ 현재 남아 있는 원의 흔적은 없다.

토끼포구가 옛날에 누룩돌로 해서 사람들 다니지 못했어. 여기 이제 배 매는 디, 다 그거 얼통들통 다 그거라. 경 헌 디, 그저, 확 곤젠 허난 모르켜, 그 사람이 이디 완, 그 누룩돌 멜라가지고 이디 저추록 헤짚잖아. 그 사람이 이디 완, 이거 멧억 천에 이디 완,

(토끼포구가 옛날에 ‘누룩돌’로 해서 사람들이 다니지 못했어. 여기 이제 배 매는 데, 다 그거 울통불통 다 그거야. 그런데, 그저, 빨리 말하려고 하나까 모르겠네, 그 사람이 여기 와서, 그 ‘누룩돌’ 망가뜨려서 여기 저렇게 헤짚잖아.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이거 멧 억 쥐서 여기 왔어.)

-고육연 구술.

4-1-4. 용머리 해안 기후 변화 홍보관

제주 사계리 용머리 해안은 최근 30년 동안 해수면이 약 13cm 상승하여, 출입 통제되는 날이 빠르게 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을 잘 볼 수 있는 곳이라 이곳에 기후 변화 체험, 교육을 위한 홍보관을 조성하였다. 이산화 탄소의 발생을 억제하지 않으면 지구온난화로 해수면 상승이 가속화되어 800년 후 세계 주요 도시가 물속으로 사라지는 비극이 초래될 수 있다.¹⁷³⁾

시간이 1년에 육 점 일 미리 이상. 서해안이 삼 점 삼 미리, 세계 평균이 일 점 팔인데, 우리가 빠르다는 의미에서 그거 나온 거야. 우리 여기서 쪽 건너보면은, 공무원 할 때도 여기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직접 느낄 수 있어요. 일 년에 일 년 지나면은, 이게 만조하는 시간이 오래고, 그 통제하는 시간이 오래고.

-신용하 구술.

19세기 중반 이후 해수면 상승률은 과거 200년의 평균보다 크다. 전지구 평균 해수면의 상승률은 20세

172) 사계리 마을회, 『사계리誌-明沙碧溪의 고장』, 대영인쇄사, 2015, 141쪽.

기 초반부터 증가했으며, 1901년부터 2018년 사이 전 지구의 평균 해수면은 20cm나 상승했다. 안덕면 사계리 용머리 해안은 1970년 이후 38년 만에 해수면이 22.6cm 상승했다.

오늘 두 시까지주, 두 시까지도 이거 오랜만이 언 거우다. 이거 이달에 한 세 번 정도밖에는 안 열면 마썸, 점점 통제일 수가 많아지니까.

-신용하 구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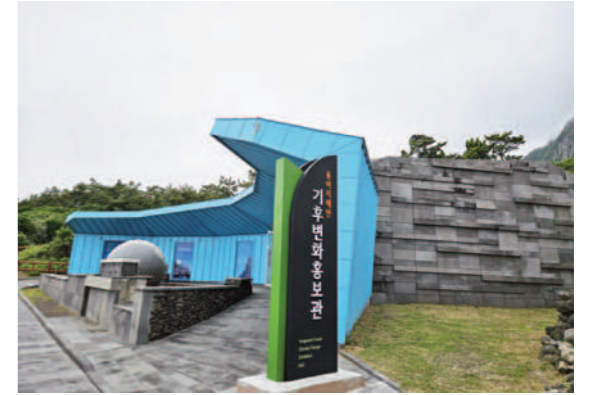


사진 332 용머리 해안 기후변화홍보관

정부는 조금씩 지대가 높은 곳으로 탐방로를 옮기고 있지만, 이르면 2100년에는 더 이상 이 절경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¹⁷⁴⁾ 만조로 인해 탐방로가 바닷물에 잠기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해안가 산책을 즐기기가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용머리 해안은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4-1-5. 사계리 사람발자국 화석 동물발자국 화석산지

사계리에는 해안 체육공원으로 가는 길목에 천연기념물인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산지’가 있다. 이 사람발자국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와 대정읍 상모리에 걸쳐 있는 것으로, 이 화석산지는 아시아 최초이자 전 세계적으로도 8번째로 발견된 희귀한 화석으로,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사계리 해안에서 발견된 사람발자국 화석은 당시 제주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해안 생물들의 종류, 서식 환경 등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¹⁷⁵⁾

동물내리는깍, 거기 공룡 발자국 자리, 그 지경이 속칭 만다리엔 해. 옛날엔 아이덜 몰랏주마썸. 나 그디 거 파근

173) 용머리 해안 기후 변화 홍보관 안내문 참조.

174) 조병욱, 『해수면 상승의 공포... 용머리 해안 2100년에 수몰 위기』, 『세계일보』, 2015.12.31. (<https://www.segye.com>, (검색일: 2025.8.17.))

175)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https://www.heritage.go.kr/heri/idx/index.do>(검색일 2025.11.30.))

에, 막 부서근에 놀안.

(‘똥물내리는깍’, 거기 공룡 발자국 자리, 그 지경이 속칭 ‘만다리’라고 해. 옛날에는 아이들 몰랐지요. 나 거기서 그거 파서 막 부서면서 놀안.)

- 고희봉 구술

사계리 화석산지는 송악산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 해안에 분포하는 하모리층으로, 제주도에서도 젊은 지층에 해당한다. 최근 기후 변화와 해안 시설물 설치 등으로 해류 이동이 바뀌면서 모래가 유실돼 발자국 화석층이 발견되었다. 특히 사람발자국 화석은 한반도에서의 인간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 자료로, 후기 구석기 인류의 이동 경로 연구에 도움이 된다. 사람 발자국 화석이 형성된 시기를 놓고 논란이 있었으나 퇴적층의 석영 입자를 이용한 OSL 연대측정에 의하면, 사람발자국은 6,800~7,600년 전 사이의 시기에 실트층이 쌓인 해안을 거닐던 사람의 흔적으로 볼 수 있다.¹⁷⁶⁾

그거 옛날에 궤기 나끄레 가젠 허민, 갯지렁이 비싸고 허니까, 곡괭이로 누룩돌 깨민, 미끼로 이만 헌 갈개썰¹⁷⁷⁾ 이라고, 미끼를 거기서 헛수다게. 떼단 보난, 거기서 나온 거라. 궤기 나끄레 덩기는 사람 내불어시민 안 나완, 발자국이니 뭐니.

(그거 옛날에 고기 낚으러 가려고 하면, 갯지렁이는 비싸고 하니까, 곡괭이로 누룩돌 깨면, 미끼로 이만 한

물갯지렁이라고, 미끼를 거기서 했어요. 떼다가 보니깐, 거기서 나온 거지. 고기 낚으러 다니는 사람 내버렸으면 안 나왔어, 발자국이니 뭐니.)

- 이경옥 구술

그러나 이러한 사람발자국 화석의 학술적 가치가 알려지기 전, 이곳은 단지 아이들과 어른들의 생활 공간이었다. 오늘날 인류학적·고고학적으로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는 발자국 화석도, 그 존재와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던 시기에는 지역민들의 생활 속에서 훼손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사계리 화석산지는 지역민의 생업과 놀이의 기억, 그리고 후대의 과학적 발견이 중첩된 장소라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와 생활사적 의미가 함께 담긴 공간이라 할 수 있다.

4-1-6. 사계리 지질트레일 코스 소개

2010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제주도는 지질공원 대표 명소인 사계리 산방산과 용머리 해안에서 제주 지질자원의 가치를 알리고 지질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질을 테마로 걷는 지질트레일 축제를 열고 있다. 사계리는 80만 년 전의 지층이 층층이 쌓인 지질 명소가 많아, 지질트레일을 걸으며 제주도의 속살을 다채롭게 엿볼 수 있다. 2025년에는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2025 산방산·용머리 해안 지질트레일’ 행사가 용머리 해안에서 열렸다. 이곳 사계리 지질트레일은 산방산과 용머리 해안 일대를 탐방하며 제주도의 지질자원을 테마로 하는 지오푸드와 지오숙소가 특색있다.

이런 새로운 여행의 접근을 시도해 볼 만큼 사계리는 지질 명소가 많다. 단순히 제주의 풍경을 탐하기보다 역점의 시간이 빚어낸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계리 지질트레일 코스는 사계리를 잇는 코스와 사계리뿐 아니라 화순리까지 아우르는 코스 등이 있다. 형제해안로부터 산방산, 용머리 해안으로 이어지는 풍경과 교과서에서 본 화산지형을 가까이에서 직접 관찰하고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지질길을 걷다 보면, 사계리 ‘누룩돌’과 수평 층리, 수직 절리 단애 등 자연과 어우러진 모습에서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 생긴다.

나 여기 온 게 한 육 년, 칠 년 됐는데, 그렇게 큰 행사는 안 해봐수다게. 보통 보면 수월봉, 처음 아닌가? 건물 빌어가지고. 먹거리 만들고, 뭐 물건도 놓고, 막 시범도 보이고 허난. 지질 해설하는 사름덜 거의 다완. 험으로서 좋은 거주게. 선전 효과도 있고, 관련 행사를 해야 소문도 나고, 널리 알려지고.

- 신용하 구술



사진 333 관리사무소



사진 334 발자국 화석

176)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도 지질여행』, 제주발전연구원, 2013, 126쪽.

177) ‘갈개썰’은 ‘갈개수리’로 ‘물갯지렁이’ 방언의 한 형태이다. 보통 갯지렁이보다 물렁하고 발이 많이 달려 낚싯밥으로 많이 사용한다.

사계리 지질트레일 코스를 소개하자면 A코스는 용머리 탐방 안내소→하멜 전시관→기후변화홍보관→용머리 응회환→하멜 기념비→항망대→산방연대→산방굴사 방향으로 올라가 용머리 전망대→산방굴사이다. A코스는 사계리의 화산지형과 제주의 역사·문화를 함께 체험하는 종합 코스라고 말할 수 있다. 지질트레일 A코스는 산방산과 용머리 해안을 중심으로 조성된 코스로, 용머리 해안을 탐방하는 구간으로 용머리 해안 주차장에서 출발하는 코스로 가장 대중적 코스이며 시간은 용머리 탐방을 포함하면 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나 하멜 전시관은 안전성의 문제로 철거되었다.



사진 335 지질트레일 표지판

사계리 지질트레일 B코스는 설림바당 모래길→사계포구 용암언덕→사계어촌 체험관→용천수와 발담(농업용수)→용천수 큰물→사계여행민박→용머리 해안 주차장이다.

지질트레일 B코스는 사계리 해안과 산방산의 절경을 탐방하는 코스로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특히 B코스는 산방산을 배경으로 하는 사계마을 풍경을 따라 걷는 마을 연계 코스로, 지역 주민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다.

사계리 지질트레일 C코스는 황우치 해변→소금막용암→소금막 파식동굴→아아용암과 주상절리→사근다리 응회암→화순 용천수→화순 금모래 해변→화순 새물→주슴길 꽃자왈을 걷는 코스로, 지질트레일 C코스는 사계리뿐 아니라 화순리의 지질 명소를 같이 넣은 코스로 2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특히 C코스는 사계리 용머리 해안에서 화순리 해변까지 이어지는 지질 중심 코스로, 주상절리와 응회암 등 화산지형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

장구동아리 이름은 산방 고고장구인데, 처음에는 열아홉 명이 헛단예, 행사에 출전하젠 허난예, 치와부런. 멧 명 안 됬수다게. 이제, 팔명. 장구하고, 그 뒷날은 민요하고. 우린 소리를 좋아하니가 옛날부터 배우당으네 방어 축제도 가고, 행사 있으면 경로당 봉사활동도 다니고, 폐막식 할 때 민요하고, 개막식 할 때 장고하고

-허금자 구술

2025년 산방산&용머리 해안 지질트레일 축제가 지난 7월 26일에 열렸다. 당시 개막식에는 식전 행사로



사진 336 사계리 지질코스 안내문 (제주도세계지질공원(<https://www.jeu.go.kr/geopark/index.htm>))제공

어린이 태권도 시범과 어린이합창단의 공연도 펼쳐졌는데, 사계 지역 마을 주민으로 이루어진 사계 장구 동아리의 공연도 이어졌다.¹⁷⁸⁾ 그 외에도 행사장에서는 부채 만들기과 인형 만들기 등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이 열렸으며, 사계 지역 먹거리 장터와 지오브랜드를 홍보하는 등 지역과 연계한 상생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되었다.

4-1-7. 사계리의 아름다운 길, 형제 해안로

사계리 해안도로는 건설교통부가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도 포함될 만큼 아름다운 길로 통한다. 게다가 제주 올레길 10코스의 일부로 여행객들에게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즐거운 경험을 선사하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송악산과 산방산 사이의 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아름다운 경관으로 유명한 이 도로는 형제섬을 바라보며 걸을 수 있기 때문에 형제 해안로라고 불리며,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휠체어로 움직일 수 있는 올레길 코스로도 유명하다.



사진 337 사계리 해안도로

옛날에 그때는 해안도로를 안 뺐니까. 어린 때는 이 길을 걸을 물질허레도 왔다갔다. 영 걸으면 까릿까릿한 걸로, 순비기로 이디 문뜩 가시, 경해도 물질허레 땡겨주게.

(옛날에 그때는 해안도로 안 뺐니까 어릴 때는 이 길을 걸어서 물질하러도 왔다갔다. 이렇게 걸으면 까릿까릿한 걸로, 순비기로 여기 모두 가시, 그래도 물질하러 다녔지.)

- 천영자 구술

하지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형제 해안로는 일제 강점기 알뜨르 비행장으로 향하는 일본 군인들이 걸었던 도로이기도 하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에는 ‘고개왓’의 목은학교가 장병들의 장정 대기소로 활용됨에 따라

178) 홍창빈, 「제주 산방산·용머리 해안 지질트레일... “100만년 전 제주로 떠나요”」, 『헤드라인제주』, 2025. 7. 23. (<https://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4049> (검색일: 2025. 08. 19.))

육군훈련소로 향하던 신병들이 사계항으로 입항 후 장정 대기소에서 대기하고 신체검사 후에 훈련소로 입소했다고도 전한다.

거, ‘똥물내리는깍’, 그 소낭 건너편에가 육이오때 포로수용소, 중공군, 포로수용소에서 내려온 물이 그 오물 내려오니까 ‘똥물내리는깍’, 공통 발자국, 그디 지경이 속칭 ‘만다리’라 해. ‘만다리’. 밧 지경. ‘만다리’ 지경이 저 수용소. 아까 밧갈이, 눈 감아서 밧가는 디.

(거기, ‘똥물내리는깍’, 그 소나무 건너편에 6·25때 포로수용소, 중공군, 포로수용소에서 내려온 물이 그 오물 내려오니까 ‘똥물내리는깍’, 공통 발자국, 거기 지경이 속칭 ‘만다리’라고 해. ‘만다리’ 밧 지경. ‘만다리’ 지경이 저 수용소. 아까 밧갈이, 눈 감아서 밧가는 데.)

- 고희봉 구술

친정이 여디 요만이 사난계, 요디 오젠 허민계, 오솔길, 오솔길. 길을 안 뺐었어. 나 시집 간 후에, 길을 빼었지. 오솔길 요만이 허민, 저 순비기가 사람들 많이 안 다니니깐. 계속 걸어 다니면 옛날엔 짧은 옷 입으면, 여기가 착착착 매 맞은 거추룩 표시가. 아버지가 ‘고기 상 오라.’ 허민, 그 길로만 땡겼지.

(친정이 요기 요만큼 사니까, 여기 오려고 하면, 오솔길, 오솔길. 길을 안 뺐었어. 나 시집 간 후에, 길을 뺐지. 오솔길 요만큼 하면, 저 순비기가 사람들 많이 안 다니니까는, 계속 걸어 다니면 옛날엔 짧은 옷 입으면, 여기가 착착착 매 맞은 거처럼 표시가. 아버지가 ‘고기 사서 와라.’ 하면, 그 길로만 다녔지.)

- 천영자 구술



사진 338 순비기나무

사계 형제 해안로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들 정도로 아름다운 풍광과 마을 어장이 있는 사계 형제 해안로는 자유롭게 서핑을 즐기는 관광객도 있지만 옛날에는 해녀들이 물질하러 가는 길이기도 했다. 바닷가 찬 바람과 모래가 날리는 길을 따라 부모님의 심부름을 하며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물과 친해지고 친구들과 잠수를 배우다가, 어머니를 따라 해녀가 되었다. 지금은 지형지물이 많이 달라져 옛 풍경을 잃었다 하나, 어린아이의 다리를 굽었던 ‘까룻까룻’한 순비기나무만이 옛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

4-2. 해양 문화

4-2-1. 사계리의 원담

바다는 해녀들의 생활 터전이다. 육지에서 농사짓는 곳을 밭이라 하는 것처럼 해녀들의 생활 터전인 바다를 ‘바당밭’이라 한다. 바다에서 밀물과 썰물에 따라 잠기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하는 가까운 바다를 조간대라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간만의 차가 큰 사리 때는 많이 드러나지만 간만의 차가 적은 조금 때는 그만큼 적게 드러난다. 이 밀물과 썰물의 차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가두기 위하여 갯가에 돌맹이를 쌓아 마련한 어로 시설을 제주에서는 ‘원’, ‘원담’ 또는 지역에 따라서는 ‘갯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¹⁷⁹⁾ 사계리에서는 보통 ‘원’이나 ‘원담’으로 불린다. 사계 포구의 ‘개당 할망당’ 바로 동쪽 바닷가에 동편원이 있었다고 하고, ‘납데기’, ‘군여’, ‘절장개원’, ‘족은원’, ‘큰원’, ‘모살원’, ‘모을원’ 등 다양하게 있었으나 현재 그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다.

원담 있어난, 절장개로, 원담 있어났주게, 원담 있어나신디, 옛날에 구릿지도 잡안. 궤기 이름 거먼 거 구루지게, 구룻¹⁸⁰⁾, 이디서 구룻이엔 뱅에돔고라 옛날에, 구룻이엔.

(‘원담’ 있었지. ‘절장개’로, ‘원담’ 있었었지, ‘원담’ 있었는데, 옛날에 ‘구릿지’도 잡았어. 고기 이름 검정 거, ‘구루’지. ‘구룻’. 여기서 ‘구룻’이라고 해, ‘뱅에돔’을 옛날에, ‘구룻’이라고.)

- 허순옥 구술

179)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도서출판 각, 2024, 123쪽.

180) 뱅어돔의 제주어로 ‘구리지’, ‘구룩’, ‘구릿’, ‘귀릿’, ‘뱅에돔’ 등으로 불린다.

옛날에 멜 막 들어와났져. 게민 막 간에 막 거려 와나고, 설쿹데레. 게맛더레. 배 매는디. 멜 들어와근에 막.

(옛날에 멸치 막 들어왔었지. 그러면 막 가서 떠서 왔었고, ‘설쿹’으로. ‘게맛’으로. 배 매는 데. 멸치 들어와서 마구.)

- 고옥연 구술

납데기 모양으로 누룩빌렌디, 그 잠수함 거기 허여났지. 불락통, 불락여, 그냥 검은 설덕, 여가 이추룩 이서 낮주 기. 옛날에는 가에 궤기덜이 막 왕, 가에 숨영, 대막떼기로만 해도 고기덜 오죽 나까서게.

(‘납데기’ 모양으로 ‘누룩빌레’인데, 그 잠수함 거기 해났지. ‘불락통’, ‘불락여’, 그냥 검은 ‘설덕’, 여가 이렇게 있었었지. 옛날에는 가에 고기들이 막 와서, 가에 숨어서, 대막떼기로만 해도 거기들 오죽이나 뉘았나.)

- 천영자 구술

원담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육지부의 석방렴(石防簾)이나 돌밭의 기능과 비슷하지만, 보통 제주의 원담은 마을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태풍이나 파도 등으로 원담이 훼손되면 마을 사람들이 동원되어 보수한다.¹⁸¹⁾ 사계리의 원담은 규모로는 작지만 다수의 원담이 있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그 흔적을 찾을 수는 없다.

아 왜 그러니까, 멜 여기 막 모살에 지치곡 해났주게, 군여에도 지쳐 낮지양, 절장개, 막 멜 지쳐부난, 우리도 막 거려났주기 요디 완에.

(아 왜 그러니까. 멸치 여기 막 모래에 쳤었지. ‘군여’에도 치고 하니까, ‘절장개’, 막 멸치 쳐서, 우리도 막 건 쳤었지.)

- 허순옥 구술

좀 자단에 모기장 견언에 간 막 멜, 탈탈이 헨 폴레도 멩겨난.

(잠 자다가 모기장 견고 가서, 막 멸치, 탈탈이 해서 팔러도 다녔었지.)

- 허순옥 구술

181)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도서출판 각, 2024, 123쪽.

우리도 원 잇수다. 원담예, 저 축구장 앞이, 절장개원, 쪼그만 헌 거, 경 헌디 크지 안헤. 막 큰 고기도 이마니 들어와나서. 어린 땐.

(우리도 ‘원’ 있어요. ‘원담’이요. 저 축구장 앞에, ‘절장개원’, 자그마한 거, 그런데 크지는 않아. 막 큰 고기도 이만큼 들어왔었어. 어릴 때.)

- 고희봉 구술

원담은 사계리 바다 여러 곳에 많이 산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천혜의 자연은 근처 송악산 일본군 진지동굴과 알뜨르 비행장이 있다는 지리적 위치로, 일제 강점기에는 축항 공사가 이루어졌고, 일본군이 지냈던 관사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건물은 해방 후 학교로 활용되거나, 한국전쟁 이후는 갯 입영한 신병들의 장병대기소로 활용하기도 했다.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축항, 거기 사고 잘 나는 디, 일본이 만들안. 멘딱 부서전. 축항 잇지예, 태풍에 보수허긴 보수헷인디.

(축항, 거기 사고 잘 나는 데, 일본이 만들었지. 모두 부서졌어. 축항 잇지요. 태풍에 보수하기는 보수했는데.)

- 고희봉 구술

원에는 물 싸불민, 동글락허게 에워싸진 디 그라 원이엔 허주게. 경 허민 옛날엔 손 디밀양게, 원에 물고기도 들어강 못 나오기도 헤. 멜도 들민 저, 소쿠리 그경장 저레 착착착 데경, 올 땐 주성 왓주게. 바룻도 툃툃 띠곡게, 원에. 자연으로 만들어진 거. 절장개도 다 자연으로 만들어진 거. 그추록 헐 사름도 었어.

(원에는 물 썬면, 동그랗게 둘러진 데를 원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옛날에 손 넣어서, 원에 물고기도 들어가서 못 나오기도 헤. 멀치도 들어가면 저, 소쿠리 가져가서 저쪽으로 착착착 던져서, 올 때는 주워서 왔지. 오분자기도 툃툃 떼고, 자연으로 만들어진 거. ‘절장개’도 다 자연으로 만들어진 거. 그렇게 할 사람도 없어.)

- 천영자 구술

제주의 전통적인 어로 방식인 원담은 바닷가에 돌을 쌓아 만든 일종의 어로 시설로 사계리의 경우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원담의 크기가 그리 크지 않았음을 증언한다. 하지만 그 양은 규모와 상관없이 꽤나 많은 양을 자랑했던 모양이다. 모기장으로 떠서 팔리 다닐 정도였다는 이야기가 참 정겹다.

4-2-2. 막사리불턱

현재 형제섬의 ‘불턱’¹⁸²⁾은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형태는 남아있다고 한다. 제보자 천영자는 ‘불턱’에서의 옛 추억담을 구술하였다.

막사리불턱. 요디가 영하면 올로 영 들어강 동글락동글락하게 돌망치로 좀 약간 바람 막아주는 거이. 납작한 거는 이제 짐 부렁 탁하고이. 불턱은 매끈하게 다 멘드라시네. 옛날에는 잔디처럼 저기 가면 달래가 경 많아.

(‘막사리불턱’. 여기가 이렇게 하면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서 동글동글하게 돌망치로 좀 약간 바람을 막아주는 거. 납작한 것은 이제 짐을 내리고. ‘불턱’은 매끈하게 다 만들어놨었지. 옛날에는 잔디처럼 저기 가면 달래도 그렇게 많았어.)

- 천영자 구술

4-2-3. 돌고래

해녀들이 물질할 때 만나는 바다 동물 가운데 하나인 돌고래를 사계리 해녀들은 ‘수예기’라고 부른다. 제주도 동쪽과 서쪽은 문화만 다른 것이 아니라, 말도 서로 다르다는 것을 해녀들도 제주 나들이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 돌고래를 동쪽 해녀들은 ‘곰세기’라고 부르는 것에 반해 사계리에서는 돌고래를 ‘수예기’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특히 혼자 다니는 ‘수예기’는 ‘웨수예기’라고 부르는데 돌고래가 나오면 ‘물알로 물알로’라고 외치면서 바닷물 아래로 헤엄쳐 갔다고 한다. 그리고 ‘높이 뛰라, 고운 아기 보게’라고 하면 돌고래가 위로 뛰어올라 배 밑을 보여주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돌고래 무리를 떠나서 혼자 다니는 돌고래는 무서워했다. ‘웨수예기 멍심허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혼자 다니는 돌고래 뒤에는 큰고기인 상어가 오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동편이는 돌고래도 그쪽에도 막 해주만은, 저기가 더 많더라이. 거기는 곰세기엔 헨 게, 여기는 수예기.

(또 동쪽은 돌고래도 그쪽에서는 많았지만, 저기가 더 많더라. 거기는 ‘곰세기’라고 하던데, 여기는 ‘수예기’.)

- 강복순 구술

182) 불턱은 돌담을 쌓아 바람을 막고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만든 곳으로 해녀들이 작업 도중에 물으로 나와 잠시 쉬는 곳을 말한다.

경 험디, 물 알로 물 알로 하는 게 7따개. 물 알로 물 알로 한 건 똑7따. 물 알로 물 알로 허민, 아이네덜이 말을 다 알아먹어가지고 영, 물 밑으로 넘어가. 알로.

(그런데, 물 아래로 물 아래로 하는 것이 같애. ‘물 알로 물 알로’ 하는 거는 똑같아. ‘물 알로 물 알로’ 하면, 애네들이 말을 다 알아먹어서 이렇게 물 밑으로 넘어가, 아래로.)

-강복순 구술

튀멍 지나가지 않고. 튀지 않고 들어가. 요렇게 튀싸정 가. 물 알로 튀싸정, 헤영 허주게, 배떼기. 쉼보다 더 커, 쉼 보다.

(튀면서 지나가지 않고. 튀지 않고 들어가. 요렇게 튀집어져서 가. 물 아래로 튀집어져서. 하양 하거든. 배 가. 소보다 커, 소보다.)

-강복순 구술

물 알로, 물 알로 허당, “높이 뛰어~ 고운 아기 보게!”, 허민 이쁜 아기 보켄, 아이네덜이 경충 튀어! 이만큼 튀엇 당 탁! 내려 왕 딱! ‘곤 애기 보게.’ 허민, 아이네덜이 팡당 뛰어. 다 말 알아 먹어.

(‘물 알로, 물 알로’ 하다가, “높이 뛰어라~ 고운 아기 보게!” 하면 예쁜 아기 보겠다고, 애네들이 경충 뛰어! 이만큼 튀었다가 탁! 하고 내려와서 딱! ‘고운 아기 보자.’ 하면, 애네들이 팡당 뛰어. 다 말 알아먹어.)

-강복순 구술

아이네덜이 많이 수록으로 갈 때는, ‘물 알로 물 알로’ 넘어가, 험디, 옛날 어른덜 말이양, “하나만 다니는 디라근 에 조심허라.” 수에기 하나만 다니는 디. 거기는, 수에기 넘어간 자리에 고기 먹을라고 그, 큰 거 다닌덴. 쫓앙. 상 어. 쫓아다닌덴 조심허렌. 거난 웨수에기렌 허주게이, 혼자 가. “웨수에기 신 디랑 조심허라.” 혼자 다닌다는 말로 웨수에기. 웨수웨기 조심허라고, 뒤에, 큰 고기 잇저.

(애네들이 많이 때로 무리 지어 갈 때에는, ‘물 알로 물 알로’ 넘어가서 그런데, 옛날 어른들 말씀이 “하나만 다니는 데는 조심해라.” 돌고래 하나만 다니는 데, 거기는 돌고래 넘어간 자리에 고기 먹으려고 그, 큰 거 다닌다고. 쫓아서. 상어. 쫓아다닌다고 조심하라고. 그래서 ‘웨수에기’라고 하는 거지. 혼자 가. “웨수에기 있는 데는 조심해라.” 혼자 다닌다는 말로 ‘웨수에기’. ‘웨수에기’ 조심하라고. 뒤에 큰 고기 있다고.)

-강복순 구술

해녀들이 물질하다 보면 돌고래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때 해녀들은 돌고래를 피하는 방법으로 ‘물 알로, 물 알로’라고 직접 돌고래에게 말한다. 돌고래를 보면서 물 아래로 가라는 뜻이다. 돌고래가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는 동안 해녀들은 물 위로 올라와서 무리를 지어 위기를 넘긴다는 뜻이다.

4-2-4. 황우치와 설콤바당에서 전해지는 산호잠녀와 바다거북의 이야기

바다는 해녀들에게 여러 해산물을 공급해 주는 보물 창고이면서, 거친 물속 환경에서 물질을 해야만 할 정도로 위험한 장소이다. 제주 속담 ‘저승에서 별어서 이승에서 쓴다’는 목숨을 담보로 살아가야 하는 해녀들의 고달픈 삶을 의미한다. 저승과 이승을 오갈 때, 자연스럽게 바다거북을 요왕사자로 여기게 되었다. 해녀들은 바다에서 물질을 할 때 바다거북을 만나기도 하며, 때로는 물으로 올라온 거북이를 지극정성으로 모신 후, 바다로 돌려보낸다. 바다거북은 살아있는 해양동물이지만, 해녀들에게는 수호적인 신(神)이다.

안덕면 사계리에 전해오는 산호잠녀(珊瑚潛女) 이야기 있다.¹⁸³⁾ 내용은 이렇다. 『모슬포에 한 잠녀가 있었는데 천연두(天然痘)를 겪지 아니한 사람이다. 김로포(金露浦, 현 사계 포구)에 갔다가 대모어(玳瑁魚)가 고립된 물 웅덩이에 있는 것을 보고 불쌍하게 여겨 바다에 놓아 주었더니 멀리 가다가 마치 절하며 감사하는 듯하였다. 그 뒤 용머리 아래에서 전복을 캐었는데 수중으로 들어갔더니 조개로 장식한 궁궐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궁궐은 휘황찬란한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용궁에서 만난 할머니가 감사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내 자식을 살려주어서 고마운 마음 다 이를 바 없다’고 하면서 꽃 한 가지를 꺾어 주며 말한다. ‘이 꽃을 가지고 있으면 천연두를 면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수중에서 나와서 보니 그것은 산호꽃이었다. 늙어 죽을 때 까지 천연두에 걸리지 않았다.’

여기서 대모어는 매부리바다거북이며, 국내에 보고된 바다거북류는 매부리바다거북을 비롯하여 푸른바다거북, 붉은바다거북, 장수거북, 올리브바다거북 등 5종이다. 푸른바다거북은 회유하기도 하지만, 제주와 일본 근해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 거북은 십장생(十長生)의 한 동물로, 재물운과 장수를 상징한다. 가정과 마을의 무사 안녕을 위해, 거북 박제품을 제작하거나 거북 형상 또는 거북 문양의 생활용품을 만들기도 했다. 비석 받침돌인 거북 모양의 귀부는 죽은 사람의 영혼까지 오래도록 되새기도록 하였으며, 제주 곳곳에는 거북과 관련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183) 박용후, 『원대정군지』, 박문출판사, 1968, 19쪽.

한때 거북의 상징적 의미는 일부 고관대작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욕심으로 이어졌다. 탐라시대, 전국에서 받치는 진상품 중에 제주에서 올라오는 거북 등껍질이 단연 으뜸이었다. 특히 바다거북류 중에서 매부리바다거북의 등딱지가 가장 귀한 대접을 받았다. 등껍질은 비녀, 목걸이, 빗 등 장신구로 쓰일 정도로 귀한 재료였으며, 보석만큼이나 귀하게 여겼다. 하지만 거북은 아무 때나 볼 수 없을뿐더러, 살아있을 때 잡아야 하기에, 등껍질을 구하는 일은 고역이었다. 거북을 받친 섬사람보다 거북 등껍질이 더 귀한 대접을 받은 것이다. 972년 전 탐라국 왕자 수운나(殊雲那)는 고려 정부에 거북 껍데기를 비롯하여 우황, 쇠뿔, 쇠가죽, 나육(螺肉), 비자, 해조류 등을 받친 기록이 나온다. 주목할 만한 물품 중 하나가 바로 거북이다. 예전에는 제주도 해안의 모래밭이 거북이 주요 산란 장소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동아시아 해역을 지나던 거북이들이 도내 연안을 따라 발달한 모래밭에 알을 낳았을 것이다. 탐라국 사람들은 바다거북의 종류를 비롯하여 바다거북의 이동 경로, 산란 장소, 산란 시기, 포획 방법 등에 아주 익숙했다. 진상품에 속한 바다거북을 귀하게 모신 관습이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다.

한편, 제주 곳곳의 해안가처럼 사계리의 '황우치'와 '설콤바당' 모래밭에서도 떠밀려 온 바다거북류의 사체를 볼 수 있다. 안타깝게도 바다거북은 인간이 버린 그물이나 플라스틱에 의해 희생되고 있으며, 산란 장소까지 빼앗겼다. 최근 제주도정에서는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 추진하여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관련 절차를 수행 중인데, 바다거북도 제주해녀들에겐 역사적, 신앙적 존재임과 동시에 조상신이기에 바다거북의 지위가 크게 존중되기를 기대해 본다.

탐라국 왕자가 거북 등껍데기를 바치다

耽羅國王子殊雲那，遣其子陪戎校尉古物等來，獻牛黃·牛角·牛皮·螺肉·樞子·海藻·龜甲等物，王授王子中虎將軍，賜公服·銀帶·彩段·藥物。



탐라국(耽羅國) 왕자 수운나(殊雲那)가 아들 배용교위(陪戎校尉) 고물(古物) 등을 보내어 우황(牛黃)-우각(牛角)-우피(牛皮)-나육(螺肉)-비자(樞子)-해조(海藻)-구갑(龜甲) 등 물품을 바치므로, 왕이 (탐라국) 왕자에게 중호장군(中虎將軍)을 제수(陞授)하고 공복(公服)-은대(銀帶)-채단(彩段)-약물(藥物)을 하사하였다.

※ 비자(樞子)나무는 바둑판 재료로 으뜸이며, 거북 등껍데기는 장식구용으로 으뜸이다.

◀ <高麗史> 世家 卷第7, 文宗 7年(1053年) 2月
출처 <https://db.history.go.kr>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사진 341 고려사에 등장하는 탐라국 사람들의 거북 진상 기록(삼화 김병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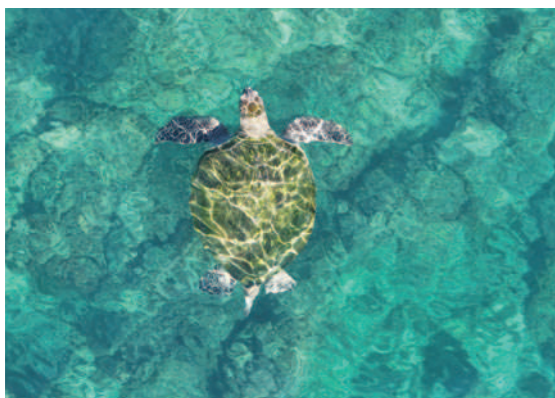


사진 339 푸른바다거북(사진 오승묵)



사진 340 매부리바다거북(소장 경북대학교박물관)



사진 342 좌초된 푸른바다거북의 사체(사진 양수남)



사진 343 그물에 희생된 붉은바다거북(사진 김병엽)

4-2-5. 사계리 춘지등대

사계리에는 토끼포구와 관련해 부부의 애향심이 담긴 재일 동포 할머니의 미담 이야기가 담긴 춘지등대가 있다. 일본 오사카(大阪)에 사는 잠수 출신 김춘지(金春志) 여사가 30여 년 전인 1995년에 1억 원을 희사해서 등대를 세웠다.¹⁸⁴⁾ 사계리 토끼포구의 춘지 등대는 태양열을 이용해 섬광을 밝히고, 높이 13m, 직경 2.2m, 자가 축전방식으로 13마일 거리의 선박들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사계 포구 방파제 끝에 붉은색 등대가 형제섬을 바라보며 서 있는데, 등대를 건립한 후원자가 각인되어 있다.



사진 344 춘지등대

그 등대 일본 할머니, 그거 최근 일이니까 많이 알아. 원래 할망은 사계고 하르방은 열리고, 열리도 등대가 있어. 서로 마주 보는 등대. 구십오 년도엔가 열리, 여기 사계는 구십팔 년도 전에는 등대가 없어 낫수다. 사계가 친정이니까 사계 왔다가 등대도 짓고 허난, 등대라도 하나 해 주자 해서 만든 거.

(그 등대 일본 할머니, 그거 최근 일이니까 많이 알아. 원래 할머리는 사계리이고 할아버지는 예레동이고, 예레동에도 등대가 있어. 서로 마주 보는 등대. 구십오 년도인지 예레동, 여기 사계는 구십팔 년도 전에는 등대가 없었어요. 사계가 친정이니까 사계 왔다가 등대도 짓고 하니깐, 등대라도 하나 해 주자 해서 만든 거.)

-이경옥 구술

184) 사계리 마을회, 『사계리誌-明沙碧溪의 고장』, 대영인쇄사, 2015, 735쪽.

춘지등대는 올레 8코스 예레 포구에 있는 강진황이 세운 예레 진황등대와 짝을 이루어 부부 등대라고도 불린다.¹⁸⁵⁾ 진황등대는 김춘지 할머니의 남편인 강진황(姜進璜)씨가 자신의 고향인 중문 예레(하예)동 포구에 등대를 설치해 진황등대라고 불린다.



사진 345 춘지등대



사진 346 진황등대

185) 디지털서귀포문화대전 참조. (<https://seogwipo.grandculture.net>, (검색일 2025.11.30.))

마치는 글

해녀문화는 마을을 지탱해 온 공동체 유산이다

〈사계리 해녀와 마을 이야기〉는 2025년 마을기록·해녀문화 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를 대상으로 수행한 해녀문화 기록의 결과보고서이다. 보고서는 해녀 개인의 생애사를 넘어, 해녀가 속한 마을 공동체, 바다밭, 노동 체계, 생활문화, 역사·신앙·자연유산까지 유기적으로 조망함으로써 사계리 해녀문화의 총체적 구조를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1장은 ‘조사 개요’로 조사 목적, 조사 범위, 연구진, 현장 조사 일정, 제보자, 정리 방법 등을 다루었다. 사계리 조사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고, 마을 현황, 어촌계와 잠수회 운영, 바다밭 구획, 수확물, 물때 체계, 물웃과 물질 도구, 바깥물질, 농업·수산업, 공동체 조직, 문화유산 전반을 아우르는 다층적 조사가 이루어졌다.

최근 제주해녀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해녀문화는 마을 공동어장을 기반으로 형성·유지되어 온 공동체 문화이므로, 해녀 연구는 곧 마을 연구이기도 하다. 사계리 사례는 해녀문화 보존이 단순 직업 전승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 구조 유지의 직결된 문제임을 보여준다.

2장은 ‘사계리와 해녀’로 마을 소개, 어촌계와 잠수회, 어촌계 활동을 정리하였다. 사계리는 산방산과 단산을 배경으로 형성된 마을로, 동쪽 ‘소금막’에서 서쪽 ‘똥물내리는디’까지 이어지는 넓은 바다밭을 보유하고 있다. ‘황우치’, ‘설콧바당’, ‘앞바당’, ‘납테기’, ‘군여코지’, ‘절장개’, ‘형제섬’ 등 어장은 오랜 세월 해녀들의 경험과 기억 속에서 체계화되어 왔다. 사계리 해녀들의 물질은 개인 노동이 아니라 공동체적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며, 잠수회와 어촌계는 어장관리, 수확물 분배, 작업 규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3장은 ‘사계리 해녀문화’로 바다밭, 수확물, 물때, 물웃과 물질 도구, 바깥물질, 어장관리를 정리하였다. 사

계리 해녀문화의 핵심은 ‘바다밭에 대한 집단적 기억’이다. 각 여와 원의 위치, 수심, 조류, 주요 수확물 등은 구술과 경험을 통해 세대 간 전승되어 왔다. 또한 해녀들은 어장관리를 공동체의 의무로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해 왔다. 물때를 맞춘 작업, 상군 중심의 깊은 여 물질, 바깥물질 경험 등은 사계리 해녀들의 숙련성과 강인함을 드러낸다. 해녀문화는 기술적 숙련과 공동체 윤리가 결합된 생활 문화 체계라 할 수 있다.

4장은 ‘사계리 일과 생활’로 농업, 수산업, 공동체 활동을 정리하였다. 농업은 사계리에서 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작물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수산업에서 머구리 경험담도 기록하였다. 계를 통해 노동과 공동체 활동, 상호부조의 관행은 생활 문화의 핵심 기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장은 ‘사계리 문화유산’으로 역사 문화, 생활 문화, 신앙 문화, 자연과 해양 문화를 정리하였다. 산방연대, 대정향교 등 역사 문화 자산과 큰물, 새미물 등 생활 문화 유산이 분포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산과 산방산, 형제섬으로 이어지는 자연·해양 경관은 해녀 노동 공간과 결합되어 독특한 문화지형을 형성한다. 사계리 문화유산은 자연·역사·노동·신앙이 통합된 복합문화체계로 이해되어야 한다.

사계리 해녀문화 조사 결과는 제주해녀 정책이 단순한 문화 보존 차원을 넘어, 공동체 구조와 자원 관리 체계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해녀문화는 개인의 직업 기술이 아니라 마을 공동어장을 기반으로 형성된 집단적 생계 체계이다. 해녀 개인의 지원을 넘어 공동체 단위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에 둔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고령 해녀가 안정적으로 물질을 지속할 수 있는 어장 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신규 해녀가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소득 보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 복지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의 세대 교체를 관리하는 정책적 장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바다밭이 기후변화와 해양 환경 변화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것을 개별 마을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 지역별 어장 환경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관리 공동체 활동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향후 해녀문화 정책은 해녀를 문화유산의 상징으로만 바라보는 접근을 넘어, 세대 전환·자원 관리·공동체 유지라는 구조적 과제를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문헌DB자료〉

고려사>열전 권제12>제신>유응규>유자량, 국사편찬위원회(한국고대사료 DB).

삼국유사>권 제5>제7감통>육면비념불서승, 국사편찬위원회(한국고대사료 DB).

〈단행본〉

강경민 외 3인, 『제주학연구 22 제주도 마을어장관리 변천사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015.

고순보, 『브로콜리 재배 기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 원예연구과, 2011.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생업기술사전-어업2』, (주)사월오일, 2021.

남제주군, 『남제주군의 문화유적』, 세림원색인쇄사, 1996.

박기화 외 6인, 『제주도 지질여행』, 한국지질자원연구원·제주발전연구원, 2013.

박용후, 『원대정근지』, 박문출판사, 1968.

사계리 마을회, 『사계리誌·明沙碧溪의 고장』, 대영인쇄사, 2015.

오성찬, 『제주의 마을 시리즈-귀양객들 님이 스민 大靜고을』, 반석, 1988.

울산광역시 문화원연합회, 『울산지역문화연구-울산의 옛 머구리들』, 울산 향토사 통합연구지 제5호, 울산광역시 문화원연합회, 2017.

제주도, 『제주여성문화: 제주문화자료총서⑧』, 제주도, 2001.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도 지질여행』, 제주발전연구원, 2013.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 『단호박 재배 기술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 2020.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근채류 재배 기술 당근·무』,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2023.

제주특별자치도 세계문화유산보존사업회, 《(통사로 살피는) 제주해녀》, 제주특별자치도, 2015.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도서출판 각, 2024.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제주 해녀옷 이야기』, 내내로전자출판, 2012.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제주해녀의 생업과 문화』, 하나CNC, 2008.

제주특별자치도·(사)제주섬문화연구소, 『제주도해녀문화총서Ⅳ-옛 중문면 안덕면』, 도서출판 각, 2023.

제주특별자치도·(사)제주전통문화연구소, 『제주신당조사(서귀포시권) 연구』, 도서출판 각, 2009.

제주특별자치도·(사)제주전통문화연구소, 『제주신당조사(제주시권) 연구』, 도서출판 각, 2008.

제주특별자치도·제주연구원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제주 물 이야기』, 제주지하수연구센터, 2023.

진성기, 『제주도무속본풀이사전』, 민속원, 2002.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도 접접계契문화조사보고서』, 일신옵셋인쇄사, 2010.

해양수산부·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024 어촌계현황조사』, 2024.

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96.

〈논문과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제주학연구센터, 『제주 호적중초의 문화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 보고서』, 제주콤, 2020.

강수경, 『제주도 바다밭 지식과 어로 민속 연구- 제주시 조천읍 사례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김석준, 『제주도 중산간부락민의 계집단 참여와 사회적 유대』, 『제주도연구 제2집』, 제주도연구회, 1985.

김충국 외 3인, 『참깨 주산지의 재배실태와 수량 및 소득에 관한 연구』, 『북방농업연구』, 북방농업연구소, 2025.

박준범 외 5인, 『제주도 형제섬 화산체의 지질과 화산활동』, 『자원환경지질 54권 2호』,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2021.

엄향란 외 4인, 『정식시기에 따른 고랭지 양배추의 수확 및 저장중 품질변화』, 『생물환경조절학회지 21권 2호』,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2012.

오서영 외 2인, 『남부지역 논에서 2모작 재배 시 동계 밀과의 작기연결성을 고려한 참깨의 최적 파종시기』, 『한국농림기상학회지 제27권 제3호』, 2025.

오서영·고석찬, 『제주지역의 화산회토양과 비화산회토양에서 재배된 난지형 마늘의 생장과 무기성분 함량』, 『원예과학기술지 제38권 제1회』, 한국원예학회, 2020.

좌혜경·강정식, 『제주학연구 12 제주해녀문화 실태조사 및 지속 가능한 보전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014.

황석규 외 2인,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구술조사·부대시설 위치를 중심으로』,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019.

〈신문자료〉

강동삼, 『추운 날이 되어서야 소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안다...추사 '세한도'처럼'[강동삼의 벽차오름]』, 『서울신문』, 2024.6.8. (<https://v.daum.net/v/20240608080251948>(검색일 2025.11.30.))

고병련, 『옹이 물로 변해 마을 지키는 용머리 산물』, 『제주의 소리』, 2018.10.24.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211096>(검색일 2025.10.15.))

고병련, 『추사가 다도(茶道)하며 인정한 명수 '석천(石泉) 산물』, 『제주의소리』, 2018.10.27.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211185>(검색일 2025.11.30.))

고성식, 『해안사구의 재발견』③제주 황우치 해변에 33만t 모래 붓고도 침식 막지 못해』, 『연합뉴스』, 2025.6.29. (<https://v.daum.net/v/20250629080205480>(검색일 2025.11.30.))

김동은, 『연안 질산염 어디서 왔다...기원 첫 추적』, 『JIBS 제주방송』, 2025.5.5. (<https://v.daum.net/v/20250505210837456>(검색일 2025.8.16.))

이승록, 『고마움 잊지 않은 사계리, 조남상씨 흉상 제막』, 『제주의소리』, 2015.2.25.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58727>(검색일 2025.11.30.))

조병욱, 『해수면 상승의 공포...용머리 해안 2100년에 수몰 위기』, 『세계일보』, 2015.12.31. (<https://www.segye.com>, (검색일: 2025.8.17.))

천권필, 『물 좋은 제주 옛말...용천수 1025→661곳 줄어 마실 물』, 『중앙일보』, 2019.7.11. (<https://v.daum.net/v/20190711050102616>(검색일 2025.11.30.))

허호준, 『추사의 숨결 따라 걷는 사색·인연·집념의 길』, 『한겨레』, 2018.11.14. (<https://v.daum.net/v/20181114113602590>(검색일 2025.1130.))

홍창빈, 「제주 산방산·용머리 해안 지질트레일... “100만년 전 제주로 떠나요”」, 『헤드라인제주』, 2025.7.23. (<https://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4049> (검색일: 2025.08.19.))

〈누리집〉

고영철의 역사교실>사계리 용머리 해안경도진지 참조. (http://www.jejuhistory.co.kr/bbs/view.php?id=local&page=1&sn1=&divpage=1&sn=on&ss=on&sc=off&keyword=%BB%E7%B0%E8%B8%AE&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449(검색일 2025.11.30.))

국가기록원>새마을운동 기록물 참조. (<https://theme.archives.go.kr/next/semaul2016/viewSub.do?dir=sub02&subPage=sub02-1-1>(검색일 2025.11.30.))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포털(<https://www.heritage.go.kr/heri/idx/index.do>(검색일 2025.11.30.))

디지털서귀포문화대전 참조. (<https://seogwipo.grandculture.net>. (검색일 2025.11.30.))

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query=%EC%88%98%EC%82%B0%EC%97%85%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dt=20201211#undefined>(검색일 2025.11.9)).

사계리 사무소 홈페이지 참조. (<http://www.sagye.co.kr/index2.php>(검색일 2025.11.4.))

사계초등학교 홈페이지 참조. <https://school.jje.go.kr/sagye/main.do>(검색일 2025.11.30.)

수협 공식 유튜브 채널-바닷말 나들이 “머구리”편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JP-8PmvgdVY>(검색일 2025.11.30.))

제주학연구센터 아카이브>테마 아카이브>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검색어 잠수기선 (<http://www.jst.re.kr/haenyeo/dictionary.do?id=75>(검색일 2025.11.30.)).

한국수산자원공단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https://www.fira.or.kr/fira/fira_010201_2.jsp?mode=view&article_no=34596&board_wrapper=%2Ffira%2Ffira_010201_2.jsp&pager.offset=50&board_no=7(검색일 2025.11.7)).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먼허어업의 종류와 수심한계 참조.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8916&pageFlag=&sitePage=1-2-1>(검색일 2025.11.30.))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참조(<https://jumin.mois.go.kr/#>(검색일 2025.11.30.)).

〈자료〉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구통계 결과보고서 참조.

모슬포수협 내부 자료(2024년 기준).

찾아보기

가다리왓지미 53	갯담 284	공영호 30, 37, 191
가마리왓 62	거리릿여 50, 51	관제 127, 128
가마우지 64, 269	거북손 88	구멍갈파래 99
가물통 246	거스물 237	구제기 71
가입비 33	검은질 26	구쟁기 71
가축분뇨 70	검정소중의 109	군벗 91
가파도 268	경로당 198, 200, 234	군부 90
간조 103	계 215, 216	군소 83
갈치 192	고개왓 222, 282	군수 83
갈치잡이 192	고구마 174, 176	군애물 237, 244
감자 188	고구마 저장고 204	군여코지 44, 56
감저 창고 177	고도리왓지미 50, 53	굴 85
감태 101	고래표집수북 118	굴멍이 83
감태공장 101	고려시대 215	굵은줄격판담치 89
감태여 44, 61	고망난 섬 64	권당 217
개군소 83, 84	고무 버선 117	권당 217
개당 249, 259, 264	고무옷 113, 145, 153	귀마개 122, 125
개당 할망당 284	고무장갑 117	그릇계 217
개맛디 68	고비물 237	그물주머니 132
개창여 50, 53	고정낚시류 192	금물로리 26
개파래 85, 99	곰세기 287	금산잠수북 118
갯녹음 162, 168	굽은개 50	금장지 273
갯닦이 78, 85, 169	공공시설 202	금채기 30, 71
갯닦이 도구 142	공덕상사 118	김장 211
갯닦이용 호명이 142	공동 참고 짓기 200	김춘지등대 53
	공동어장 31, 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졸갱이 85 졸레기섬 64 졸르락당 249 졸애기섬 64 까바리 111 까부리 111 각좁녀 32 공치 192 꿈드림문화숲 2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눈뒹이 122, 124 눈앙고등 91 뉴딜사업 161, 1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편원 276, 284 돼지 249 두드럭고동 91 두령박 152 두무날 103 두물 103 듬북 102 드레줄 131 따개비 85 똥군 31, 32 똥물각 60 똥물내리논디 60, 87 뚜데기 111, 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망사리 132 망아리 132 매부리바다거북 289 머구리 193 멀칭 179 메밀 183, 190 메역무래 135 메옹이 91 메인심방 252 면장갑 117 멸치 192 명당 273 명륜당 229 모릿줄 192 모살원 284 모슬진 225 모자반 94, 100 몰레통 61, 87 무 175, 187 무쉬 103 무신정변 216 무인 216 무형유산 103 묵은학교 220, 222 문데기보말 91 문섬 64, 68 문어 69, 87 문인 216 문전본풀이 91 물때 103, 165 물모자 111 물소중의 108, 110 물수건 108, 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안경 122 물웃 108 물적삼 109, 110 물질 103, 107 물질 도구 108, 127 물체 112 물토세기 83 미늘 140 미역 69, 93, 146 민동구제기 71 민속동네 203 밀물 103 므른뱃디 105 므을원 276, 284 몰아진굴 85 몸 100 몸국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릇 77 바릇잡기 30, 40 밭어 62 방법창립 213 방어 192 방에여 61 밭 174 밭벼 183 배말 92 배타성 209 뱃물질 107 벌금 30 벌러진여 50 벌러진여지미 50, 52 베늘 175, 204, 247 벵어돔 192 별제 247, 248 병풍계 218 보리 174, 175, 182, 183 보말 72, 91, 151, 152 복병목 226, 230 복봉목 226, 230 볼락여 50, 53 볼락좁네 32 볼락통 50 봉수대 225 부날 103 부녀회 167, 198, 209 부녀회 좌판팀 211 부녀회 주방팀 212 부시리 192 부영양화 70 부처님오신날 206
--	--	---	---	---	--

불이웃돕기 210	사장 154	서무날 103	쇠굽벗 91	신증동국여지승람 271	어업조합 29
불턱 112, 145, 275	사친회비 223	서울 103	수경 153	신항동 28, 200	어업협동조합 194
붉은바다거북 289	산동 228	석방령 285	수두리보말 91	썰물 103	어음 127, 131
붕어못 242	산방굴사 206, 272	석전대제 230	수리게 220	쓰레기 166	어장관리 30, 161
붕에못 204, 237, 242	산방덕이 272	선비 체험 230	수산 종자 방류 169	씨고구마 205	어장 청소 165
브로콜리 175, 185	산방배작 268, 273	선양도갑 264	수산단체 29		어장관리선 30, 32, 34, 37, 73, 191
블록형 168	산방복지회관 209	선제코지 55	수산물직판시설 34, 37	⊙	어촌계 29, 167, 198
블루카본 162	산방산 174, 225, 268, 271, 279	선주처사무실 34, 37	수산업 191	아근조기 103	어촌계 사무실 35
빌레원 47, 50	산방산 할망 250	선짓여 55	수산업협동조합법 29	아와비 154	어촌복지회관 34
빗 133	산방연대 225	설콤 47, 73, 84	수산종자 방류 161	아츠조금 103	언물 237
빗창 133	산방오름 271	설콤동네 28, 237	수예기 287	아홉무날 103	여덟무날 103
붉앙지미 61, 62, 87	산호 195	설콤바당 44, 47, 268, 289	수월봉 268	아홉물 103	여배파혼여 56
빼떼기 177	산호잠녀 289	설콤원 47, 48	수종 74	안동순여 61	여섯무날 103
빼떼기죽 176	삼국유사 215	성계 158	수중 74	안여 44, 62	여신 250
뽕돌 126	삼동 228	성계 69, 70, 78, 87	수중 갯닭이 164	알긴산 101	연디문은걸 50
⊙	삼동낭 131	성계 손질 순서 81	수통이 75	알정물 237, 241	연디동산 226
사계리 잠수회 정관 30	삼발이 230	성계 작업 도구 137	수핏 75	암수판몸 74, 79	연안공동어장 29
사계리 창고 201	삼원상사 118	성계분할기 140	순비기나무 284	암전복 74, 75	연철 126, 153
사계리마을회 167	상군 31	성산일출봉 268	숨은여 62	암핏 75	열두무날 103
사계리사무소 202	상군바당 32	세계지질공원 269	숫전복 74, 75	앞바당 44, 50	열두물 103
사계리해안체육공원 56	상금물로 28	세미물 238	스노쿨링 40	앞원 50	열무날 103
사계어촌계 30	상동 열매 228	셋정지 68	스쿠버 163, 164	앞조락 155, 158	열물 103
사계어촌계복지회관 38	상동나무 131	소그막 230	스쿠버다이버 168	애기구덕 275	열한무날 103
사계큰물당신 241	상좁네 32	소금막 44, 45, 230	스킨스쿠버 122	애기좁녀 31	열훈물 103
사계포구 268, 275	상좁수 32	소라 69, 71, 154	스티로폼 테왁 127	애플망고 175	염막 230
사계해녀의집 30, 34, 39, 69, 88	새마을 사업 200	소라잠수복 118	슬레이트집 204	양가닥작살 141	영가상 265
사들 159	새마을가꾸기 202	소라회 87	시비재 168	양가달소살 141	오르코미물 237
사라호 태풍 276	새미고개 228	소살 140	시비재 살포 161	양계물 237, 245	오리밭 113, 116, 153
사람발자국 화석 277	새미물 237, 238	소중의 109, 145	시비재 살포 사업 168	양배추 175, 181	오분자기 74, 77
사람발자국화석지 59	샘이물 238	속곳 108	시어 50, 51	어깨끈 109	오분제기 77
사막화 162	생고무 120	술대왓동네 28	시집살이노래 92	어깨마리 109	오씨아미당 249
사자에 154	생이물 237	송악산 174, 268	신년운세 255	어깨허리 109	오아가다 154
	생활용수 245	송죽동 28, 200, 205	신동여 44	어버이날 210	오징어 150

옥돔 192	웨트슈트 122	잠수병 195, 197	조물이물 237, 245	창고 202	큰밭동네 28
올리브바다거북 289	위패 264	잠수복 113	조업 193	채취규정 30	큰뽕고동 85
올코지 54	유교의례 247	잠수부 193	죽은눈 122	처낙 204	큰원 276, 284
웃섬 64, 269	유자량 216	잠수탈의장 34, 35	죽은동신여 50, 54	천신 248	큰좁녀 32, 144
왕좁네 32	유지작물 189	잠수회 29, 30	죽은원 284	천연두 289	큰좁네 32
왕후지지 273	유채 174	장갑 117	죽은좁녀 31, 144	천초 96	꼭테악 127, 152
왜호박 186	육상 갯닭이 165	장수거북 289	죽은좁네 32	청각 99, 163	콜락테악 127
외가닥작살 141	육지물질 150	장이여 62	중상화산 271	청년회 167, 198, 212	
외가달소살 140	은물 237	재동퇴적층 269	주낙 192	청밭 할망당 253, 264	㉔
요오드 101	응회물질 268	전북 69, 74, 133, 154	중군 31	청밭당 253	탄소흡수원 162
요왕굿 263	의문당 229	전북회 87	중군바당 32	청밭할망 249, 253	탈의장 155
요왕맛이 264, 265	이사 248	전염병 248	중좁네 32	체육대회 210	탐라순력도 268
요왕신 264	이사지신 249	전조 248	중좁수 32	초감제 264	탐방로 277
요왕질침 265	이퀄라이징 123	전조지신 249	지구온난화 276	총동문화 198	태세 248
용궁 289	일곱무날 103	전통지식 103	지미여 50	총허용어획량(TAC) 31, 72	태세지신 249
용다리창 59	일곱물 103	전표 155	지선어장 29	춘지등대 292	테악 127
용머리 167, 174, 268, 274, 279	일렛당 253	절간고구마 176	지질공원 279	출가물질 143	테악망사리 153
용머리응회환 268	입어권 30	절잔개 44, 56, 162, 163	지질트레일 231, 279	출력 203	테악무드등 만들기 30, 40
용왕굿 263	으담물 103	절잔개원 58	진여 50, 52	출항해녀 143	토끼포구 81, 275
용왕신 264	으섯물 103	절장개 44, 56, 62, 80	진지동굴 233	총효비 207	토끼동네 28
용천수 236, 239		절장개물 237	진황등대 293	치어 방류 170	토끼동네 개당 259
용해동 28, 200, 204, 234	㉘	절장개원 58, 284	질소 195	칭 95, 101	토산으드렛당 259, 264
우무 96	자립공동체 170	절장개탈의장 36	집괴암 269		톨 97
우뭇가사리 96	자율관리 공동체 170	절장포 275	좁수 31	㉙	톨파리 31, 32
우미 96	자율관리 어업 161	절장포탈의장 34, 36	중계호미 133, 135	칼륨 101	툇 94, 97
웃정물 237, 241	자율관리협회 86	접 215, 216	쪽 159	코팅 장갑 117	통굴 85
워케이션 171	작살 140	정물 241	쪽파 175, 184	콩 183	통신수단 225
원 284	작은샘이물 237	제 216		큰눈 122	투석 사업 162
원담 284	작지곳 61	제비점 255	㉚	큰뿔밭 으드렛당 258	
원등어리 50	잠녀 31	조 175, 183, 184	찰흙 204	큰물 237, 239	㉛
원정물질 143	잠수굿 264	조남상 234	참깨 189	큰물 할망당 252	파군산 226
왕이자량 274, 275	잠수기선 194	조락 132	참돔 192	큰물당 249	파군산악 226
웨수에기 287	잠수기업자 194	조류 103	참살이 185	큰물머리 251	팔 183

팽이고동 91	할망바당 32	형제섬 정화활동 213
펼해삼 86	항만대 230, 231	호명이 79, 85, 133
포제 247	해경 93	호적대장 234
푸른바다거북 289	해금 30	호적중초 234
풍어제 263	해남 33, 34	호종단 273
풍중 74	해녀 30	홍사리 132
플레이 사계 167	해녀체험 30, 40	홍아리 132
플로깅 167	해녀탈의장 34, 171	홍합 89
피 183	해빈퇴적층 269	홍합여 62
피성계 158	해산물 판매 211	홍해삼 86, 169
	해삼 69, 86, 87, 153	화산쇄설물 271
ㅎ	해삼 조락 156	화산쇄설층 269
하군 31	해삼티 156	화산재 274
하금물로 28	해삼티셔츠 156	화상못 246
하마 155	해수온 70	화석산지 279
하상못 246	해조류 70	환금작물 93
하좁네 32	해조류 이식 163	황돔 192
하좁수 32	허채 30	황우치 44, 46, 230, 268, 289
학부모회 198	헛무레 88	흑로촌 28
한무날 103	현충일 207	흘림냇시류 192
한조금 103	형제 해안로 282	흰소중의 109
한조기 103	형제섬 44, 63, 80, 94, 165, 174, 268,	히라스 192
한지형 마을 178	269	혼물 103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총서 82

마을기록·해녀문화(2025)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사계리 해녀와 마을 이야기

지은이 송정희 김완병 양인실 장재희 권미선 강수경
발행일 2025년 12월 19일
펴낸이 김완병
펴낸곳 제주학연구센터
6328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278, 3층
www.jst.re.kr

제작처 한그루
출판등록 제651-2008-000003호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로1길 21
www.onetreebook.com

© 제주학연구센터, 2025

ISBN 979-11-994020-8-9(93090)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밝혀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비매품

